

발간등록번호
2022-KIHF-196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2022. 12.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2022. 12.

연구기관 : 미래가족연구소
연구책임자 : 정영금 소장
공동연구자 : 정지영, 김현, 손동기
연구지원 : 윤은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 보고서는 미래가족연구소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됨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출생아수 감소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영향을 줌
- 이런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코로나 19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가족 돌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가족의 보호기능이 사회화되고 가족의 기능약화로 인해 많은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기에 그대로 노출됨
- 따라서 한국사회 가족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이 수립될 필요있음

○ 연구목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따른 역할 및 세부전략,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가족위기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연구문제 1)** (가족위기의 범위와 조작적 정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해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가족위기의 범위와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가족위기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가족의 위기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수립)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관리 지원을 위한 전략체계와 구체적인 실행과제 무엇인가?

□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건강가정기본계획 기간(2005년 ~ 2025년)
- 공간적 범위 : 여성가족부 및 타 중앙 부처,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가족 정책 위기 관련 주요국 중앙부처 정책
- 내용적 범위 : 정책적 가족위기 정의 및 지원 범위 제시,
가족정책에서 해야 할 가족위기 지원 방향과 지원체계 도출,
가족위기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실행 과제 및 관리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분석 및 내용 분석 : 국내외 가족과 위기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 자료, 통계자료, 언론보도 등, 국내외 가족위기 관련 서비스 내용과 제공 사례 분석

- 빅데이터 분석/텍스트마이닝 : 최근 5년 동안 사회분야 언론매체지(뉴스, 신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가족위기 관련 키워드 추출, 이슈 들 간의 관계 및 가족유형과 가족위기 이슈와의 관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가족정책, 행정학, 경영학, 위기관련전문가, 가족지원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 전문가 FGI : 가족위기 정의와 범위 추출,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관련 지표 선정,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성과 지표 개발 등에 대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그룹과 심층 인터뷰 실시
- 설문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관련 사업 현황, 서비스 지원 방안, 지역연계방안 등 조사

2. 이론적 고찰

□ 가족위기의 개념과 특성

○ 가족위기의 개념화를 위한 고찰

- ‘가족기능의 악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념화
- 법에서 정의된 위기가족의 개념에서 부터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을 적용

○ 가족위기의 범위, 관련요인 등을 토대로 가족위기 유형 구분

- 발달적 위기 :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
- 관계적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
- 개인적 위기 :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
- 가족외적 위기 :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국가간 전쟁이나 테러, 사회적 범위(유괴) 등

□ 가족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가족에 대한 접근

- 생태체계이론, 가족구조기능론, 발달이론, 가족자원관리이론, 가족갈등이론

○ 위기에 대한 접근

- 가족 스트레스 이론, 가족위기개입 모델, 건강가정 관점과 가족강점 관점

□ 국내 사례

○ 돌발적 사건으로 인한 가족위기 지원

-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한 사례
- 돌발적 사건 대응 사례, 사회적 사건 관련 사례, 개인이 당한 사건 지원 사례(성폭력, 학교폭력, 가족원 자살), 특정가족 대상 지원 사례(한부모 대상, 다문화가족대상, 질병감염아동)
-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위해 가장 많았던 심리·정서적 지원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 돌봄 지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지원

-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임신기, 부모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규범적 사건 지원 사례
- 현재 가족위기 지원은 0에서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지원법을 두고 가족구성과 형태를 중심으로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시행중임
- 가족위기 지원에 대해 한부모가족은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로 관리됨

○ 가족센터 사업별 가족위기 지원

- 가족센터를 통한 위기가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긴급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한한 일시적 지원이거나, 일부 가족유형에게만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어, 위기가족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는 갖추지 못하였음

□ 국외 사례

- 프랑스, 미국, 독일, 덴마크, 영국, 유럽연합 등의 아동수당지급, 별거부모 대상 양육법 지원, 포털 시스템을 통한 위기 접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가족지원 및 가족강화 프로그램 사례 조사
- 코로나19 이후 가족위기에 대한 OECD국가의 가족서비스 정책 조사 자료 분석

3. 한국가족의 위기 분석

□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 가족위기 유형화를 도출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자료의 포괄 범위(Coverage)와 분석솔루션의 정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빅데이터 분석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LUCY 2.0 솔루션을 활용함
- 가족위기 관련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가족 유형은 25개, 위기 유형은 26개로 정의함
- 2018년~2022년의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가족 유형별 위기 연관 키워드 추출-가족 유형 전체 위기 연관 키워드 추출-가족 유형별 공통 및 특화 키워드 추출 등 3단계를 거침
- 분석 결과, 기존의 가족서비스는 가족 유형(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따라 제공되고 있으나, 가족유형과 가족위기 유형별 연관성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음. 특히 거주기준, 혼인신고 기준, 자녀유무 기준, 소득자의 단수/복수 등의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가족유형을 세분화(26개 가족유형)해서 분석하였을 때도 가족유형별 가족위기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이는 기존에 제공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족위기 유형이나 상황에 따른 지원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필요있음을 시사함
- 가족 유형과 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 간의 연관 단어를 확인한 결과 ‘어렵다’는 키워드가 가장 언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들에게 본 연구의 위기 키워드들은 분명히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가족위기는 하나의 위기 사건이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가족위기 연관 네트워크 분석

○ 가족유형과 가족위기의 관계성 분석

-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했던 Lucy 솔루션을 통해 파악된 “가족 유형”과 “가족위기”에 대한 단어들을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 전문가에 의해 데이터 정제과정을 거친 후, 네트워크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합한 파이썬(Python) 네트워크 시각화분석 방법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함
- 시각화된 그림에서 단어의 크기는 단어가 언급된 양(빈도수)을 의미하며 서로 간에 이어진 선은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의미함
- 분석결과, 가족이 위기를 겪는 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는 저소득층, 돌봄, 유지 등과 같은 단어로 나타남. 가족위기의 지원을 위한 기관은 가족센터가 대표적이며,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은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으며,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아동기와 노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4. 가족위기 지원 현황 및 수요조사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가족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실태와 지원 시 어려운 점을 파악하기 위함
- 가족센터에서 향후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파악하기 위함

○ 조사과정

- 조사는 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된 설문조사와, 팀장 이상의 대상자 20명을 섭외하여 4그룹으로 나누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된 포커스 그룹 조사(FGI)로 수행됨
- FGI 조사는 설문조사 내용의 근거나 원인을 밝히고자 질문되었으며, 특히 가족센터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나 가족위기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진단지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포함하였음

	설문조사	FGI조사
조사 대상	가족센터 종사자	가족센터 종사자 중 팀장 이상급
유효 표본수	총 152개 센터 (회수율 62.3%)	총 20명(4그룹 X 4-6명)
조사 방법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병행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2022년 10월 24일~27일	2022년 10월 21-26일

○ 조사내용

구분	세부 내용
가족위기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하고 있는 가족위기 관련 사업 위기(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별 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가족위기 지원 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위기 지원 시 어려움 가족위기 지원 시 필요 사항
가족위기 지원 관련 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가족 대상 우선 지원 서비스 종류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주요 연계(협력) 기관

□ 분석결과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 현황

- 가족센터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는 가족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임
- 대부분의 가족센터에서 가족위기 관련 사업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센터 소재 지역의 특성, 센터 규모 등에 따라 중점 사업 종류, 비중이 다소 상이함
- 가족위기의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 발달적 가족위기 : 대부분의 센터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을, 과반수는 “혼인/미혼, 동거, 사실혼”, “배우자 사망”, “출산, 입양” 지원을 하고 있음. 반면, “은퇴”, “자녀의 독립”에 대한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발달적 위기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연관성이 높아 예측 가능한 위기이므로 취약계층이나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운영 가능한 위기임. 대상자의 능력, 위치 등에 따라 위기 여부가 달라짐.
 - 관계적 가족위기 : “가족관계적 갈등”, “학대, 방임, 가정폭력”, “별거, 이혼”, “일상생활 유지 문제” 등 관계적 위기의 경우 상시지원 또는 일시지원 형태로 대부분의 기관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센터와 전문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필요한 위기에 해당. 관계적 위기 대상자 발생 시, 전문기관에 연계와 협조를 요구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 가족센터의 적정 개입 수준이며, 경찰서, 병원, 전문 심리상담사 등의 개입이나 지원이 더 직접적임

- 개인적 위기 : 대부분의 센터에서 “소외와 우울” 지원을, 과반수는 “1인 가구”, “자살과 죽음”, “장애와 질병” 중독과 도박, “실직” 지원을 하고 있음. 이는 가족상담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보여짐. 복합적인 위기이므로 접근 방식이나 지원도 사회적 요소, 발생 원인 및 가족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당사자에 대해서는 병원, 경찰, 전문 심리상담 기관 등의 즉각적, 직접적 개입이 필요하며 당사자 이외의 남은 가족원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함
- 가족외적 위기 : “사회적 범죄”,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 “사회 재난”은 과반수의 센터가 지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시지원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 사회 재난, 자연재해 등의 가족외적 위기가 긴급 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함. 코로나19 초기 지원 시, 생필품 등을 격리 가족에게 지원이 가능했으나, 초기 이후 현물 지원이 불가해 가족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지원 서비스는 제한적임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

- (지원대상)** 가족위기의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가족위기의 유형별로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지원내용)**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 서비스 내용과 가족위기의 유형별 접근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가족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는 다른 기관과 다르다고 인식함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요구

- 가족서비스의 체계성과 차별화**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가족센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지침과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 : 심리정서지원과 일상생활지원을 통해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그리고 지역별로 위기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영역은 차이가 있다고 인식함
- 지역단위 관련 기관과 연계 서비스** : 가족센터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영역에 대해 지역의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 활동도 중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인식함.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를 위한 연계 희망 기관으로는 경찰서, 지역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 아동보호 전문기관 순으로 조사됨

○가족센터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제안

- 신규 서비스 추가가 아닌 위기대응에 맞는 개편 필요** : 신규 서비스에 대한 니즈보다는 기존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매뉴얼 정비, 담당자 자격 요건 변경 등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함
- 기존 서비스 개선 시 검토할 요소로는 기존 서비스 내용 변화 및 개선, 가족역량사업 중 현물 지원 가능한 예산, 현재 긴급위기가족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심리지원을 가족역량사업 대상가족에 확대 적용 등이 제안됨**
-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안됨**
 -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실천 매뉴얼 작성
 -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 가족위기 지원서비스 대상자 니즈 반영
 - 가족위기 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상황 및 원인 제거
 - 매뉴얼 정비 및 교육·트레이닝 프로세스 운영으로 서비스 편차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가족위기 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

-**(진단지표 및 성과지표)** 현재 가족센터에서 사용하는 가족위기와 관련된 진단지표와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함. 구체적으로 사례관리 담당자의 업무 강도 개선 및 표준화, 대상자 만족도 측정 방법 및 내용 개선이 필요함. 가족센터의 제반 사업이 질적인 개선을 지향하는데 반해 평가 및 목표 수립은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사례관리 담당자의 업무 강도 개선 및 표준화)** 공통적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 및 강한 업무 강도, 담당자의 짧은 근속 기간, 매뉴얼이 정교하지 않아 담당자간 편차 발생.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과정에서 담당자의 감정 전이 및 감정 소진에 대한 케어 부재

○ 수요조사를 통한 시사점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반 연계를 위한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가족위기 상시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가족센터의 사업과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가족위기 지원을 가족유형 중심에서 가족 내 모든 구성원의 위기 지원으로 확대가 필요함

-가족위기의 유형별 심각성의 정도를 진단하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위기관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5.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정책지원을 위한 가족위기의 개념과 범위

○ 가족위기 개념

-‘가족기능의 악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념화

○ 가족위기의 유형

-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

○ 가족위기의 특성

-예측가능성, 지속성, 중복성, 의존성

○ 가족위기의 정책적 지원 범위

-1단계 : 가족위기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범위 설정

-2단계 : 가족위기의 조건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적 지원 범위 설정

-결국, 정책적 가족위기 지원 범위는 가족위기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지원과 사후적 지원이 가능함

유형	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
특성	위험요인 사전 발굴 등 예방적 서비스 영역			
예측가능성	가족위기 진단을 통해 우선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족 선정			
지속성				
중복성	가족 교육 및 공동체를 통한 자원 지원 영역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한 영역으로 예방적 서비스 영역			
의존성				

□ 가족위기 지원정책의 지원 방향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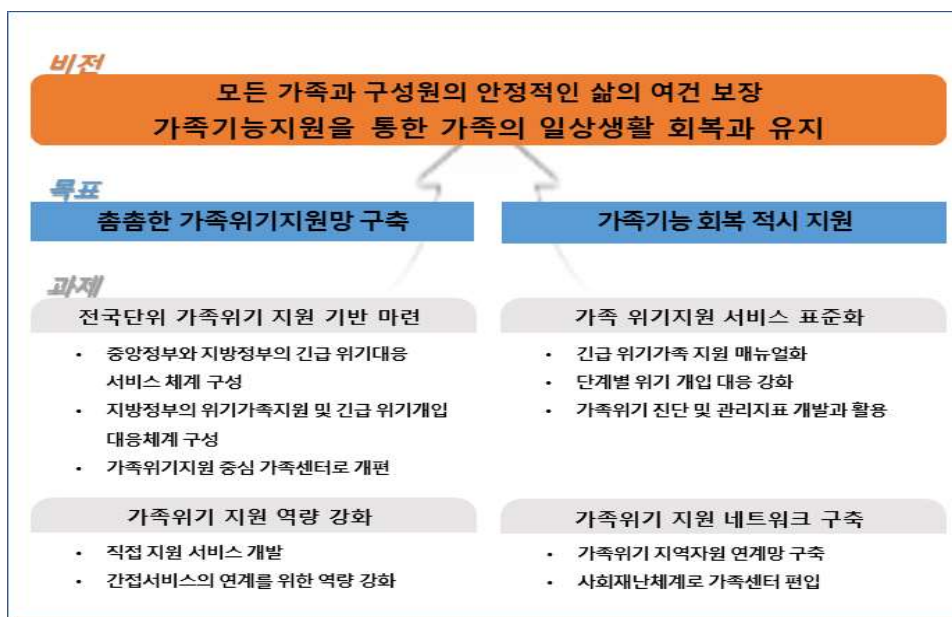
○ 기본방향

- 가족위기의 유형과 특성에 근거함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파악해야 함
- 결국, 가족위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의 유지와 안녕에 기여하게 되는 것임

○ 기본원칙

- (체계화)** 지역단위 서비스의 연계와 중앙-지역 서비스의 체계화, 가족위기 지원의 대상: 가족구성원과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원.
- (차별화)** 중단된 가족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 특화된 서비스, 위기의 위험수준에 따른 지원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특화서비스

○ 비전, 정책목표, 정책과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대응 역할과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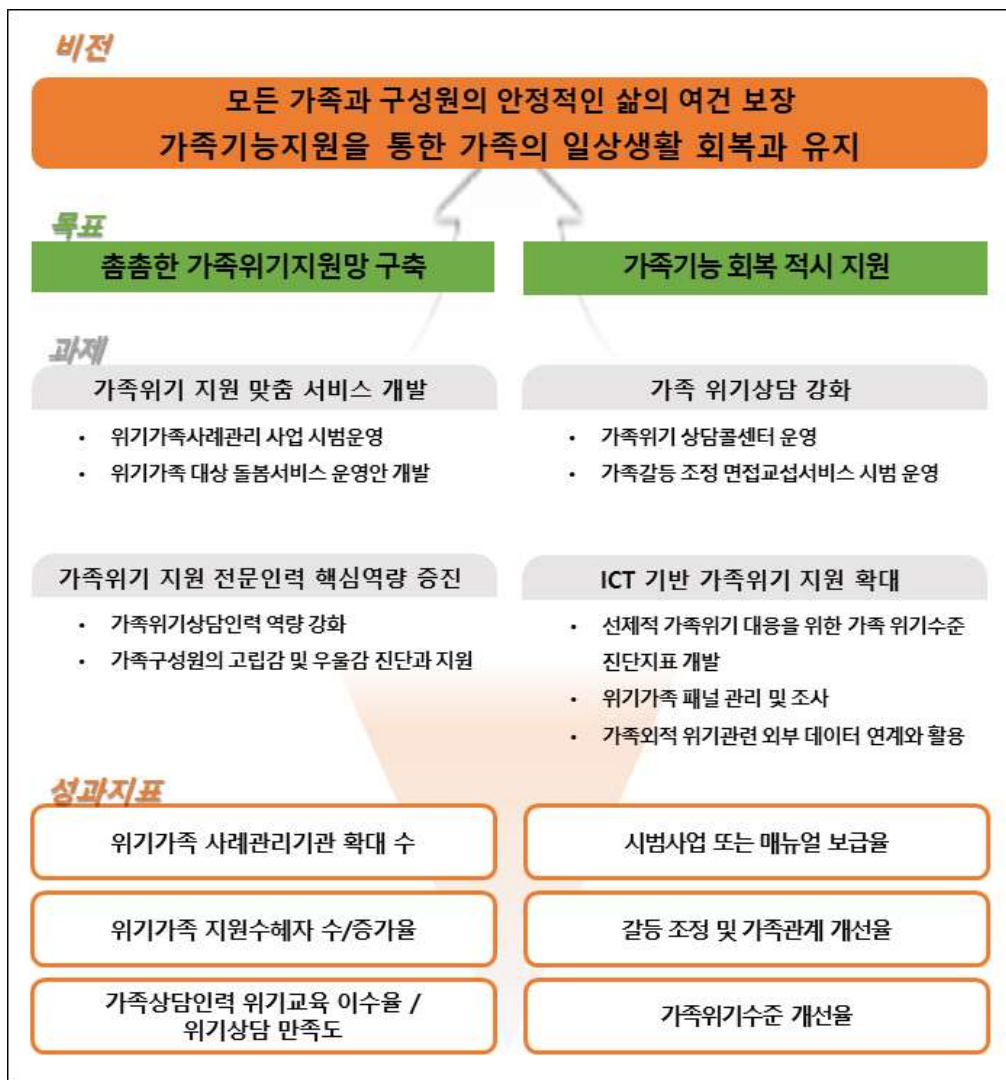
○ 가족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 가족서비스 지원체계를 활용한 가족위기 대응
- 위기가족 지원 맞춤형서비스 개발을 통한 가족위기 대응

○ 가족위기 지원체계의 구축 전략

- 경영전략목표로 선정 추진
- 실행력 높은 서비스 우선 추진
- 가족센터와의 협업 추진

○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체계에 근거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1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가족위기의 개념과 특성	15
1. 위기 및 가족위기 개념	15
2. 가족위기의 범위와 특성	18
1) 발달적 위기	18
2) 스트레스 사건에 기인한 위기	20
3. 가족위기 관련 요인	21
1) 사회적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	21
2) 가족의 변화와 돌봄 기능의 약화	24
3) 가족원 개인의 역량과 위기	25
4. 본 연구의 가족위기에 대한 개념화 작업	28
제2절 가족과 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29
1. 가족에 대한 이론적 접근	29
1) 생태체계이론	30
2) 가족구조기능론	34
3) 발달이론	38
4) 가족자원관리이론	42
5) 가족갈등이론	44
2. 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46
1) 가족 스트레스 이론	46

2) 가족위기개입 모델	50
3. 건강가정 관점 및 가족강점 관점	59
1) 건강가정 관점	59
2) 가족 강점 관점	62
제3절 국내 가족위기 지원 사례	64
1. 돌발적 사건으로 인한 가족위기 지원	64
1) 돌발적 사건 대응 가족지원 체계	64
2) 사회적 사건 관련 가족위기 지원	65
3) 개인이 당한 폭력 등의 사건 관련 지원	67
4) 특정 대상 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	71
5) 돌발적 사건으로 인한 가족위기 지원 사례의 시사점	72
2.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지원	74
1) 영유아기 지원	74
2) 초등학령기 지원	75
3) 임신기 지원	76
4) 부모기 지원	77
5)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지원 사례의 시사점	79
3.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지원	80
1) 한부모가족 지원	80
2) 다문화가족 지원	83
3)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지원 사례의 시사점	84
4. 가족센터 사업별 가족위기 지원	86
1) 가족센터의 가족사업 추진체계	86
2)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88
3)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94
4) 가족상담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 배치	95
5) 가족센터 사업별 가족위기 지원의 시사점	96
제4절 해외 가족위기 지원 사례	99
1.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지원 사례	99
1) 경제적 지원	99
2) 돌봄위기 지원	101
2. 미국의 위기가족 지원 사례	104
1) 연방정부의 가정폭력 지원	104
2) 주정부의 돌봄위기 지원	106
3. 독일의 아동수당지급 사례	107
4. 덴마크의 별거부모 대상 양육법 지원 사례	108
5. 영국의 포털 시스템을 통한 위기 접수 사례	108
6.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지원 사례	109
7. 국제민간사회복지기구의 가족강화 프로그램	110
8. OECD 국가의 가족위기 지원서비스 비교	110

제3장 한국 가족의 위기 분석	114
제1절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115
1. 분석 개요	115
1) 분석 방법	115
2) 자료처리과정	118
2.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120
1) 연도별 키워드	120
2) 주요 연관 키워드 트렌드	122
3) 가족 유형별 위기 키워드	124
4) 생애주기별 위기 키워드	139
3. 시사점	141
제2절 가족위기 연관 네트워크 분석	144
1. 분석 개요	144
1) 네트워크 분석 개요	144
2) 분석 방법	145
2. 분석 결과	146
1) 가족과 위기 네트워크 분석	146
2) 가족 유형별 네트워크 분석	148
3)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	151
3. 시사점	162
제4장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현황 및 수요 조사	165
제1절 현황 및 수요 조사 방법	166
1. 조사 개요	166
2. 설문조사 개요	166
1) 조사 설계	166
2) 조사지 구성	167
3) 응답 센터의 특성	168
3. 포커스그룹 조사 개요	169
1) 조사 설계	169
2) 조사 내용	169
3) 응답자 특성	170
제2절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현황	171
1.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 현황	171
1) 수행중인 가족위기 관련 사업	171
2) 가족위기 유형별 서비스 지원 현황	172
2.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	181
1) 지원 대상	181

2) 가족 내용	182
제3절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요구	184
1.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수요	184
1) 서비스의 체계성과 차별화	184
2)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	186
3) 지역단위 관련 기관과 연계서비스	187
2. 가족센터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제안	190
1) 신규 서비스 추가가 아닌 위기 대응에 맞는 개편 필요	190
2) 기존 서비스 개선 시 검토 요소	192
3) 구체적인 실천전략 제안	195
3. 가족위기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	199
1) 진단지표 및 성과지표	199
2) 사례관리 담당자의 업무 강도 개선 및 표준화	201
4. 시사점	203

제5장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206

제1절 정책지원을 위한 가족위기의 개념과 범위	207
1. 가족위기 개념	207
2. 가족위기의 유형과 특징	207
3. 가족위기의 정책적 지원 범위	208
제2절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211
1. 지원의 방향과 체계	211
1) 기본 방향	211
2) 기본 원칙	214
2. 가족위기 지원정책의 비전과 목표	217
1) 비전 체계	217
2) 정책 목표	218
3. 중점 과제 및 추진 과제	219
1) 전국 가족위기 지원 기반 마련	219
2)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표준화	227
3) 가족위기 지원 역량 강화	240
4) 가족위기 지원 네트워크 구축	246
제3절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257
1. 가족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257
1) 가족서비스지원체계를 활용한 가족위기 대응	259
2) 위기가족지원 맞춤형서비스 개발을 통한 가족위기 대응	260
2. 가족위기 지원체계의 구축 전략	261
1) 경영전략목표로 선정 추진	261
2) 실행력 높은 서비스 우선 추진	263

3) 가족센터와의 협업 추진	263
제4절 가족위기 지원체계의 실행과제	265
1. 실행과제 도출 과정	265
2.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체계와 실행과제 연계	266
3. 진흥원의 가족위기지원체계 추진과제	267
1) 가족위기 지원 맞춤 서비스 개발	268
2) 가족위기 상담 강화	269
3) 가족위기 지원 전문 인력 핵심역량 증진	270
4) ICT기반 가족위기 지원 확대	273
5) 가족위기지원 기관으로 가족센터 개편	275
제6장 결론 및 제언	277
참고문헌	281

[부록] 설문지

1.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2.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FGI조사

[부록] 진단척도용 자료

1. 자기효능감 척도(한국어)
2. 가족기능 척도(한국어)
3. (위기) 위기성 진단 척도(한국어)
4. (위기)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척도
5. (위기) 우울 척도
6. (위기) 사건충격 척도

표목차

<표 1-1>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4
<표 2-1> 가족의 기능	36
<표 2-2> 개인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	39
<표 2-3>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특징과 과업	41
<표 2-4> 가족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효과적 대처 전략	56
<표 2-5> 6단계 위기 개입 단계별 행동 지침	58
<표 2-6> 건강가정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특징	61
<표 2-7> 가족센터의 지역별 운영현황('22년 현재)	87
<표 2-8> 가족센터의 기본사업 내용	87
<표 2-9> 가족센터의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90
<표 2-10> 가족센터의 이혼 신청 가족 지원 표준 프로그램	93
<표 2-1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추진 중인 지역별 가족센터 현황	95
<표 2-12>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	99
<표 2-13> OECD국가(수도)에서 제공하는 가족서비스-위기가족을 중심으로	112
<표 3-1> 년도 별 가족위기 주요 연관 키워드	122
<표 3-2>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주요 연관 키워드 순위	124
<표 3-3>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특화 키워드 언급량 건수	126
<표 3-4> 다문화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28
<표 3-5> 한부모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28
<표 3-6> 미혼모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29
<표 3-7> 미혼부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29
<표 3-8> 사실혼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0
<표 3-9> 동거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0
<표 3-10> 입양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1
<표 3-11> 장애인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1
<표 3-12> 외벌이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2

<표 3-13> 맞벌이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2
<표 3-14> 재혼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3
<표 3-15> 이혼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3
<표 3-16> 별거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4
<표 3-17> 기러기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4
<표 3-18> 분거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4
<표 3-19> 주말부부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5
<표 3-20> 노인부부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5
<표 3-21> 노인 단독 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6
<표 3-22> 1인 가구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6
<표 3-23> 공동체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7
<표 3-24> 무자녀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7
<표 3-25> 한자녀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7
<표 3-26> 다자녀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8
<표 3-27> 조손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8
<표 3-28> 소년소녀가장 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39
<표 3-29>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주요 연관 키워드 순위	140
<표 3-30>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특화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141
<표 3-31>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147
<표 3-32> 가족유형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다문화가족	148
<표 3-33> 가족유형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미혼모가족	149
<표 3-34> 가족유형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한부모가족	150
<표 3-35>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151
<표 3-36>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아동기	153
<표 3-37>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청소년기	154
<표 3-38>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청년기	156
<표 3-39>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신혼기	157
<표 3-40>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임신/출산기	158
<표 3-41>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중년/갱년기	159
<표 3-42>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은퇴기	160
<표 3-43>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노년기	161
<표 4-1> 설문조사의 개요	166
<표 4-2>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	167

<표 4-3> 포커스그룹 조사의 개요	169
<표 4-4> 포커스그룹 조사의 질문 내용	169
<표 4-5> 포커스그룹 조사 참여자의 소속 센터와 담당 업무	170
<표 4-6> 가족위기 관련 사업 현황(설문조사 결과)	171
<표 4-7> 발달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173
<표 4-8> 관계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176
<표 4-9> 개인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177
<표 4-10> 가족외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180
<표 4-11> 가족위기 지원시 어려운 점(설문조사 결과): 센터종류와 소재지별 분석	185
<표 4-12> 위기가족 대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설문조사 결과): 센터종류와 소재지별 분석	187
<표 4-13>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연계 희망기관(설문조사 결과): 센터종류와 소재지별 분석	189
<표 5-1> 가족위기의 유형과 주요 내용	211
<표 5-2> 지방정부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 대응 업무와 역할 중 가족센터와 협력 가능 분야	222
<표 5-3> 지역사회 위기대응 지원 기관의 세부 서비스 내용과 가족센터의 연계 가능 업무	224
<표 5-4> 가족위기를 판정하는 기존의 위기 척도	232
<표 5-5> 통합사례관리에서 사용되는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기준표	233
<표 5-6> 통합사례관리의 욕구영역별 위기도 평가기준	234
<표 5-7> 가족위기 유형별 가족센터에서 제공되는 직접서비스 개발(안)	241
<표 5-8> 위기가족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간접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원개발을 해야 할 유관기관	244
<표 5-9> 지역사회 내 재난 대응기관인 대학적십자사와 가족센터와의 협력가능분야	255

그림목차

[그림 1-1] 출생아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2011-2021)	2
[그림 1-2] 합계출산율, 총인구, 생산연령인구, 노년부양비	3
[그림 1-3] 제3차 및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내용	9
[그림 2-1] 한국의 사회위기	16
[그림 2-2]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19
[그림 2-3] 아동 발달단계와 위기요인	25
[그림 2-4]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네가지 수준의 환경체계	30
[그림 2-5] 가족의 생태적 구조	32
[그림 2-6]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가족형태의 분류	35
[그림 2-7] 가족자원관리의 틀	42
[그림 2-8] 가족 스트레스의 수준과 가족의 기능성 간의 관계	46
[그림 2-9] 가족의 수직적·수평적 스트레스원	48
[그림 2-10] 가족에 따라 스트레스와 위기에 적응하는 방식	51
[그림 2-11] ABCX 가족위기 모델	52
[그림 2-12] 결혼생활의 각 영역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간의 관계	53
[그림 2-13] Double ABCX 가족위기 모델	54
[그림 2-14] ABCD-XYZ 가족위기 모델	55
[그림 2-15] 6단계 위기개입모델	57
[그림 2-16] 가족사업 추진체계	86
[그림 2-17] 가족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의 구성 예시	89
[그림 2-18] 가족센터의 긴급위기가족 지원 단계별 지원 방안	91
[그림 2-19] 가족센터의 전문상담 제공시 연계절차	92
[그림 2-20]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흐름도 : 임신출산갈등상담 사례	96
[그림 2-21] 미국 위기가족 일시지원(TANF)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105
[그림 2-22] 미국의 전국단위 책임감있는 아버지를 위한 정보센터의 안내문구	106
[그림 2-23] 영국의 가정내 학대나 폭력 핫라인, 온라인 채팅 지원	109

[그림 2-24] 특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OECD국가(수도)의 수	111
[그림 3-1] 년도 별 가족위기 주요 연관 키워드 언급량	123
[그림 3-2]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147
[그림 3-3]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다문화가족	148
[그림 3-4]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미혼모가족	149
[그림 3-5]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한부모가족	150
[그림 3-6]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생애주기별	151
[그림 3-7]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아동기	153
[그림 3-2]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147
[그림 3-3]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다문화가족	148
[그림 3-4]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미혼모가족	149
[그림 3-5]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한부모가족	150
[그림 3-6]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생애주기별	151
[그림 3-7]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아동기	153
[그림 3-8]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청소년기	155
[그림 3-9]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청년기	156
[그림 3-10]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임신/출산기	158
[그림 3-11]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중년/갱년기	159
[그림 3-12]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은퇴기	160
[그림 3-13]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노년기	161
[그림 4-1] 설문조사의 응답센터 유형과 센터 소재지	168
[그림 4-2] 발달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173
[그림 4-3] 관계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175
[그림 4-4] 개인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177
[그림 4-5] 가족외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179
[그림 4-6] 가족위기 지원시 어려운 점(설문조사 결과): 전체 분석	184
[그림 4-7] 위기가족 대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설문조사 결과): 전체 분석	186
[그림 4-8]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연계 희망 기관(설문조사 결과): 전체 분석	188
[그림 5-1] 가족위기에 대한 가족 정책적 지원 범위	210
[그림 5-2]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가정의 위기 파악	213
[그림 5-3]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	215
[그림 5-4]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체계	217
[그림 5-5] 재난 대비 (훈련)체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20

[그림 5-6] 재난관리 시, 정부의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221
[그림 5-7]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 및 긴급 위기 대응체계와 가족센터의 개입분야(충남사례)	223
[그림 5-8]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중심으로 제안한 기본사업 재편(안)	225
[그림 5-9]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향 검토 과제	225
[그림 5-10]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중심으로 제안한 조직운영 재편(안)	226
[그림 5-11] 가족센터의 단계별 위기 개입 대응 강화(안)	228
[그림 5-12] 가족역량강화사업의 긴급위기가족 지원 과정과 강화 분야	229
[그림 5-13] 미국의 위기가족지원체계-덜루스 모델 접근	248
[그림 5-14]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도	249
[그림 5-15]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체계	250
[그림 5-16] 시구구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주요 조직과 업무	251
[그림 5-17] 시구구와 읍면동 규모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유형별 수행업무의 차이	252
[그림 5-18] 위기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가족센터의 공공-민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방안	254
[그림 5-19] 가족사업 추진체계	259
[그림 5-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전략체계(2023~2027)	261
[그림 5-21] 가족위기 지원정책의 비전체계에 근거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	267
[그림 5-22] 가족 보유 자원 정도에 따른 긴급위지지원 서비스	273

제1장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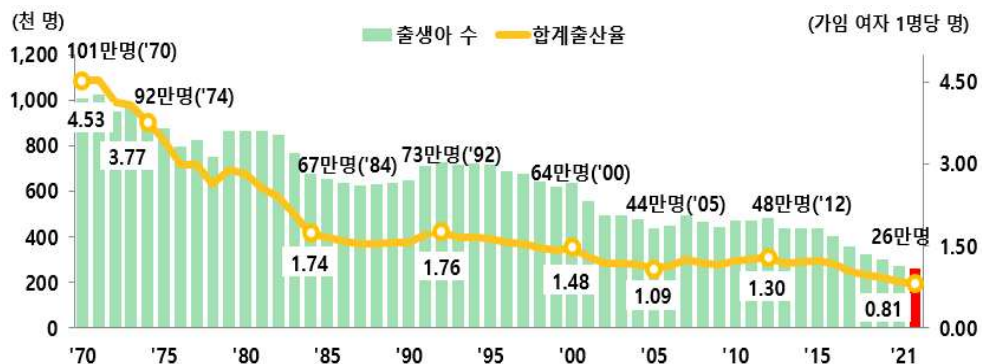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배경

- 한국의 급격한 개인주의, 고령화, 저출산, 별거, 가출, 이혼율 증가 등은 빠르게 ‘가족변형’ 현상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로 정서적 교류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나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개인 및 가족의 생활양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의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합계 출산률이 더 적어져 0.81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26만 6백 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 8백 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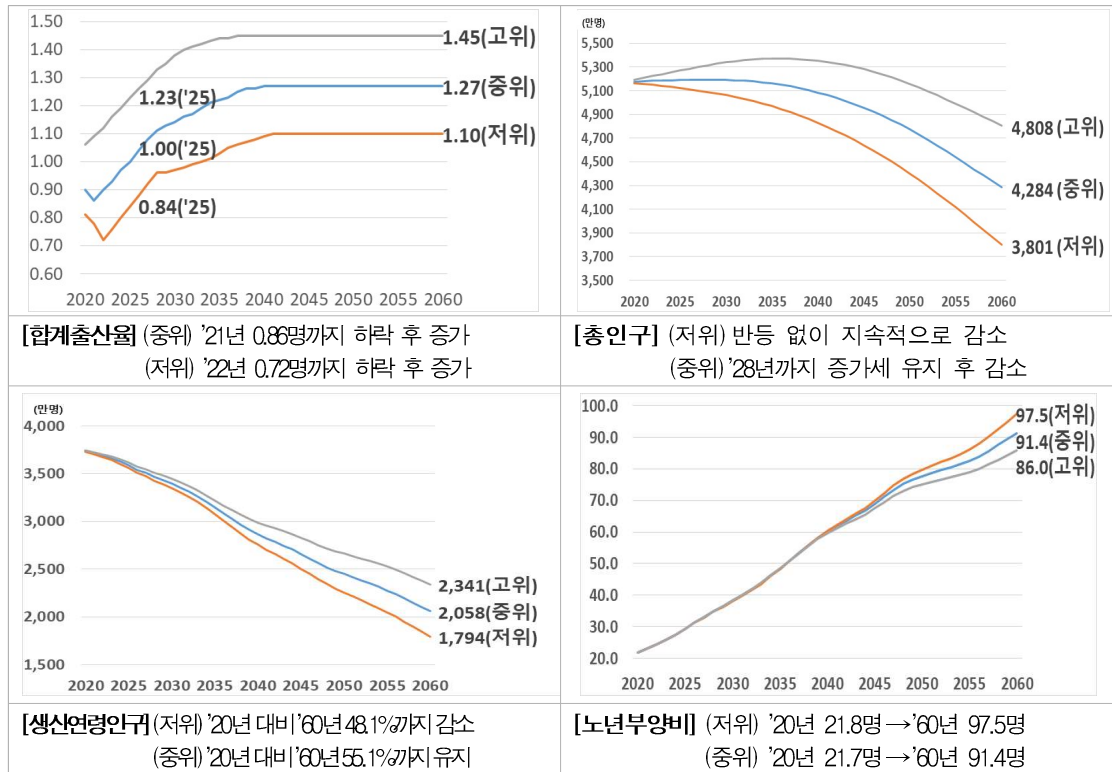
[그림 1-1] 출생아 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 (2011-2021)



자료 : 통계청, 2021년 출생통계

- 이제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의 변화를 넘어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가족 형성 자체의 기피로 인해 가족 자체가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결혼 및 혈연을 통한 관계망이 줄어들어 가는 것은 가족의 소규모화, 소자녀화, 무자녀화, 개인화, 그리고 다양화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1-2] 합계출산율, 총인구, 생산연령인구, 노년부양비



[합계출산율] (중위) '21년 0.88명까지 하락 후 증가
(저위) '22년 0.72명까지 하락 후 증가

[총인구] (저위)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위) '28년까지 증가세 유지 후 감소

[생산연령인구] (저위) '20년 대비 '60년 48.1%까지 감소
(중위) '20년 대비 '60년 55.1%까지 유지

[노년부양비] (저위) '20년 21.8명 → '60년 97.5명
(중위) '20년 21.7명 → '60년 91.4명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

● 출산율 감소의 배경에는 결혼연령의 지속적 상승, 결혼기피현상,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작용함.

－ 통계청의 2020년「사회조사」결과(2020. 11.18 보도자료)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2020년 기준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1.2%로 2018년과 비교해 3.1%p 증가함. 그러나 2012년의 62.7%보다는 크게 감소한 상태임
-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3.8%p 더 높는데, 특히 미혼 남녀의 경우 견해 차이가 18.4%p로 더 크게 벌어짐
- 이혼과 재혼에 대한 생각 또한 변화하여, 같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족생활의 안정성과 지속성 또한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도 느슨해지고 있음.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48.4%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0.2%로 감소하는 추세임
- 재혼에 대해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64.9%로 2년 전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남녀 모두 중립적인 의견이 가장 높으나 재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5.1%p 더 높음
- 2020년에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9.7%로 2018년보다 3.3%p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로 '18년 보다 0.4%p 증가했으며, '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1-1>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계1)	결혼			이혼			재혼		
		해야 한다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3)	하지 말아야 한다4)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해야 한다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3)
2018년	100.0	48.1	46.6	3.0	33.2	46.3	16.7	12.4	64.6	14.9
2020년	100.0	51.2	41.4	4.4	30.2	48.4	16.8	8.4	64.9	17.3
남자	100.0	58.2	35.4	3.1	34.8	45.4	14.3	11.0	65.6	13.1
여자	100.0	44.4	47.3	5.6	25.7	51.2	19.2	5.9	64.2	21.4
미혼남자	100.0	40.8	48.0	5.0	19.5	51.6	19.4	7.3	69.8	7.5
미혼여자	100.0	22.4	62.4	10.5	8.9	56.4	28.7	2.4	77.4	8.5
13~19세	100.0	32.8	54.1	6.6	15.8	50.6	20.5	3.4	68.0	8.1
20~29세	100.0	35.4	52.0	8.1	13.8	55.9	24.2	4.7	76.0	7.8
30~39세	100.0	42.2	49.7	4.5	22.4	55.4	18.5	6.0	73.1	11.8
40~49세	100.0	44.1	49.3	4.2	24.0	56.9	16.3	6.1	69.9	17.4
50~59세	100.0	55.3	39.8	3.2	31.9	49.5	15.6	9.0	62.3	21.3
60세 이상	100.0	72.7	22.5	2.5	51.3	32.5	11.8	14.5	51.3	25.4

주: 1) 각 항목별로 '잘 모르겠다' 포함

2)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

3)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

4)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자료 : KOSIS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음

- 2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선호와 세대별 차이를 조사한 연구(정영훈 외, 2019)에 의하면, 20대와 50대 모두 가족에 대해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느끼며, 가족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로서, 그저 같은 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동거 또는 생활공동체와는 구별된다고 보고 있음.
- 전통적 가치관과 대안적 가치관이 혼재하며 대안가족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전통적 가족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미혼의 경우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결혼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고,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경력단절과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며 성차별적인 사회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낌. 50대 부모 세대 역시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 전통적 가족을 구성하는 데 회의적임
- 20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전통적 가족구성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임. 20대 남성은 경제적 부담과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이 큰 이유인 반면, 20대 여성은 출산과 양육 부담, 성차별적 사회 문화, 경력단절 등의 이유가 큼. 이에 비해 50대들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바라보아 세대별, 성별 이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

- 그 결과, 가족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20대들은 가족제도의 확대(1인 가구, 성 소수자, 미혼 부모 등 가족제도 편입)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반면, 50대들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정책 수립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기존의 전통적 가족제도 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생각함

- 출산을 저하는 결국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비중이 커지며 노인 부양부담이 증가하게 됨을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 예상)을 코앞에 두고, 202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7.5%(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노년의 삶이 중심이 된 가족의 돌봄 부담의 문제와 가족제도의 약화에 따른 돌봄 기능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 인구수 자체가 줄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되어, 노년기에 거동이 어려워질 경우 과거처럼 부양을 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음
- 그 결과,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고독사'의 사례가 증가함.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을 제정함

- 또한, 가족관계의 느슨해짐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점검하고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짐

-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구분도 역시 가족 다양화의 심화 과정에서 구분이 모호해져 감에 따라, 이제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왔던 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가족 등에 대한 돌봄이나 지원, 사회화, 교육, 정서적 기능 등을 어떻게 제공하고 대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 이를 위해 그동안 작동해왔던 가족의 기능 중 약화된 부분과 가족의 불안과 해체를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최소한의 지원체계이자 안전망인 가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가족위기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됨

- 1990년대부터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유입으로, 생산방식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탈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출현, 이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신 빈곤층의 출현임
-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 단위로서 양육·보호기능, 교육·사회화 기능, 휴식·오락 기능, 종교적 기능의 양과 질을 조정하며 기능을 수행함.

- 그러나 빈곤은 가족원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며, 특히 양육·보호 기능, 교육·사회화 기능의 저해는 후세대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신 빈곤층의 출현은 국가가 가족자체에 대한 지원 수요의 증가로 볼 수 있음
-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탈산업사회는 교육과 기술수준 및 고용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비저속련 직종의 비율이 감소하고 저임금직과 비정규직인 만연하게 됨. 그러므로 적절한 보수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사실상 빈곤과 직결되므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근로빈곤 계층인 '신 빈곤가족'을 양산시키고 있음
 - 지식정보산업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과 기술수준은 특정 교육을 이수했거나, 빠르게 적응하는 청년들 외에는 기존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함
 - 청년들에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과 생활방식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역량강화와 적응을 하지 않을 경우 도태될 우려가 높아짐
 -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개인들은 은퇴이후의 삶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나 더 이상 성인자녀나 가족들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와 달리 은퇴이후의 삶이 더 길어지고 있어 신 빈곤층 노인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수명의 증가와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는 은퇴이후 노인들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생활을 위해 가족들이 돌보거나 지원해야 할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늘어난 노인 수요에 비해 가족들의 부양인식이나 돌봄 지원 자원은 줄어드는 추세임
- 결국, 기존 빈곤가족은 제조업 중심의 완전고용 형태를 띤 근대산업사회의 산물인 노동력 상실과 소득중단에 관련된 위험 속에서 형성되었다면, 신 빈곤가족은 지식정보 중심의 단절적 고용의 형태를 띤 탈산업사회의 불안정한 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형성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족보호기능의 약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가족 돌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 문제는 가정불화와 이혼 위기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며 혼인율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소득 불안정 상태에서 양육 부담은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킴.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이 수행되지 못함

-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취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김영란 외, 2021)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공급 중단 및 불안정한 운영으로 인해 자녀 돌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가족, 특히 여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돌봄 방식의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공적 돌봄 이용과 사교육 기관 활용이 감소하면서 부모의 직접 돌봄과 다른 가족 돌봄 및 돌보미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자녀의 나 홀로 시간이 늘어나는 등 돌봄 방식의 상대적인 비중이 변화하였음
- 특히 공적 돌봄 이용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던 미취학 자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적, 외부 돌봄 이용이 감소하면서 부모나 가족이 돌본다는 응답이 늘어난 반면, 부모의 직접 돌봄 비중이 높았던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 혼자 지낸다는 응답이 더 늘어남
-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적, 외부 돌봄이 감소하면서 부모 모두의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파악됨.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단적 선택·무연고 사망이 증가(아시아경제, 2022.09.21.)하고 있으며, 생활고나 고립 체감도가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된 2020년부터 무연고 사망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극단적 선택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고와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이 증가한 탓이라고 해석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보고서(2022.07)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사망 원인으로는 가족 관계(60.4%), 부채·수입 감소 등 경제 문제(59.8%), 동료 관계·실직 등 직업 문제(59.2%) 등이 제시됨.

■ 결국, 현재 우리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은 사회적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가족의 소멸과 해체로 인해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됨. 이는 또다시 많은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함

- 가족이라는 경계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켜 가족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가족이 해체되거나 결혼을 기피함으로써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음.
 -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하나의 유기체로 형성되며, 더 큰 체계인 지역사회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유지됨. 오늘날에는 가족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해지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위기상황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는 것을 의미함.

- 개인주의성향이 증가하고 직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 혹은 고령화로 인해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함. 1인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31.7%(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이런 점에서 노인과 청년 등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이 사회적 위기를 혼자 감내하는 동시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됨
- 가족은 역동적인 체계로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족 내적, 외적 스트레스나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건강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 가족은 일생을 사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화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동일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다중결과성), 반대로 서로 다른 자원과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결과가 같아질 수도 있으므로(동일결과성) 가족체계 내의 관리과정이 중요함
 - 따라서 가족정책과 서비스는 가족들이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 가족의 돌봄 기능이 점차 사회로 이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혈연이나 결혼을 통한 가족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족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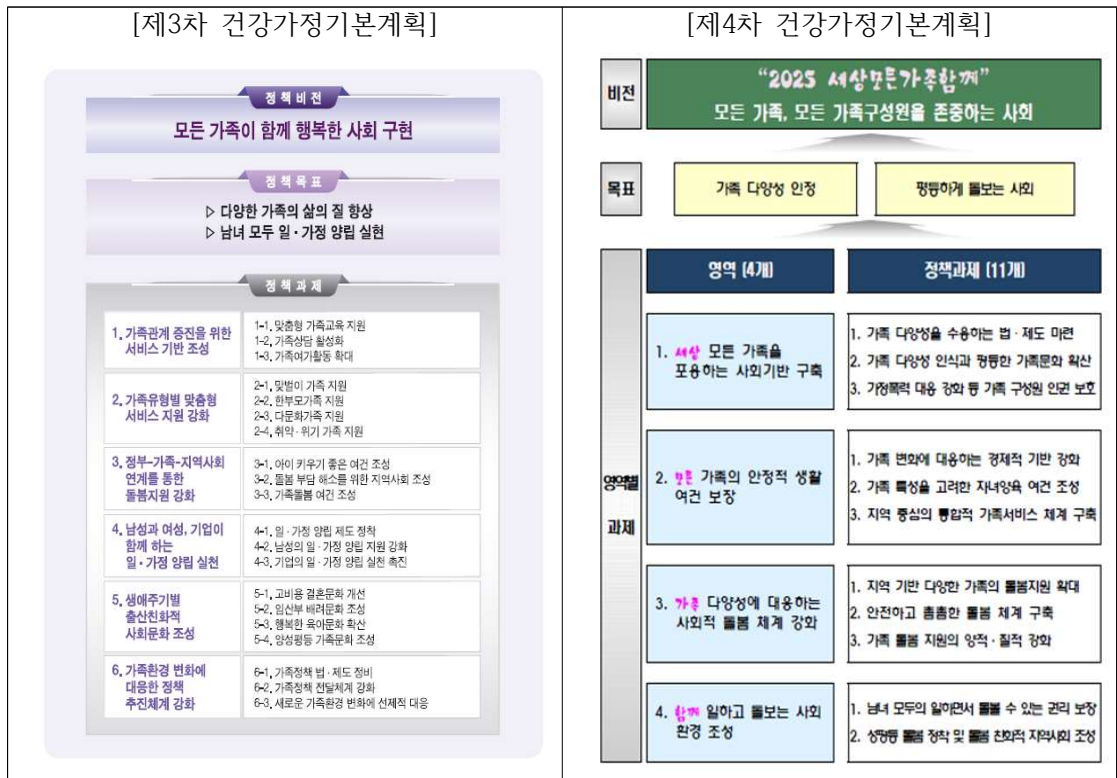
■ 한국사회 가족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이 수립될 필요 있음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실행기간(2016-2020) 동안 특히 취약위기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위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3차 기본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사고·재난 등 위기에 직면한 가족의 지원을 강화함.
 - 구체적으로 취약위기가족지원에는 조손위기가족 안정적 생활지원, 이혼위기가족 기능회복 및 아동복지 증진,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위기가족 긴급지원 강화 등을 포함함
 - 그러나 여전히 위기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의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돌봄 공백에의 대응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정책방향과 비전의 제시가 필요함
- 이에,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하여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하며 다양한 가족들이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 4차 기본계획은 가정폭력이나 부모의 권위적 부정적 양육태도 등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발견 및 대응 강화,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함.
- 그리고 기타 자녀양육 여건 조성 중 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지역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중 지역사회기반 취약 위기가족 지원강화가 정책으로 설정됨.

[그림 1-3] 제3차 및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내용



- 개인 및 가족과 사회의 불안요인에 대한 위기 대처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며, 위기징후를 예측·예방하는데 까지 정책적 고려가 이뤄져야 함
 - 사회적 역동성은 강해지고 기대하는 삶의 질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속성상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개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에서 인식되는 ‘위기’는 더 많아 지고 있음
 - 이는 개인과 가족의 위기발생시, 위기 증가 요인을 확인하여 사전 개입하고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위기를 감소시켜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유형별 취약 기능에만 집중하거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형태의 위기만을 지원하는 단편적이고 제한적 지원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가족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새로운 가족위기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사회 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가족위기의 범위와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 및 세부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위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수행됨
- 연구문제 1) (가족위기의 범위와 조작적 정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해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가족위기의 범위와 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가족위기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가족의 위기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족 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수립)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관리 지원을 위한 전략체계와 구체적인 실행과제 무엇인가?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건강가정기본계획 기간(2005년 ~ 2025년)

■ 공간적 범위

- 여성가족부 및 타 중앙 부처,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가족 정책
- 위기 관련 주요 국가의 중앙부처 정책

■ 내용적 범위

- 정책적 가족위기 정의 및 지원 범위 제시
- 가족정책에서 해야 할 가족위기 지원 방향과 지원체계 도출
- 실질적 가족위기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실행 과제 및 관리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및 내용 분석

- 국내외 가족과 위기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 자료,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 관한 내용 분석 실시
- 국내외 가족위기 관련 서비스 내용과 제공 사례 분석
 - 해외 사례는 온라인 자료나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통해 수집하며, 국내 사례는 문헌 자료(정책보고서 포함)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례 조사도 실시함

■ 빅 데이터 분석(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가족위기 관련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2018.01.~2022.07.) 사회분야 언론매체지(뉴스, 신문)나 사회관계망(SNS)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카페 등)의 기사 콘텐츠를 분석함

- 언론기사나 다양한 SNS를 통해 발생하는 언급들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플랫폼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족 유형”별 “가족위기” 관련 Text 분석을 실행함
- 가족위기 유형화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자료의 포괄 범위(Coverage)와 분석 솔루션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현재 빅데이터 분석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LUCY 2.0 솔루션을 활용함.
-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수집을 위해서 3단계를 거쳐 진행됨. 가족유형별로 위기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1단계), 가족유형(24개)과 위기유형(26개)을 연관 키워드로 검색(2단계)한 뒤, 1단계와 2단계의 연관 키워드를 비교하여 가족유형별 공통 및 특화 키워드를 추출하는 단계(3단계)를 거치게 됨
- 빅데이터 분석에서 파악한 가유형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네트워크 그래프 방식으로 제시함
 -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했던 Lucy 솔루션을 통해 파악된 “가족 유형”과 “가족위기”에 대한 단어들을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 전문가에 의해 데이터 정제과정을 거친 후, 네트워크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합한 파이썬(Python) 네트워크 시각화분석 방법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함
 - 시각화된 그림에서 단어의 크기는 단어가 언급된 양(빈도수)을 의미하며 서로 간에 이어진 선은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의미함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 연구의 주요 결과 내용 및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수립 등(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기가족 지원 전략체계 포함)을 위해 다양한 제안 형태의 자문을 진행함
 - 본 연구에서 자문을 받은 전문가 집단은 다음과 같음
 - 정책 연구 전문가(문화, 여성, 가족 정책연구 등)
 - 가족 특성에 따른 위기분야 전문가(아동, 청소년, 여성 정책 등)
 - 가족발달주기 및 개인생애주기 관련 전문가(가족(상담)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분야)
 - 현장 가족서비스 종사자(가족센터, 한부모가족센터)
 - 행정 및 조직관리 전문가(정책 관련 조사나 컨설팅 분야)

■ 설문조사

- 가족센터에서 가족위기 관련 사업 수행 현황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국의 244개 센터(가족센터 207개, 건가단독센터 14개, 다가단독센터 23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조사를 통해 2022년 10월 24일~27일까지 진행한 결과, 152개 센터 종사자들이 응답함
 - 수행중인 가족위기 관련 사업을 조사하고, 가족위기 유형별 지원여부, 위기 지원 시 어려운 요인들, 가족위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나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그리고 우선 협력기관 등을 조사함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조사의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원인이나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이나 성과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FGI 대상은 전국 가족센터 종사자 중 팀장 이상의 대상자 중에서 가족위기 사업 담당자나 사례관리 담당자, 또는 센터사업 총괄 업무 담당자를 접촉하여 20명을 섭외하여 4그룹으로 나누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음
 - 설문조사를 위해 질문한 내용 외에 가족센터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나 가족위지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진단지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 포함되었음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가족위기의 개념과 특성

제2절 가족과 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3절 국내 가족위기 지원 사례

제4절 국외 가족위기 지원 사례

1. 위기 및 가족위기 개념

■ 위기개념

- 어원
 - 위기(危機, Crisis)는 그리스어의 'Krinein'(분리하다)에서 유래함
 - 원래 '결정적이고 갑작스런 병세의 변화로 죽음과 회복의 분기점'을 가리키는 의학용어임
- 사전상의 정의
 - 위기(危機)는 안전,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인, 조직, 지역 사회 또는 사회 전체에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말함(위키백과사전)
 - 위기는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는 어떤 사상의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단계로 제시됨(두산백과사전)
 - 위기는 문제해결 및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심각한 위험, 곤경 및 불확실한 시간으로 문제 및 나쁜 상황으로 손해가 최악의 시점에 있는 시기를 말함(옥스퍼드 사전(Oxford Learner's Dictionaries))
 - 즉, 위기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문제나 치명적인 위험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학술적 접근
 - (사회학) 위기는 사회체계 내 구성원이 행복, 생존 등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며, 내부 집단 간 부조화 현상이 심화되거나 외부에서 가해진 위험이 증대되어 사회총체적 불안으로 현재화함으로써 그 사회가 지닌 상황조절 능력을 크게 초과한 상태를 말함. 이로 인해서 위기상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상황이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친 결과까지를 포함함(김승권 외, 2010)
 - (경영학) 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조직과 산업,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임. 경영학에서 위기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김대구 · 전희준, 2021)

■ 사회위기 개념

● 사회위기에 대한 포괄적 개념 접근

- 한국의 사회위기 및 사회 불안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포괄하여, 고용, 교육, 주거, 인구·가족, 복지, 건강·안전, 사회갈등·문화, 불평등, 경제일반, 정치일반으로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김승권, 2010)
- 이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위기는 사회 불안정을 나타내는 사회위기 영역 10개와 44개 지표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가족위기와 관련된 지표는 부양비, 고령화지수, 출산율 등이 제시됨

[그림 2-1] 한국의 사회위기



자료 : 김승권(2010), 한국의 사회위기지표와 위기수준

■ 가족위기 개념

● 가족위기에 대한 포괄적 개념 접근

- 가족위기는 부정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구성원의 내면적인 어려움까지 포함하며, 특히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김유경 외, 2016)
- 이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사례로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1)의

연구가 있음. 여기서는 가족위기를 발달적 위기(가족주기 및 가족구성원의 인생단계서 직면하는 변화의 계기 포함)와 상황적 위기(우발적 위기; 욕구충족의 본질적인 자원을 비정상적/예기치 않게 상실하며 유발되는 위기)로 구분하여 접근함

●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위기가족 개념으로 접근

-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를 "위기가족"으로 보며, 이들의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위기가족긴급지원"으로 명시함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가족위기에 대한 학술적 접근

- 가족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진 마비 상황(Boss, 1988)
- 위기 사건에 직면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회복할 수 없고 가족구조와 상호작용 패턴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경우(McCubbin, & Patterson, 1983).
- 가족이 가진 기존의 대처 방식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족성원 개인이 당황, 위험, 곤경, 자포자기, 무감각, 무력감, 절박감, 곤란 등을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이 오는 상태 (Goldstein & Noonan, 1999)
- 일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며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소진하여, 가족성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는 경우(이선이, 1995)
-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근거, 위기가족은 스트레스 사건과 상황발생시 가족이 사건과 상황에 대처할 만큼의 충분한 내적, 외적 가족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트레스 사건과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가족이라고 함(김승권 외, 2010)

● 일반적으로,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념화

- 가족위기는 다양한 가족 구조 자체, 즉 구조적 측면에서 정상을 벗어난 상황을 일컫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위기상황, 즉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일컫기도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개념을 강조하여, 가족위이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함

2. 가족위기의 범위와 특성

-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가족정책에서의 가족위기 범주를 찾아내기 위해 전반적인 가족위기를 찾아볼 수 있는 가족중심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범주를 정의해보고자 함.

1) 발달적 위기

■ 가족생애주기별 발달과업과 가족위기 문제

- 가족생애주기별 과업 및 가족위기
 - 가족생애주기 이론에 근거할 때, 가족은 각 가족생애주기별로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이 존재함.
 - 그러나 이러한 발달과업이 다양한 위기관련 요인에 의해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가족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구사례)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 김유경 외(2009)의 연구는, 가족생애주기를 5단계(신혼 및 자녀출산기-미취학자녀기-취학자녀기-성인자녀 및 중년기-노년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발달과업이 경제위기로 인해 다음과 같은 가족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살펴봄
 - 연구결과, 경제위기는 각 가족생애주기 단계의 발달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해당 가족주기단계에서 성취되지 못하는 발달과업이 단순히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음, 각 가족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도 존재하나, 특정 문제들은 전 주기에서 발생하더라도 가족주기와 위기대응 자원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대응방식이 다르게 수행될 수 있음,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기능에 따라 가족생애주기별로 경제위기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과업수행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등이 제시됨

[그림 2-2]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생애주기별 가족위기

발달과업		가족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 및 자녀출산기: 가족형성, 의사소통, 일의 분담, 장기계획 및 관리 	경제 위기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 및 자녀출산기: 자녀출산 지연, 부부갈등, 부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자녀기: 자녀양육 및 일의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자녀기: 양육비용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자녀기: 학교적응, 교육·학습지원, 청소년 자아정체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자녀기: 교육비용 부담, 자녀와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자녀 및 중년기: 자녀의 완전한 독립, 부부체계로의 전환, 노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자녀 및 중년기: 자녀의 취업 및 결혼 지연, 중년 일자리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 노후대책, 거주환경 선택, 부부·가족 유대관계 증진, 죽음의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 노년빈곤, 경제적 자원 부담, 신체·정신적 건강 악화

자료 : 김유경 외(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규범적 사건

- 생애주기에 따라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규범적 사건, 예를 들어 취업과 혼인 및 출산, 정년퇴직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발달적 사건이고 부정적 사건은 아니지만, 가족내외에서 새로운 역할을 취득하거나 기존 역할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할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하는 위기 요인이 됨
- (연구사례)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의 연구는, 위기유형을 발달적 위기와 상황적 위기(우발적 위기)로 구분하고, 발달적 위기를 생활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로 정의함
 - 구체적으로 아동기 발달과업, 청소년의 정체감 혼돈, 대학입시, 첫 직장 적응, 결혼, 임신, 자녀결혼, 이사, 은퇴 등을 포함함

■ (특성) 예측가능하고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구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함

-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업이나 역할변화에 따른 위기는 예측가능하고 많은 가족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상대적으로 용이함
-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가족 내 역할구조나 생애주기의 발달 과업의 변화 폭이 크며, 이로 인해 소수가 겪는 위기이거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도 존재하기 쉬움
 -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이나 규범적 사건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1인가구의 위기문제가 증대하게 다루어져야 함

2) 스트레스 사건에 기인한 위기

■ 가족 외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 가족 외부적 위협으로 인해 스트레스 사건 발생, 가족의 적절한 대응 부족
 - 가족 외적 요인으로는 재해, 불경기, 전쟁,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위기 등이 있음
 - 이러한 가족 외부적 위협이 커지게 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험요소로 인해 가족생활에서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발적 조정능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가족위기로 나타남
 -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해도 '개인이나 가족의 맥락'(Beaujot, 2988), '가족자원과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인식'(Hill, 1949)에 따라 가족위기 여부나 정도가 결정됨
- (연구사례)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한 위기가족 개념
 - 김승원 외(2010)의 연구는, 가족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위기가족을 '스트레스 사건과 상황 발생 시 가족이 사건과 상황에 대처할 만큼의 충분한 내적 및 외적 가족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스트레스 사건과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함

■ 가족 내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또는 가족관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건 발생
 - 가족 내적 요인으로는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사치, 폭력 등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가족관계상의 갈등이나 소통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있음
- (연구사례) 가족 내적위기와 가족 외적위기로 구분
 - 김유경 외(2016)의 연구는, 가족내적 위기로 가구 부도 및 가족원의 실직 등으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와 부채증가에 따른 가족경제 위기, 가족 및 개인 변화에 따른 가족 돌봄이나 부양 공백 위기, 소규모가족 구조나 가족분거, 가족관 약화와 성역할 혼재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위기 등 만성적 위기와, 가족원의 정신과적 요인(우울증, 알코올 사용)이나 생애경험(가족원 상실, 대인관계 갈등) 및 생물학적 요인(신체질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자살위기 등 응급 위기로 구분하여 접근함

■ (특성) 동일한 위기라도 원인의 소재, 가족자원의 유무, 가족인식 등에 따라 다름

- 동일한 위기라도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 가족성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족원 중 누군가의 잘못이나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위기문제는 가족 내부의 원인 제공자에게 비난하거나 문제를 전가하는 등으로 인해 또 다른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스트레스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가족의 이전 경험이나 가능한 자원,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위기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기의 강도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
- 스트레스나 위기의 지속여부에 따라 이러한 가족위기는 만성위기와 응급위기로, 그리고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내용에 따라 경제위기, 돌봄 위기, 관계위기 등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가족위기는 다소 부정적인 사건에 기인하며,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1)의 연구에서 구분한 상황적 위기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자원의 부적합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음

3. 가족위기 관련 요인

1) 사회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

■ 경제위기

- 저성장 시대의 경제 위기
 - 우리나라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¹⁾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평균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등으로 2011년 이후 저성장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성장률의 저하는 결국 소비 및 투자의 위축, 고용악화, 가계부채 증가, 소득 양극화 등 국민 경제 및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

1) 저성장(low-growth)이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태가 3~4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일컫음. 저성장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심도 깊게 논의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위기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많은 사회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담론이 확산됨
 - 오랫동안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물가 시대가 유지되면서 가계의 많은 지출이 재정 부담이 되고, 이는 곧 가정경제의 위기문제가 됨
 -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자영업의 기반이 약해지면서, 가족원의 실직과 도산문제가 가계 빈곤위기의 문제가 됨
 -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가족원의 실업은 가족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원에게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 시키며, 실직 당사자를 둘러싼 가족원과 친인척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위기로 인해서 가족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원의 자살률을 높임(송혜림, 2009)
- 경제적 어려움은 또 다른 가족위기 문제의 원인이 됨
 -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 의사소통의 단절, 갈등의 내재화 가족관계 문제, 가족기능 수행상의 문제, 돌봄 문제와 가정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김유경 외, 2009)
 -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박에 의존하고, 도박의 성과가 안 좋으면 알코올에 빠져 중독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박정운, 2012),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 증가나 기존 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해 가구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김유경, 2016) 등이 보고됨

■ 사회적 재난

- 사회재난과 감염병 증가
 -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상황을 말함.
 - 최근에는 팬데믹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임(메르스, 코로나19 등)
- COVID-19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첫 확진자 발견(2020.01.20.)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별 가정에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관계나 활동이 변화되었으며, 특히 가족원의 고립감이나 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의 “코로나19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²⁾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녀 돌봄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9.9%

이며, 특히 식사 챙기거나 학습지도 등의 부담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은 증가(55.3%)하였으나 자녀와 조부모나 친척과의 왕래 기회는 감소(64.4%)했으며,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감정표출이 증가한 경우(46.0%)가 그렇지 않은 경우(18.2%) 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정서적 상태변화에서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더 증가했다는 사람이 40% 이상이며, 특히 불행하다는 느낌이 증가한 경우도 32.7%나 되는 것으로 제시됨

- 사회재난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재난은 불확실성, 상시성, 복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난을 경험한 가족은 가족기능의 상실과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위기를 경험함(김유경 외, 2016)
- 대구지하철 화재(소방방재청, 2006)나 세월호 참사(김익환 외, 2016)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생존자의 심리적·정서적 상처는 물론 유가족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소방방재청(2006)의 대구지하철 화재 생존자와 유가족의 심리·정서적 상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 생존자의 90%가 심각한 우울 증세를 호소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도 86.5% 나타났으며 유가족 역시 89%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대형재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연평균 각각 1,242억 원과 2,090억 원이었던 것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각각 8,199억 원과 2조 2,09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년도)

- 자연재해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가족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그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그로인한 가족원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히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가족원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구예진(2017)의 연구에 의하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경험이 아동의 인지적 반응, 심리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높은 연령의 아동일수록 자연재해가 자신에게 미칠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됨.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반응이 자연재해 경험 이후 아동이 보이는 인지적, 심리·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본 조사는 일반 국민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이용자의 2,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2일 ~ 10월 7일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됨

2) 가족의 변화와 돌봄 기능의 약화

■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 고령화 및 저출산의 영향
 - 고령화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개별 가구에서 이러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위기에 빠질 수 있음
 - 고령화의 증가는 연금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나타나서,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들 가구의 경제적 위기로 나타날 수 있음
 - 저출산과 독신가구의 증가는 가정 내 인적자원을 감소시키고,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인적자원 에 의해 이루어졌던 출산과 육아, 노인부양, 가사노동, 생활문화의 전달 등 가정 고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
- 개인주의화의 영향
 - 개인의 성장이 곧 사회의 성장으로 여겨지는 강력한 개인중심주의가 등장하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공동체문화가 약화되고, 모든 선택에서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 됨
 - 집단으로서 가족중심주의의 요소인 관계성, 조화, 의무감, 소속감, 융통성, 조직화, 집단의식 등이 점점 약해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지게 됨

■ 가족의 변화와 아동의 발달위기

- 가족의 변화는 아동 돌봄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킴
 - 고령화 및 저출산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 중심주의 가치가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나 자녀출산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영향을 줌
 - 결국, 가족 내 아동 돌봄의 기능은 약화되고, 가족 내에서 일정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는 치명적인 발달위기를 겪게 할 수 있음
- 아동이 경험하는 발달위기의 영향력
 - 아동이 경험하는 발달위기는 성장발달 과정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성인기 이후까지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아동기에 노출될 수 있는 발달위기(developmental at-risk)에 대해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빈곤, 미혼모(부) 양육, 생활사건스트레스, 가족갈등 및 해체, 가족자원 결핍, 건강문제, 열악한 주거환경, 부적절한 양육행동 등을 대표적인 발달위기 요인(developmental risk factors)으로 제시함 (박세경 외, 2014)

-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위기특성과 발달위기의 유형화

- 박세경 외(2014)는 발달위기의 인과론적 특성 및 위기노출의 결과로 아동에게 나타나는 부적응 상태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구분하는 3단계 유형화를 시도하여, 아동보호체제 개선을 위한 준거 틀을 제시함

[그림 2-3] 아동 발달단계와 위기요인

발달단계 위기특성	출생 ←————— 영아기 유아기 ————— 초등학교 재학연령 ————— 중고등학교 재학연령 —————→		
	개인적 요인 Micro-level Risk Factors	가족관계/가정환경적 요인 Meso-level Risk Factors	가족 외적/외부 환경적 요인 Macro-level Risk Factors
상황적 위기요인 Situational Risk Factors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아동 vs 가족원)	우발적 가족갈등 (불화, 가정폭력)	보육시설 부적응, 교사학대 등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왕따 등 비행, 가출, 또래의 일탈·비행 자살, 학업중단 등
지속적 위기요인 Enduring Risk Factors	아동 기질적·병리적 요인(문제 행동, 공격성, 충동장애, 질병 질환), 양육자 병리적 요인 (신체적·정신적 질환),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부적절한 양육태도, 의사소통 단절, 부모-자녀관계 문제 가족갈등(만성 가정폭력, 이혼)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양육가치관 반사회적 행동 수용적 법제도
근원적 위기요인 Underlying Risk Factors	주양육자의 불우한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	빈곤, 경제적 결핍 노동시장 참여 배제 낮은 사회경제적 지원	지역사회 범죄율, 취약한 사회 관계망, 열악한 아동·가족 지원 체제
	←————— 관심취약 아동 ————— 보호아동 ————— 고도위기 아동 —————→ Children in Needs/Vulnerable Looked-After Children At-risk/High-risk Children		

자료: 박세경 외(2014). 아동보호체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p.24

3) 가족원 개인의 역량과 위기

■ 자살과 죽음

- 자살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자살은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됨. 특히 자살위기는 가족원이 경험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므로 이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가족원의 자살 뒤에 직접적인 정신적 외상을 입는 자살 유가족은 평균 여섯 명이라는 보고가 있음. 예를 들어 황은순·김경민(2012)의 연구에서는 2010년의 경우 자살 1만5,566명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한 유가족은 9만 3396명이라고 함
- 이미숙(2007)은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소외 계층이 증가하였고 가족원 또는 가족동반자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족의 외부 환경의 변화나 위기가 가족생활에 영향을 줄 때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능력 부족의 결과이므로 가족위기에 잘 대응하는 능력강화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 죽음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배우자의 사망이 사회적 재적응을 요구하는 생애사건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함. Holmes & Rahe(1967)는 사회적 재적응척도 개발을 통해 배우자 사망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적응을 요구하는 생애사건이며, 결혼에 비해 배우자 사망 사건이 동반하는 재적응 수준이 두 배라고 함
- 박정윤(2012)의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주요 가족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자살 충격으로 인한 위기감을 겪은 가족은+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을 호소하며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등 위기상황이 지속됨을 밝힘

■ 중독과 도박

- 중독위기로 인한 가족의 정서적 문제는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됨

- 가족원 중 한 사람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가족 전체가 혼란함과 위기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은 매우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됨
- 박정윤(2012)의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는 가족원 개인의 경마, 사행성 도박, 다단계, 알코올 중독 등은 가족의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게 하고, 중독에 빠진 당사자가 중독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머지 가족들이 절망감을 호소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고함. 일반적으로 가족원의 중독현상을 다른 가족원들이 초기에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가족 전체가 위기상황 수습에 한계를 느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질병과 장애

- 가족원의 질병문제는 또 다른 가족위기로 확대됨

- 한 가족원의 질병과 다른 가족원의 간병은 경제적 문제(부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위기, 가족원 돌봄 과정에서 오는 위기 등 이차적인 위기상황을 가져옴. 즉 가족원의 질병이나 간병문제는 의료적 문제이지만 그로인한 경제적 지출과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면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장애는 가족의 힘든 적응과정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함

-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호 및 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힘든 적응과정(stress management)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됨(김은자 외, 2019)
- 부모 스스로 생활양식을 바꾸고 사회활동을 제한하며 장애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도 하지만, 양육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서비스 지원체계의 부족 등은 심한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짐. 특히 장애자녀의 양육부담에서부

터 교육과 재활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 아동의 장래에 대한 교육적 부담, 양육자 본인의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및 가족해체 등 다양한 경험은 장애가족이 경험하는 심각한 어려움임

■ 별거나 이혼, 세대 간 갈등적 관계

- 가족은 관계가 매우 중요한 단위로서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갈등의 해결방법과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사적인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특히 부부, 형제,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상태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는 항상 역동적인 상태에 있게 됨.
- 특히 부부가 개인 공간과 가족 공간,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불편함을 가져올 뿐 아니라,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음(진미정 외, 2020).
- 불평등한 관계는 갈등을 유발. 특히 가정 내 역할 부담의 불평등함. 독박 육아 등은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개인의 스트레스 및 관계의 긴장상태를 유발할 수 있음. 이러한 역할 갈등은 권위 및 권력, 자원의 유무와도 관련되며, 부부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세대 간 갈등으로도 연결됨.

■ 학대와 방임 등의 가정폭력

- 아이들은 어릴수록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가 적고, 또한 독자적 생활력이 없기에 가족,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디에서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받을 가능성 있음. 특히 가족이 점점 소 규모화 되고 개인화된다는 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아이에게 매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자들이 소득 단절, 이동 제한, 고립의 경험을 겪게 되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아이들과 같은 대상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할 가능성이 증가함
- 특히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기에 외부와의 단절이 늘어나고 학교나 돌봄 기관이 휴관할 때, 가족 내 학대와 방임 예방을 위한 조치나 대응이 더욱 필요함

4. 본 연구의 가족 위기에 대한 개념화 작업

■ 가족위기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가설

- 본 연구는 가족위기를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념화하고, 법에서 정의된 위기가족의 개념에서 부터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을 모두 포함함
-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위기가 사회문제의 기본이며 원인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함

■ 가족위기의 유형과 특성 구분하여 개념화 작업 시도

- 가족위기 개념화 작업은 그 범위와 관련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여 시도함
 - 발달적 위기 :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
 - 가족외적 위기 :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국가 간 전쟁이나 테러, 사회적 범위(유괴) 등
 - 관계적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
 - 개인적 위기 :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
- 가족위기의 개념화 작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근거로 접근함
 - 예측가능성 :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업이나 역할변화에 따른 위기는 예측가능 하지만, 최근에는 그 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도 존재함
 - 지속성 : 동일한 사건이나 스트레스도 지속여부에 따라 만성위기와 응급위기로 구분될 수 있음.
 - 중복성 : 가족이 지각하는 위기는 하나의 원인보다는 복합적이거나, 하나의 위기와 다른 위기가 중복해서 경험되는 경우가 많음
 - 의존성 : 동일한 가족위기라도 가족이 이전에 경험한 위기가거나 가능한 자원이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 인식 정도가 낮은 경우 위기의 강도가 낮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경험, 자원, 인식정도 등에 의존성이 높음

1. 가족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가정학분야에서 가족 및 가족위기와 관련된 이론은 그동안 주로 일반 가정의 건강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건강가정관점 가족강점관점에서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음
 - 건강가족 관점은 1962년 오토(Otto)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건강가족이란 정신 병리적 특성이 없는 기능적 가족을 뜻하였으나 1969년 웨슬리와 엽스타인(Westley & Epstein)에 와서 가족의 개인과 가족이 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됨
 - 가족 강점 관점은 주로 취약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사업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개인과 가족의 강점-즉 삶의 질, 성취, 유능성의 자각, 삶의 만족도, 역량 등을 찾아 강화함으로써 욕구와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자 함
- 반면, 가족위기 및 해체와 관련된 독립된 이론은 없으며, 가족이 건강성을 상실한 상황을 각 이론에서 문제가족 또는 가족 위기로 언급하거나 역기능적인 상황이 심화된 극단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설명함
 - 가정학에서는 가족이 어떻게 잘 생활을 유지하고 기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져 왔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와서 유기적이고 잘 기능하지 못하여 위기에 봉착하거나 결국 해체되는 위기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주로 다양한 가족관련 이론에서 부적응 적이고 역기능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부분적 내용으로만 다루어져 있음
 -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과 관련된 이론에서 가족이 잘 기능하지 못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을 추출하여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건강가족관점과 가족강점관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 독립된 가족위기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위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건강가정 관점 및 가족 강점관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위기도의 개선 및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언급되는 가족위기에 대한 설명을 도출하고 이러한 가족위기 상황이 건강가정관점과 가족강점관점을 통해 개선되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생태체계이론, 가족구조기능론, 발달이론, 가족자원관리이론, 가족갈등이론 등 다양한

- 이론들이 가족위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적용하는지를 살펴봄
- 그리고 건강가정관점 및 가족강점 관점을 통해 가족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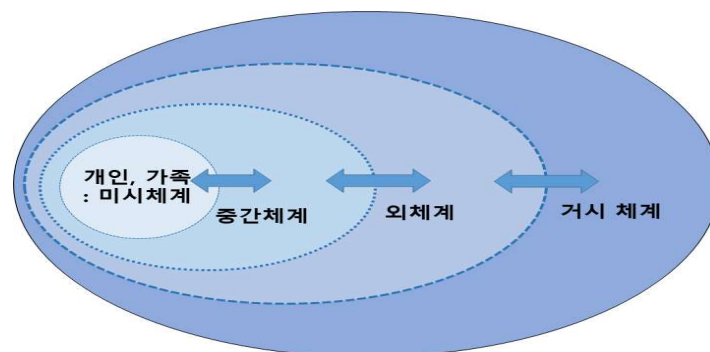
1) 생태체계이론

- 생태체계이론³⁾은 가족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태체계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가족생활의 질, 가족의 복지와 안녕을 파악한 관점을 제공함

■ 생태이론(ecological theory)

- 생물학의 생태계 개념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적용하여, 인간이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극과 변화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생활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잃고 위기에 이르게 됨을 설명함
- 생태는 개인이나 유기체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적 상황 혹은 개인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적 상황을 일컬으며,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생활의 장(場)은 네 가지 수준의 환경체계(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안에 위치함. 따라서 이 네 가지 환경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자극과 변화에 대해 적응하지 못할 때 생활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잃고 위기에 이르게 됨

[그림 2-4]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수준의 환경체계



자료: 조희금 외(2013)를 일부 수정함

-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개인이 경험하는 일차적 물리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역할 및 대인관계 유형을 포함하며, 개인, 가정, 학교, 또래집단, 놀이문화, 소집단 등이 해당됨. 개인과 가족을 포함한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으로,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3) 생태체계이론은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 1979)에 의해 생태이론과 체계이론을 가족에 함께 적용한 개념임

가까운 인적 자원으로 친구, 동료, 이웃 등이 해당됨

- 중간체계(mes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되어, 개인 또는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를 구성함. 가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호회, 지역단체, 주민자치회 등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위기 시 지지체계가 됨
 - 외체계(eco-system)는 개인이나 가족이 적극적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이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주요기관들이 해당됨. 가족의 위기 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지지체계를 구성하는 민간, 공공기관들이 해당됨
 - 거시체계(macro-system)는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 기본적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으로 하위체계의 문화 수준이나 문화 전반의 수준에 존재함. 개인이나 가족이 생애 중 문화가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문화 및 사회·역사적 차이에 적응해야하는 과정에서 위기에 처하게 됨.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이민자가족, 난민가족 등이 이러한 위기를 경험하게 됨
- 생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가족체계는 가족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체가 다양한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며, 이러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적응을 잘하는 가족은 건강성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으나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이 지속될 때 가족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봄,
 - 가족구성원의 생활에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사회 환경 내에서 다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정의 유지와 존속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건강성과 병리적 문제들이 사회 환경과 모든 체계 환경에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침
 - 모든 체계가 생태계와 사회 환경 내에서 상호작용하므로, 개인과 가족이 위기에 처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보다 상위의 체계들(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 예를 들어 개인과 가족은 사회의 경제 침체와 기후 변화(태풍과 수해, 가뭄과 냉해 등) 및 재난(전쟁과 지진 등)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체계들로 영향을 받으며, 생활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배출, 개발을 통한 환경 파괴와 오염 등으로 상위의 체계들에 영향을 미침

■ 가족체계이론(system theory)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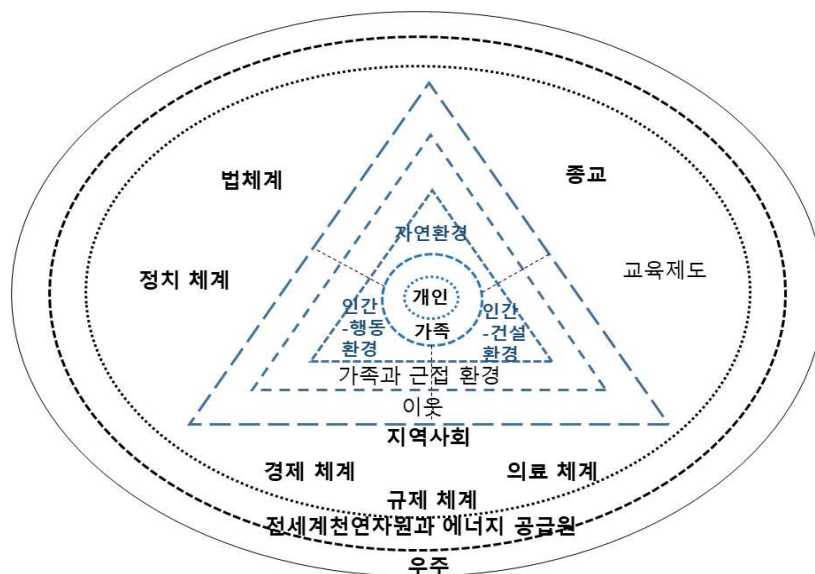
- 생물학에서의 일반체계이론을 1960년대 이후 가족체계에 적용한 것으로, 체계(system)는 여러 개의 부분(요소 element)으로 구성된 전체, 즉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모여 복잡한

4) 1930년 독일의 생물학자 버탈란피(Bertalanffy)의 일반 체계이론을 가족체계에 적용시킨 개념

기능체를 구성함. 가족 역시 하나의 체계로서 여러 부분들이 모여 복잡한 기능체를 구성하고, 동시에 상위의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성장·유지 되는 것으로 봄.

-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가족은 기능적 역할을 하는 하위시스템(sub-system)이 있는데, 인적 시스템(personal system)과 관리적 시스템(managerial system)으로 구성되며, 주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함. 인적 시스템 내에서 가족관계가 원만하거나 의식주생활 등 관리적 하위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때 가족생활의 유지와 존속이 가능함. 반면, 가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관리적 시스템에 의한 의식주관리 등의 욕구충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가족 내 위기가 발생함
 - 인적 하위시스템은 개인의 가치관 형성, 성격 개발, 자녀의 사회화 등의 역할을 하는 영역으로 지식, 에너지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동력의 역할을 함. 따라서 인적 하위시스템 내에서 부모의 자녀를 위한 가치관 형성, 성격 개발, 자녀의 사회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가족구성원들은 각자의 발달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사회에 적응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족원 간에서 역할수행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함. 반면, 인적 하위시스템에서 가족원 간 가치관의 갈등이 발생하여 심화되거나 자녀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자녀들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실패하게 되고 가족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적 하위 시스템은 수단적 활동 영역으로 의식주생활 등 가정생활을 유지함. 따라서 생활공동체를 영위하는 가족은 관리적 하위시스템으로써 의식주생활 및 재정관리 등이 매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족생활이 기능적으로 운영됨. 반면 매일 일상의 의식주생활 관리가

[그림 2-5] 가족의 생태적 구조



자료: Darling, C.(1987), "Family Life Educatio ". In M. Sussman & S. Steinmentz.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eds.), p.820. (김희성 외 4인, 2005, p.77 재인용)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생활 문제가 발생하여 가족생활이 함께 유지되기 어렵고, 심각한 경우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 질수도 있으며 위기에 처하게 됨. 많은 고독사 가정이나 가족집단 사망 사건의 경우 인적하위시스템의 문제이기보다 빈곤과 장애 또는 환자 가족의 돌봄 불가능 등의 관리적 하위시스템 상의 위기에 봉착한 경우가 많음

- 가족체계는 ‘전체성’, ‘상호성’, ‘항상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활동하며, 이러한 전체성과 상호성, 항상성의 특성이 적절히 유지될 때 가족의 건강성과 기능성을 증가하며, 반면에 유지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위기로 발전하게 됨
 - 가족은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성을 지님, 다양한 하위체계와 구성요소인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의식주생활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생산적 활동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극복해 낼 수 있음
 - 이는 가족원 간 상호작용(상호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가족 체계는 다양한 상위, 하위의 체계들과 상호 교류와 관계성을 지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함. 가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가족의 전체성이라는 특성을 강화하며, 소통을 통한 항상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반면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상호성)이 단절될 경우, 이는 극단적인 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식주생활관리에서의 단절 역시 역할 수행상의 갈등과 문제를 초래하고 해결되지 못할 경우 생계의 어려움 및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음
 - 동시에 가족체계는 체계 내외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거나 근본적으로 개방체계로서 끊임없이 정보와 에너지를 투입하고 산출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하며, 구성요소를 파괴 또는 생성하면서 안정 상태, 즉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짐. 즉 체계는 변화의 욕구와 항상성의 욕구 사이에서 체계 간 피드백을 통해 의사소통하면서 가장 안정지향적-변화지향적인 상태를 반복하면서 점진적 변화과정, 성장과 성숙, 발달을 이루어 감. 반면 가족이 끊임없이 변화(발달적 성장, 경제위기나 재해, 정보화기술 등)에 적응해나가지 않으면, 가족의 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안정과 유지까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환경과 생활에 도태되어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따라서 가족은 외부환경에 대한 개방성과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하는 상황이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작용 패턴을 형성하고 가족원의 행동을 제한함

2) 가족구조기능론

■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체계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가 전체 사회체계의 하나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체계(가족)의 어느 한 부분의 변화 역시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

- 체계의 한 부분이 변화하면, 체계 내의 각 모든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며, 모든 다른 구성요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함. 사회 역시 상호 관련된 여러 부분들인 하위 체계(subsystem)에 가족, 경제, 정부, 종교와 같은 사회 주요 제도가 포함됨. 각각의 하위체계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함
- 가족이 사회와 개인에 대해 어떤 기능을 하며, 사회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지를 설명함. 사회가 가장 잘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되어야 하는 지, 즉 가족의 대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둠
 - 가족 체계의 구성요소는 상호의존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체계, 가족체계, 종교체계, 정부와 교육체계 등 다양한 체계가 존재하며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기능함
 - 파슨스(Parsons, 1955)는 가족을 사회체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유형유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로 보고, 가족원 개인으로 하여금 기존 체제에 적응하는 동기를 조성해주는 사회화의 메커니즘을 담당함을 강조함. 부모들은 사회질서를 도모하여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내면화시킴으로써 사회체제가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인성을 형성하며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교육시킴
- 또한 가족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핵가족을 친족집단의 기본 단위로 보고(핵가족모델), 산업사회에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가족구조이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유지되고 적응하기 위해 가족의 구조 역시 변화됨을 설명함
 -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즉 체계, 구조, 기능과 역기능,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 등에 주목함
 - 가족 내에서 부모는 전통적으로 가족생활의 유지를 위해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분담함. 도구적 역할은 가족의 경제적 책임과 함께 자녀로 하여금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주로 남성인 아버지에 의해 수행됨. 반면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던 어머니는 애정적이며 정서적이고 자녀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편안함, 안락함을 제공하는 표현적 역할을 전담하여 왔으나 사회 변화와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에 따라 남성인 아버지에게도 자녀양육에의 참여가, 여성인 어머니에게도 경제활동에 대한 이중 역할의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의 경우에 가족 갈등과 위기로 파급됨

- 가족의 기능이 잘 통합되어 있지 않을 때를 역기능적인 가족으로 규정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의 유형(핵가족)에서 벗어나는 가족구조와 역기능적인 상태의 가족이 '가족해체' 및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됨을 설명함

[그림 2-6]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가족형태의 분류

		구 조	
		전통적 구조	새로운 구조
기 능	전통적 기능	핵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확대가족
	새로운 기능	자유(개방) 결혼 집단결혼	동성애부부 무자녀가족 동거 독신

자료: 정현숙·유계숙.(2008), 신정출판사. p.29

-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되며, 가족체계와 사회체계들 간에서 발생한 변화에 의해 구조의 분화가 기능의 분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봄. 즉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의 기능 중 중요시되는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의 기능에서 부가적이며 파생적인 기능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가족갈등과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됨
 - 머독(Murdock)은 인류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가족이 네 가지 본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한 기능이라도 수행되지 않으면 인류사회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봄.
 - 가족의 고유기능에는 구성원을 재생산함으로써 인류사회가 존속되게 하는 성적 기능과 생식 기능,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협동의 기능, 가족원 간의 돌봄과 사랑을 나누는 애정과 정서적 기능, 자녀를 교육하고 문화를 계승시키는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이 해당됨
 - 학자들의 가족의 기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부차적, 파생적 기능이 등장함을 설명함(김희성 외 4인, 2013). 성적 통제와 종족보존의 기능은 대외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생산과 소비의 기능은 사회적으로 노동력 제공과 경제 질서 유지의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여기서 파생되는 교육은 문화계승의 기능을, 보호와 휴식은 심리적·신체적 안정의 측면에서, 오락과 종교는 문화적·정서적 측면에서 나아가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능은 갖게 된다고 봄

<표 2-1> 가족의 기능

구분	세부 기능	내 용
고유의 기능	성적 통제 및 생식의 기능 (세대 재생산의 기능)	부부가 가정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제도이며, 결혼을 통해 전체 사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관계 통제의 기능도 함. 또한 자녀 출산을 통해 사회의 존속을 위해 다음 세대를 보충해나감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경제적 협동의 기능 (생산과 소비의 기능)	생산과 소비의 기능으로 구분되며, 과거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의 상업화와 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생산단위로서의 가족 기능은 축소되고 가족원이 산업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여 생활함으로써 소비의 기능이 강화됨. 따라서 현대의 가족은 상품 선택과 구매에 대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능력이 보다 요구되며, 한정된 수입으로 전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요구됨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기능 (교육과 사회화의 기능)	자녀들은 출생하면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가족생활을 통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기능하며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받음. 사회의 1차 집단으로 자녀의 인격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길러내는 사회화의 기능도 함
	애정과 정서의 기능 (돌봄, 관계적 기능)	가족은 부부 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집단임. 현대의 가족은 제도적 가족에서 우애적 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인간관계와 애정의 기능이 보다 중요시 됨. 사회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현대의 가족은 더욱 많은 긴장감과 갈등 속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안정감과 사랑이 중요해 짐
부차적 기능	사회적 지위부여의 기능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족 내 여러 지위(출생순위, 성별)가 부여되며, 자신이 태어난 가족에 의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여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족배경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기초를 제공하며, 개인의 직업성취에도 주요한 요인이 됨
	휴식 및 오락의 기능	가족은 복잡한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 갈등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며, 각 가족원의 에너지를 재충전 시켜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함. 가족의 휴식과 오락의 기능은 각 가족원 간의 열린 대화를 유도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건전한 가정에서 건전한 가치관을 갖게 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풍토를 이루는 데 기초적 기능을 수행함
	종교적 기능	종교적 의례나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 감사하고 삶의 진리를 깨달으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생활태도임. 조상에 대한 숭배, 가신 숭배, 무속신앙, 유교 등과 여러 종교기관에서 그 기능을 수행함
	치료 및 위안의 기능	경쟁적인 사회구조와 독립된 주거, 핵가족형태가 심화되면서 친척과 친구, 이웃 간의 교류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사회 변화와 복잡한 사회관계로부터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게 될 때 가족 안에서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해져 현대사회에 더욱 강조되는 정서적 기능임

- 가족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사회체계의 유지와 존속에도 기능적일 수 있음
 - 최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해 주는 다양한 집단들이 등장함으로써 가족 기능의 수행 상황에도 변화가 일어남. 예를 들어 교육과 돌봄 기관(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초·중·고등학교 등) 및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과 상품화에 의해 대체가 이루어짐
 - 특히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가족의 치료기능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하는 역할로서, 가족 내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짐(유영주, 1989; 김혜경 외 6인, 2014 p.29 재인용)

■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문제

-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인 가족 체계 내에서의 부부간, 부모-자녀 간의 규범과 역할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들 가족문제가 사회적 공동의 노력(국가 및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종교기관 등)지원에 의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 되어 사회로 파급되었을 때 사회문제가 된다고 봄
 - 산업사회에 적합하다고 보는 핵가족과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가족유형(핵가족)에서 벗어나는 가족-즉 독신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등의 경우에 그 기능상 어려움과 가족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위기에 이르기 전 가족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원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입 형태의 변화는 해당 시대의 지배적 가치와, 사상,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밀접하게 관련됨.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 기능 약화에 따른 가족문제는 다음과 같음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
 - 가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정신적·정서적·심리적 장애아동, 가출 및 비행 청소년 등의 문제 아동 수가 증가함. 이들 가족원의 각종 심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와 함께 소외 문제 등의 개인적 위기가 증가함
 - 경제적 부양기능의 문제
 - 예상치 못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함으로써 경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가족의 경우에 실직과 부채 및 가족 소득의 문제가 점차 증가함. 가정의 빈곤문제, 가족구조상 취업여성의 증가, 가족 간 빈부 차이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등도 가족의 경제적 부양문제와 직결되어 가정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위기 및 개인적 위기를 증가시킴
 - 가족 통제 기능약화 및 상실의 문제
 - 가족의 통제 능력이 약화되거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데서 오는 가족관계와 가치관의 문제가 제기됨. 잦은 이사로 인한 가족생활의 불안정성, 세대 차이 문제, 부부불화, 부모 역할 모델의 부족, 대화의 부족 등이 원활한 가족기능의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가족 갈등과 관계적 위기의 상황이 초래됨

– 가족 보호기능의 약화 문제

- 핵가족화에 따른 약자 가족구성원-예를 들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가족문제와 갈등이 증가함. 가족공동체로서의 사회화, 정서적 지지의 기능 수행이 점점 약화되어 가족 발달적 위기, 가족관계적 위기, 개인적위기(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의 다양한 위기 초래 및 문제로 파급 됨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가족 단위 보다 개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가족문제들은 해체문제(이혼· 별거· 가출 등), 탈선문제(부랑아· 비행 청소년· 미혼모· 가정폭력· 근친상간 등), 돌봄 문제(빈곤가족· 노인부양· 맞벌이가족의 아동부양 등), 인적자원 부족 문제(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족 등) 등 모두 가족구조기능 상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파급되는 것이 많음

– 이러한 가족문제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약화되고 변형된 가족의 기능을 보완· 대체 할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는 양과 질이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임.

– 또한 가족정책과 서비스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센터 역시 이제까지의 가족지원서비스가 가족 교육과 상담 및 문화, 돌봄 등의 건강성 강화와 일반적, 보편적 서비스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특별히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역기능적인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및 대응 체계는 분절적이고 지역적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임 (모든 센터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지자체별로 특수한 요청에 의해 각 지역센터가 위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발달이론

- 발달이론은 개인 가족원의 관점에서의 인간발달이론(human development theory)과 가족 단위의 가족발달이론(family development theory)의 양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즉 가족원은 개인 측면에서의 발달적 위기와 가족 단위에서의 발달적 위기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음

- 개인이나 가족이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원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현상을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과 ‘생애발달(life span development), 그리고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와 ‘생애과정(life course)’의 개념이 혼합되어, 발달적 위기 역시 개인과 가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될 수 있음

■ 개인 측면에서의 발달

- 인간발달이론(human development theory)에 의하면, 인간은 탄생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족과 사회의 영향을 받아 일련의 유사한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성장과 발달의 과정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단계로 구분됨(표2-2참조). 각 개인은 생애 발달 단계에서 획득해야 할 행동인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을 획득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성장과 발달을 이루게 되고 가족건강성의 기초가 됨

<표 2-2> 개인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

가족생활주기단계		발달과업	
태아기 (임신~출산)		-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출산	-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
영아기 (0~ 2세)		-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 모자 간 적절한 애착 형성	-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 - 부모의 양육 기술 정보 습득
유아기 (3 ~6세) 초등 취학 전까지		- 자녀의 건강한 성정 - 부모 역할의 중요성 - 언어 습득 및 개념화 기술	- 자기통제 능력 습득 - 친구 사귀기와 사회성 발달
아동기 초등 학교 시기	아동전기 (7 ~9세)	- 왕성한 아동의 활동 - 적절한 놀이지도 - 충분한 학습과 사회화	- 인지발달에 따른 교육 -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아동후기 (10 ~13세)	- 자아발달과 자존심 형성 - 지적, 사회적 자극과 발달 적응	- 또래아동과의 관계 형성
청소년기 (14~ 19세) 중, 고교 시기		- 자아정체감 형성 - 심리적 독립(책임감 형성) - 진로 결정	- 신체적, 성적 성숙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인기	초기 성인기 (20 ~39세) 대학~결혼	- 직업 선택, 유지 - 친밀성의 성취 - 배우자 선택, 가정 형성	- 결혼생활에의 적응 - 가족생활계획(임신, 출산) - 책임 있는 시민으로 생활
	중년기 후기 (40~64세) 결혼 후~자녀독립	- 건강 유지, 신체적 변화 - 원활한 가계 운영과 가족보호	- 생산성 증대 vs. 조기은퇴 - 노부모 돌봄
노년기 (65세 이후) 은퇴 후, 배우자와 본인사망		- 노화, 건강 악화, 육체적 보호 - 가족, 사회적 소외	- 삶의 의욕 및 정리 (생애에 대한 회고)

- 반면, 각 생애 발달 단계에 적합한 행동을 획득하지 못할 때 긴장이 발생하며 다음 단계로의

성장과 발달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발생함. 가족 구성원 중 한 개인의 발달과업 상의 불안정감과 스트레스, 위기상황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족생활 전체적인 불안정감과 위기가 점차 높아지게 됨

- 하비거스트(Havighurst)는 각 단계의 발달 과업인 행동들을 각 개인이 그 시기에 잘 획득하면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각 단계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음 시기의 행동발달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로 생활의 불안정감이 상승하여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함

- 가족 구성원인 각 개인이 각각의 인간 발달의 단계에서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위기는 전체 가족의 안정된 상태에 자극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위기를 초래함
- 생애발달이론(life span development theory)에서는 각 개인의 발달 과정이 동일하지만, 변화의 정도와 조건에 있어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함
 - 생애주기 발달적 측면에서 인간은 수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행동의 일관성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개체 발생적 발달(onto-genetic development)’을 이루어 전 생애에 걸쳐 인지적, 정서적, 지적 발달과정에서 성장과 변화에 차이가 나타남.

■ 가족 측면에서의 발달

- 가족발달이론(family development theory)에 의하면, 가족 역시 개인의 탄생과 성장, 사망과 마찬가지로 형성에서부터 성장, 소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동일한 발달 과정을 거치며, 그 특징에 따라 몇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됨
- 각 가정의 성장과 발달은 각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발달, 개인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및 사회/제도적 영향 등 세 가지 차원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가족성원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가족 외 환경의 사회적, 생태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따라 한 가족은 생성부터 성장, 소멸되기까지 일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각 주기 단계별로 ‘가족발달과업’을 수행하게 됨
 - 각 단계별 발달과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으므로, 가정생활의 각 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을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함
- 가족발달과업(family developmental tasks)은 가족생활주기에서 각 단계별로 적절히 수행되어야 가족원이 안정되고 충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고 원만한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음

- 가족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는 가족의 변화과정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체 발생적 과정(onto-genetic course)’을 거치므로, 시간에 따라 가족의 변화 특성은 가족들의 세대 간 전이과정과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을 강조함

<표 2-3> 가족생활주기 단계별 특징과 과업

가족생활주기단계		발달과업
형성기	형성기 (결혼~첫 자녀 출산 전)	-상호만족적인 결혼생활 정립 -부부체계형성(효율적 대화체계, 적절한 소득·지출 체계 수립) -가족계획 설계 및 출산 준비 -친인척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확대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 출산 ~ 첫 자녀 입학 전)	-자녀출산 및 양육에 적응(시간, 에너지, 공간, 가사의 재조정) -자녀-부모 건강한 관계 형성, 부모 역할에 적응 -초등학교 입학 준비 -자녀 중심의 부부역할 조정
	자녀 교육기 (첫 자녀 입학 ~ 첫 자녀 고교졸업 전)	-자녀의 교육적 성취 격려하기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성 발달에 관심(진로선택, 사회적 역할) (자유-책임감 간 균형감 형성,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 조성) -자녀의 원만한 지역사회 적응에 협조 -재정계획 및 실천 -만족스런 부부관계 유지, 중년기 준비
	자녀 성인기 (첫 자녀 고교졸업 ~첫 자녀 결혼 전)	-자녀의 성인으로 독립심 준비(진로 및 취업 지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 갖추기 -예비결혼자로서의 전반적인 교육 및 준비 - 부부관계 재정비
축소기	자녀 결혼기 (첫 자녀 결혼 ~ 막내 자녀 결혼)	-자녀의 결혼과 독립지원 -원가족 및 형제가족과의 관계 형성 -새로운 가족, 삶에 대한지지, 책임감 형성 -건강 대책수립, 중년기 위기감 극복하기 -조부모 역할 수행, 노년기 준비
	노년기 (막내 자녀 결혼 후 배우자 사망)	-은퇴 및 노화에 적응 -부부관계에 재 집중(유지 및 증진) -성인자녀, 인척, 가족, 친지와와의 유대감 유지 -배우자 죽음 및 홀로되기에의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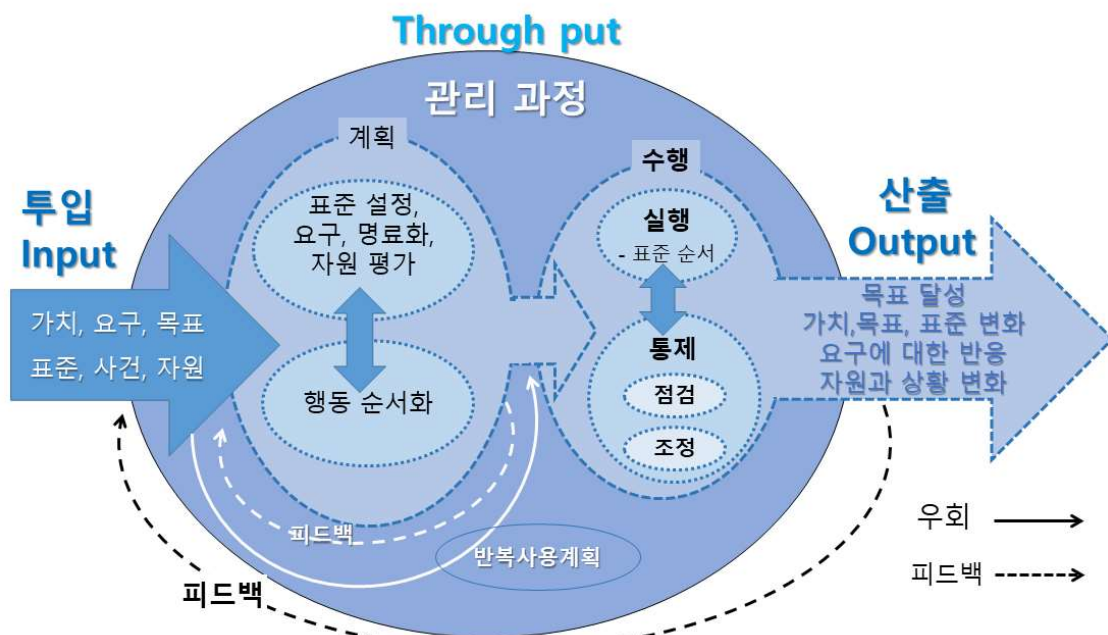
자료: 도미향 외 5인(2020), 건강가정론. 신정출판사 .p63 재인용 및 일부 수정

4) 가족자원관리이론

■ 가족자원관리의 틀

- 가족자원관리이론은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매일의 의식주생활관리, 즉 일상생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의 기본적 구조를 설명함.
- 가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는 종합적인 운영활동인 가족자원관리활동을 수행함
- 가족체계는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원의 가치관 및 성격을 발달시키고 자녀를 사회화시키며 가족원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심리사회적 하위체계와 다른 한편으로 가족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성됨
- 가족자원관리이론은 특히 가족의 관리적 하위체계에 초점을 두고, 개인과 가족이 관리적 하위체계, 즉 다양한 관리의 과정을 통해 매일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을 설명함

[그림 2-7] 가족자원관리의 틀



자료 : 가정관리학연구회 역(1991). 가족자원관리. p.129(임희규 외 5인, 1998. p.67재인용)

- 가족자원의 관리적 하위 체계가 적절히 운영될 때 가족원의 매일 생활상의 욕구와 목표, 가치, 표준 등이 달성되며,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 가족원의 욕구충족 및 목표 달성, 표준 및 자원의 변화 등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때 가족의 성장과 발달, 유지, 존속에 있어 위기가 발생하게 됨
 - 가족자원관리체계는 의식주생활 및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 가족은 가족원 모두의 매일의 생활이 적절히 운영되고 가족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가족자원관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가족구성원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소비와 구매 등 여러 영역에서 생활상의 문제 또는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가족위기 상황에 처하게 됨
 - 가정생활의 내용은 크게 인적 측면과 물적인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생활과 관련된 인간, 물질, 인간과 물질 간의 관계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관리의 대상은 금전, 일과 여가, 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다양함
 -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족 개인이나 가족 전체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사건 자체가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이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어려워질 때 가족은 위기에 이르게 됨. 즉 바람직한 것이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든 적응을 요구하는 생활의 변화 자체가 평범한 사건이 되며 이외에도 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변화, 조건에 이르기 까지 가족스트레스와 위기의 다양한 원인이 됨.
 - 가족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자원과 인지 및 사회적 원조자원을 동원하여 원만한 평형상태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며, 이는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한 관리전략임
 - 가족의 문제가 많을수록 재정, 정서, 에너지 등 다른 자원들이 부족해지며, 가족의 요구사항들이 자원을 능가하여 위험신호가 됨.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은 가족공동체 의식의 유지, 자기신뢰감과 자존심의 육성, 사회적 유대 강화, 긍정적인 가치관 배양, 문제의식의 고취, 긴장 해소, 해결책 균형 있게 적용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함

5) 가족갈등이론

■ 일반 갈등 이론

- 인간의 기본적 속성과 사회자원의 제한성 등으로 인하여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갈등은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봄.
 -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갈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족과 여성-남성 관계에 적용하여, 자본주의 내에서의 억압과 착취가 가족 내에서 그대로 재생된다고 봄.
-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려는 동기를 가지나 개인과 집단들이 바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욕구가 제각기 다르고, 또한 설사 같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되는 물건(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임.
 - 이러한 갈등의 궁극적 원인은 결국 불평등이며, 불평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사회체계의 재조직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가 지속적 변화하게 됨

■ 가족갈등이론

- 일반 갈등이론이 가족에게 적용된 것으로, 가정생활에서 갈등은 가족 내의 이해관계나 권력, 혹은 자원의 불평등, 불만, 이해관계의 충돌 등에 기인함.
- 가정생활 안에서 갈등이 반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해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가족체계가 오히려 더욱 구조화될 수도 있으므로,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이 결정됨.
 -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원의 한계와 무한한 인간 욕구 간의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듯이 가족 역시 소유한 자원의 한계와 가족원들 간의 욕구충족과 이해관계와 권력의 충돌로 인하여 생활 속에서 갈등과 경쟁을 피할 수 없음.
 - 가족생활 속에서의 발생하는 갈등을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원만히 긍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문제의 조정과 해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발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 반면 가족 내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로 장기화 될수록 가족구성원 간 스트레스가 폭증하여 가족관계의 위기를 초래하게 됨
- 갈등은 변증법적 과정으로서 그 처리와 대응의 단계가 중요함. 따라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관계 내 자원과 권위 배분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갈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가족원간의 갈등과 긴장을 원만히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함.

갈등의 해소와 처리, 대응과정에서 가족원은 양보와 타협, 조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긍정적으로 갈등해소에 성공하기도 하고 갈등해소에 실패하기도 함.

- 갈등 해소의 과정에서 각 구성원이 지닌 관계의 질과 자원 소유의 여부, 권력 배분 등에 의해 갈등해소 방법과 유형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족원들이 이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갈등이론의 기본적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 인간 본성의 기본적 요소로서 갈등성향 ; 인간은 순전히 자기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기본적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함. 가족원 개인 역시 갈등의 기본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생활공동체인 가족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 갈등, 경쟁과 희소자원을 위한 투쟁 ; 인간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 제한되고 희소한 자원을 두고 갈등과 경쟁을 함. 가족 역시 가정생활 속에서 제한되고 희소한 자원으로 인해 갈등과 경쟁을 함
- 갈등은 사회의 기본구조 조건 ; 사회관계에 내재하는 모순들로 인해 계급 간 갈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것이 사회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붕괴를 초래함(Marx의 갈등론). 가족 내에서도 갈등의 존재로 인해 인적 하위체계인 가족원간의 관계(부부, 부모-자녀, 친인척) 간에 갈등은 불가피하며, 관리적 하위체계인 의식주생활 및 가사노동 등을 통한 욕구충족 사이에서도 불평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해소되지 못할 시 가족위기로 발전하게 됨
- 심리 내적 갈등 ; 인간은 각자 리비도와 공격적 에너지가 안팎으로 갈등하는 전투장임(Freud의 정신분석론)
- 관계의 본질에 대한 베버(Weber)의 사고 ; 사회 관계 내에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권력이며, 이 같은 권력의 제도화나 합법화와 관련해서 사회갈등 혹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됨
- 갈등이 보다 큰 사회에 통합적인 사회기능을 제공 ; 조화와 갈등은 늘 사회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며, 갈등은 내적으로든, 혹은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든 집단의 단결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함. 가족 역시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경쟁하면서도 외부와의 이해관계 충돌 시에는 집단으로 단결하고 유대감을 공고히 함

2. 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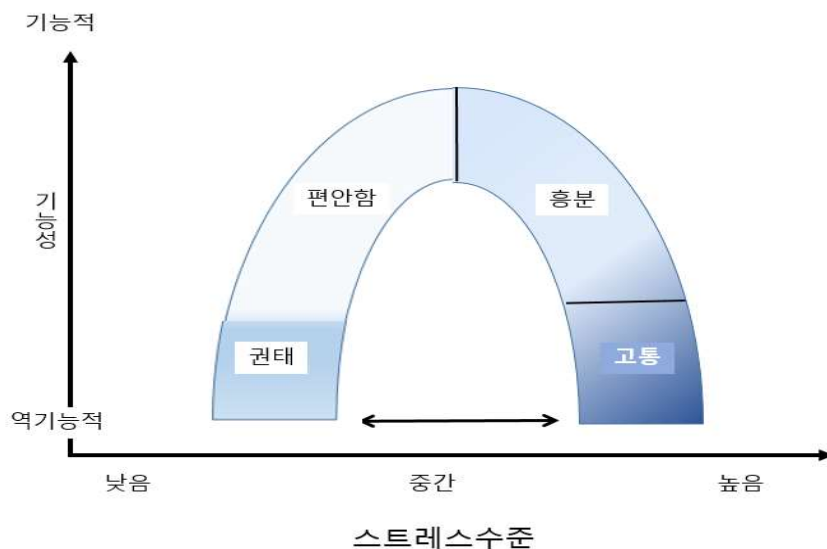
- 가족위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주로 스트레스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는 가족스트레스이론과 스트레스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대처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가족위기개입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 옴
- 가족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각 가족의 대응 및 해소 방식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이 유지되기도 하고 위기로 발전되기도 함. 최근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가족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위기개입 모델들이 적용되기 시작함

1) 가족 스트레스 이론

■ 가족스트레스(Family Stress)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체계에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평형상태에 변화가 오고 안정된 가족에 혼란이나 긴장이 초래되는 것임. 이처럼 가족 스트레스가 가족체계의 평형상태를 깨뜨린다고 해서 가족에게 언제나 해로운 것은 아님.

- 가족 스트레스는 가족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립적 개념임
-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족원들이 불만을 느끼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혼란의 증상을 보이는 등 스트레스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임

[그림 2-8] 가족 스트레스의 수준과 가족의 기능성 간의 관계



자료: 정현숙·유계숙(2001). p.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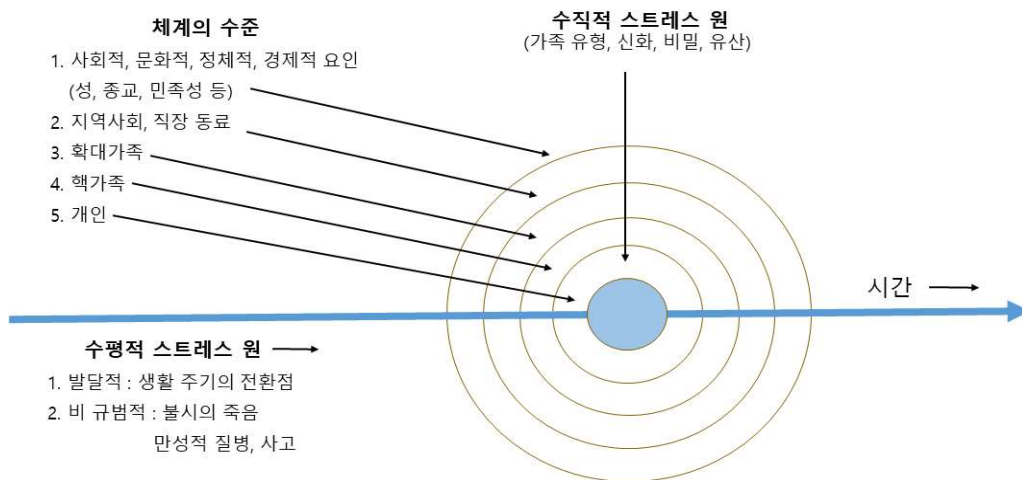
-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문제 증상을 나타내는 가족원들에게 가족 스트레스가 발견됨
 -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케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약해지면, 전체 구조에 긴장과 하중이 가해져 스트레스가 유발됨.
 - 가족들이 이러한 긴장으로부터 야기되는 붕괴, 위기를 피하려면 당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하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함
 - 가족 스트레스로 인한 높은 수준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당면 상황에 적응하여 가족의 규칙, 역할, 문제해결 등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음
- 특정 시점에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외부적 자극을 스트레스원(stressor) 또는 스트레스 유발사건으로, 가족생활의 다양한 위험 신호가 되며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며 심해질 경우 위기상황으로 발전됨
- 내적 스트레스원과 외적 스트레스원
 - 내적 스트레스원은 가족 체계 내의 가족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자살, 폭력 등이 해당됨
 - 외적 스트레스원은 가족 외부에서 비롯되는 사건들로, 지진, 테러, 성차별, 경기불황 등이 해당됨
 - 규범적 스트레스원과 비규범적 스트레스원
 - 규범적 스트레스원은 가족생활주기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건들로 결혼, 출산, 자녀들의 독립, 노화, 사망 등이 해당됨
 - 비규범적 스트레스원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가족에게 급작스러운 불행한 사건들로 이혼, 급사, 복권 당첨 등이 해당됨
 - 모호한 스트레스원과 명확한 스트레스원
 - 모호한 스트레스원은 가족 내에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발생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 사건들로, Hunt(1979)의 연구에 의하면 부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원의 명확성에 따라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적응도에 차이가 나타남. 남편의 행방불명 시 부인들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의 귀환에 대한 기대로 주거, 자녀 교육 등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함. 즉 사건이 일어날지 여부를 알지 못할 때 사고, 감정, 행동에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고 무력감에 빠짐
 - 명확한 스트레스원은 반대의 경우로 모호한 상황에서 단념하고 스트레스원을 명확하게 직시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오히려 적응을 잘 함. 즉 남편의 모호한 귀환에 대해 단념하고 남편 역할을 떠맡아 보다 확실하게 생활에 대처한 부인들은 적응을 잘 함

- 자발적 스트레스원과 비자발적 스트레스원
 - 자발적 스트레스원은 계획한 임인, 만학도의 대학 입학, 입양 등 가족원이 원해서 선택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말함
 - 비자발적 스트레스원은 실직, 실연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일어난 사건을 포함함
- 만성적 스트레스원과 급성적 스트레스원
 - 만성적 스트레스원은 비만, 남아선호, 약물 중독 등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말함
 - 급성적 스트레스원은 골절, 상해, 입시에서의 실패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간 지속되는 사건을 말함
-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단독 스트레스원
 - 누적된 스트레스원은 선행된 스트레스 사건이 미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여러 개의 스트레스 유발 사건들이 누적된 상태를 말함
 - 단독 스트레스원은 그 사건 이외에 다른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 Carter와 Mc Goldrick(1980)는 가족체계에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은 크게 수평적(세대 내) 스트레스 원과 수직적(세대 간) 스트레스원이 있다고 함

[그림 2-9] 가족의 수직적·수평적 스트레스원



자료: Carter & McGoldrick(1980); 정현숙·유계숙(2001) p.448 재인용

- 수직적 스트레스원은 가족의 태도, 기대, 규칙 등 주로 정서적 삼각관계를 통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기능 패턴으로, 근원가족에서 파생된 가족 이미지, 이념, 규칙, 경계, 금기나 비밀, 낙인 등이 포함됨.
- 수평적 스트레스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생활주기에서 예측이 가능한 발달적, 전이적 사건들과 가족생활주기를 혼란시키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모두 포함함.
- 가족이 발달해 가면서 각 세대는 결혼, 출산, 자녀의 성장과 독립 등 예측할 수 있는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함. 이는 가족생활주기 상의 각 발달단계가 가족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고, 가족원들은 각 단계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며, 가족 스트레스는 특히 가족발달 과정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이(transition)의 지점에서 가장 심함.
 - 가족생활주기상의 모든 단계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발생되며, 스트레스와 긴장이 가장 많이 누적되는 시기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은 자녀 청소년기와 진수기임. 또한 가족생활주기 전 단계 걸쳐 가장 많이 지적된 스트레스 원은 재정문제였으며, 가족 내 갈등이나 일-가족 간의 조화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스트레스 원임(Olson, McCubbin과 그 동료들, 1989; 정현숙·유계숙, 2001, p.458 재인용)
- 가족들은 불의의 사망, 장애아의 출산, 질병, 전쟁, 파산, 복권 당첨 등 예기치 않거나 가족 외부에서 야기된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 원은 발달적 시각에서 예견될 수 없으며 가족의 생활 패턴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건이나 가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
 - 미해결된 발달과업, 정서적 문제, 부부 간의 성(性)문제, 경제 불안, 중요한 경제적 투자와 지출 문제, 의료비의 부담, 기본 생활비의 부담, 가족원의 질병과 사망, 전직, 실직, 이직, 은퇴 등 직업상의 문제 등
- 수직적 스트레스원과 수평적 스트레스원 역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
 - 가족은 수평적 스트레스원이 많아질수록 역기능적으로 되며, 특히 수직적 스트레스원이 많은 가족은 수평적 스트레스원이 조금만 가해져도 그 체계가 와해되는 위기상황에 다다름

■ 가족 긴장(Family strain)

- 가족체계는 최소한의 기능을 하며 스트레스에 견디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당면 문제의 해결이나 체계의 변화에 필요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긴장을 야기하는 상황임
 - 마치 붕괴 이전 흔들리는 가족들에 해당함

- 긴장 상태에 있는 가족은 유리와 같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추가되면, 가족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족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예: 가족 자원, 가족의 건강성 등)이 부합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됨
- 가족 긴장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가족의 판별에 있어서, 가족스트레스나 가족위기보다 훨씬 유용한 변인임

2) 가족위기 개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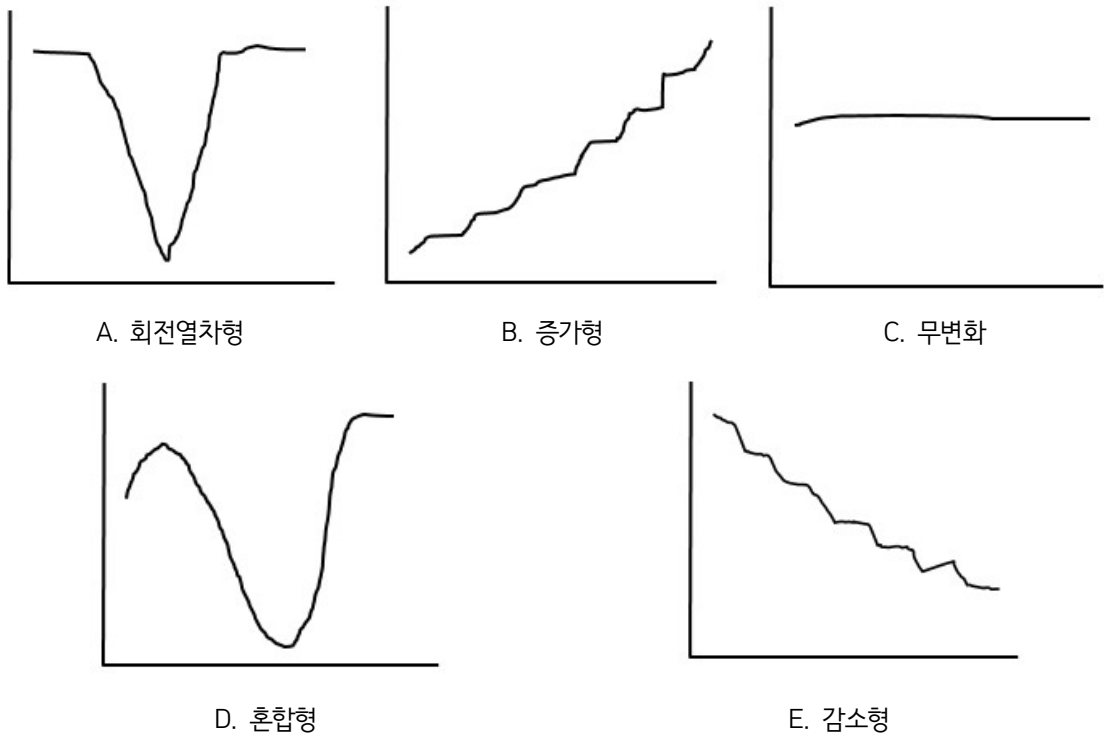
- 위기는 ‘결정적인 것(decisiveness)’ 또는 ‘결정의 지점(point of decision)’이라는 의미로, Malts는 위기를 두 갈래의 길로 묘사하여, 보다 좋은 상황으로 가는 길과 다른 길은 더욱더 나쁜 환경으로 가는 방향이 있음(문숙재·김정옥, 1995)을 제시함
 -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복지는 위기 상황에서 균형 상태를 이루는데 달려 있고, 위기 상태를 잘 넘겨서 생존할 수도 있고 상처는 입었지만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고, 정신적 · 신체적으로 위기에 굴복할 수도 있음
 - 위기는 보편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힘과 세력, 지혜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완전히 한 개인이나 가족을 압도할 수도 있음.
- 가족위기(Family Crisis)는 때때로 가족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며, 가족 스트레스가 위험수위에 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붕괴 직전 흔들리는 상황이 가족 스트레스라면 붕괴가 가족의 위기임
 - 모든 가족이 언젠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활사건적 위기(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 상황(이혼, 실직, 심각한 질병, 알코올 중독, 폭력 등)에 부딪히게 됨
 - 가족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나타내는 연속 변인이고, 가족의 위기는 위기 여부를 나타내는 범주형 변인임.
 - 가족위기에 빠지게 되면 가족의 경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기존의 역할 및 과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원들도 적절히 기능할 수 없음
 - 가족위기에 나타나는 구체적 증상으로는, 가족원들이 일상적 역할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의지결정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없음, 이전과 같은 가족원들 간의 상호 관심은 사라지고

가족의 생존보다 개인의 생존에 초점을 두게 됨. 가족위기는 매우 고통스러우며, 가족체계를 마비시켜 무력하게 만들 등으로 나타남

● 가족에 따라 스트레스와 위기에 적응하는 방식이 다름

- Harker & Taylor(1993)에 따르면, 가족들 중 회전열차 유형 50%, 스트레스를 통해 가족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증가형 18%, 정반대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감소형 5%,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기능의 변화가 없는 무변화형 15%, 스트레스 증가형 이후 회전열차 유형을 경험하는 혼합형 11% 으로 나타남

[그림 2-10] 가족에 따라 스트레스와 위기에 적응하는 방식



자료: Harker & Taylor(1993), 정현숙·유계숙(2001). p.448 재인용

● 가족이 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은 단계를 거치게 됨

- Hill(1958)은 가족이 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은 조직의 와해단계, 전환의 회복기 단계, 재조직 단계의 3단계로 구성된다고 봄

- Koos(1946)의 회전열차 유형에 의하면, V자 왼쪽의 수평선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이전의 가족 기능의 수준이고, V자 오른쪽의 수평선은 위기 극복이후의 가족 기능 수준임. 즉,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가족 기능은 급속하게 감소하며, 위기를 향해 치닫다가 위기의 저점을 지나 회복기로 진입한 뒤 이전의 가족 기능을 급속하게 회복함. 이때 가족들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보다 가족기능 수준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회복기 이후의 가족 기능이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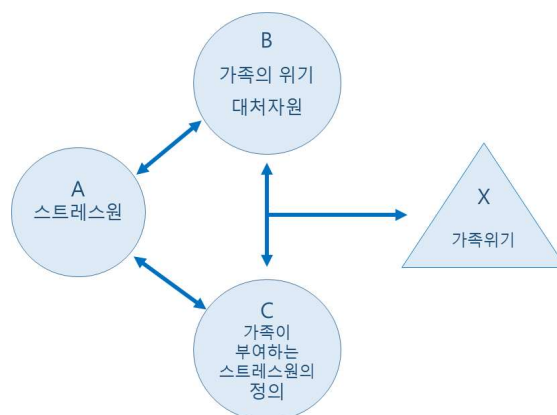
발생 전보다 악화되기도 함

● Buehler와 Hogan의 위기관리 패턴

- 위기단계를 간신히 넘어가는 '생존관리(survival management)단계'에서부터 발전해서 성장하는 '점증적 관리(Incrementalism management) 단계', '포괄적 관리(comprehensive management)단계'로 이행되는 연속적 관리 패턴으로 설명함
- 생존관리 단계는 생존-오늘, 현재를 겨우 넘기는 것으로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라고 행동하게 되는 상태임. 예를 들어 사랑했던 가족을 상실한 후 따르는 정례절차와 수많은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상황으로 사망과정에서의 슬픔과 정서적 문제, 장례 과정에서의 금전적 문제와 법적 처리(고용주, 보험회사, 공무원 등과의 만남) 등이 스트레스의 강도를 높여 가족원 간의 갈등을 높이고, 그날 그날 가장 긴박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게 됨.
- 점증적 관리 단계는 가족이 생존을 위한 현재 지향적 생활유형을 지낼 때 점증적 관리 패턴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함. 가족은 변화를 적게 하여 표준, 목표, 과업수행의 대안들 중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여 실행함. 이 단계에서 가족은 가족 내 역할과 구조를 다시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권위와 의사결정 유형을 만들고, 상실된 경제적 안정을 조절하거나 다른 가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지지 관계도 강화함. 또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지지체계 보다 더 넓은 관계를 이루조가 함.
- 포괄적 관리 단계에서는 체계의 균형을 찾고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추어 조절하는데 초점을 둬. 장·단기 목표를 수정하는 등의 중심적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으며 도구적·표현적 과업을 실행하여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킴.

■ Hill(1958)의 ABCX 가족위기 모델

[그림 2-11] ABCX 가족위기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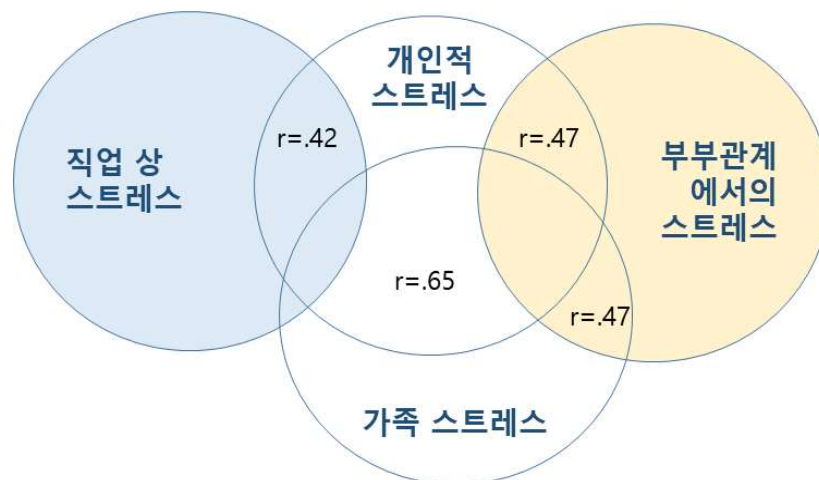
자료 : 장진경, 전종미, 신유경(2009). 한국가정관리학회 27권 4호. p.108 일부수정

-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적응 방식이 가족마다 서로 다름
- 스트레스원(A), 가족의 위기 대처 자원(B), 가족이 부여하는 스트레스의 정의(C)와 상호작용하여 가족의 위기(X)를 낳게 됨.

■ Mccubbin과 Patterson(1983)의 Double ABCX가족위기 모델

- 가족이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 건강성의 중요 요인이 됨.. 따라서 가족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다양한 대처 전략들이 필요함을 강조함
 - 가족의 내적 자원이나 대처 전략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와 서비스는 위기가족에게 중요한 위기 대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가족의 적응을 개인-가족체계, 가족체계-지역사회 간의 균형적 상호작용으로 개념화 하여, 적응의 결과로 생활만족도, 삶의 질, 복지감과 같은 개인 복지 및 가족복지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함
 - 가족들은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하나씩 닥칠 때 상대적으로 대처하기 쉽지만, 보통 개의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또 새로운 사건이 이전의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대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면 가족은 새로운 투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증가하게 됨.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는 스트레스와 위기를 극복하려는 가족의 노력과정을 위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상세히 설명함

[그림 2-12] 결혼생활의 각 영역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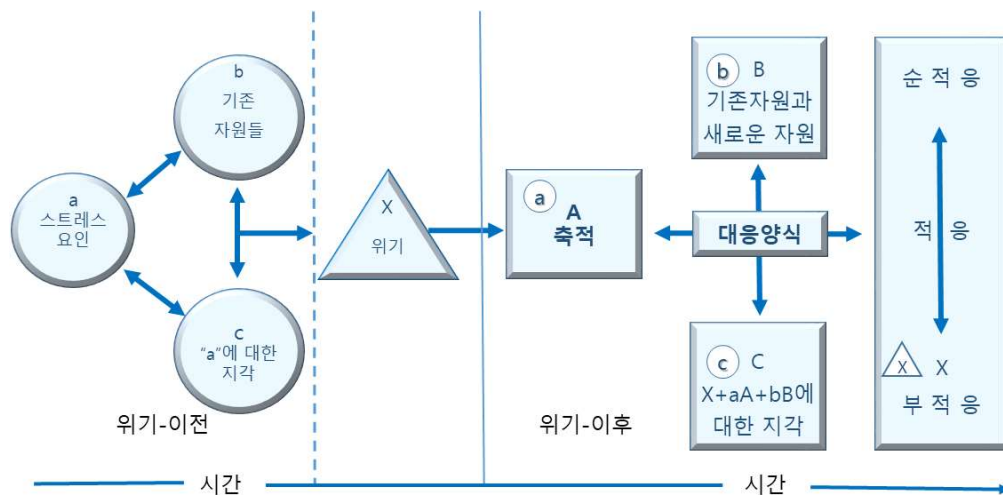
자료 : 정현숙·유계숙(2014). 가족관계. p.46

- 국내에서도 이론적으로 Double ABCX모델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가족의 내적 자원이나

대처 전략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아직 미흡한 상태로, 공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와 서비스는 위기가족에게 중요한 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 누적된 스트레스원(aA)은 위기(x) 전 스트레스 요인(a)과 위기 후 발생한 스트레스 요인(A)의 긴장 시간에 따른 누적효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상치 않았던 스트레스인 규범적 변화, 기존의 긴장, 가족체계가 시도한 대처의 결과, 모호성 등이 해당됨
- 가족의 대처자원(bB)은 가족의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총체적 자원과 능력으로, 가족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가족 자원(b)과 가족위기 자체에서 생겨난 새로 획득한 자원(B)을 이용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적 자원, 가족체계 자원 및 지역사회 자원으로 구성된 가족 대처자원(bB)를 형성함

[그림 2-13] Double ABCX 가족위기 모델



자료 : 정순자(2005). 가족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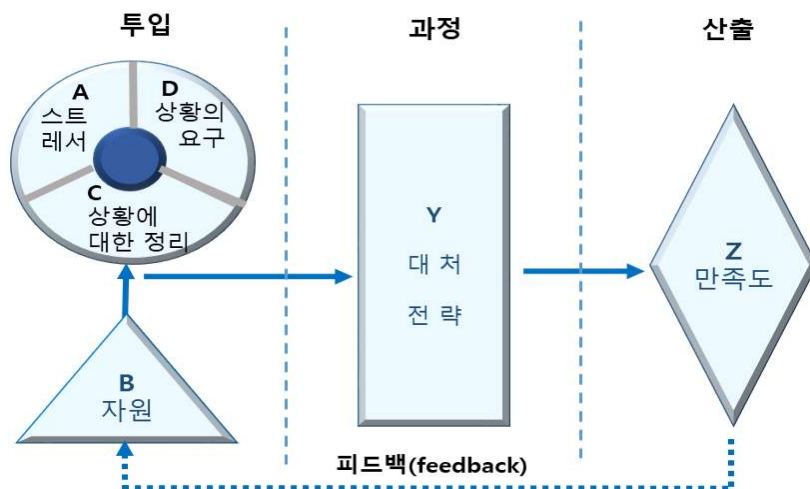
- 가족의 위기에 대한 인식(cC)은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대한 가족의 지각이나 정의, 기존의 위기에서 파생되는 부가적 스트레스원, 가족의 기존 자원과 새로운 자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이자 위기상황에 대한 전반적 지향으로서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결정적 요인임
- 가족의 적응 결과(xX)는 가족이 기존의 위기와 누적된 스트레스원에 반응하여 나타난 적응 결과로서 가족체계의 기능 회복 정도에 따라 순적응(bonadaptation)에서 부적응(maladaptation)까지 이룸. 순적응 상태에서 가족원 개인과 가족체계, 가족체계와 지역사회

회는 상호요구 및 충족 수준이 균형을 이루지만, 누적된 스트레스원과 이에 대처하는 가족의 역량이 불균형하여 가족의 통합성, 가족원들의 복지감 및 심신의 건강이 모두 저하된 상태인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은 위기를 맞게 됨.

■ Dollarhite(1991)의 ABCD-XYZ 모델

- 체계론을 기초로 하여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과 가족자원관리 모델의 개념을 통합하여 가족의 위기와 스트레스에 관한 모델을 제시함
- 가족의 위기 대처과정에 체계론을 적용하여 스트레스원(A), 자원(B), 가족의 상황 정의(C), 상황의 요구(D), 위기(X)를 투입 요인, 위기대처전략(Y)은 과정 요인, 만족도(Z)는 산출 요인이 되어 대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자원(B)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대처과정을 다시 반복함

[그림 2-14] ABCD-XYZ 가족위기 모델



자료 :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p.466.

■ 가족들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

- 대처전략(coping strategies)은 가족들이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과 행동 패턴임
- 가족들이 다양한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는데 유일한 대처기제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대처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표 2-4> 가족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효과적 대처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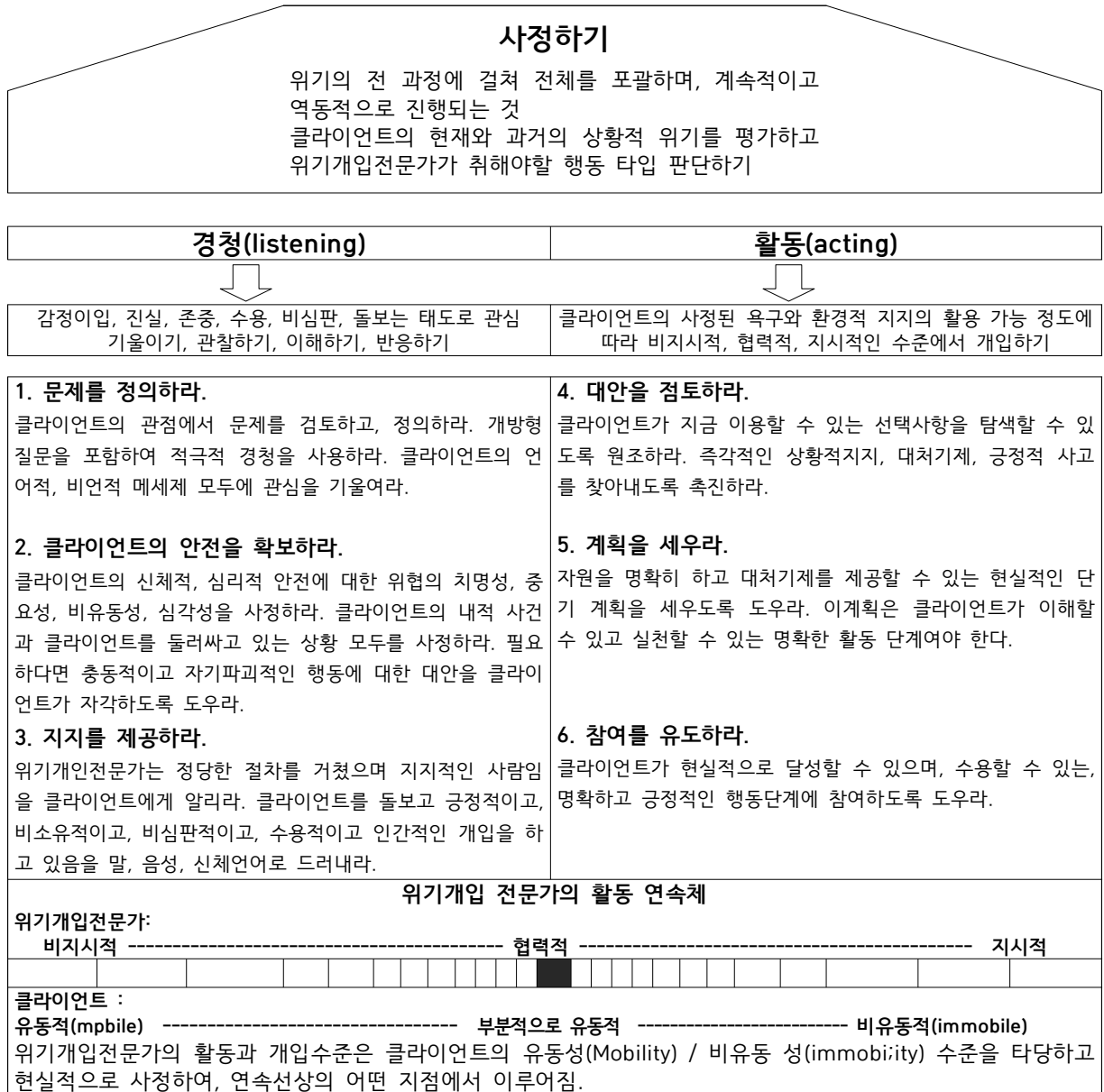
대처 활동	대처 전략
인지적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면 상황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직면한다. 상황에 대한 가족원들의 반응이 다름을 수용한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2. 당면 상황에 관한 정보와 사실을 찾고 유용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다. 3. 상황에 대한 관점이나 정의를 변화시킨다. 즉 스트레스를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분들로 나눈다. 인생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헛된 희망보다는 자신의 대처 능력을 믿는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난에 압도되지 않으며,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당면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 중심적 관점을 취한다. 또한 당면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상황을 재구성한다. 4. 자신의 느낌과 애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정서적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필요하다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휴식을 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책감, 과도한 음주나 흡연과 같이 안정을 해치는 감정 섞인 표현과 행동을 자제한다. 6. 상대방의 감정적 요구에 민감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
관계적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모든 가족원들이 함께 일을 처리하면서 응집성을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유지한다. 8. 가족원들의 역할, 행동, 태도를 쇄신하고, 융통성과 적응성을 증가시킨다. 9. 다른 사람들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증진시킨다. 10. 한 가족으로서 단결하여 협동심을 증진시키고, 상호지원과 공동대처를 모색한다. 11. 가족원들 간의 상호 관용을 증가시킨다.
의사소통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가족원들 간에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13. 가족원들 간에 상호 경청하고, 양적, 질적으로 효과적인 대화를 한다. 14.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민감해진다.
지역사회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필요할 때 친지나 지역사회 기관의 도움과 지원을 청한다. 16. 가족이 속한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기대를 수용하고 따른다.
정신적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 종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8. 신앙심을 키우거나 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개인 발달적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자율성, 독립성, 자아충족감을 개발한다. 20. 취미활동 및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

자료 : L. Burr, Klein & Associates(1994). p.133.

■ Gilliland와 James(1989)의 위기개입 6단계 모델

- 위기개입모델은 위기에 처한 가족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복지실천가들을 위한 방법과 기술임
- 방치한 문제나 예상치 않았던 외상 사건으로 발생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왜곡을 표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 행동, 인지를 인식하고 위기 이전 기능에 가깝게 고쳐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

[그림 2-15] 6단계 위기개입모델



자료 : Gilliland와 James(1989), 가족위기개입

- 위기개입에서는 신속하게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라포 형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므로, 클라이언트를 재빨리 참여시키는 행동 지향적 접근이 필수적이고,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고 간략하게 수집하여야 함.
- 위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감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 위기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클라이언트가 위기를 해결하고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직접적인 것이어야 함.

- 위기개입전문가가 즉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 클라이언트를 안정시키는 것, 정서적 불평형과 혼란의 상승을 막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클라이언트를 위기 이전의 기능에 가깝도록 회복시키는 것임
- 6단계 위기개입 모델은 각각의 단계가 분리되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의 일부 순서가 바뀌거나 유연하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통합될 수 있음.
 - 사정은 6단계 전 단계에 걸쳐 전체를 포괄하며 이루어지며, 클라이언트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적 위기를 평가하며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진행됨. 대처능력, 일신상의 위협에 대한 반응, 치명성의 정도, 유동성의 정도와 위기개입전문가에게 필요한 지시적인 행동의 양과 유형 등
 - 크게 경청하기와 활동하기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됨. 경청하기에는 관심 기울이기, 관찰하기, 이해하기, 강조하기, 수용하기, 비심판적 태도 취하기, 돌보기, 존중하기, 진실하기 등의 자질이 강조됨. 활동하기에는 사정된 욕구와 환경적 지지와 대처기제의 활동가능성에 따라 비지시적, 협력적, 지시적 수준에서 개입하기 등의 기술이 필요함

<표 2-5> 6단계 위기개입 단계별 행동 지침

단계: 개입내용	행동 지침
1단계 : 문제 정의하기	1) 돌보는 태도 전달하기 2) 대상자와 접촉하기 3) 위기의 의미를 탐색하기
2단계 : 안전 확보하기	1) 직접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을 사용하기 2) 치명성의 정도 판단하기 3) 자시자신, 클라이언트, 중요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4) 클라이언트의 예방적이고 안전한 행동을 강화하기 5) 당신의 책임에 대해 말하기 6)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초로 위기분류사정 척도 사용하기
3단계 : 지지 제공하기	1)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 2) 클라이언트의 가장 최소한의 변화조차도 긍정적으로 강화하기 3) 외부의 사회적 지지를 찾는 것은 위기 동안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중요함
4단계 : 대안 탐색하기	1) 상황에 맞는 지지기제를 활용하기 2) 이전에 성공적이었던 대처기제를 활용하기 3) 환경자원을 활용하기 4)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 패턴을 생성하기 5) 행동 취하기를 강화하기
5단계 : 계획 수립하기	1) 단기적인 목표를 강조하기 2)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6단계 : 참여 유도하기	1) 계획 재검토하기 2) 책임감을 확고히 하기

자료 : Gilliland와 James(1989)

- 위기개입전문가가 6단계 모델을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행동지침이 제시됨
 - 위기개입 단계별 행동지침은 위기개입전문가가 위기 대상자를 배려하고 위기 상황에서 함께 행동해야 할 지침을 제시함.
 - 동적인 지침들이기 때문에 모델 내 다른 단계에도 적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위기개입상황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전 단계의 행동 지침도 적용이 가능함.

3. 건강가정 관점 및 가족 강점관점

- 가족위기이론에서 제시된 가족스트레스이론과 가족위기개입이론은 가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과정과 위기 시의 행동 특성 및 영향요인을 잘 설명하는 반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제시하지 못함
- 건강가정 관점 및 가족 강점관점은 건강가정의 특성과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가족 기능성과 건강성이 저하된 위기가족이 보완되어야 할 특성과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여 줌

1) 건강가정 관점

■ 건강가정 관점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현상을 설명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시됨

- 건강가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한 데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WHO)’인 건강의 개념을 가정에 적용시킨 것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며, ‘기능적 가정’, ‘강한 가정’, ‘균형된 가정’, ‘최적의 가정’ 및 ‘건강한 가족’ 등의 다양한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됨(정지영 외, 2012)
- 건강가정의 관점의 등장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한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저조하여 여성의 이중역할 과중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이혼, 폭력, 노인부양 등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 문제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미리 예방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해 개발됨(손병덕, 황혜원, 전미애, 2014).
-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1962년 오토(Otto)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건강가정이란 정신병리적 특성이 없는 기능적인 가정을 뜻하였으나 1969년 웨슬리와 엡스타인

(Westley & Epstein)에 의해 가정의 정신병리적 특성보다는 개인과 가족이 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됨(김희성 외, 2013).

- 오토(1962)는 강한 가족 또는 건강가정이란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복돋우는 사회심리적 특성을 지닌 관계유형으로 정의함(최영자, 2005)

■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가정 관점 도입하게 됨

-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의 건강성(family strength)과 가족 기능성(family function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가정 관점을 도입하여,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이혼, 가족갈등, 가정폭력, 학대 등)을 가정학에 뿌리를 둔 건강가정 관점에서 가족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해결 또는 예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됨.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건강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가족 건강성은 특히 가족생활교육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가족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강점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족 기능성은 주로 가족치료나 상담영역에서 많이 적용되는데, 가족의 외부환경과의 관계보다는 가족 내부의 환경, 즉 가족관계를 사정하고 파악하는데 목적을 둬.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가족 내의 신념이나 규칙 등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기능성 여부를 판단함

■ 건강가정 관점은 가족의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가정의 구성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가족 내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 특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가족의 가족관련 연구들이 가족의 문제와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온 반면, 건강가정 관점은 건강가정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가족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에게 모델을 제공함
- 가족의 건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확대시킴으로써 가족의 부정적 측면을 줄일 수 있으며, 가족문제나 가족의 병리적인 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봄(김혜경 외 5인, 2014)
- 스테넷과 디프레인(Stinnet & Defrain)은 이러한 건강가정의 공통적 특성으로 감사와 존중, 질적인 시간 함께 보내기, 의사소통, 헌신, 종교지향, 위기에 효과적 방식으로 대처능력 등의 6가지 특성을 강조함

- 올슨과 디프레인(Olson & Defrain)은 건강가정은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함(<표 2-6>참조)

<표 2-6> 건강가정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특징

1.응집성	1) 헌신	- 신뢰 - 정직성 - 신빙성 - 성실성
	2) 시간 함께 보내기	- 질적인 시간 - 좋은 여가활동 - 가족원의 친구들과 교류 - 휴식시간 - 오락시간
2.응통성	1)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	- 적응력 - 위기를 도전과 기회로 봄 - 위기를 통해 함께 성장함 - 탄력성의 변화에 개방적임
	2) 정신적인 안녕	- 희망 - 신념 - 동정심 - 윤리적 가치관의 공유 - 인간에 대해 개방적임
3.의사소통	1) 긍정적인 의사소통	- 감정의 공유 - 칭찬을 함 - 비난하지 않음 - 협상이 가능함 - 불일치를 인정함
	2) 감사와 애정	- 상호간의 보살핌 - 우정 -개성의 존중 -쾌활함 - 유머

자료 : 김희성 외 4인(2013).가족생활교육. 도서출판 공동체. p.86에서 재인용 및 일부수정

- 건강가정 관점은 가족이론은 아니지만, 가족의 기능을 강조한 관점으로 가족구조와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정서적 기능을 잘 수행하면 기능적인 가정으로 봄(손병덕 외, 2014)
 - 가족 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족 내 긍정적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가족의 외적 형태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열린 대화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친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역할을 공유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가족의 내적 기능을 강조하는 관점임

2) 가족 강점 관점

■ 가족 강점 관점은 강점관점을 가족에 적용시킨 개념으로, 가족의 건강성과 기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취약 위기의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가족사례관리에서 활용됨

-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은 모든 사람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는 데서 출발함.
 -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삶을 잘 관리해왔다고 봄
 -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존해왔으며, 자신들의 삶의 여정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오고 있음을 강조함. 따라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천가는 대상자의 이런 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함
 - 실천가는 대상자 개인의 열망, 인식, 강점을 알고, 대상자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믿어야 함
- 각 개인의 문제(또는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자원, 그리고 강점에 초점을 둬.
- 가족 역시 가족원이 일으키는 갈등과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지니고 있는 재능과 자원, 강점에 초점을 둬으로써 그들의 희망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강점관점을 가족사례관리에 적용하면, 서비스 대상자 개인과 그 가족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동기와 잠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강점관점의 실천가는 가족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역량에 초점을 두어 사정하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함
- 강점관점을 적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기 위한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음(김성경, 2017)
 - 대상 가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병리보다는 강점을 강조함
 - 대상 가족의 동기는 강점을 인식할 때 강화됨
 - 가족을 돕는 실천가는 가족이 지닌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가족을 돕는 실천가는 대상 가족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협력자임

■ **강점관점의 실천은 대상 가족의 강점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개발해나가는 것을 돕고, 대상자가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사회적으로 억압받는다느 느낌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임**

- 실천가와 대상가족 간의 관계를 기능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고 목적이 있는 관례, 협력적인 관계로 봄
- 개인과 가족이 삶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봄. 따라서 대상가족과 각 개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존경해야만 함
- 실천가와 대상 가족 모두에게 창의성, 용기, 상기에 근거한 다양한 실천적 접근방법임
- 강점관점을 통해 취약 위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의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음(주경화 외, 2015)
 - 강점관점은 대상자 개인과 가족의 개별화를 촉진함. 기존의 문제 중심의 병리관점에 기반한 접근은 대상 가족을 표준화, 규범화함으로써 서비스의 개별화가 저해되는 반면, 강점관점은 인간 성장과정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므로 지시적이지 않고 고유의 특성을 지닌 존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별화가 촉진됨
 - 병리적인 것보다 개인, 집단, 가족은 모두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함. 강점은 주로 삶의 여정을 통해 배워온 것들, 그들 주위의 세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과 특성(예; 유머감각, 통찰력, 종교, 예술적 능력, 열정, 공감 등), 도움줄 수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 등이 포함됨
 - 가족을 돕는 실천가가 전문적 조연가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임. 대상 가족의 목표와 열망을 기반으로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함.
 - 대상 가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실천가와 지역사회 모두의 측면에서 역량 강화가 가능함

1. 돌발적 사건으로 인한 가족위기 지원

- 사회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가족구성원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나타났을 때, 가족원은 심리·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족의 일상을 중단시키고 가족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나아가 가족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가족서비스가 주어진 사례는 주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인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어 왔으며, 가족역량강화지원은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조손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등에게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임. 이중 긴급위기가족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

1) 돌발적 사건 대응 가족 지원 체계

■ 사업목적

-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사업수행기관 및 제공방법

- 2022년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10개소), 가족센터(83개소)에서 제공 중이며, 시·도별 2개소 이상 사업수행기관 운영을 원칙으로 함
- 각 사업수행기관은 광역기관 역할로서 해당 시·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도내 사업수행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기관별 사업시행지역을 사업비에 따라 각각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각 사업수행기관은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지원 사업 모두 수행함

- 지역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자 발굴, 정보공유, 서비스 지원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하여 지원함

■ 주요 지원 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청소년(한)부모 멘토) 파견)
- 생활도움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 긴급 위기지원(지지도더, 키움보듬이 파견)
- 이혼위기가족 특화지원 사업(선택사업)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 인근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

2) 사회적 사건 관련 가족위기 지원 사례

■ 주요 내용

-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긴급 지원 사례는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과 대처기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건을 경험한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내의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임

■ 지원 사례

- 천안함 피격 사건(2010. 3)
 - (개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침몰로 승조원 104명 58명 구조, 40명 사망, 6명 실종
 - (지원대상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희생·실종된 해군 장병 가족
 - (가족위기 내용)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가족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가족 기능의 중단
 - (1단계 지원) 집을 떠나 평택 2함대 내 체류 중인 가족들의 아이들 대상 긴급 아이돌봄을 위해 놀이방(육아나눔터) 운영, 집에 남겨진 돌봄 대상자에게 가정으로 돌보미 연계 및 가족 사망에 따른 초기 심리 정서지원
 - (2단계 지원) 일상복귀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 대상 상담치료 및 정신과 진료 지원 연계 등의 사례관리

- 금양 98호 침몰 사건(2010. 4)
 - (개요)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복귀하던 중 서해 대청도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탑승 선원 9명 중 2명 사망, 7명 실종
 - (가족위기 내용) 아들의 실종으로 인한 섭식장애, 언어장애 등 복합적 어려움
 - (지원 내용) 방문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외과 수술 후 신경정신과 지원 연계, 주민자치센터 의료비 지원 등 사례관리 진행을 통해 건강상태 점검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
- 버스 폭발사건(2010. 8)
 - (개요) 버스 폭발로 인한 부상자 17명 발생
 - (가족위기 내용) 버스폭발로 인한 골절 등 부상의 정도가 심히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가족의 충격
 - (지원 내용) 병원 방문상담을 통해 가족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 후 대상자의 부상치료가 긴급하고 장기치료가 예상되어, 서비스 지원 희망 시 사례관리 연계 조치
- 선박 해적 피랍사건(2011. 1)
 - (개요)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에서 선박 피랍(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승선)
 - (가족위기 내용) 선발 승조원들이 피랍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 및 일상생활 어려움 발생
 - (지원 내용) 승조원 거주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안내
- 연평도 포격 사건(2011. 11)
 - (개요) 북한에서 연평도를 향해 포격하여 군인과 민간이 사망 4명, 중경상 19명 및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
 - (가족위기 내용)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주거와 생계 터전을 잃고 생업활동 중단에 따른 상실감,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불안감등을 겪음. 또한 임시거처 내에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잦은 갈등과 불화 경험
 - (지원 내용)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및 정신과 진료 지원과 임시거처 주변에 자녀 공부방과 영유아 놀이방 설치(점심, 저녁, 간식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이후 가족들의 일상복귀를 위한 지역정보 제공 및 자원연계, 상담과 문화프로그램 지원. 당시 임시거처였던 찜질방내에 가족지원실 부스를 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과 상담 지속, 한방 진료(검진, 침, 뜸) 연계 및 영유아 대상 문화프로그램(영화상영, 마술공연, 동화 구연 등) 지원 및 청소년 대상 에버랜드 등의 문화체험 지원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2014. 4)
 - (개요) 여객선 세월호가 해상에서 침몰하여 300여명이 넘는 사망 및 실종자 발생
 - (가족위기 내용)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 특히 대부분 자녀를 잃은 가족원 모두의 일상생활 중단과 정신적 충격
 - (지원 내용) 사고현장에 머무는 가족대상 심리정서 지원과 다문화가족대상 통번역서비스 연계. 가정에 남아 있던 피해가족의 어린 자녀, 노부모 등 돌봄지원 및 식사점검. 장례식장과 합동분향소 등에 휴식 및 어린이 쉼터 운영 후 자택 병원으로 수시 방문과 전화를 통한 심리지원 및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집단 심리치료 지원. 필요시 병원 연계 및 동행서비스 제공. 생활자금 신청 안내 등 정보제공으로 사후 지속적으로 접촉 및 아이돌보미 파견. 도시락 지원 및 일상장보기 등 생활 지원
-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2019. 5)
 - (개요) 헝가리 유람선이 크루즈 선박과 충돌 후 전복되어 침몰한 사건으로, 한국인 사망자 19명, 실종자 7명 발생
 - (가족위기 내용) 갑작스러운 국외에서의 가족원 사망, 실종 소식에 의한 가족대표의 헝가리 현지 체류 지원과 2개월간 수습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족을 애도하고 상실감에 빠진 가족대표자들의 심리적 불안 및 탈진, 우울감 등 정신적 충격.
 - (특이사항) 국외에서 한국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외교부의 협조요청에 의해 여성가족부가 헝가리로 지원인력을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사고현장에 머무는 가족대상 심리정서 지원과 시신확인 및 장례식과 병원동행. 애도활동 동행. 특히 매일 일상에서의 식사 챙기기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타국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장례절차에서 특히 가족의 동행인으로 함께 지원함.

3) 개인이 당한 폭력 등의 사건 관련 지원

■ 주요 내용

- 가족구성원 중 개인이 겪는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사건 경험이 개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위기문제 상황이 될 때 피해자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직접 서비스나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게 됨. 이러한 가족구성원의 사건은 그 경험하는 사건으로 인해 자살이나 다른 가족원을 해하는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음

■ 성폭력 관련 가족위기 지원 사례

- 성폭력 관련 가족위기 지원 사례는 가족 구성원 중 폭행 및 성폭행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나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건임
- 아동 성폭력 사건
 - (개요) 중학생 3명이 피해자 집에 머물며 7차례에 걸친 피해자 폭행 및 성폭행
 - (지원대상자) 피해아동 2명(누나, 동생)
 - (가족위기 내용) 모의 가출, 부의 사망으로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지속적인 추행과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상황임 부모의 부재로 돌봄 공백 상황
 - (지원 내용) 머물 수 있는 곳 연계 및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로 신변보호 서비스 진행 및 병원동행, 전문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보호자 상담 및 피해아동관리), 원스톱지원센터(위기지원), 해방라기아동센터(상담), (사회복지관)피해아동 방과 후 학습지원 등과 연계한 사례관리.
- 장애 여아 성폭력 사건
 - (개요) 11살 장애 여아 대상 3차례 성폭행 및 9차례 성추행
 - (지원대상자) 피해아동(대상자의 조부가 외부 접촉 거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족위기 내용) 지속적인 추행과 폭행 등으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
 - (지원 내용) 법적인 절차이후 상담연계와 피해조사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지원센터, 가족센터, 여성장애인연대성폭행상담소 연계하여 상담 및 회복 지원
- 강도 침입 아동 성폭력 사건
 - (개요) 30대 남성이 아동 성폭행 후 금과 현금 갈취 도주
 - (지원대상자) 피해아동
 - (가족위기 내용) 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시급하나 부모는 직장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
 -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연계 후 원스톱지원센터(피해 조사),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심리상담) 연계하여 진행
- 외국인 근로자로부터의 성폭력 사건
 - (개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성폭력
 - (지원대상자) 피해 청소년과 가족
 - (가족위기 내용) 외국인의 성폭력에 따른 피해 학생 본인의 충격과 가족 내 문제 상황(아버지의

폭력성, 어머니의 성폭력 경험, 남동생의 누나에 대한 성폭력 조롱)

- (지원 내용) 피해 청소년의 자살 시도에 대한 개입과 정신과 치료 진행 및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가족전체에 대한 심리 치료 진행. 피해학생 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감을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상담 개입. 이후 일상생활복귀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지속

● 강간 미수사건

- (개요) 남성이 침입하여 15세 여중생을 성폭행 하려다 이를 저지하려던 여중생의 아버지를 도끼로 폭행, 어머니 가슴 골절 등
- (지원대상자) 피해 가족 전원
- (가족위기 내용) 여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아버지는 부상으로 두개골 함몰 등 병원치료가 길었으나 의료비가 부족한 상황. 어머니 역시 의료지원과 정신과 치료 필요 상황으로 가족의 일상이 무너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연계 및 가족 전체 가족상담지원과 정신과 치료 지원.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

■ 학교폭력 관련 가족위기 지원 사례

- 학교폭력 관련 가족위기 지원 사례는 가족원 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겪는 학교 및 일상생활의 부적응과 심리적 문제를 지원하고, 다른 가족원들의 갈등과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 상담 연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 사건임
- 학교폭력 가해자 지원
 -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도벽, 가출 등 학교부적응 문제를 보임
 - (지원대상자) 가해학생, 아버지, 어머니, 누나 등 4명
 - (가족위기 내용)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방임 및 학대 등으로 신고가 되는 상태의 적절하지 못한 양육태도와 가해학생의 잦은 비행활동으로 쉼터에서 임시생활
 - (지원 내용) 학교에서 동급생의 얼굴에 폭력을 행사하여 초등학교에서 가해학생 사례를 가족센터로 의뢰해와 정신과 병원 동행 및 개인성향 검사, 가족관계 탐색, 부모교육, 관계개선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아버지에게 자녀양육방법 지도 및 관계개선 노력 지원하여 심리적 어려움과 분노를 직면하게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
-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 (개요) 아버지의 사망이후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아이가 집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어머니가 아이의 신체에서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으로 발견하고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당해왔음을 알게 됨

- (지원대상자) 어머니와 피해자 자녀
- (가족위기 내용) 어머니는 우울감에 빠지고, 자녀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방어가 높고 무기력한 상태
- (지원 내용)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과 치료 연계 및 모래놀이 치료 지원

■ 가족원 자살 관련 가족위기 지원 사례

- 가족원 자살관련 가족위기 지원 사례는 가족원이 성폭력이나 제임 중독 등 문제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본인을 해하거나 다른 가족원을 살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접하게 된 사건임
- 자살 시도
 - (개요) 동네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피해자가 6차례의 지속적인 자살 시도 후 병원에 입원
 - (지원대상자) 피해여성(딸)과 어머니(이혼 후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뒤 한부모가 된 어머니)
 - (가족위기 내용) 딸은 지속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경제적 이유로 딸을 잘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으로 술에 의존하던 상태
 - (지원 내용) 대상자 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 게임중독 청소년 친모살인 및 자살 사건
 - (개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친모를 목 졸라 살해 한 후 자살한 오빠를 여동생과 외조모가 발견
 - (지원대상자) 여동생과 외조모 등 2명
 - (가족위기 내용) 아버지의 부재로 엄마와 오빠의 사망이후 돌봄 부재 상황에 놓인 여동생은 학교 친구들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큰 상황. 외조모는 갑작스러운 딸과 외손자의 사망과 자살 및 혼자 남겨진 외손녀를 갑자기 맡아 돌보게 된 상황
 - (지원 내용) 장례식 과정 동행 및 장례식 지용 지원과 외조모가 손녀를 임시 보호하도록 하고 가사지원 및 동행서비스 지원. 정신과 치료와 상담 진행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을 연계함. 이후 가족센터에서 지속적 사례관리로 일상생활 복귀 지원함

4) 특정 대상 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 질병감염아동 돌봄 지원

- 질병감염아동 돌봄 지원 사례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함
- 서비스명 : 아이돌봄_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적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 (지원대상자) 12세 미만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 (지원내용)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1회 2시간 이상 돌봄활동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시에는 최소 30분 단위로 신청 가능. 일반적인 돌봄활동이나 간병(가사활동은 제외) 활동에 대해 시간당 일정요금을 지원하되,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식

■ 한부모 대상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는 것임
- 서비스명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법적근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충족 대상자 중 심사
 - (지원요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함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

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예: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 ② 지원 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 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⑤ 그 밖에 한시적 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 대상 긴급지원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 상담 및 연계를 위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지원. 필요할 경우 지역센터를 통해 동행서비스 연계
- 서비스명 : 다누리 콜센터
 - (법적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 (운영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 돌발적 사건으로 인한 가족위기 지원 사례의 시사점

■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위해 가장 많았던 심리·정서적 지원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 돌봄 지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사회적 재난 위기단계별 지원 내용을 보면, 가족기능회복지원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심리·정서적 지원의 비중이 2016년 67%대였던 것에 비하면 2021년에는 48%정도로 낮아지는 대신(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최근에는 가족 돌봄 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가족기능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돌봄서비스로, 가족위기는 우선적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의 지원현황을 보면, 2016~2021년까지 매년 약 10,000 ~11,000여 건 내외이며 가정수로는 약 3,000가정 내외였음. 2021년에 다소 지원 서비스 건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 대상자 유형별로 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2021년까지 대체로 가정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살(시도), 이혼 등이 많음. 그러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항목의 비중이 2016년의 15%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 34%대로 증가한 점은

코로나로 인한 증가만이 이유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코로나 때문이면 전체 수 증가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감소).

- 실제로 코로나 19상황이 반영된 때문인지 위기 단계별 지원현황을 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돌봄 지원의 비중이 최근 들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수요에 맞춘 가족센터의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갈등과 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의 검토가 요구됨

-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 의사소통의 단절, 갈등의 내재화 가족관계 문제, 가족기능 수행상의 문제, 돌봄 문제와 가정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체계의 선순환 유도 및 적극적 자원 연계가 검토되어야 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대형재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가정의 터전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린 자녀나 환자, 고령자에 대한 임시 보호 등의 돌봄과 등하교 지원, 심리적 지원과 관련한 가족서비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상생활의 의식주 관련 자원 연계 등 사례관리도 필요함

■ 개인적 사건과 가정 내 사건으로 인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가 필요함

-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 대상자들은 학교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게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별 관련기관 발굴과 협업이 필요함
- 특히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 지역 자원의 원활한 연계, 치밀한 사후관리를 위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계 체계 구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재난 개입과 종결과 관련된 가족기능의 상실 및 가족관계 진단을 위한 근거 지표가 필요함

- 재난은 불확실성, 상시성, 복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위기 개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나, 가족에 따라 장기적인 지원에 있어 서비스 종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음

- 또한 장기적 지원에 따라 피해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으며, 또한 개입과 연계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부모 등의 반대나 신청자의 거부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때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사회적 재난이나 개인적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련 대상자 발굴과 연계를 위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점검이 필요함

-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망이나 부상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사건이나 가정 내 폭력, 방임, 학대 등에 대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의 일상 회복지원과 문제해결 방안 제시를 위한 관리가 중요함
- 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보다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위기가족 발굴과 지원을 위한 개입이 요구됨

2.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지원

- 생애주기에 따라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규범적 사건, 예를 들어 취업과 혼인 및 출산, 정년퇴직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발달적 사건이고 부정적 사건은 아니지만, 가족내외에서 새로운 역할을 취득하거나 기존 역할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할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하는 위기 요인이 됨
- 구체적으로 아동기 발달과업, 청소년의 정체감 혼돈, 대학입시, 첫 직장 적응, 결혼, 임신, 자녀결혼, 이사, 은퇴 등을 포함함
- 현재 제공되는 가족위기 서비스로는 아이 연령대별 아이돌봄 서비스와 부모대상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있음

1) 영유아기 지원

■ 아이돌봄_영아종일제 서비스

-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 사업 개요

- (주요 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목적)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단순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거리 내 병원 이용 동행)



영아종일제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0,55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7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돌봄활동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찰(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

자료 : idolbom.go.kr

2) 초등학령기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 사업 개요

- (주요 내용)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함
- (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서비스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방법) 아이돌보미 교육이수자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상이하며,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종류 선택가능
- (돌봄 활동 범위) 돌봄 활동은 기본형 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됨
 - 기본형 서비스는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를 포함함. 이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가능함
 - 기본형 서비스에서 외부활동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약이 필요함. 예를 들어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가능)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함. 이때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사고 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후 결정함
 -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 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을 포함함

3) 임신기 지원

■ 임신출산 갈등 상담

- (주요내용) 예상하지 못한 임신,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위기 갈등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 사업 정보 및 전문기관 연계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 대상) 임신 또는 출산으로 갈등하는 모든 사람
- (지원 내용) 심리정서 지원 상담, 지원 사업 정보제공,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를 지원함
 -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임신출산에 따른 위기갈등 상황에 대한 정서적지지 제공
 - 지원 사업 정보제공: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보 제공
 - 전문 서비스 기관 연계 : 전국 가족센터 임신출산갈등상담 수행기관 가족상담 전문인력의 심층(다회기) 상담 및 전문 지원 기관 연계
- (이용 방법) 전화상담(1644-6621(0번)), 문자 상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채팅상담
- (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4) 부모기 지원

■ 한부모가족 상담

- (주요 내용) 한부모, 미혼모·부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지원, 시설 입소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다양한 종합정보 상담을 제공함
- (지원 대상) 한부모 또는 미혼모·부자가족 등
- (지원 내용) 미혼모·부 대상 초기 상담 및 출산·양육·시설 입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한부모가족 대상 정부지원 종합정보 제공,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지원기관 정보 안내
- (이용방법) 전화상담(1644-6621(2번)), 문자 상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채팅상담
- (운영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혼 한부모 대상 양육비이행지원

- (주요 내용)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법적 근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 내용) 양육비 문제해결, 전문분야 지원, 원스톱서비스(양육 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
- (이용 방법) 전화상담(1644-6621(1번))
- (운영 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과 늘 함께합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생활정보 제공, 통역, 긴급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11조의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서비스 지원 절차



위키·긴급 지원 상담 | 정보제공 | 기관연계 | 생활통역 | 심리 정서적 지원 | 긴급 피난처 제공

↓

콜백·해피콜 (사후관리)

↕

심층상담연계

→ 상담 종결

서비스 내용

긴급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및 통·번역 제공
- 긴급피난시설 운영(이동 동반 가능)
- 이주여성보호시설 입소 연계 활동

상담지원

- 개인, 부부, 가족 상담(전화, 면접, 방문)
- 변호사 법률상담 (주1회 운영, 사전 예약 → 전화, 면접)
- 온라인 상담(다누리 포털사이트 www.liveinkorea.kr → 1:1상담실)

정보제공

- 종합 생활정보 제공 (체류·국적, 법률, 노동 취업 정보 등)
-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자녀 지원, 한국어교육 등)

통역지원

- 생활 및 전문 통역 서비스
- 3자 동시 통역 서비스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주요 서비스

 다누리 다누리포털사이트 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모바일 다누리 앱(APP)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 배움터 www.danurischool.kr

자료 : www.kihf.or.kr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다문화가족 부모지원

- (주요내용)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전화를 통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 상담, 생활정보를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지원함
-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 (지원내용) 긴급지원, 상담지원, 정보제공, 통역지원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등 13개 언어로 상담진행
- (이용방법)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운영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지원 사례의 시사점

■ 현재 가족위기 지원은 0에서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여성가족부내 청소년지원 기관들과 연계한 청소년 문제, 비행, 가출, 도박 등으로 인한 가족위기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의 실직, 구직의 실패 등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과 가족불화와 갈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돌봄을 대체하는 서비스에서 확대되어, 아동의 장애, 사고, 질병, 실종, 방임, 자녀의 성정체성 등으로 인한 부모들의 어려움과 자녀들과의 갈등 위기상황을 점검할 필요있음

■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와 초등학령기 이외에 다른 연령대나 1인가구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외에 성인의 결혼, 임신, 은퇴, 배우자 사망, 가족원과 본인의 질병과 죽음 등 가족 축소기 부터 해체기까지 관련 위기 지원 수요에 대한 점검 필요함
-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기에 배우자 사망, 본인의 질병과 죽음, 고독사 관련 위기문제에 대한 지원책은 시급함
- 한편,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이나 규범적 사건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1인가구의 위기문제도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함

3.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지원

- 한국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지원법을 두고 가족구성과 형태를 중심으로 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시행중임
- 가족위기 지원에 대해 한부모가족은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로 관리됨

1) 한부모가족 지원

■ 법적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해야 함

■ 주요 지원 내용

● 복지급여 지급

- 복지 급여는 서면 신청을 통해 해당자에게 지급. 단, 신청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등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 복지 급여 신청이 수락되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급여를 실시,
- 아동양육비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추가적인 복지급여 실시
 -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그 외 직업훈련비와 생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급 할 수 있음

- 복지 자금의 대여
 - 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중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함
- 모 또는 부의 고용 촉진과 연계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
 -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 편의시설 우선 이용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과 교육 등 지원
 - (교육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

- 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두고 운영 중임

- 비양육 부·모와 양육 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함

● **한부모가족 종합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통한 생활 및 문제해결 지원**

–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

-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 부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

-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

-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 포함)
-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

2) 다문화가족 지원

■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주요 지원 내용

- 한국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제공
 - 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결혼이민자 상담원을 두고 모국어로 생활정보 제공 및 위기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국어 교육
 - 한국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언어소통 능력 향상 지원
 -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
-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 중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현재 가족센터를 통해 제공 중

3)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지원 사례의 시사점

- 취약위기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지만, 점차 일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기능적 위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결과 중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전체 이용자를 서비스별로 나누어 볼 때,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와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의 비중은 약 4:1로 취약위기가족지원서비스의 이용인원이 많으며 서비스제공 횟수는 훨씬 더 많음.

-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이 한부모와 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수가 많기는 하겠지만, 점차 기타(일반)가족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가구유형별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구분하여 보면, 모자, 부자, 미혼모부자가족이 60% 정도이고 조손가족이 7%, 기타(일반)가족이 32%정도를 차지함.
- 긴급위기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취약위지지원으로, 그리고 가구유형별 지원보다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가족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 취약가족이라는 말이 특정한 가족유형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만들기도 하며, 가족위기의 사각지대, 가족기능의 취약위기를 놓치고 있음. 따라서 추후 가족위기를 유형이 아닌 개인적 발달과 가족 간 관계,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위기로 확대하여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가족위기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족서비스 돌봄 기능과 관련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이나 기타 가족위기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대상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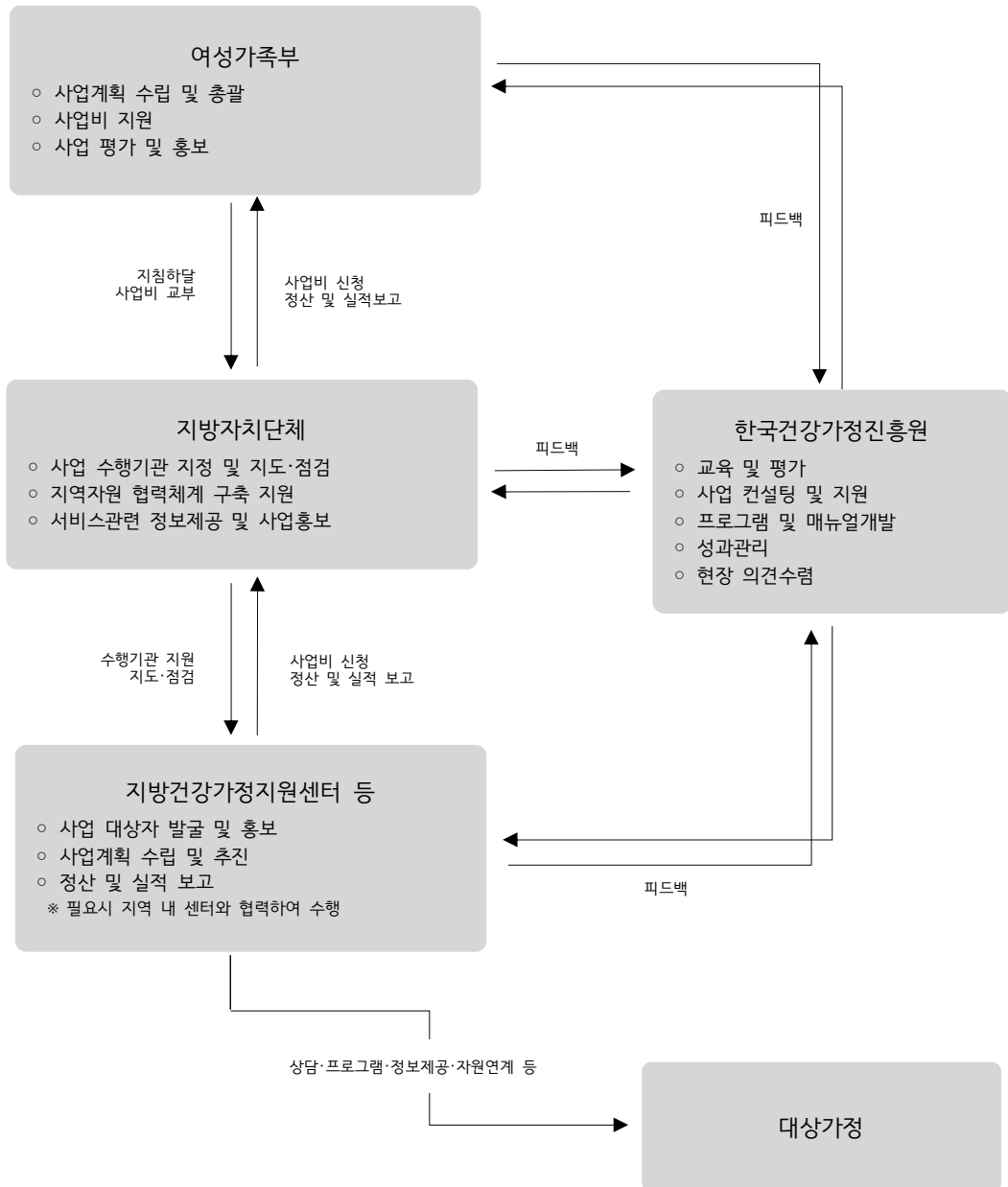
- 소득유형별로도 서비스 이용자들을 구분하여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중위소득 72% 이상 집단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은 주의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 등 사회 전체적 재난이 발생하고, 가족위기가 경제적 위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특히 경제적 지원을 제외한 가족 취약 기능 중심의 정책 서비스를 고민해야함
- 이미 시설, 수당 등의 공적 부조가 이루어지는 내용 이외에, 가족의 위기 관련 가족사례관리는 가족유형이 아닌 가족서비스 돌봄 긴급 수요의 사각지대 발굴에 집중해야 함.
- 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한 가족위기 서비스 사각지대와 대상 발굴, 필요한 연계기관을 우선 점검해야 함

4. 가족센터 사업별 가족위기 지원

1) 가족센터의 가족사업 추진체계

- 가족센터는 가족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족위기 지원 및 문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16] 가족사업 추진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내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칭)를 통해 가족 문제 예방 및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을 운영함.
- 가족센터는 2022년 현재 206개 지역에서 운영 중임
 - 단, 이 수치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독운영은 제외함

<표 2-7> 가족센터의 지역별 운영 현황('22년 현재)

		(단위: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	206	25	8	8	9	5	2	5	1	26	18	10	13	13	22	20	19	2		

■ 가족센터의 기본사업 내용

- 가족센터의 기본사업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로 일반, 다문화, 한부모·조손가족, 맞벌이가정, 1인 가구, 북한이탈가족 등에게 지원되며, 주요 서비스는 교육, 상담, 활동모임지원 등

<표 2-8> 가족센터의 기본사업 내용

사업영역	기 본 사 업	비 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 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 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종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조부모 역할 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 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교육, 상담(정보제공+ 초기상담→전문상담) 돌보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다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 가족센터의 기본 서비스 중 상담은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 - 자녀 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비혼 청소년 임신갈등상담 등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대상 가족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상담은 특히 발달적 가족위기와 관계적 가족위기에 특화된 서비스로, 일반상담, 정보제공 상담, 집단상담 등으로 구분됨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지원 서비스

- 가족센터는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등 5개 유형마다 필수인력과 기본사업 인력이 다르게 책정되며, 영역에 맞는 기본사업은 지역적 여건, 특성, 수요에 따라 운영됨. 특히 교육, 상담, 정보제공, 사례관리, 문화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영역이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의 특성별로 특화된 별도 프로그램이 가족 유형별로 제공되게 되어 있어, 가족센터의 가족위기지원 서비스가 쉽게 확인되지 않음.
- 반면 가족센터의 가족관계 사업 영역은 부모역할 및 가족관계 개선, 가족의사소통, 가족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가족형태·생애주기·문제유형별 가족 갈등과 문제 해결, 성평등·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어 발달적 가족위기와 관계적 가족위기 대상자의 발굴 및 사례관리에 적합한 서비스를 갖고 있음
- 가족센터 사업영역 중 가족돌봄 사업영역은 가족 구성원의 일시적 장기적 부재, 상황적 위기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 가족 유형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로 운영되어 위기가족 지원에 특화된 서비스임.
 - 이 때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가족기능이 취약한 한부모·조손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등에게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면접교섭 서비스가 포함됨. 가족센터 내 위기가족 지원 강화에 가장 적합하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

2)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 사업 목표

- 취약한 가족기능 지원
- 취약한 가족원 역량강화 지원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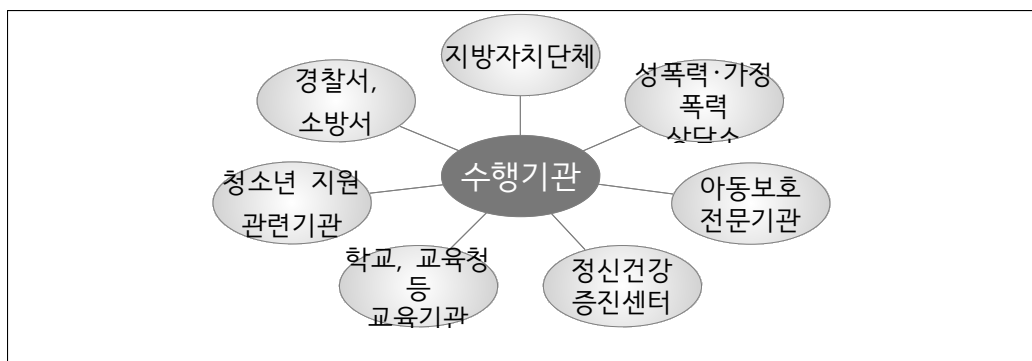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먼저 제공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 사업 수행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 가족센터 83개소
- 시·도별 2개소 이상 사업수행기관 운영을 원칙으로 함
- 각 사업수행기관은 광역기관 역할로서 해당 시·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도내 사업수행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기관별 사업시행지역을 사업비에 따라 각각 나누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각 사업수행기관은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지원 사업 모두 수행

■ 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그림 2-17] 가족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의 구성 예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서비스

- 취학 전 아동, 초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대상 학습 정서 지원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본인도 가능(청소년(한)부모 멘토 신설)
 - 학습지원은 배움지도사(청소년(한)부모 멘토)를 파견하여 이루어지며 학습지도 및 일상생활지도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연장하여 제공됨
- 생활도움 지원
 - 사례관리대상 중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으로,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상태 악화 및 긴급·위기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한 (손)자녀의 긴급 일시 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 지원(연 90시간 이내)
 - 키움보듬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시 돌봄, 개인 활동, 생활지원
 - 제외대상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표 2-9> 가족센터의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지원 내용
긴급일시돌봄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 손자녀의 돌봄 공백 방지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 업무 대행 등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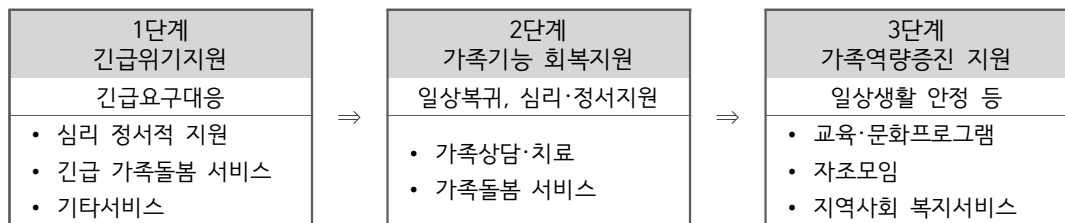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및 부모의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사회성 향상, 부모교육, 경제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 구성원간의 지지와 격려,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 1:1 멘토-멘티 활동(지역사회 미혼모나 한부모 지원단체 등 활용 가능)
-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지지리더(청소년(한)부모 멘토)가 직접 상담하거나 가족센터의 상담팀 연계
 -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 당 10회 이내)
 - 단, 가구당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금액과 법률지원 금액은 합쳐서 200만원 이내로 산정

- 청소년 부모 법률 지원 등
 - 독립적인 법률행위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법률 조력을 위한 법률기관(대안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연계, 폭력·생계형 범죄 연루 등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 당 200만원 이내 법률지원 가능
 - 단, 가구당 법률지원 금액과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금액은 합쳐서 200만원 이내로 산정
- 청소년부모의 소액대출, 채무 문제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 (예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등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88-8114) - 부채상담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등

■ 긴급위기가족 지원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먼저 제공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 단계별 지원 방안

[그림 2-18] 가족센터의 긴급위기가족 지원 단계별 지원 방안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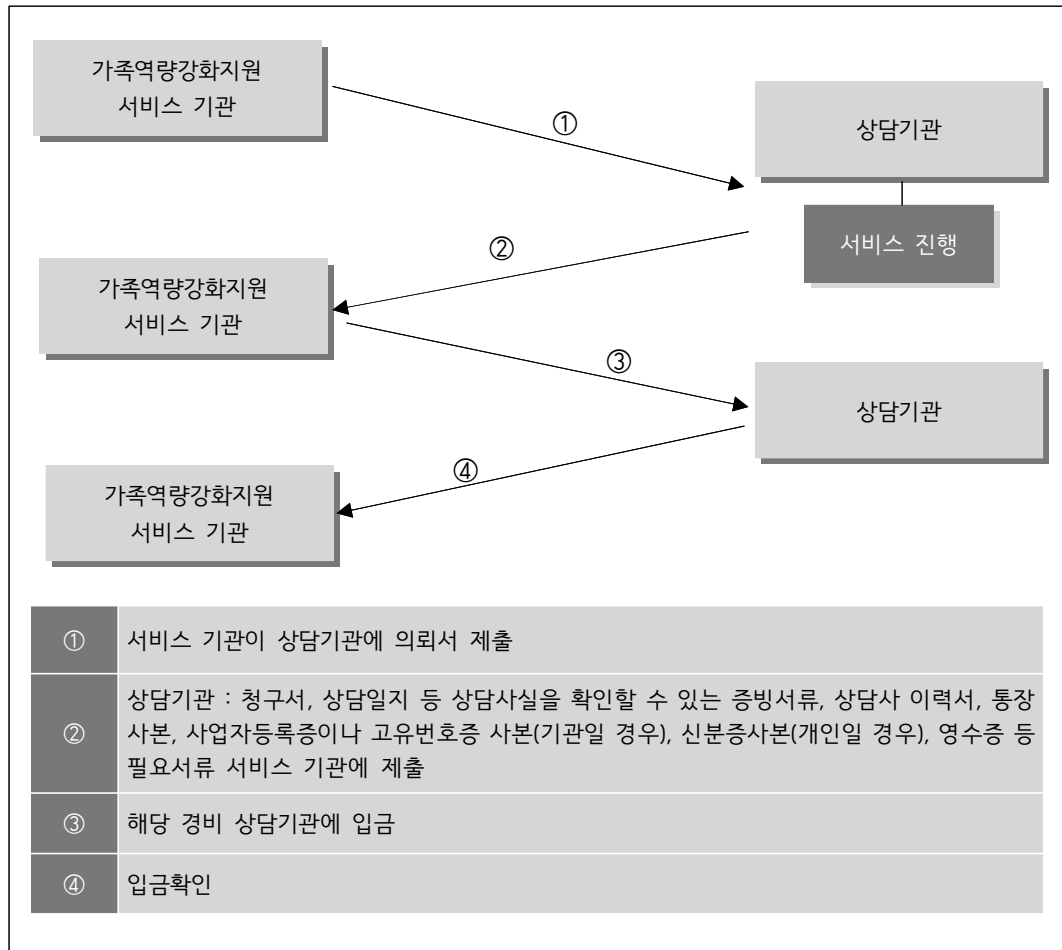
- 지원 내용
 - 심리·정서지원 :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동행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지지리더가 직접 상담하거나 사업수행기관 내 상담관련 팀으로 연계하여 위기가정의 부모·자녀 및 부부 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 긴급 가족돌봄 지원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수요에 따라 생활도움서비스(일시 돌봄, 가사활동, 개인 활동, 정서지원)를 지원하기 위한 지지리더 파견(키움보듬이 파견 가능)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정신적 외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상담 제공
- 가구당 100만원 이내(지지리더 활동, 가족상담 등 포함)지원 가능하나, 가구 내 지원대상이 3인 이상인 경우, 지원한도의 1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그림 2-19] 가족센터의 전문상담 제공시 연계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 이혼 신청 중인 가족 지원

- 아동 복지 관점에서 이혼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위기상담·교육·문

화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

- 사업수행기관 인근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

● 지원 내용

- 사업내용에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가능

- 상담 내용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혼 후의 의사소통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부모들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표 2-10> 가족센터의 이혼 신청 가족 지원 표준 프로그램

분야	종류	내 용	횟 수	예산집행
상담 서비스	개인·부부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부부갈등 조정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분담 결정 등 지원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안 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주 1~2회 상담 (회당 1시간 내외) * 집단상담의 경우 규모 최소 4인 이상, 주1~2회(회당 2시간 이상)	긴급위기 지원의 상담비 집행 가능
	자녀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심리상태 확인 이혼위기가정 아동의 심리정서 표현 지원 자녀상담치료 등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회복, 가족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안에서의 자기 탐색 지원 부모-자녀관계 상담 등 단기가족치료 		
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교육 이혼으로 인한 자녀 심리·정서적 문제이해 올바른 부모역할 교육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이상)	프로그램 예산 집행
	부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갈등다루기, 배우자이해하기 등 부부관계 회복 지원 올바른 의사소통 등 부부대화법 		
문화 서비스	부부·가족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자녀 참여 부부 관계개선 도모 가족화합 도모 	연 2회 이상	프로그램 예산 집행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3)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 사업 개요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수행되는 특화사업의 하나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과 같은 가족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자와 선정 기준, 지원 서비스 내용은 별도의 지침을 갖고 운영되고 있음

■ 사업 목표

-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

■ 사업 대상

- 아래 요건 충족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가족(등록확인서)

- 주민등록 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등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난민 등

■ 사례관리 서비스

- 위기관리 지원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등의 상황적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경험한 개인 및 가족 등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이 기본 가족역량은 있으나, 정보부족, 소득부족 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문제와 욕구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다문화가족의 문제 및 욕구의 심각성, 복합성이 높아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개인 및

가족, 기존의 사회서비스로는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내외부 자원을 발굴·연계해야 하는 가족 등 사례관리 개입 효과가 다문화가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는 사례

■ 사업 추진 기관

- 전국에 담당인력 208명 배치(전국 244개소 가족센터 중 208개소 배치)

<표 2-11>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추진 중인 지역별 가족센터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수	208	28	11	9	12	4	4	5	1	35	11	13	16	12	23	13	9	2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4) 가족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 전문 인력 배치

■ 가족센터에는 특별히 가족 상담과 임신출산갈등상담을 위한 가족상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자녀 간, 부부간 가족관계 개선 등 가족 상담으로 일반상담, 정보제공 상담, 집단상담 등 실시
- (임신출산갈등상담) 임신·출산에 따른 갈등상담, 입소시설·전문지원기관 등 연계, 출산·자녀양육 정보 제공 등 실시

■ 가족상담 전문 인력은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연계된 내담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실시 및 관련기관 연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함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전화상담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에 설치되어 있음

[그림 2-20]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흐름도 : 임신출산갈등상담 사례

(1차) 초기상담	(2차) 심층상담 및 연계서비스	(3차) 입소시설·전문기관 등 연계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연계된 내담자 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입양기관 ▶ 청소년쉼터 ▶ 폭력피해여성쉼터
지역별 가족센터 전화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경찰청, 병원, 여성긴급전화 등 연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5) 가족센터 사업별 가족위기 지원의 시사점

- 가족센터를 통한 위기가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긴급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한한 일시적 지원이거나, 일부 가족유형에게만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어, 위기가족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는 갖추지 못하였음
 - 전국 지원을 위해 시·도별 2개소 이상 사업수행기관 운영 중으로 전국 가족서비스 추진 기관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 가족센터 83개소에서만 한부모가족 대상 위기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경우는 전국 208개소에서 소통의 어려운 위기부터 복합적 위기까지 지원되고 있음
 - 두 사업을 모두 운영 중인 지역도 있으나 두개 사업이 전혀 운영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추후 전국 위기가족대상 동일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인력과 예산 배정을 통한 가족위지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가족센터에서 제공되는 사례관리는 가족역량강화사업, 다문화가족사례관리로 각기 상이한 운영지침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지침으로 통합한다면 위기가족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두 사업을 가족위기 수준에 따른 사례관리라는 단일 목표로 통합한다면, 가족센터에서의 사업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이때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사용 중인 척도들은 가족위기 수준 진단이나 가족위기 유형별 위험수준 측정에 적용가능한지를 살피고, 미흡한 부분의 지표 보완이나 개발이 필요함
 - (자기효능감 척도) 개인의 위기 극복에 대한 개인의 역량(능력, 자신감) 등 파악에 활용

- (가족기능 척도) 개인의 의기 극복을 위한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나 역기능 파악에 활용가능하나 위기 지원 시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위기성 진단 척도) 가족유형별로 적합 문항을 가진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추후 위기 수준 파악을 위한 개인이 응답가능한 발달적, 관계적 개인적, 외적 위기 수준 진단 척도와 가중치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개인 위기성 진단척도) 가족유형에 '다른 위기성 진단 척도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할 필요 있음. 추후 개인 위기성은 개인의 고립/고독감등에 대한 측정도구로 고도화 하고, 우울 척도와 함께 검토
 -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 충격적인 사건 경험 발생시 바로 활용 가능
 - (사건충격 척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경험 발생시 바로 활용 가능
 - 가족센터에서 제공되는 척도는 한국어이외 다국어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특히 신체적 장애를 고려한 척도 제공방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추후, 위기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가족센터에 동일한 위기가족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배정 시, 사례관리 담당자와 상담사의 자격기준이나 위가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함
 - 가족센터의 기본사업인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이나 관계적 갈등에 대한 상담, 다양한 방문인력(아이돌보미, 방문지도사, 배움지도사, 지지리더,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도사 등)을 통한 서비스는 충분히 위기가족 사례관리 시 매우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관계적 갈등이외에 우울감, 사건에 대한 충격 등 좀 더 위기관련 상담 역량이나 이해 부분의 역량제고가 필요함

■ 가족유형이 가족위기 대상자 선정 조건이 갖는 한계가 존재함

-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와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위기관리 지원은, 1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이외의 가족위기에 대한 제약요소임
- 특히, 가족위기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위소득 100%이상의 위기가족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소통의 문제 수준부터 긴급위기까지 사례관리 수준을 세분화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외에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과 특별 기준 검토 필요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일 경우 개인적 위험 지원은 위기관리가구, 정보 및 소통부족 가족은 일반형 관리가구, 그 외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하면 통합형 관리 가구로 구분하며, 소득이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이 아니라 위기 수준으로 구분

-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한부모일 경우 소득기준과 가족기능 진단 척도로 구분
-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개인 사건에 따른 위기 지원을 개인과 가족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중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사례관리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방식을
통합하여 개선하여야 함

■ 사회적 재난발생 지역, 가족역량강화사업 등 운영여부에 따라, 그리고 담당인력의 역량에 따라 위기사례관리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가 달라지고, 특히 재난 지원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험 공유 및 위기 예측 등을 위한 별도의 가족센터 지원 체계기 필요함

- 위기가족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자원연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역량강화사업과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사업을 둘 다 운영하는지, 한 개의 사업만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자 발굴과 지역협의체 연계기관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센터의 역량차이를 만들어냄
- 위기가족의 취약 기능 지원을 위해 돌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 가족센터별 전문 상담가 보유 현황과 전문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방안 검토 필요
- 특히 현장에서 위기가족 내 구성원을 지원하며 파악되는 대상자 정보나 특성, 위기 단계의 수준 등은 계속 관리되고 분석되어, 위기 예측지표로 활용 가능함

■ 가족센터 사업의 경우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구당 최대 200만원 이내의 위기 지원이 가능하므로, 위기가족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대상, 가족위기 수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함.

- 특히 상담과 돌봄 수요에 대한 한시적 긴급지원은 가족센터에서 고유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위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제공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수립 필요
- 또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내에 사례관리 대상으로 들어온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재난체계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지 못하면, 적절한 시기에 가족위기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1. 프랑스의 가족정책과 지원 사례

1) 경제적 지원

■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징

- 프랑스의 통계청(INSEE)이 발표한 2020년⁵⁾ 가족구조 분포를 살펴보면, 전통적 가족(familles traditionnelles) 66.3%, 한부모가족(familles monoparentales) 24.7%, 재결합가족(familles recomposées) 9%임.
 - 프랑스 가족의 평균 자녀수는 1.9명이나, 전체 가족의 21%를 구성하는 대가족은 최소 3명의 자녀가 있음. 대가족의 비율과 평균 자녀수는 2011년 이후로 변화가 없음.
- 프랑스 가족정책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족을 중시하는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음.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사회적 불평등 확대, 이민자 유입 증가, 경제 불황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족의 위기가 높아졌음.
- 이러한 가족의 위기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소득지원, 주택지원, 가족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이 있음

<표 2-12>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

구성요소	내 용
소득지원	자산조사를 통한 가족·아동수당, 자녀에 수에 따른 세금 공제
노동	출산·육아 휴가, 유연근무시간제, 주35시간 노동시간
교육	취학전 아동 교육시설, 교육 보조금
의료·보건	출산 전·후 무상 의료서비스, 예방접종, 불임 치료
주택	월세 보조금, 공공주택 공급, 저이자의 대출 지원
사회서비스	가족상담
가족지원서비스	입양, 가정폭력 등등

자료 :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42268>

- 대표적으로 소득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족수당은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 발전해왔음.

5)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422681>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가족수당은 가족수당, 가족지원수당, 가족보충수당 등 다양함,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지원

-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아 지원이 더 필요함.
 - 한부모가족 중 어머니 홀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82%로 이들 중 4분의 3이 일을 하지만 29%만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빈곤에 더 쉽게 노출.
 - 2018년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41%가 빈곤선 미만에 있고, 전체 어린이는 21%만이 빈곤선 미만에 있음. 자녀가 아버지와 사는 경우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더 적음.
- 한부모가족(familles monoparentales)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든 아빠든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표현함.
 - 프랑스는 2005년 부모의 결혼 여부에 따른 구별이 없도록 하는 결정을 함.⁶⁾ 프랑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결혼 외 출산이 늘어났기 때문임.
 -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외 출산자녀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결혼 외 출산 자녀는 63.5%에 달함. 이를 통해서 부모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에 대한 지원(출산장려금, 가족수당, 영아보육수당, 자녀간호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했음.
 - 프랑스는 동거, 한부모가족, 재혼 등으로 인한 재결합 가족, 동성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함. 이러한 모든 가족이 양육을 하는데 있어 위기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를 통해 동거를 통해 결혼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음.
-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가족지원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이하 ASF)이 있음.⁷⁾
 - 가족지원수당은 한쪽 또는 양쪽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임. 아이가 20세까지 받을 수 있음.
 - 가족지원수당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어린이 1인당 최대 122.93유로, 아이를 입양한 경우 163.87유로.
 - (신청대상) 가족지원수당을 받는 조건은 가족 수당(prestations familiales)과 같은 프랑스에 체류할 권리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예를 들어 외국 국적의 경우 법적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을 가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거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

6)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00451869>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7)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llocation-de-soutien-familial-asf>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신청할 수 있음. 가족지원수당은 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음.한쪽 부모가 생활비를 지급 할 수 없을 때 신청 할 수 있음(생활비 기준은 122.93유로 임). 가족지원수당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이때 가족수당기금은 지급된 수당의 급여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양육자에게 추후에 부과됨

- 적극적 연대급여(Revenu de Solidarité, 이하 RSA)는 25세 이상 프랑스에 거주는 이들 중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특히 임신 중이거나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조건 없이 RSA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
 - 급여는 접수된 시기로부터 12개월 동안만 유지됨. 계속 받고 싶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함. 하지만 수급자가 3세 미만의 아동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면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됨.

2) 돌봄 위기 지원

■ ‘부모성 지원(le soutien à la parentalité)’ : 부모에 대한 공공지원

- 교육과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에 대해 부모를 지원.
 -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한 초기 단계의 보편적 예방정책임.
 - 이는 미래에 더 심각한 상태를 피하고 억제하기 위한 사회 투자적 성격의 수단임.⁸⁾
- 2018-2022년 부모성 지원정책의 방향은 2018년 7월 2일에 발표된 ‘부모를 그려주세요 (Dessine-moi un parent)’ 전략에 의해 설정
 - 연대 보건부 장관인 Agnès Buzyn은 ‘부모를 그려주세요’ 전략은 양육지원정책을 보다 가시적이고, 읽기 쉽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임을 밝힘.⁹⁾
 - ‘부모를 그려주세요’ 전략은 자녀의 삶의 각 단계에서 부모를 지원하고, 부모 지원을 위한 기회를 개발하고, 가족과 학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동반하여 환경 보호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 간의 상호 부조를 촉진.
 - ‘부모를 그려주세요’ 전략 실행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빈곤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부처 간 전략의 우선순위 중 하나임.

8) <https://solidarites-sante.gouv.fr/archives/archives-famille-enfance/dispositifs-d-aides-aux-familles/>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9) <https://www.cnape.fr/dessine-moi-un-parent-strategie-de-soutien-a-la-parentalite/>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 공통 시각정체성(une identité visuelle commune)을 통해 부모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육아지원활동을 위한 지리적 위치도구(un outil de géolocalisation des actions de soutien à la parentalité)는 프랑스 가족수당금고(La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에서 관리하는 monenfant.fr¹⁰⁾에서 서비스를 제공. 부모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집 근처 거리에 따른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음
- 인터넷에서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출처에 대한 인증(une certification des ressources d'information des parents disponibles sur Internet)

■ '부모의 듣기, 지지, 동반을 위한 네트워크(Réseaux d'Écoute, d'Appui et d'Accompagnement des Parents, REAAP)'

-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부모의 기술과 능력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로 1999년 3월(circulaire DIF/DGAS/DIV/DPM N°1999/153 du 9 mars 1999)에 만들어짐.
- 네트워크는 사회 보장 조직(CNAF, MSA) 및 장관 부처(국가 교육, 사법, 사회 행동, 시 등)의 대표와 함께 가족 운동 및 대규모 협회를 동원하며, 국가 차원에서 조직된 위원회 운영 위원회에서 조직됨.¹¹⁾

■ '나홀로 부모와 동행(Parents solos et compagnie)'

- 가족 아동 여성 인권부 장관(Ministre des Familles, de l'Enfance et des Droits des femmes)인 로랑스 로시놀(Laurence Rossignol)은 2016년 12월 13일 한부모 가정의 고립을 깨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시작.
- '나홀로 부모와 동행' 플랫폼(<https://www.parent-solo.fr>)은 스스로 한부모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며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를 통해서 한부모가 겪는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직화를 위해 50,000유로의 지원기금을 통해 최대 500유로까지 1년에 2번 한도 내에서 지원.¹²⁾

10) <https://monenfant.fr/>은 국가포털로 영유아를 위한 모든 정보(보육시설, 영유아의 부모에게 알리고 지원하는 기존 서비스) 제공. 이러한 정보를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매체에 맞춰 제공.

11) <https://solidarites-sante.gouv.fr/archives/archives-famille-enfance/dispositifs-d-aides-aux-familles/article/les-reseaux-d-ecoute-d-appui-et-d-accompagnement>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12) <https://www.parent-solo.fr/dossier-120-parents-solos-compagnie.html>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 ‘전국 부모지원헌장(la charte nationale de soutien à la parentalité)’

- 2021년 5월 19일, 가족과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법(l’article L. 214-1-2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에 의해 제공되는 전국 부모지원헌장을 만듦.
- 이를 통해서 모든 육아지원에 대해 공통 원칙을 수립하고자 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국부모헌장은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됨.¹³⁾
 - 1원칙: 부모의 능력을 소중히 여김
 - 2원칙: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가족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함
 - 3원칙: 가족의 삶의 전체 맥락에서 접근하여 통합적으로 부모를 지원
 - 4원칙: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
 - 5원칙: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성평등을 존중
 - 6원칙: 아동의 발전에서 각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7원칙: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중립성을 존중하며 개입
 - 8원칙: 개입하는 자원봉사자와 전문가의 경험과 능력 보장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과 돌봄에 대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시행.

- 이 시스템은 3세에서 17세 사이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학자와 함께 위기 기간 동안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임.¹⁴⁾
 -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장애 악화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아동 및 청소년이 2021년에 전년도에 비해 평균 40%나 증가했음.
 -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3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불 없이 10회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심리 100%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

13)

<https://www.familles-de-france.org/fr/domaine-dexpertises/education/charte-nationale-du-soutien-la-parentalite>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14)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forfait-100-psy-enfants-10-seances-sans-avance-de-frais>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2. 미국의 위기가족 지원 사례

1) 연방정부의 가정폭력 지원

■ 연방정부의 가정폭력자원네트워크(Domestic Violence Resource Network, DVRN)

- 가정폭력자원네트워크(DVRN)는 개인, 지역사회, 사회적 수준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중재와 예방, 정보제공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건강 및 인적서비스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재정지원으로 운영.
- 아동가족국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가족청소년실(Family and Youth Service Bureau)은 가정폭력자원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기관들이 협력적으로 실행과 전략을 공유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 협력기관들은 가정폭력의 희생자, 대변자, 지역프로그램, 교육자, 법적조력자, 정책입안자 등이 성공사례나 정책, 연구, 관련자 정보 등에 대한 최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줌.
- DVRN은 2개의 전국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s), 특수문제에 대응하는 4개의 자원센터(special issue resource centers), 문화별로 구분된 3개의 자원센터(culturally-specific resource centers), 전국가정폭력핫라인(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전국가정폭력대응능력강화교육센터(the National LGBTQ DV Capacity Building Learning Center)를 포함함
 - 다음의 기관들이 포함됨
 - National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 National Indigenous Women’s Resource Center
 - Alaska Native Women’s Resource Center
 - Battered Women’s Justice Project & National Clearinghouse for the Defense of Battered Women
 - National Health Center on Domestic Violence
 - National Center on Domestic Violence, Trauma & Mental Health
 - Asian Pacific Institute on Gender-Based Violence
 - National Latin@ Network for Healthy Families and Communities
 - Ujima, Inc.: The National Center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Black Community
 - Promising Futures Without Violence
 - Safe Housing Partnerships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 StrongHearts Native Helpline

■ 위기가족 일시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프로그램

- 아동가족국(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의 가족지원실(The Office of Family Assistance, OFA)은 연방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되게 함.
- 위기가족 일시지원(TANF)의 내용
 - 자녀들이 자기 가정 혹은 친척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족(needy families)을 지원
 - 직업준비 및 직장과 결혼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부모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 혼외 임신 예방과 감소
 - 양부모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지원

[그림 2-21] 미국 위기가족 일시지원(TANF)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자료 : <https://www.acf.hhs.gov/ofa/map/about/help-families>

[그림 2-22] 미국의 전국단위 책임감있는 아버지를 위한 정보센터의 안내문구

Have questions about fatherhood programs, or about fatherhood in general?

Reach out to our **National Call Center** for dads and practitioners. (1-877-4DAD411)

자료 : <https://www.fatherhood.gov>

- 아동가족국 가족지원실의 기타 프로그램
 - Tribal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ribal TANF) program
 - Native Employment Works,
 - Healthy Marriage and Responsible Fatherhood grants,
 - Health Profession Opportunity Grants

2) 주정부의 돌봄 위기 지원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동 및 가족복지를 위한 변혁

- 노스캐롤라이나 건강 및 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아동 및 가족복지를 위한 변혁: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협력적 실행계획>은 위기에 처한 아동과 가족이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함.
- 아동복지기관, 직접 돌봄 기관, 복지기관이 함께 움직임으로써 가족을 강화시키고 아동의 행동적 건강 및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건강욕구에 대응. 이 팀은 가족이 역경에 맞서고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서비스를 실행함.
-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실행계획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관련 기관 확대
 - 질적으로 우수하고 전 지역에 걸친 시범 서비스기관 확대
 - 금주 및 약물치료 시범기관 확대
 - MORES(Mobile Outreach Response Engagement Stabilization) 위기 개입팀 확대
 -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협력(care coordination) 강화
 - NC-PAL(Psychiatric Access Line) 프로그램 확대
 - 988 위기 핫라인의 주 전체의 실행
 - 아동 돌봄 기관의 신속 연계
 - 우선 돌봄(Placement First) 시범기관 설치
 - 위기 돌봄 시설 실시간정보 및 위탁체계 구성
 - 돌봄자를 위한 긴급휴식 프로그램 운영

- 전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 긴급대응팀 강화
- 증가하는 아동의 행동건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 주거와 서비스수요에 대응하는 융통적이고 강화된 행정체계

3. 독일의 아동수당지급 사례

■ 관련 법률에 근거한 지원

- 독일 의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법률인 ‘Gute-KiTa-Gesetz’를 통과시킴.
 - 이 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육료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 포함.¹⁵⁾

■ 한부모가족의 지원금 확대, 아동보너스 지급, 부모수당 플러스 제도 도입

- 독일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금 (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을 확대.
 - 독일사회 또한 프랑스와 같이 결혼을 통한 가족과 출산을 통한 가족을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음. 결혼 여부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인식.
 - 코로나 위기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한부모 지원금을 기존 연 1,908유로에서 4,008유로로 증액.
 - 두 번째 자녀부터는 구제 금액이 자녀당 연간 240유로씩 추가 지급.
- 독일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 지급함과 동시에 ‘아동 보너스(Kinderbonus)’를 300유로 지급함.
 - 아동 보너스는 2020년 9월과 10월, ‘아동 수당(Kindergeld)’을 받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
 - 아동 보너스는 아동 수당과 마찬가지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선지급(9월 200유로, 10월 100유로 총 300유로). 다만 연 93,000유로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관련 조치가 이뤄짐.
- 육아나 돌봄으로 인해 시간제 일을 많이 하는 한부모를 위한 ‘부모수당 플러스 (ElterngeldPlus)’ 정책¹⁶⁾도 있음

15) <https://ec.europa.eu/social/main.jsp?langId=en&catId=1246&newsId=9277&furtherNews=yes#navItem-8>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16) <https://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p=1&idx=127727> 검색일: 2022년 8월 28일.

4. 덴마크의 별거부모 대상 양육법 지원 사례

■ 별거부모 대상, 디지털 교육 도입

- 덴마크는 별거하는 부모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2019년에 도입.
- 가족법(family law system) 개혁의 일환으로 이혼을 희망하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3개월의 의무적 성찰 기간이 도입됨.
- 이 기간 동안 학부모는 ‘For the For the Children(SES)’이라는 디지털 과정을 완료해야 함 .
 - 이 과정은 부모 간의 협력,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도전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분리기간 동안 자녀를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
 - 이미 별거 중인 모든 부모도 이용할 수 있음.
 - SES는 총 12시간 이상의 양방향 교육, 20개의 다큐멘터리 및 역할극 영화, 50개 이상의 연습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5. 영국의 포털 시스템을 통한 위기 접수 사례

■ Supporting Families Program¹⁷⁾ : 영국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족접근을 통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 지역담당자, 파트너 등과 함께 활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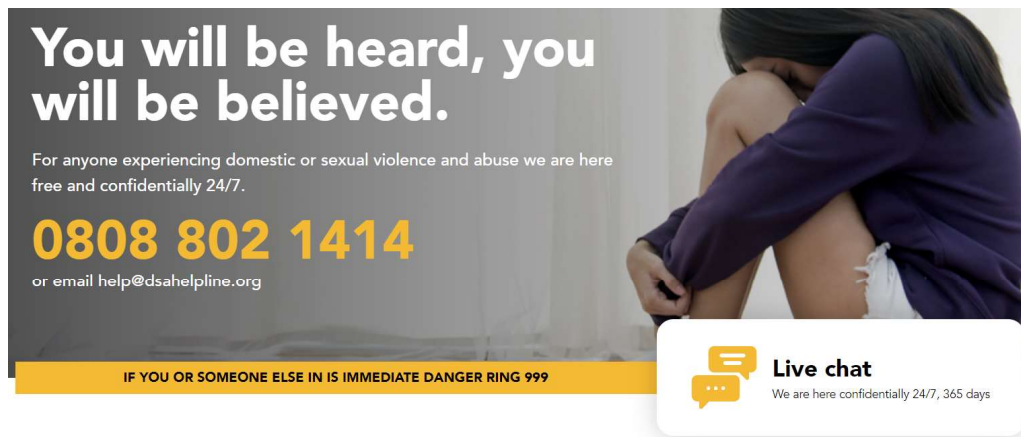
- 웹페이지에는 Supporting Families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지침, Supporting Families Blog 를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이 프로그램은 2011년 12월에 발표된 어려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Troubled Families Programme:2010-현재)의 후속으로 만들어짐. 어려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다수의 복잡한 욕구’를 가진 가정들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며 주로 ‘사회 또는 가정 문제들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는 가정환경 내 지정된 주요 담당자를 통한 집중적 지원’을 특징으로 함(서정아 외. 2017)

■ ‘원스톱·퍼스트 스톱 숍 웹 포털(One stop·First Stop Shop Web Potals)’의 활용

17)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upporting-families>

- 통합정부와 전자정부는 블레어 정부의 중요한 아젠다로써 대대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서비스이용보다는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음(서정아 외. 201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지원정도를 정부의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여성들의 겪는 학대나 폭행 등에 대해 지역별로 핫라인, 온라인채팅 등을 만들어 지원.

[그림 2-23] 영국의 가정내 학대나 폭력 핫라인, 온라인 채팅 지원



Types of Domestic Abuse and Sexual Violence

The Domestic and Sexual Abuse Helpline provides information and support to those affected by Domestic and Sexual Abuse across Northern Ireland.

자료 : <https://dsahelpline.org/>

6.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지원 사례

-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European Platform for Investing in Children, EPIC) 기반 가족지원¹⁸⁾
 - EPIC은 증거 기반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럽연합의 아동과 그 가족이 유럽의 경제상황에 직면한 문제에 대처 하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2013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회적 투자의 일환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불리한 상황의 악순환을 끊는다(Investing in children: breaking the cycle of disadvantage)’라는 권고안을 채택했음.

18)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246&langId=en> 검색일: 2022년 8월 28일.

- 이 권고안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지원 및 혜택’, ‘양질의 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
 - 이를 통해서 유아기에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리한 배경이 아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EU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새롭고 유망한 모범사례를 공유함.

7. 국제민간사회복지기구의 가족강화 프로그램

■ 국제민간사회복지기구의 가족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Renforcement de la Famille)¹⁹⁾

- 국제민간사회복지기구(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SOS 어린이 마을의 가족강화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가족의 보살핌을 잃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에 유리한 가족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프로그램임.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완전한 고아
 - 한 부모가 살아 있지만 빈곤한 경우의 자녀로 부분적 고아
 - 양 부모가 살아 있지만 한쪽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한쪽은 빈곤한 경우의 자녀
 - 실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학대로 고통 받은 아동
 -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고아 및 취약 아동을 돌보는 성인
 - 가족강화 프로그램은 최악의 경우 아이를 버릴 수 있는 비극을 예방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함. 가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함.
 -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 아동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지원
 -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 내 취약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강화
 - 기타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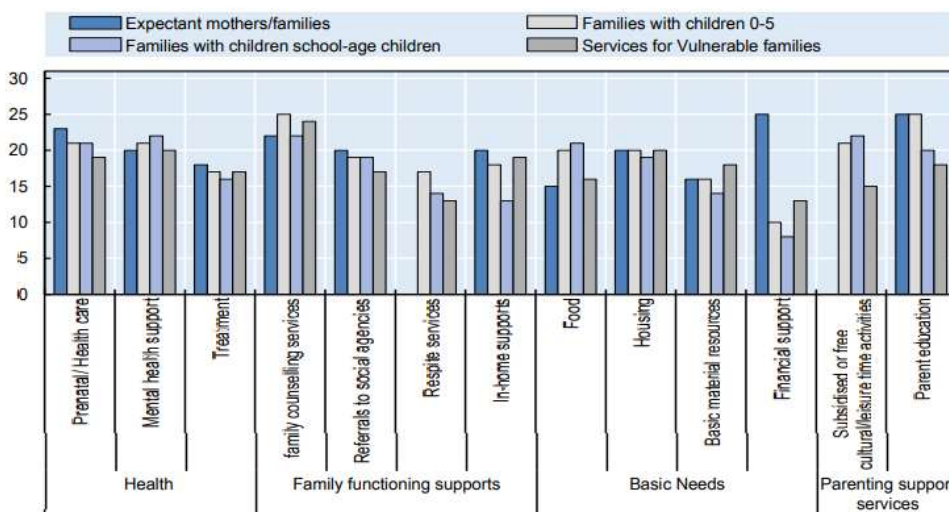
19) <https://sosvecameroun.org/fr/programme-de-renforcement-de-la-famille> 검색일: 2022년 8월 19일.

8. OECD 국가의 가족위기 지원서비스 비교

■ 코로나19 이후 가족위기에 대한 OECD 국가의 가족서비스 정책 조사²⁰⁾

- OECD 국가에서 운영되는 가족 지원 서비스의 품질과 전달 효율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알리기 위해 각국에서 운영되는 가족 지원 서비스의 성격과 주요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가족지원서비스란 부모들의 자녀양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고 양육행동 및 가족기능을 통해 좋은 자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와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지원들은 OECD 국가에 속한 가족들의 요구로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서비스, 자녀 보호, 음식이나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위한 자원, 위기가족을 위한 특별한 지원 등을 포함함.
 - 특히 국가가 아동기 전반에 걸쳐 가족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서비스 전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잘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에 대한 논의를 포함함

[그림 2-24] 특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OECD국가(수도)의 수



Note: The numbers reflect the number of countries with a capital city operating services in each of the mentioned area. Financial support refers to conditional cash support provided by capital cities to families taking up family services. Services for vulnerable families (and other families were needed) refer to specialized services targeted for specific family needs, such as counselling, psychiatric assessments and medication support. Unfortunately, the questionnaire generated only a limited response on information on public spending on family services, which makes it impossible to consider financial support outcomes across countries.

Source: 2019 OECD Questionnaire on Family Services Policy.

자료 :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60

- COVID-19 이후 각국의 정책개발자들은 COVID-19 이후의 위기와 극복을 위한 가족 요구에

20) <https://dx.doi.org/10.1787/86738ab2-en> 검색일: 9월 5일. OECD(2021)의 “Looking beyond COVID-19: Strengthening family support services across the OECD” 보고서 내용 참고.

부응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조사함

- COVID-19는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외에 가족들에게 많은 도전을 겪게 하였으며 많은 부모들이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축소하게 만듦.
-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정신적인 건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
-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 가족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정책개발자들은 가족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도전에 직면함

- 가족지원서비스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 간 비교를 위해 OECD 국가의 수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함.
 -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
 -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강관련서비스(임산부 건강 서비스 등)나 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이 제공됨
- 가족들 중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나 자녀들의 특별한 돌봄 요구 등으로 인해 복합적이고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분석됨
 - 20개 국가에서 장애아 가족을 지원하며 몇 명 국가들이 지원을 시작함
 - 복합적인 요구가 있는 가족들에게 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31개국 중 18개국에서 가족들이 전문가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제공함

[표 2-13] OECD 국가(수도)에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위기가족을 중심으로

Services for Vulnerable families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protection					Health			Basic Needs			Education + ECE			Other specialized needs						
	family counselling services	Referrals to social agencies	Respite services	In-home supports	Resources for chronic stress	Health care	Mental health support	Treatment	Food	Housing	Basic material resources	Financial support	Subsidized or free cultural/leisure time activities	Parent education	Additions supports	Assistance for parents with a child with disabilities	Resources for families seeking asylum	Resources for indigenous families	Referrals to specialized social agencies	Specific assistance and services provided to families facing poverty	Assistance services and resources provided to families
Australia																					
Austria	Yes	Yes	No	No	No	No	Yes	No	No	No	No	Yes	No	No	No	No	No	No	Yes	No	Yes
Belgium	Yes	Yes	No	No	No	Yes	Yes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Yes	Yes	No
Brazil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Canada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Chile	Yes	No	No	No	No	Yes	No	No	No	Yes	Yes	Yes	No	No	Yes	No	No	Yes	No	Yes	No
Czech Republic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German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Denmark	Yes	Yes	No	Yes	No	Yes	Yes	No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Spain	Yes	Yes	Yes	No	No	No	No	Yes	Yes	Yes	Yes	No	Yes	No	Yes	Yes	Yes	Yes	No	Yes	Yes
Estonia	Yes	No	No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No	No	Yes	No
Finland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France	Yes	No	Yes	No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No
Hungary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Ireland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Israel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Yes	Yes	Yes	Yes	No	Yes	No
Japan	Yes	Yes	No	No	No	No	No	No	No	No	Yes	No	No	No	No	Yes	No	No	No	No	No
Korea	Yes	No	No	Yes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Lithuania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자료 :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60

■ 각국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하는 협력적 방법들

- 기관들이 가족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제공
 -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가정 및 가족협회(The Home & Family Society Christchurch Incorporated)는 가족폭력문제에 관련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관 협력체로서, 주요 목적은 부모들이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아일랜드의 자녀 및 가족기관인 Tusla는 121개 가족자원센터에 기금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다양한 팀을 구성
 -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제페토 작업실(Bottega di Geppetto)은 교육자나 사회복지사 및 신경과학자 등 다학제적인 팀을 만들어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 있음
 - 포르투갈에서도 가족 및 부모지원센터(Centro de Apoio Familiar e Acolhimento Parental) 내의 다학제적 팀이 지역사회 지원을 제공함
- 케이스 컨퍼런스 실시
 -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도 모자가정 및 쉼터 연합(Federation of Mother and Child Homes and Shelters)의 직원이나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케이스 컨퍼런스가 일상적임

제3장

한국 가족의 위기 분석

제1절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제2절 가족위기 연관 네트워크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 가족위기 유형화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했음.
 - 언론기사나 다양한 SNS를 통해 발생하는 언급들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플랫폼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족 유형”별 “가족위기” 관련 Text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등 주요 키워드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음.
 - 각종 가족 유형별로 어떤 가족위기 키워드들이 주로 언급되고 유통되고 있는지와 주요 키워드간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했으며, 이러한 분석내용이 시간 단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 보는 시계열분석을 함께 실시했음
- 가족위기 유형화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료의 포괄 범위(Coverage)와 분석솔루션의 정확성임.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빅데이터 분석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LUCY 2.0 솔루션을 활용했음.
 - LUCY 2.0 솔루션의 경우 그동안 많이 활용되어 오던 빅카인즈 등 주요 언론사의 언론기사뿐만 아니라 Twitter/Facebook/Instagram 등 SNS에서 유통되는 각종 Text 및 감성적 언급, 네이버카페/다음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멤버들간에 소통되는 양질의 Social 빅데이터, 네이버블로그/TISTORY 등 블로그에서 생산되는 다소 분석적이고 전문성 있는 정보, 맘스클럽 등 가족위기와 연관성이 높은 비공개채널(정식 가입절차를 통해 멤버들간에만 소통되는 정보채널) 등 다양한 채널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 활용하기 최적의 솔루션임
-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중 채널 커버리지가 높고,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솔루션 LUCY 2.0을 활용함
- LUCY 2.0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정보 수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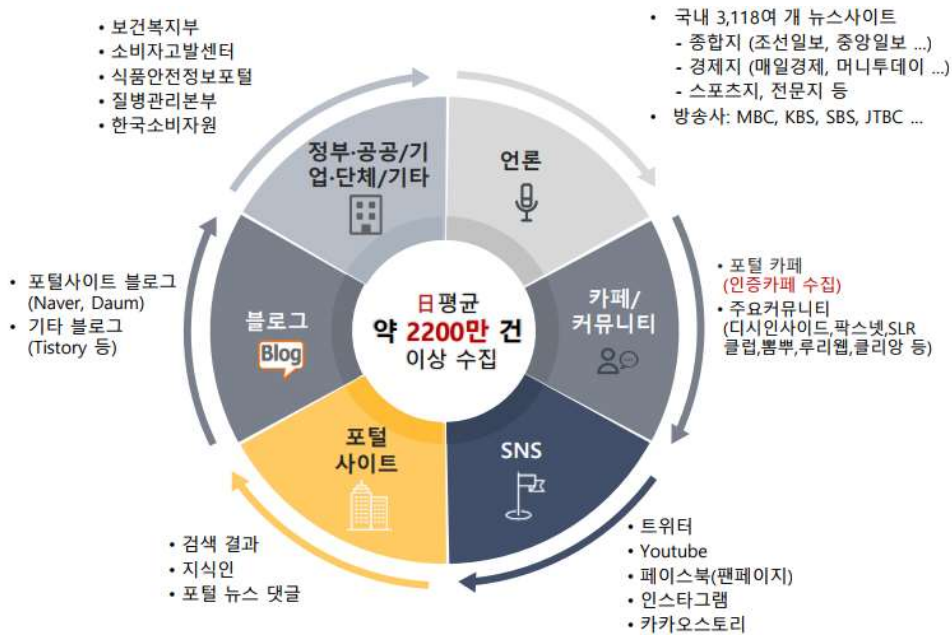
- 온라인 뉴스, 블로그/카페, 커뮤니티, SNS 등 LUCY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집원을 통해 분석에 충분한 데이터 확보

채널	수집대상 사이트 / 키워드 수	범위	비고
언론	3,118 개	선정된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	주요언론, 인터넷언론, 지방지등
언론 댓글	2개 (네이버/다음에 퍼블리싱 되는 모든 기사)	3일간 수집	네이버/다음에 퍼블리싱 되는 모든 기사의 댓글
커뮤니티	1,282 개 (주요 24개 커뮤니티 포함)	모든 게시판의 전체 게시물	광고 관련 특정 게시판 제외
정부/공공	1,129 개	선정된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	한국소비자원, 식품안전정보포털 등
기업/단체	2,124 개	선정된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	주요기업, 은행등의 공지/소식 등
카페	메타 키워드 방식 7,700 개 키워드	키워드 포함 게시 글	수집 키워드 추가 가능
	지정 카페 인증 수집 210 개	선정된 카페 모든 게시 글	특정 카페 추가 가능
블로그	메타 키워드 방식 7,700 개 키워드	키워드 포함 게시 글	특정 블로그 추가 가능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	모든 지식 카테고리	모든 카테고리 게시글 전체 수집
Twitter	메타 키워드 방식 5,662 개 키워드	키워드 포함 게시 글	수집 키워드 추가 가능
Facebook	14,824 개	선정된 페이지에 공개된 모든 게시 글	페이지 추가 가능
Instagram	메타 해시태그 방식 8,550 개 키워드	해시태그 포함 게시 글	수집 키워드 추가 가능
Kakao Story	메타 해시태그 방식 6,511 개 키워드	해시태그 포함 게시 글	수집 키워드 추가 가능
YouTube	메타 키워드 방식 7,147 개 키워드	키워드 포함 게시 글	수집 키워드 추가 가능
	지정된 채널 수집	지정된 채널의 모든 게시 글	수집 대상 채널 추가 가능

※ 주요 24대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네이버금융, 판자일보, 더쿠, SLR클럽, 인스티즈, 가생이닷컴, 예뻐코리아, 82Cook, 네이트판, dvdprime, 루리웹,
 오늘의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파코즈, MLB PARK, Seeko_시코, 뽀뿌, 쿨앤조이, 팍스넷, 세티즌, 클리앙, 플레이웨어즈

● 정보 커버리지

-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일 약 23만개의 수집원에서 약 2, 200만건의 키워드 일 단위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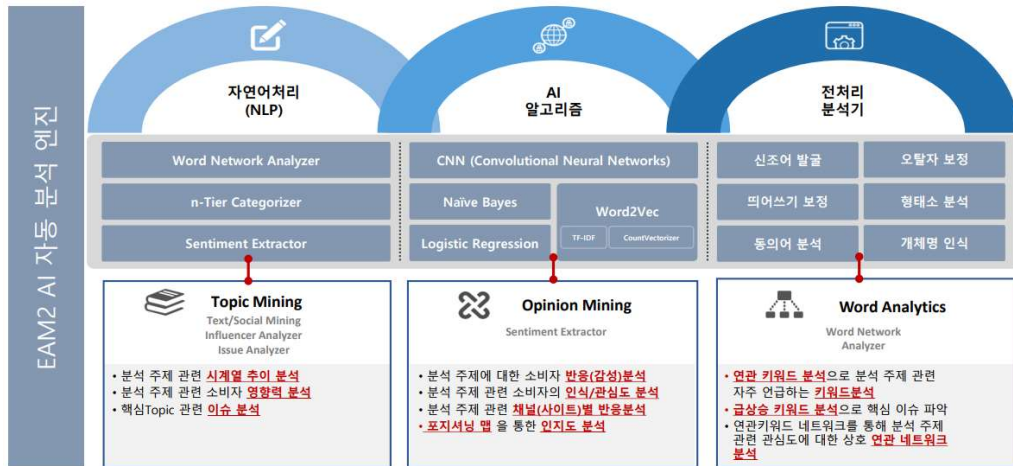


● 정보 분류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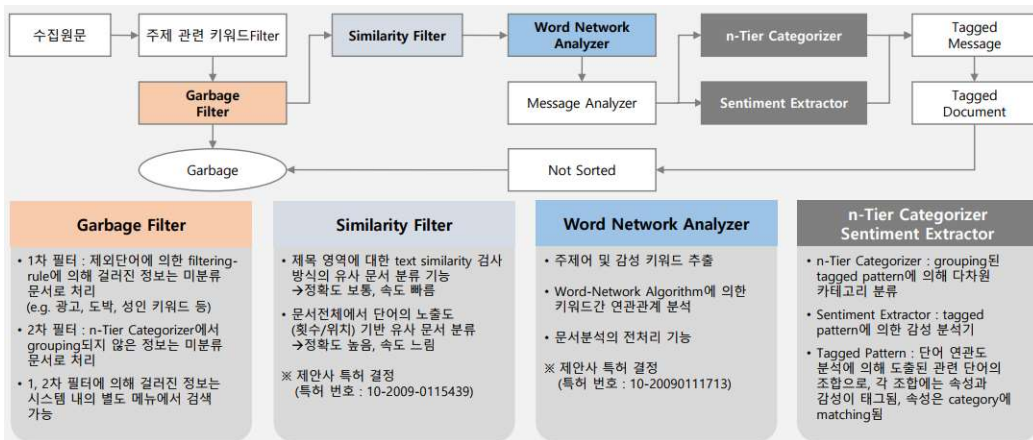
-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cession)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분류하고, AI 알고리

즘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 및 인식/관심도를 분석하며, 전처리 분석기를 통해 연관 키워드를 분석함

- 또한, 성인, 도박, 거래, 부동산, 게임, 증권, 광고 등에서 언급되는 단어는 제외 후 분석함



- 정보 분류 및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음



2) 자료처리 과정

■ 검색어 정의

● 가족유형과 가족위기유형

- 가족위기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가족 유형은 25개, 위기 유형은 26개로 정의함
- (가족 유형) 새로운 가족의 출현으로 다양한 가족과 가족위기가 있을 수 있어 최대한 많은 가족유형을 검색어로 사용하였으나 유형과 결과가 적거나 유사한 경우(예. 미혼청소년가족)에는 통합 처리함

가족 유형(25개)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사실혼가족, 동거가족, 입양가족, 장애인가족, 외벌이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이혼가족, 별거가족, 기러기가족, 분거가족, 주말부부가족, 노인부부가족, 노인단독가구, 1인가족, 공동체가족, 무자녀가족, 한자녀가족, 다자녀가족,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 (가족위기 유형) 본 연구에서 정리한 가족위기의 개념화 작업에 근거하여 가족위기 유형을 26개로 구체화함

가족위기 유형(26개)	
대분류	소분류
발달적 위기(7개)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관계적 위기(5개)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갈등
개인적 위기(7개)	자살/죽음, 실직, 중독, 질병/장애, 폭력, 소외/고립감/우울, 가출
가족외적 위기(7개)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환경오염/사고), 자연재해(태풍/홍수, 산사태/지진), 국가간 전쟁/테러, 사회적 범죄(유괴)

■ 검색 대상 기간

● 지난 5년간의 자료를 검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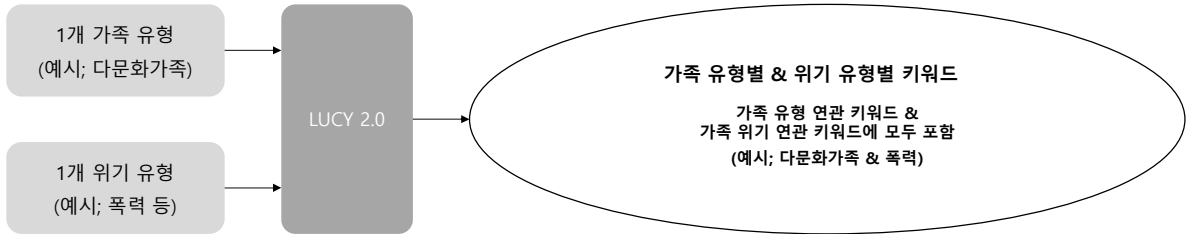
- 2018년~2021년은 1년 단위, 2022년은 1월~7월 기간 포함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가족위기 관련 연관 키워드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음의 3단계에 걸쳐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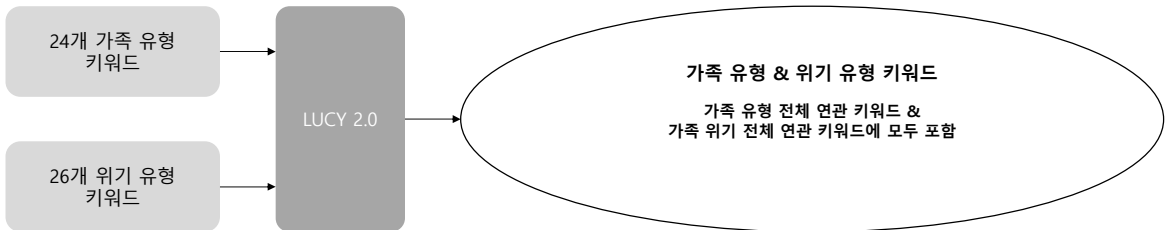
- 1단계 : 가족 유형별 위기 연관 키워드 추출

- 1개의 가족 유형과 1개의 위기 유형을 AND 조건으로 검색
(예, 다문화가족 AND 폭력, 다문화가족 AND 경제위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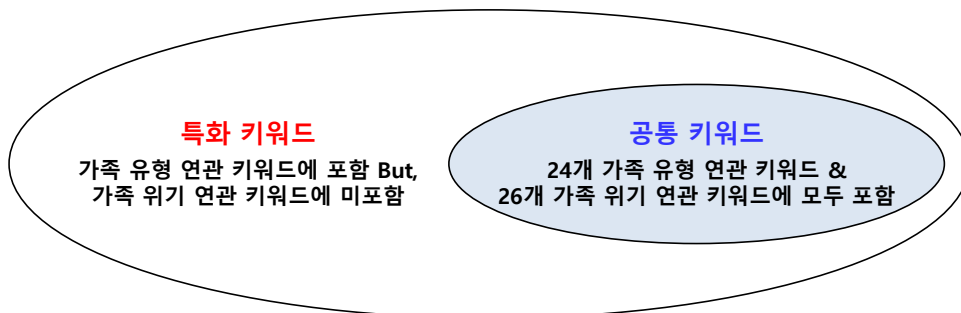
- 2단계 : 가족 유형 전체 위기 연관 키워드 추출

- 24개의 가족 유형과 26개의 위기 유형을 AND 조건으로 검색
(예, 다문화가족 OR 한부모가족 OR ... AND 폭력 OR 경제위기 OR ... 등)



- 3단계 : 가족 유형별 공통 및 특화 키워드 추출

- 1단계에서 추출한 가족 유형별 위기 연관 키워드와 2단계에서 추출한 가족 유형 전체 위기 연관 키워드를 비교하여, 공통 키워드와 특화 키워드로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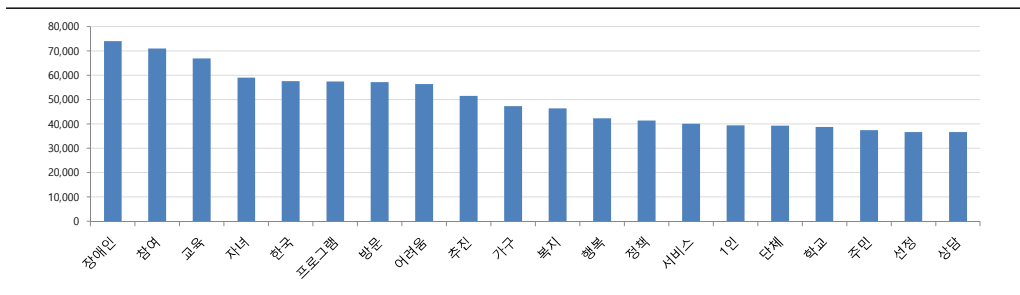


2.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1) 연도별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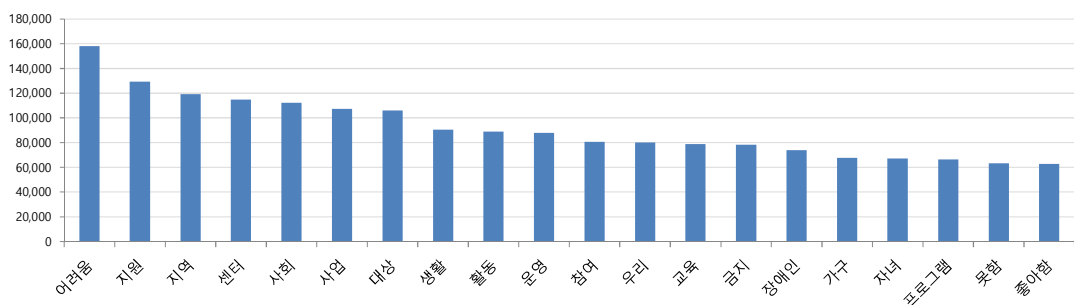
■ 2018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 2018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는 장애인, 참여, 교육, 자녀, 한국, 프로그램, 방문, 어려움, 추진, 가구, 복지, 행복, 정책, 서비스, 1인, 단체, 학교, 주민, 선정, 상담 등의 순으로 많이 언급됨



■ 2019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 2019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는 어려움, 지원, 지역, 센터, 사회, 사업, 대상, 생활, 활동, 운영, 참여, 우리, 교육, 금지, 장애인, 가구, 자녀, 프로그램, 못함, 좋아함 등의 순으로 많이 언급됨
- 2018년 대비 지원, 지역, 센터, 사업, 대상 등의 키워드 언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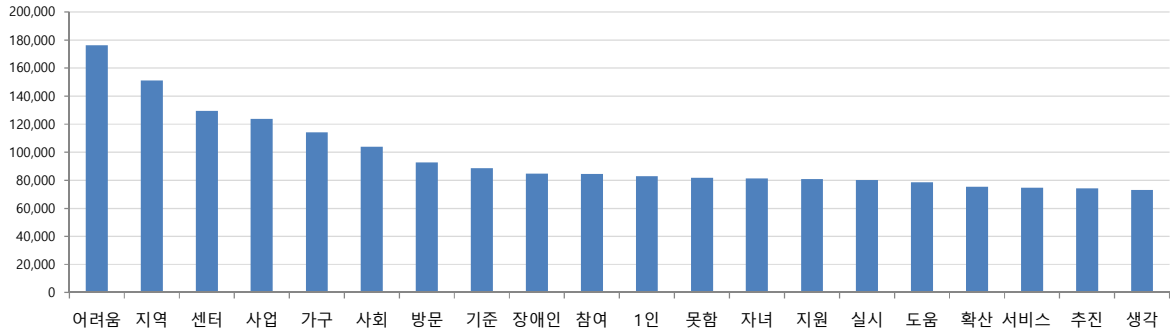


■ 2020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 2020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는 어려움, 지역, 센터, 사업, 가구, 사회, 방문, 기준, 장애인, 참여, 1인, 못함, 자녀, 지원, 실시, 도움, 확산, 서비스, 추진, 생각 등의 순으로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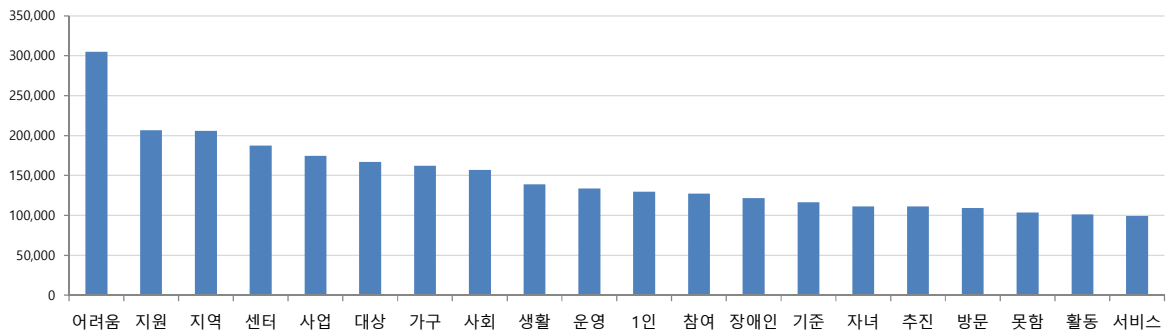
언급됨

- 어려움, 지역, 센터, 사업 등의 키워드는 2019년에 이어 언급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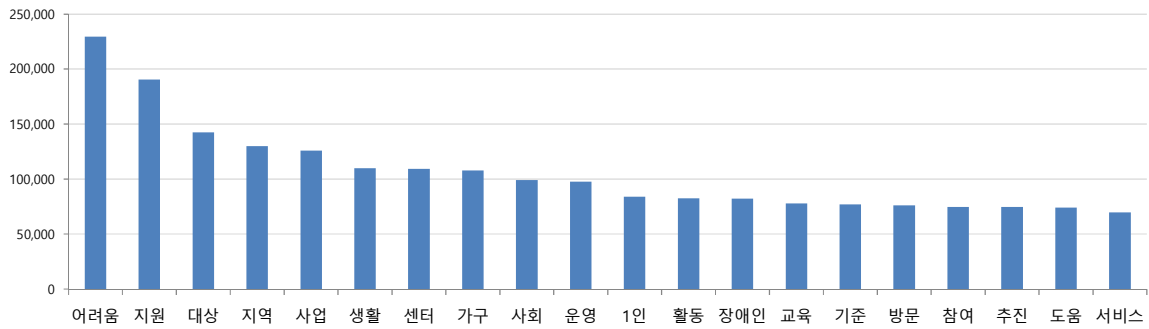
2021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 2021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는 어려움, 지원, 지역, 센터, 사업, 대상, 가구, 사회, 생활, 운영, 1인, 참여, 장애인, 기준, 자녀, 추진, 방문, 못함, 활동, 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이 언급됨
- 어려움은 2020년에 이어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로 언급량이 2020년 약 176,332회에서 304,912회로 큰 폭으로 증가함



2022년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 분석

- 2022년 1월~7월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는 어려움, 지원, 대상, 지역, 사업, 생활, 센터, 가구, 사회, 운영, 1인, 활동, 장애인, 교육, 기준, 방문, 참여, 추진, 도움, 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이 언급됨
- 2021년 주요 연관 키워드는 2019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2) 주요 연관 키워드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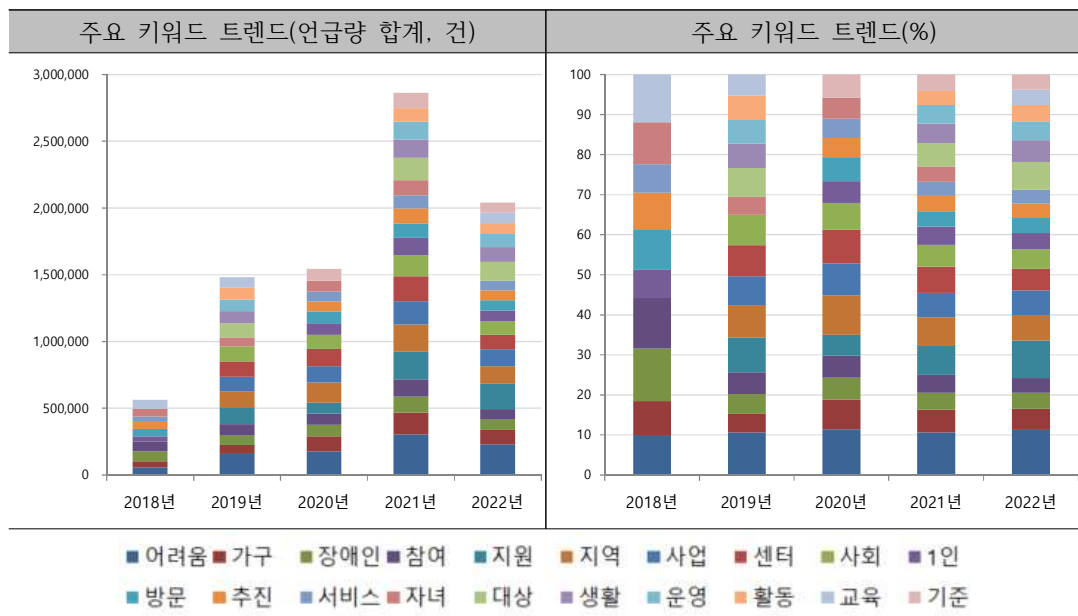
- 2020년 이후 어려움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 지역, 사업 등의 키워드가 언급량 상위권을 유지함

<표 3-1> 년도 별 가족위기 주요 연관 키워드

순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키워드	전년 대비	키워드	전년 대비	키워드	전년 대비	키워드	전년 대비	키워드
1	어려움	-	어려움	-	어려움	-	어려움	▲7	장애인
2	지원	-	지원	▲12	지역	▲1	지원	▲22	참여
3	대상	▲3	지역	▼1	센터	▲1	지역	▲20	교육
4	지역	▼1	센터	▼1	사업	▲2	센터	▲28	자녀
5	사업	-	사업	▼1	가구	▲11	사회	▲21	한국
6	생활	▲3	대상	▲20	사회	▼1	사업	▲28	프로그램
7	센터	▼3	가구	▼2	방문	▲15	대상	▲29	방문
8	가구	▼1	사회	▼2	기준	▲31	생활	▲29	어려움
9	사회	▼1	생활	▲12	장애인	▲6	활동	▲29	추진
10	운영	-	운영	▲40	참여	▲1	운영	▲42	가구
11	1인	-	1인	-	1인	▲32	참여	▼9	복지
12	활동	▲7	참여	▼2	못함	▲7	우리	▲34	행복
13	장애인	-	장애인	▼4	자녀	▲4	교육	▼10	정책
14	교육	▲7	기준	▼6	지원	▼12	금지	▲27	서비스
15	기준	▼1	자녀	▼2	실시	▲19	장애인	▼14	1인
16	방문	▲1	추진	▲3	도움	▲10	가구	▼6	단체
17	참여	▼5	방문	▼10	확산	▲164	자녀	▼13	학교
18	추진	▼2	못함	▼6	서비스	▲11	프로그램	▼12	주민
19	도움	▲3	활동	▲27	추진	▲12	못함	▲47	선정
20	서비스	-	서비스	▼2	생각	▲4	좋아하다	▲30	상담

- 전체적인 트렌드로 볼 때 가족위기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던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지원, 대상 등의 키워드 언급량이 늘고 있으며,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한 키워드 언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바, 지역사회를 통한 지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추세로 보임
- 또한, 2018년 대비 2019년 키워드의 순위 변동이 큰 점, 2020년 확산의 언급량 순위가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2019년 이후 COVID-19 팬데믹과 연계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주요 키워드²¹⁾는 2021년까지 언급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2021년 큰 폭으로 증가함
- 또한, 2022년 주요 키워드 언급량은 2,041,720건이나, 검색 기간이 1월~7월로 남은 기간(8월~12월)을 감안할 때, 2022년 주요 키워드 언급량은 2021년 언급량(2,864,169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어려움, 가구, 장애인, 참여, 1인, 방문, 추진, 서비스, 자녀 등의 키워드는 2018년 이후 공통으로 나타나는 바, 팬데믹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로 판단됨

[그림 3-1] 년도 별 가족위기 주요 연관 키워드 언급량



21) 주요 키워드 : 2018년~2022년 중 4개년 이상 언급된 키워드 TOP20

3) 가족유형별 위기 키워드

■ 공통 키워드

- 2022년 1월~7월 기간동안 24개 가족 유형 및 26개 위기 유형에서 공통으로 검색되는 주요 키워드(Top30) 및 키워드별 언급량은 어려움, 지원, 대상 지역, 사업 순으로 나타남

<표 3-2>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주요 연관 키워드 순위

순위	키워드	언급량(건)	순위	키워드	언급량(건)	순위	키워드	언급량(건)
1	어려움	229,716	11	1인	84,169	21	기관	69,174
2	지원	190,481	12	활동	82,563	22	확대	66,303
3	대상	142,489	13	장애인	82,195	23	자녀	66,291
4	지역	129,977	14	교육	77,983	24	우리	66,281
5	사업	125,899	15	기준	77,078	25	관리	65,458
6	생활	110,029	16	방문	76,163	26	대상자	65,004
7	센터	109,265	17	참여	74,599	27	복지	64,284
8	가구	107,940	18	추진	74,571	28	주민	63,821
9	사회	99,261	19	도움	74,174	29	못함	62,105
10	운영	97,702	20	서비스	69,640	30	노력	60,622

■ 특화 키워드

- 가족 유형별 위기 유형 특화 키워드를 통해 보면 가족 유형별 초점이 되는 위기상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다문화아동의 교육 관련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대상이나 성폭력, 장학금이 주요한 키워드임
- 미혼모가족의 경우 보호시설과 보건의료, 아기 등 아동과 연계된 키워드를 주를 이루는 반면, 미혼부가족의 경우 고등학생, 중학생, 검정고시 등 청소년 관련 진학이 주요 키워드로 언급됨
-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파탄 등의 이별과 낙태 관련된 키워드와 살해, 폭행, 범행 등 폭력과 연계된 키워드를 주를 이루고 있음
- 동거가족의 경우 코로나와 관련된 키워드와 집회, 영화관, 공연장 등 집합시설 관련 키워드가 주요하게 언급되어 최근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입양가족의 주요 키워드로는 편견, 학대 등이 주로 언급되고, 특히 불안정, 불안감 등 정서적 불안 관련 키워드가 주로 언급되고 있음
- 장애인가족의 경우 발달장애인과 우울증, 치매, 조현병 등 장애 유형 관련 키워드와 비극, 살해 등이 사건·사고 관련 키워드가 연관되어 언급됨
- 외벌이가족의 주요 키워드는 대출, 지출, 교육비, 생활비 등 금전적 문제 관련 키워드가 주로 나타남
- 맞벌이가족의 경우 가정양립, 일 생활 균형, 단절 등 일과 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아동학대, 유치원, 사교육과 같은 자녀 관련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재혼가족의 주요 키워드는 불안정, 편견, 불행, 상처와 같이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주로 언급됨
- 별거가족의 경우 상실감, 이별, 유족, 고독사 등 이별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기러기가족의 주요 키워드는 가치관, 정체성, 의사소통, 시민권 등으로 외국에서의 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언급됨
- 분거가족의 경우 감정, 불화, 의사소통, 상실 등 가족 간의 관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주말부부의 주요 키워드는 상처, 위자료, 외도, 싸우다 등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관련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스트레스, 방임하다, 정신질환 등 고독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1인가구의 경우 고독사, 단절, 우울증, 노인 장애인 등 노인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 및 가해자, 신고자, 피해여성 등 성폭력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공동체가족의 경우 상처, 희생, 가난, 빈곤, 결핍 등 금전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무자녀가족의 경우 출산율, 부부관계, 저출산 등 출산/자녀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다자녀가족의 주요 키워드는 대출이자, 자금대출, 대출, 출산장려금, 등록금 등 금전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조손가족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간병, 자살, 스트레스 등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 및 저소득 가정, 경제위기 등 금전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소년소녀가장가족의 경우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 등 자녀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3> 가족유형별 가족위기 특화 키워드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특화 키워드(언급량, 건)
다문화가족	단절(2694), 인권(1529), 아동학대(1456), 여가부(1351), 교육과정(1193), 코로나19 장기화(1146), 가정폭력(1119), 다문화 아동(1110), 보호법(1085), 학력(1080), 복지부(1044), 진학(878), 효과적(787), 위협(723), 발달 장애인(718)
한부모가족	사회 복지(14829), 여가부(4275), 지급 대상(3652), 생계급여(3387), 장학금 (3219), 성폭력(3016), 5월 9일(2275), 신혼부부(2191), 성평등(2149), 전액 장학금(1895), 온라인 강의(1813), 성범죄(1773), 저소득 가정(1597), 여성 용품(1591), 복지 서비스(1391)
미혼모가족	사회 복지(502), 치료비(496), 앓고있다(453), 청각(410), 기부금(406), 보호시설(386), 노동(319), 저소득 가정(313), 구호(259), 보건 의료(256), 아기(238), 피해여성(198), 복지 소외 계층(196), 가난(187), 진로상담(187)
미혼부가족	고등학생(27), 교육비(26), 고교생(21), 세대주(21), 사회 복지(18), 보조금(17), 복지시설(15), 복지 서비스(14), 중학생(14), 출생신고(13), 복지 급여(13), 다문화가족(8), 가족관계증명서(7), 검정고시(6), 생활비(6)
사실혼	위자료(7346), 파탄(3984), 이혼소송(2351), 상속(1737), 배상청구(1712), 살해(1559), 가정폭력(1295), 외도(1224), 살인(959), 폭행(896), 범행(762), 낙태(686), 처벌(587), 협박(570), 영아 살해(450)
동거가족	사회적 거리두기(3446), 변이 확산(3057), 집회(2965), 영화관(2527), 공연장(2493), pc방(2474), 재택 치료(817)
입양가족	편견(1054), 학대(661), 상처(589), 불행(539), 두려워하다(468), 혐오(431), 불평등(408), 신체(408), 불안정(404), 불안감(370), 안전사고(362), 거부(281), 부정(275), 부채(264), 고통스럽다(264)
장애인가족	발달 장애인(5996), 우울증(952), 치매(427), 저소득 가정(324), 가정폭력(299), 비극(299), 성폭력(294), 조현병(236), 스트레스(215), 인지장애(203), 살해(200), 지체 장애인(181), 건강관리(167), 고독(163), 대출이자(158)
외벌이가족	대출(15), 지출(10), 교육비(8), 돈이 없다(7), 생활비(5), 답답한(5), 속상(4), 서운하다(4), 욕먹다(4), 막막하다(4), 비싸다(3), 부채(3), 아쉽다(3), 무시하다(3), 불안감(3)
맞벌이가족	역하다(234), 고위험(168), 가정양립(143), 국적(143), 일 생활 균형(141), 아동학대(133), 단절(115), 이주민(97), 유치원(94), 결혼생활(93), 성범죄(82), 성폭력(75), 은폐(69), 약화(68), 사교육(64)
재혼가족	두려워하다(1405), 상속(969), 눈물(835), 불안정(747), 편견(678), 반대(631), 거부(596), 상실(565), 불행(563), 상처(555), 스트레스(491), 억울하다(426), 단절(424), 혐오(409), 싸우다(364)
이혼가족	싸우다(1990), 상처(923), 스트레스(538), 슬프다(498), 안좋다(423), 무시하다(341), 우울증(337), 불안정(266), 눈물(262), 불행(250), 두려워하다(216), 양육권(207), 분노(207), 답답한(188), 학대(171)
별거가족	상실감(6), 이별(6), 유족(6), 고독사(6), 교육비(6), 거부(6), 작업(4), 학력(4), 부정적(3), 스트레스(3), 부부관계(3), 슬프다(3), 비난(3), 분노(2), 부채(2)
기러기가족	가치관(28), 스트레스(8), 정체성(6), 유학(6), 출산율(6), 의사소통(5), 약화(5), 저출산(4), 붕괴(4), 시민권(4), 무자녀(4), 교육비(3), 결혼생활(3), 금수저(3), 비자(3)

가족 유형	특화 키워드(언급량, 건)
분거가족	감정(11), 무자녀(11), 불화(8), 의사소통(8), 상실(5), 원망하다(5), 부부관계(5), 해체하다(5), 약화(4), 빈곤(4), 독신(4), 상처(4), 학대(3), 스트레스(3), 단절(2)
주말부부	상처(1162), 위자료(755), 감정(731), 외도(713), 스트레스(491), 요양(374), 싸우다(324), 눈물(305), 파탄(290), 붕괴(274), 다툼(237), 고생(229), 우울(201), 시댁(199), 독박(184)
노인부부가족	저소득 가정(10), 난방비(3), 식품(2), 기초 수급 대상자(1), 방치(1)
노인단독가구	스트레스(435), 가해자(378), 방임하다(335), 코로나19 장기화(295), 학대(293), 요양 시설(230), 정신질환(196), 미흡(158), 신고자(102), 사후관리(94), 폐쇄(82), 퇴직자(81), 피해여성(64), 건강관리(59), 알코올(54)
1인가구	고독사(11018), 코로나19 장기화(6355), 단절(2356), 우울증(2273), 아동학대(1693), 가정폭력(1611), 노인 장애인(1255), 학대(1150), 성폭력(982), 대출(853), 성범죄(813), 청약(730), 비혼(664), 월세(642), 폐업(568)
공동체가족	상처(40), 희생(27), 가난(21), 동성애(11), 죽음(11), 저출산(11), 부정(10), 코로나 19(9), 원수(7), 빈곤(6), 인간관계(6), 아픔(5), 결핍(5), 편견(5), 감옥(5)
무자녀가족	빈곤(129), 가정폭력(75), 불평등(54), 출산율(41), 부부관계(22), 스트레스(20), 단절(17), 상실(17), 저출산(16), 결혼(14), 약화(11), 불안정(10), 학대(9), 덩크족(9), 건강 문제(8)
한자녀가족	출산율(3), 저출산(3), 편견(3), 과잉(3), 공포감(2), 집착(2), 무시하다(2), 가스라이팅(1), 노약자(1), 실패(1)
다자녀가족	저출산(3492), 대출이자(1981), 자금대출(1609), 산후(1504), 대출(1392), 인구 감소(1256), 출산장려금(1148), 등록금(882), 출산율(848), 인구정책(668), 다자녀 지원(576), 청년지원(401), 무주택(321), 교육비(269), 코로나19 장기화(236)
조손가족	코로나19 장기화(3624), 저소득 가정(2797), 단절(926), 간병(831), 생계비(796), 자살(717), 실종(526), 성폭력(512), 행방불명(511), 경제위기(339), 위생(229), 아동학대(227), 가정폭력(219), 스트레스(206), 학대(155)
소년소녀 가장가족	빈곤(33), 가정폭력(17), 실직(13), 간병(13), 아동학대(8), 가출(8), 학대(8), 스트레스(7), 심신장애(4), 생계비(4), 단절(4), 건강 문제(4), 경제위기(4), 성폭력(3), 미혼모(3)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어려움, 활동, 못함, 장애인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는 정착, 문화, 한국어, 언어 등으로 한국과의 문화적 괴리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는 취약하다, 소외, 취약계층 등 차별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활동, 생활, 저소득계층, 차상위 등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센터, 아동, 상담, 학교 등 자녀 관련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4> 다문화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다문화 가족	어려움(64109), 활동(24148), 못함(23811), 장애인(23428), 취약하다(16227), 부담(15551), 생활(14658), 소외(14215), 사각(13144), 저소득계층(13080), 교육(13006), 소외계층(12481), 여성(11412), 한국어(10992), 위기(10765)
발달적 위기	어려움(29743), 정착(9826), 문화(9113), 한국어(8831), 여성(7847), 부담(7205), 이해(6856), 언어(6762), 취업(6527), 인식(4952), 교육(4839), 관계(4684), 취약하다(4180), 차별하다(3547)
가족외적 위기	어려움(23481), 활동(14191), 방문(8822), 건강(7868), 취약하다(6294), 소외(6253), 장기화(6143), 취약계층(5721), 관리(5239), 대응(5239), 경제(4021), 사각(3567), 피해(3511), 부담(3370)
개인적 위기	어려움(30871), 장애인(23428), 활동(9957), 소외계층(9420), 생활(9194), 저소득계층(7041), 위기(6609), 사각(6531), 소외(6464), 환경(6040), 가정(6038), 차상위(5835), 취약하다(5753), 참여(5658)
관계적 위기	교육(8167), 지원(8114), 사회(8007), 센터(7998), 아동(5682), 보호(5520), 기관(5213), 상담(5144), 학교(4543), 해결(4531), 운영(4453), 정책(4308), 우리(3905), 어려움(3825), 여성(3565)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지원, 어려움, 사업, 지역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는 지원, 기준, 대상자, 차상위, 지급 등으로 지원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는 어려움, 생활, 차상위, 저소득계층 등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지원, 복지, 대상자, 기준 등 지원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아동, 여성, 청소년, 양육, 돌봄 등 자녀 및 자녀 양육과 관련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5> 한부모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한부모 가족	지원(77174), 어려움(63068), 사업(59292), 지역(54240), 장애인(47249), 대상자(46260), 기준(45570), 차상위(44175), 복지(41932), 저소득계층(35749), 방문(35501), 센터(34223), 어려움(34098), 대상(33368), 아동(32775)
발달적 위기	지원(19937), 기준(19808), 자녀(14479), 대상자(14390), 차상위(14075), 지급(13600), 아동(12459), 어려움(12015), 사업(11996), 차상위계층(9882), 복지(9751), 소득(9169), 저소득계층(8526), 지원금(7546), 가구(7351)
가족외적 위기	어려움(29876), 지원(17256), 지역(17110), 사업(13949), 가구(12808), 어려운(12393), 생활(11968), 차상위(10987), 방문(10738), 저소득계층(10263), 대상(10194), 대상자(10062), 도움(9977), 장애인(9666)
개인적 위기	장애인(34272), 지원(32916), 지역(30858), 사업(30422), 어려움(27615), 복지(20088), 대상자(19860), 센터(18743), 방문(18719), 차상위(18547), 기준(16954), 대상(16924), 저소득계층(16662), 수급자(15274), 차상위계층(13743)
관계적 위기	지원(7065), 아동(5952), 여성(5675), 청소년(5174), 자녀(4999), 사회(4897), 생활(4569), 어려움(4488), 문제(4341), 정책(4204), 상담(4200), 보호(4056), 여성가족부(3480), 양육(3229), 돌봄(3162)

■ 미혼모가족

- 미혼모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지원, 아동, 도움, 보호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는 상담, 기관, 심리, 프로그램, 센터 등 상담 지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는 지원, 어려움, 도움, 나눔 등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기관, 단체, 복지, 아동, 자녀 등 자녀 지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기관, 단체, 복지, 기부, 아동, 자녀 등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6> 미혼모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미혼모 가족	지원(2446), 아동(1422), 도움(1406), 보호(1395), 어려움(1213), 여성(1166), 돕다(1110), 청소년(1086), 기부(1008), 기관(973), 어려움(942), 양육(926), 경제적(923), 상담(857), 나눔(836)
발달적 위기	여성(757), 지원(634), 상담(608), 기관(490), 심리(487), 홈페이지(476), 프로그램(446), 센터(435), 돕다(414), 서비스(386), 도움(379), 자녀(376), 부모(361), 보호(360), 출산(351)
가족외적 위기	어려움(505), 지원(303), 아동(180), 도움(154), 보호(142), 나눔(141), 기부(185), 경제적(72), 치료비(17), 돕다(155)
개인적 위기	지원(1132), 기관(169), 단체(220), 복지(127), 청소년(902), 보호(716), 기부(658), 아동(902), 자녀(49), 여성(263), 관계(48), 한부모(31), 심리(81)
관계적 위기	지원(377), 기관(314), 단체(244), 복지(202), 청소년(180), 보호(177), 관계자(168), 기부(165), 아동(162), 자녀(151), 여성(145), 관계(143), 한부모(141), 못함(132), 심리(129)

■ 미혼부 가족

- 미혼부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자녀, 양육, 1인, 한부모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미혼부 가족은 위기 유형별로 양육, 자녀, 센터, 양육비, 고등학생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7> 미혼부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미혼부 가족	자녀(38), 양육(37), 1인(31), 한부모(30), 아동(30), 부모(29), 한부모가족(29), 센터(29), 기준(27), 고등학생(27), 양육비(26), 교육비(26), 대상자(25), 청소년(25), 경제적(25)
발달적 위기	1인(31), 부모(29), 양육(26), 자녀(26), 한부모(22), 아동(21), 한부모가족(21), 센터(21), 기준(20), 양육비(19), 고등학생(19), 대상자(18), 교육비(18), 고교생(16), 세대주(16)
가족외적 위기	한부모(1), 가정의 달(1), 대응(1), 가출(1), 한부모가족(1), 결핍(1), 청소년(1), 고통(1), 경제적(1), 문제(1), 소년소녀가장(1), 상실(1), 대상(1), 아픔(1), 어려움(1)
개인적 위기	대상(1), 감독(1), 남성(1), 결핍(1), 외벌이(1), 고통(1), 한부모(1), 부정적(1), 가부장제(1), 상실(1), 경제적(1), 어려움(1), 한부모가족(1), 어려움(1), 행동(1)
관계적 위기	선정(11), 자녀(11), 양육(11), 아동(9), 어려움(9), 청소년(9), 교육비(8), 고등학생(8), 센터(8), 경제적(7), 양육비(7), 대상자(7), 관계(7), 중학생(7), 어려움(7)

■ 사실혼

- 사실혼 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이혼, 소송, 위자료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는 이혼, 소송, 위자료, 파탄 등 이혼 및 이혼소송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는 피해, 신고, 소송, 살인, 범죄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이혼, 소송,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이혼 및 폭력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변호사 등 물질적 갈등 및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8> 사실혼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사실혼	이혼(19434), 소송(10644), 위자료(7346), 사망(6379), 파탄(3984), 여성(3664), 부양(3501), 피해(3053), 이혼소송(2351), 상속(1737), 배상청구(1712), 양육비(1676), 살해(1559), 가정폭력(1295), 외도(1224)
발달적 위기	이혼(15626), 소송(8723), 위자료(5844), 사망(4751), 여성(3649), 파탄(3234), 부양(2912), 피해(2612), 이혼소송(1759), 상속(1737), 양육비(1676), 배상청구(1651), 살해(1384), 범행(762), 생계(740)
가족외적 위기	사망(655), 이혼(466), 피해(441), 신고(310), 혐의(304), 교통사고(279), 소송(248), 장애(236), 살인(196), 범죄(192), 생계(174), 교통 사망 사고(174), 분쟁(141), 저소득계층(136), 피해자(54)
개인적 위기	이혼(3244), 소송(1582), 가정폭력(1291), 위자료(1253), 외도(1095), 피해자(993), 사망(973), 폭행(775), 파탄(737), 부양(570), 이혼소송(516), 협박(482), 우울증(441), 불륜(365), 가해자(335)
관계적 위기	위자료(249), 재산분할(217), 폭력(205), 이혼 변호사(160), 폭행(121), 외도(103), 이혼(98), 폭언(96), 성폭행(94), 가해자(94), 범죄(94), 소송(91), 손해(89), 감금(89), 협박(88)

■ 동거가족

- 동거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확진자, 격리, 코로나바이러스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가족적 위기/개인적 위기는 확진자, 격리,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등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어려움, 피해, 생활, 부담 등 경제적 문제, 신고, 범죄, 위험, 가해자 등 폭력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9> 동거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동거가족	확진자(42444), 격리(32489), 코로나바이러스(28007), 확진(20115), 오미크론(18761), 증상(15952), 확산(15845), 고위험군(13279), 환자(12455), 감염(12353), 부담(12212), 제한(11754), 병원(10583), 아동(9199), 취약하다(8794)
발달적 위기	확진자(9129), 격리(7317), 코로나바이러스(6952), 환자(6047), 방역(4463), 중증(4315), 고위험군(3722), 부담(2508), 호흡기(2320), 어려움(2150), 치명률(1795), 취약하다(1706), 불평(1550), 기저 질환자(1322), 지치다(1240)
가족외적 위기	확진자(23692), 격리(17920), 확진(14989), 코로나바이러스(14158), 오미크론(13104), 감염(11374), 증상(10868), 확산(10766), 병원(9935), 급증(7339), 고위험군(6701), 부담(6073), 제한(6060), 입원(5537), 유행(5352)
개인적 위기	확진자(9623), 장애인(7308), 격리(7252), 코로나바이러스(6897), 환자(5881), 오미크론(5657), 확진(5119), 어려움(5005), 제한(4846), 증상(4489), 아동(4378), 돌봄(4285), 확산(4216), 건강(3841), 유행(3413)
관계적 위기	어려움(573), 피해(495), 생활(484), 부담(469), 못함(465), 우려하다(307), 신고(249), 범죄(236), 논란(230), 위험(228), 돌봄(222), 사망(214), 위기(183), 가해자(169), 아프다(167)

■ 입양가족

- 입양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어려움, 못함, 부담, 양육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가족적 위기/관계적 위기는 어려움, 양육, 부담 등 양육으로 인한 문제 및 편견, 갈등 등 차별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부담, 불안, 불안감, 정서, 고통 등 심리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10> 입양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입양가족	어려움(3765), 못함(3521), 부담(2228), 양육(1542), 위기(1326), 생활(1130), 편견(1054), 돌봄(991), 불안(974), 불가능(894), 우려하다(892), 고통(869), 아프다(799), 교육(758), 심각하다(742)
발달적 위기	어려움(1960), 못함(1557), 불가능(538), 양육(527), 출산(495), 부담(475), 위기(450), 편견(421), 우려하다(374), 중단(323), 심각하다(301), 신고(288), 갈등(278), 두려워하다(271), 차별하다(267)
가족외적 위기	부담(455), 못함(434), 어려움(400), 코로나바이러스(383), 위기(335), 아동(316), 우려하다(303), 돌봄(289), 편견(179), 고통(174), 생활(172), 갈등(164), 아프다(160), 심각하다(156), 불가능(151)
개인적 위기	부담(1006), 못함(754), 어려움(723), 양육(685), 생활(668), 교육(618), 돌봄(544), 신체(408), 장애인(375), 불안(374), 불안감(370), 위기(368), 안전사고(362), 정서(324), 고통(306)
관계적 위기	못함(776), 어려움(682), 문제(665), 편견(340), 양육(325), 아프다(297), 부담(292), 생활(290), 심각하다(285), 상처(267), 불안(255), 고통(250), 힘들다(228), 재혼(223), 걱정(216)

■ 장애인 가족

- 장애인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어려움, 생활, 활동, 교육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가족외적 위기/개인적 위기는 부담, 비용, 생활 등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 및 교육, 양육, 육아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보호, 피해, 폭력, 소외, 피해자 등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11> 장애인 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장애인 가족	어려움(12610), 생활(10529), 활동(8613), 교육(7235), 발달 장애인(5996), 사각(3935), 소외(3083), 장기화(3042), 비용(3002), 취약하다(2923), 못함(2855), 불편(2048), 위기(2020), 독거(1913), 차별하다(1872)
발달적 위기	부담(1446), 비용(1194), 생활(1151), 어려움(800), 출산(617), 교육(561), 양육(516), 못함(477), 심한(427), 임신(313), 문제(295), 피해(189), 비극(186), 육아(175), 건강관리(167)
가족외적 위기	어려움(2778), 생활(1624), 발달 장애인(1255), 장기화(1187), 취약하다(919), 취약계층(907), 소외(847), 사각(832), 운영(618), 힘든(590), 불편(573), 취약(412), 교육(399), 지치다(379), 안전(372)
개인적 위기	어려움(8507), 활동(8415), 생활(7398), 교육(5854), 발달 장애인(4741), 사각(2944), 못함(2073), 소외(2012), 취약하다(1946), 독거(1913), 장기화(1855), 위기(1819), 비용(1808), 차별하다(1695), 지역(1560)
관계적 위기	어려움(525), 교육(421), 생활(356), 보호(308), 피해(304), 못함(286), 학교(275), 장애인(236), 폭력(235), 소외(212), 위기(200), 활동(198), 건강(196), 피해자(194), 거주(175)

■ 외벌이가족

- 외벌이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비용, 못함, 대출, 어려움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외벌이 가족은 위기 유형별로 비용, 대출, 지출, 부담 등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12〉 외벌이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외벌이 가족	비용(18), 못함(17), 대출(15), 어려움(15), 지출(10), 힘들다(10), 부담(10), 소비(8), 교육비(8), 돈이없다(7), 육아(5), 교육(5), 생활비(5), 답답한(5), 별로다(4)
발달적 위기	비용(18), 못함(14), 대출(13), 어려움(12), 지출(10), 부담(9), 소비(8), 힘들다(8), 교육비(8), 돈이없다(6), 생활비(5), 육아(5), 교육(5), 답답한(5), 막막하다(4)
가족외적 위기	못함(1), 어려움(1), 생활(1), 난방(1), 못먹는(1), 전기(1)
개인적 위기	걱정(3), 별로다(2), 속상(1), 청천벽력(1), 아파하다(1), 고민(1), 비싸다(1), 공백(1), 신고(1), 눈치(1), 이기적인(1), 두려워하다(1), 훼손(1), 못함(1), 생활(1)
관계적 위기	싫다(2), 생활(2), 대출(2), 힘들다(2), 육먹다(1), 시댁(1), 불가능(1), 기초생활수급자(1), 안타까움(1), 난리(1), 금치산자(1), 남편놈(1), 거르는(1), 눈물(1), 금지(1)

■ 맞벌이가족

- 맞벌이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부담, 교육, 돌봄, 어려움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맞벌이가족은 위기 유형별로 육아, 돌봄, 양육, 보육, 교육 등 자녀 보육/교육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보육/교육과 관련된 키워드 외에도 아동학대, 피해자, 폭력, 사건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키워드도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됨

〈표 3-13〉 맞벌이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맞벌이 가족	부담(1810), 교육(1396), 돌봄(1380), 어려움(1046), 양육(920), 생활(840), 육아(825), 초등(684), 차상위(649), 학교(550), 소득(447), 못함(440), 기초생활수급자(423), 코로나바이러스(389), 사각(305)
발달적 위기	부담(724), 육아(544), 어려움(532), 돌봄(425), 양육(293), 못함(256), 제한(247), 보육(234), 교육(232), 출산(226), 차상위(209), 고위험(168), 역하다(149), 가사(140), 코로나바이러스(135)
가족외적 위기	초등(684), 부담(672), 돌봄(609), 학교(550), 교육(535), 생활(472), 소득(417), 양육(303), 육아(281), 어려움(261), 코로나바이러스(254), 일자리(240), 취업(209), 사각(204), 차상위(175)
개인적 위기	교육(460), 돌봄(346), 차상위(265), 부담(264), 생활(254), 양육(224), 기초생활수급자(205), 다문화가정(173), 어려움(154), 못함(127), 비용(123), 소외계층(120), 부족(111), 단절(109), 이주민(97)
관계적 위기	교육(169), 부담(150), 문제(107), 생활(101), 양육(100), 어려움(99), 아동학대(75), 역하다(69), 피해자(57), 폭력(57), 못함(55), 걱정(55), 위기(53), 성범죄(53), 사건(50)

■ 재혼가족

- 재혼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못함, 문제, 어려움, 이혼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개인적 위기/관계적 위기는 이혼, 갈등, 상속, 눈물 등 부부 갈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는 차별, 불평등, 두려워하다 등 차별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14> 재혼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재혼 가족	못함(4094), 문제(3965), 어려움(3365), 이혼(2332), 갈등(1849), 양육(1425), 아프다(1408), 두려워하다(1405), 생활(1354), 부담(1345), 고통(1318), 차별하다(1202), 불안(1191), 심각하다(1182), 부족(1168)
발달적 위기	못함(1748), 어려움(1466), 문제(1405), 이혼(1289), 두려워하다(747), 갈등(690), 부담(667), 양육(654), 아프다(603), 상속(577), 부족(548), 심각하다(499), 눈물(471), 걱정(470), 차별하다(463)
가족외적 위기	문제(380), 못함(345), 차별하다(324), 갈등(303), 부담(280), 고통(272), 불평등(267), 불안(267), 어려움(189), 피해(152), 아프다(149), 부족(148), 두려워하다(141), 전쟁(141), 위기(139)
개인적 위기	못함(770), 문제(705), 생활(667), 어려움(644), 갈등(481), 이혼(457), 불안(379), 심각하다(324), 관계(312), 아프다(252), 힘들다(250), 차별하다(245), 부족(242), 교육(222), 파산(214)
관계적 위기	문제(1475), 못함(1231), 어려움(1066), 양육(646), 생활(603), 이혼(553), 아프다(404), 부담(398), 상속(392), 고통(376), 갈등(375), 힘들다(361), 두려워하다(341), 폭력(297), 잘못(246)

■ 이혼가족

- 이혼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싸우다, 폭력, 못함, 자녀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는 힘들다, 싸우다, 이혼, 상처, 갈등 등 부부 갈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는 폭력, 치료비, 아프다, 범죄, 싸우다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불안, 우울증, 상처, 불안정, 스트레스, 분노 등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자녀, 양육 등 자녀 관련 문제, 불안, 고통, 슬프다, 스트레스, 불안정 등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15> 이혼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이혼 가족	싸우다(1990), 폭력(1882), 못함(1692), 자녀(1584), 갈등(1525), 힘들다(1378), 불안(1178), 어려움(1138), 상처(923), 아프다(869), 어려움(715), 고통(710), 양육(659), 이혼(639), 걱정(573)
발달적 위기	못함(1690), 어려움(1138), 힘들다(929), 싸우다(680), 이혼(632), 상처(569), 걱정(533), 잘못(529), 폭력(482), 힘든(415), 아프다(406), 갈등(401), 혼자(347), 포기(318), 부담(310), 폭력(115), 갈등(90), 확산(73), 비용(63), 힘들다(58), 치료비(54), 위기(54), 아프다(49)
가족외적 위기	무너지다(45), 포기(43), 범죄(40), 걱정(40), 실패(40), 아픔(40), 싸우다(34), 갈등(480), 불안(431), 폭력(428), 아프다(414), 힘들다(391), 어려움(385), 우울증(313)
개인적 위기	싸우다(230), 상처(195), 피해(183), 불안정(176), 스트레스(152), 장애(148), 분노(144), 부정적(116)
관계적 위기	자녀(1582), 싸우다(1046), 폭력(857), 양육(659), 불안(623), 갈등(554), 인식(547), 안좋다(423), 고통(370), 슬프다(329), 어려움(196), 상처(133), 스트레스(124), 불안정(88), 피해(75)

■ 별거가족

- 별거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생활, 양육, 저소득, 부양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표 3-16> 별거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별거 가족	생활(28), 양육(25), 저소득(16), 부양(14), 건강(12), 부담(12), 불안(12), 치료(10), 안정(7), 생계(7), 갈등(7), 양육비(6), 유족(6), 교육비(6), 상실감(6)
발달적 위기	생활(16), 양육(11), 저소득(10), 교육비(6), 부양(6), 양육비(6), 책임(4), 학력(4), 작업(4), 유지(4), 부부관계(3), 경제적(2), 약화(2), 부담(2), 무자녀(2)
가족외적 위기	키워드 없음
개인적 위기	건강(12), 생활(12), 치료(10), 양육(10), 부담(10), 불안(9), 부양(8), 안정(7), 생계(7), 이별(6), 유족(6), 저소득(6), 상실감(6), 고독사(6), 거부(6)
관계적 위기	양육(4), 부족(4), 비난(3), 가족(3), 불안(3), 스트레스(3), 분노(2), 빈곤(2), 갈등(2), 양육비(0), 책임(0), (비어 있음)(0), 거부(0), 부정적(0), 부채(0)

■ 기러기가족

- 기러기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관계, 자녀, 경제적, 이혼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표 3-17> 기러기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기러기 가족	관계(55), 자녀(47), 경제적(38), 이혼(36), 가치관(28), 갈등(25), 양육(17), 사회(15), 생활(12), 사회적(11), 문화(11), 폭력(10), 교육(10), 거주(10), 생계(8)
발달적 위기	관계(23), 경제적(23), 이혼(22), 자녀(21), 가치관(13), 갈등(13), 문화(11), 거주(10), 교육(10), 정체성(6), 유학(6), 감소하다(6), 부양(6), 출산율(6), 생계(5)
가족외적 위기	갈등(4), 심각하다(3), 건강(2), 가속화(2)
개인적 위기	가정(8), 생활(8), 자녀(7), 이혼(7), 환경(6), 경제적(6), 스트레스(4), 성장(4), 생계(3), 개인(3), 관계(3), 갈등(3), 양육(3), 관심(2), 고독사(2)
관계적 위기	관계(29), 자녀(19), 사회(15), 양육(14), 가치관(14), 사회적(11), 경제적(9), 구조(7), 구성원(7), 폭력(7), 이혼(7), 갈등(5), 의사소통(4), 생활(4), 스트레스(4)

■ 분거가족

- 분거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갈등, 관계, 양육, 인식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표 3-18> 분거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분거 가족	갈등(38), 관계(36), 양육(27), 인식(26), 경제적(26), 생활(24), 한부모가족(18), 고민(18), 이혼(18), 자녀(15), 고립(13), 불안(12), 무자녀(11), 부담(11), 감정(11)
발달적 위기	양육(20), 갈등(16), 무자녀(11), 생활(11), 관계(11), 출산(9), 경제적(9), 환경(8), 생각(8), 인식(7), 이혼(7), 구성원(4), 구조(4), 감정(4), 가정(3)
가족외적 위기	키워드 없음
개인적 위기	생활(13), 인식(9), 갈등(9), 감정(7), 고립(7), 부부(6), 관계(6), 해체하다(5), 부담(5), 건강(4), 불화(4), 보육(4), 사회적(4), 경제적(4), 빈곤(4)
관계적 위기	관계(19), 한부모가족(18), 고민(18), 자녀(15), 경제적(13), 갈등(13), 이혼(11), 불안(10), 인식(10), 폭력(9), 의사소통(8), 양육(7), 부담(6), 부양(6), 원망하다(5)

■ 주말부부가족

- 주말부부 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생활, 관계, 상처, 직장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는 걱정, 싫다, 스트레스 등 정서적 문제, 임신, 출산, 육아 등 자녀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는 생활, 관계, 지치다, 의심 등 부부간 신뢰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돌봄, 육아 등 자녀, 치료, 증상, 요양, 위험 등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소송, 위자료, 외도, 이혼, 다툼 등 부부관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19> 주말부부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주말부부가족	생활(2235), 관계(1800), 상처(1162), 직장(1120), 소송(1093), 걱정(1018), 이혼(997), 육아(930), 고통(783), 위자료(755), 감정(731), 아프다(716), 외도(713), 감염(709), 재산(661)
발달적 위기	직장(999), 걱정(711), 임신(588), 출산(560), 육아(560), 혼자(392), 아프다(363), 생활(358), 싫다(358), 건강(341), 고생(225), 가족(224), 관계(222), 시댁(199), 스트레스(192)
가족외적 위기	생활(643), 관계(465), 근무(451), 제한(425), 감염(351), 맞벌이(336), 지치다(333), 의심(180), 살인(176), 죽음(145), 자살(121), 불편(93), 아프다(84), 폭력(83), 안전(75)
개인적 위기	생활(1170), 관계(572), 돌봄(558), 치료(521), 증상(500), 이혼(464), 요양(374), 육아(370), 감염(358), 위험(331), 상처(292), 걱정(280), 붕괴(274), 마지막(274), 아프다(269)
관계적 위기	소송(931), 위자료(755), 상처(734), 외도(665), 재산(642), 관계(541), 감정(540), 이혼(533), 고통(505), 불편(329), 정리(252), 다툼(237), 파탄(223), 차이(178), 힘든(178)

■ 노인부부 가족

- 노인부부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저소득 가정, 불편, 일상생활, 건강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표 3-20> 노인부부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노인부부 가족	저소득 가정(10), 불편(8), 일상생활(5), 건강(4), 장애(4), 난방비(3), 식품(2), 수급(2), 장애인(2), 기초 수급 대상자(1), 사각지대(1), 안전(1), 방치(1), 소외계층(1)
발달적 위기	키워드 없음
가족외적 위기	저소득 가정(5), 건강(4), 불편(4), 장애(4), 난방비(3), 수급(1), 식품(1), 소외계층(1), 사각지대(1)
개인적 위기	저소득 가정(5), 일상생활(5), 불편(4), 장애인(2), 수급(1), 방치(1), 안전(1), 기초 수급 대상자(1), 식품(1)
관계적 위기	키워드 없음

■ 노인 단독 가족

- 노인 단독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신고, 스트레스, 피해, 가해자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가족외적 위기/관계적 위기는 피해, 학대, 신고, 피해자, 가해자 등 노인 학대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위기, 위협, 불편, 건강관리 등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21> 노인 단독 가구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노인 단독 가구	신고(444), 스트레스(435), 피해(412), 가해자(378), 피해자(372), 취약(360), 방임하다(335), 갈등(311), 코로나19 장기화(295), 학대(293), 고통(266), 위협(262), 부담(240), 요양 시설(230), 질환(229)
발달적 위기	이혼(18), 부양(17), 어려움(13), 불균형(11), 질병(10), 스트레스(10), 못함(9), 비용(8), 폭력(8), 사망(8), 역하다(6), 건강 문제(6), 저하(6), 고령사회(6), 상실(6)
가족외적 위기	돌봄(122), 갈등(121), 스트레스(118), 피해(117), 학대(117), 신고(117), 피해자(107), 방임하다(104), 신고자(102), 가해자(102), 부담(101), 제한(98), 사후관리(94), 취약(84), 폐쇄(82)
개인적 위기	취약(109), 위기(102), 어려움(97), 신고(87), 위협(69), 장애인(66), 불편(64), 건강관리(59), 갈등(55), 스트레스(52), 학대(51), 가해자(48), 피해(46), 코로나19 장기화(44), 장애(43)
관계적 위기	스트레스(255), 코로나19 장기화(251), 피해(249), 신고(240), 피해자(234), 가해자(226), 요양 시설(215), 방임하다(212), 취약(167), 고통(158), 갈등(133), 부족(131), 위협(128), 질환(127), 학대(123)

■ 1인 가구

- 1인 가구 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어려움, 위기, 사각, 고독사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는 부담, 소득, 비용, 저소득계층, 대출 등 경제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는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장기화 등 팬데믹 관련 문제, 위기, 사각, 고독사, 고립, 독거 등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개인적 위기는 고독사, 사각, 사각지대, 외롭다 등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여성, 피해, 폭력, 신고, 여성가족부 등 여성 1인 가구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22> 1인 가구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1인 가구	어려움(20450), 위기(13589), 사각(11397), 고독사(11018), 부담(9976), 코로나바이러스(9906), 소득(9205), 저소득계층(8602), 취약하다(8505), 취약계층(7753), 부족(7651), 사각지대(7279), 위협(7116), 고립(7018), 코로나19 장기화(6355)
발달적 위기	어려움(4649), 부담(4406), 여성(4118), 소득(3181), 취약하다(2222), 못함(2188), 위기(1697), 비용(1627), 주택(1624), 지원(1559), 청년(1488), 저소득계층(1388), 부족(1296), 육아(1036), 대출(849)
가족외적 위기	어려움(8375), 코로나바이러스(5566), 코로나19 장기화(5085), 위기(4879), 사각(4292), 소득(4291), 고독사(3628), 고립(3491), 일자리(2930), 취약계층(2554), 사각지대(2424), 부족(2257), 독거(2219), 저소득계층(1977), 소외(1592)
개인적 위기	어려움(7426), 위기(6583), 고독사(6464), 사각(6299), 취약하다(6283), 위협(5815), 부담(4707), 저소득계층(4599), 취약계층(4302), 못함(4032), 사각지대(3977), 외롭다(3885), 부족(3725), 코로나바이러스(3361), 피해(2896)
관계적 위기	여성(2112), 아동(1637), 피해(1569), 폭력(1459), 노인(1118), 아동학대(1115), 피해자(814), 사각(806), 신고(755), 부담(727), 저소득계층(638), 여성가족부(623), 소득(615), 취약(614), 고립(576)

■ 공동체가족

- 공동체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어려움, 고통, 상처, 못함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표 3-23> 공동체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공동체 가족	어려움(57), 고통(42), 상처(40), 못함(39), 부족(38), 갈등(30), 생계(28), 희생(27), 위기(26), 이혼(22), 가난(21), 사망(15), 감염(12), 저출산(11), 정책(11)
발달적 위기	어려움(41), 못함(38), 갈등(24), 생계(24), 상처(22), 위기(20), 고통(17), 희생(14), 부족(14), 가난(13), 저출산(11), 정책(11), 동성애(11), 부정(10), 인구(9)
가족외적 위기	고통(6), 감염(6), 공황(4), 가난(4), 상처(3), 희생(3), 부부싸움(2), 음란물(1), 불륜(1), 못함(1), 무너지다(1), 불신(1)
개인적 위기	부족(19), 고통(18), 어려움(16), 차별하다(10), 고립(8), 상처(8), 감염(6), 코로나 19(6), 코로나바이러스(6), 빈곤(6), 인간관계(6), 이혼(6), 방치(5), 갈등(5), 결핍(5)
관계적 위기	희생(10), 이혼(10), 죽음(8), 사망(7), 상처(7), 원수(7), 폭력(6), 위기(6), 편견(5), 부족(5), 생계(4), 양육(4), 아내(3), 배우자(3), 부모(3)

■ 무자녀가족

- 무자녀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빈곤, 폭력, 갈등, 부양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표 3-24> 무자녀 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무자녀 가족	빈곤(129), 폭력(124), 갈등(87), 부양(79), 가정폭력(75), 이혼(65), 출산(60), 불평등(54), 노인(52), 출산율(41), 양육(32), 질병(29), 부족(24), 부부관계(22), 스트레스(20)
발달적 위기	폭력(43), 빈곤(42), 이혼(38), 양육(32), 출산율(32), 불평등(24), 가정폭력(23), 부족(21), 갈등(20), 부양(16), 부담(11), 저출산(9), 고령화(9), 덩크족(9), 결혼(9)
가족외적 위기	폭력(5), 출산율(4), 갈등(4), 빈곤(3), 고민(2), 고립(2), 가정폭력(2), 치명률(1), 비상사태(1), 저출산 고령화(1), 피해(1), 취업(1), 고령화(1), 부양(1), 코로나바이러스(1)
개인적 위기	갈등(36), 빈곤(34), 부양(31), 폭력(28), 가정폭력(28), 노인(24), 출산(12), 어려움(11), 약화(11), 상실(11), 질병(10), 부부관계(10), 불평등(9), 장애(9), 가출팸(7)
관계적 위기	빈곤(50), 출산(48), 폭력(48), 부양(31), 노인(28), 갈등(27), 이혼(27), 가정폭력(22), 불평등(21), 부모(15), 질병(14), 부부관계(12), 스트레스(9), 쾌락주의(7), 이기주의(7)

■ 한자녀가족

- 한자녀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과잉, 출산율, 편견, 저출산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표 3-25> 한자녀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한자녀 가족	과잉(3), 출산율(3), 편견(3), 저출산(3), 기초생활수급자(2), 못함(2), 공포감(2), 무시하다(2), 집착(2), 신고(2), 갈등(2), 가스라이팅(1), 폭력(1), 노인(1), 위협(1)
발달적 위기	저출산(2), 출산율(2), 신고(1), 기초생활수급자(1), 이혼(1)
가족외적 위기	저출산(1), 출산율(1)
개인적 위기	편견(2), 과잉(2), 공포감(2), 못함(2), 집착(2), 무시하다(2), 갈등(2), 노약자(1), 노인(1), 위협(1)
관계적 위기	과잉(1), 편견(1), 가스라이팅(1), 기초생활수급자(1), 폭력(1), 신고(1), 실패(1)

■ 다자녀가족

- 다자녀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저출산, 소득, 돌봄, 대출이자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발달적 위기는 소득, 대출이자, 자금대출, 부담, 양육비 등 경제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가족적 위기/개인적 위기는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차상위 등 소득 불균형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관계적 위기는 아동, 돌봄, 어린이집, 자녀 교육 등 자녀 보육/양육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26> 다자녀가족 가족위기 연관 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다자녀 가족	저출산(3492), 소득(2597), 돌봄(2453), 대출이자(1981), 자금대출(1609), 부담(1594), 산후(1504), 양육비(1437), 지원금(1403), 대출(1392), 고령화(1329), 인구 감소(1256), 저소득계층(1222), 출산장려금(1148), 기초생활수급자(1138)
발달적 위기	저출산(3271), 소득(1660), 돌봄(2299), 대출이자(1981), 자금대출(1609), 부담(1594), 산후(1504), 양육비(1262), 지원금(1391), 대출(1243), 고령화(1329), 인구 감소(1256), 저소득계층(964), 출산장려금(1148), 기초생활수급자(27)
가족외적 위기	코로나19 장기화(231), 저출산(221), 취약계층(186), 장애(166), 소득(158), 저소득계층(148), 교육비(140), 등록금(139), 낙후(130), 은퇴(128), 불편(102), 체납(99), 기초생활수급자(48), 차상위(39), 지역경제(30)
개인적 위기	기초생활수급자(1063), 소득(759), 차상위(527), 차상위계층(459), 수급자(389), 소외계층(154), 불균형(147), 독거(132), 독거노인(131), 저소득계층(105), 질병(98), 코로나바이러스(84), 문화 소외 계층(79), 질환(76), 장애(75)
관계적 위기	양육비(175), 아동(159), 아동학대(155), 돌봄(154), 어린이집(151), 대출(149), 장애(32), 자녀 교육(25), 폭력(23), 사춘기(23), 성교육(23), 소득(20), 여성(11), 피해자(11), 생계(8)

■ 조손가족

- 조손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저소득계층, 사각, 소외계층, 취약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 조손가족은 위기 유형별로 돌봄, 양육, 양육비, 부양 등 조손 간 돌봄, 저소득, 차상위, 취약계층 등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27> 조손가족 가족위기 연관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조손가족	저소득계층(5504), 사각(4404), 소외계층(4291), 취약(4061), 취약계층(4012), 지원금(3645), 코로나19 장기화(3624), 차상위(3308), 저소득(3216), 소외(3167), 저소득 가정(2797), 소득(2724), 사각지대(2246), 차상위계층(2210), 청소년(2079)
발달적 위기	소득(1392), 지원금(1391), 저소득(1356), 이혼(1058), 돌봄(1049), 양육(963), 양육비(695), 부양(640), 폭력(614), 저소득계층(613), 실종(526), 행방불명(511), 차상위(507), 사각지대(489), 아동(487)
가족외적 위기	취약(1706), 저소득계층(1666), 소외(1658), 코로나19 장기화(1648), 취약계층(1535), 독거(1322), 사각(1305), 소외계층(1051), 사각지대(843), 지원금(840), 저소득 가정(812), 생계비(684), 장애(622), 거주(218), 피해(173)
개인적 위기	소외계층(3240), 저소득계층(2976), 사각(2578), 차상위(2377), 취약(2179), 취약계층(2069), 코로나19 장기화(1782), 저소득 가정(1589), 차상위계층(1543), 저소득(1395), 소득(1332), 소외(1331), 청소년(1322), 지원금(1226), 기초생활수급자(1036)
관계적 위기	청소년(757), 양육(605), 아동(520), 저소득(465), 여성(458), 갈등(438), 자살(433), 양육비(432), 장애(408), 부양(370), 이혼(361), 사각(333), 폭력(332), 차상위(304), 취약하다(302)

■ 소년소녀가장 가족

- 소년소녀가장 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는 빈곤, 부양, 이혼, 가정폭력 순으로 언급량이 많음

<표 3-28> 소년소녀가장 가족 가족위기 연관키워드의 언급량 건수

가족 유형	연관 키워드(언급량, 건)
소년소녀가장 가족	빈곤(33), 부양(27), 이혼(26), 가정폭력(17), 질병(17), 사각(17), 사각지대(17), 청소년(16), 실직(13), 폭력(13), 간병(13), 사망(12), 아동(12), 학대(8), 양육비(8)
발달적 위기	부양(10), 이혼(10), 빈곤(10), 취약(6), 양육비(6), 가정폭력(6), 폭력(5), 질병(5), 장애(4), 사각(4), 청소년(4), 사각지대(4), 스트레스(4), 아동학대(4), 출산(3)
가족외적 위기	스트레스(3), 양육비(2), 취약(2), 피해(2)
개인적 위기	빈곤(13), 이혼(12), 부양(8), 아동(8), 청소년(7), 질병(6), 사각(6), 사각지대(6), 실직(5), 간병(5), 사망(5), 가정폭력(5), 생계(4), 부모(3), 가출(3)
관계적 위기	빈곤(10), 부양(9), 사각(7), 사각지대(7), 폭력(6), 질병(6), 실직(6), 가정폭력(6), 간병(5), 청소년(5), 사망(5), 이혼(4), 아동(4), 경제위기(3), 단절(3)

4) 생애주기별 위기 키워드

■ 생애주기 정의

- 생애주기 관련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신혼기, 임신/출산기, 중년/갱년기, 은퇴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함

생애주기(8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신혼기, 임신/출산기, 중년/갱년기, 은퇴기, 노년기

■ 공통 키워드

- 2022년 1월~7월 기간동안 8개 생애주기 및 26개 위기 유형에서 공통으로 검색되는 주요 키워드(Top30) 및 키워드별 언급량은 어려움, 생각, 못함, 지원, 지역 순으로 나타남

〈표 3-29〉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주요 연관 키워드 순위

순위	키워드	언급량(건)	순위	키워드	언급량(건)	순위	키워드	언급량(건)
1	어려움	3,936,559	11	사업	1,384,692	21	행복	1,048,227
2	생각	2,438,516	12	운영	1,375,466	22	청소년	1,033,219
3	못함	2,051,093	13	사회	1,355,473	23	방문	1,023,597
4	지원	1,795,123	14	높다	1,319,484	24	청년	1,022,349
5	지역	1,706,317	15	관리	1,300,370	25	선택	1,011,937
6	대상	1,498,186	16	노력	1,134,206	26	센터	969,468
7	활동	1,478,520	17	참여	1,133,223	27	새로운	962,819
8	문제	1,459,336	18	교육	1,115,521	28	기준	947,228
9	생활	1,445,028	19	여성	1,086,229	29	환경	935,781
10	도움	1,394,511	20	가족	1,068,763	30	정보	933,797

■ 특화 키워드

- 생애주기별 위기 유형 특화 키워드를 통해 보면 연령에 따른 위기상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아동의 경우 보육, 유치원, 초등학교 등 연령대별 교육 기관 관련 키워드, 아동학대, 혐의, 신고 등 학대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청소년의 경우 오미크론, 확진과 같은 팬데믹 관련 키워드, 소아, 초등학교 등 아동기 관련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청년의 경우 인재, 채용, 소상공인, 선발 등 직업/취업 관련 키워드, 청년지원, 자금 등 정책 지원 관련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임신/출산의 경우 저출산, 출산율, 예민함, 낙태 등 임신 관련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중년/갱년의 경우 흡연, 음주, 건강검진, 가족력, 고혈압, 약물, 두통 등 건강 관련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은퇴의 경우 연금, 퇴직, 노후 등 퇴직과 관련된 키워드, 자산, 자금, 금융 등 금전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 노년의 경우 독거노인, 취약계층, 삶의 질, 소외계층, 사각지대 등 소외 관련 키워드, 노인 장애인, 치매, 요양 등 건강 관련 키워드가 주로 언급됨

<표 3-30> 생애주기별 가족위기 특화 키워드 언급량 건수

생애주기	특화 키워드(언급량, 건)
아동	아동학대(144146), 보육(106212), 유치원(103419), 혐의(84126), 언어(78970), 보호자(75837), 초등학생(70009), 취약계층(69760), 캠페인(64029), 정서(60930), 선고(60393), 과학(59556), 특수(58431), 법률(55027), 분리(54473)
청소년	소아(59988), 캠페인(59278), 학업(50695), 오미크론(50656), 중증(50012), 혐의(48597), 과학(48333), 확진(46623), 인재(46426), 초등학교(45762), 보호자(44390), 선발(44257), 법률(44054), 공동체(44000), 스마트폰(43153)
청년	청년지원(119512), 인재(85606), 채용(84015), 소상공인(75940), 자금(68541), 정착(67382), 합의(66899), 자산(66315), 선발(66255), 공동체(60448), 법률(60433), 폐지(59757), 논란(59673), 금융(58675), 근로자(58519)
신혼	결혼식(98844), 예비 부부(27618), 대출(24991), 결혼생활(20044), 후회함(19694), 출근(18243), 청소(16954), 배우자(16266), 냄새(15477), 카톡(14752), 피곤함(14701), 청약(13693), 답답한(13685), 분리(13417), 시댁(13222)
임신/출산	저출산(141921), 출산율(114664), 고령화(85021), 안종다(79359), 냄새(77560), 예민함(75442), 단점(72669), 외출(71243), 약물(70828), 피곤함(68761), 답답한(66728), 동기(64590), 출근(64238), 긴장(63300), 낙태(61821)
중년/갱년	흡연(81716), 음주(77900), 건강검진(71683), 가족력(70866), 무서운(28056), 신중년(26808), 안종다(24085), 고혈압(23777), 노년(23198), 책임지다(22090), 짜증나다(21511), 답답한(19259), 앓고있다(18898), 약물(18298), 두통(17635)
은퇴	자산(38601), 부상(37090), 연금(36849), 규제(35664), 퇴직(34017), 폐지(32450), 자금(29126), 선발(25548), 노후(24373), 수입(21609), 금융(20155), 후회함(19497), 논란(19314), 소비(19009), 생애(18239)
노년	독거노인(145688), 노인 장애인(136156), 치매(97697), 요양(92864), 취약계층(88773), 삶의질(61757), 고령화(59648), 복지관(57725), 저소득계층(56995), 노후(54517), 소외계층(52111), 사각지대(50492), 봉사 활동(49942), 복지 서비스(49800), 명절(48570)

3. 시사점

■ 가족유형별 가족위기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기존의 가족서비스는 가족 유형(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따라 제공되고 있으나, 가족 유형과 가족위기 유형별 연관성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음.
- 특히 거주기준, 혼인신고 기준, 자녀유무 기준, 소득자의 단수/복수 등의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가족유형을 세분화(26개 가족유형)해서 분석하였을 때도 가족유형별 가족위기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 오히려 사망, 살해, 자살 등과 같은 기사에서는 가족원의 갈등, 이혼 등이 확인되어, 가족구조상의 변화나 위기는 그 자체로 구분되기 보다는 그 위기의 성격이 가족관계의 문제, 발달주기상의 위기, 개인적 위기, 또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건으로 인한 위기와 어떻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가의 복합적 현상이나 관계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 다른 한편, 가족위기를 가족유형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유형이나 특정한 가족형태와 관련한 편견이나 오해를 재생산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됨
- 따라서 기존에 제공되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유형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족위기 유형이나 상황에 따른 지원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필요있음

■ 가족유형과 상관없이 ‘어렵다’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됨

- 가족 유형과 발달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 개인적 위기, 관계적 위기간의 연관 단어를 확인한 결과 ‘어렵다’는 키워드가 가장 언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들에게 본 연구의 위기 키워드들은 분명히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가족유형별 위기관련 주요 키워드에서 1인, 장애인, 복지지원대상자가 나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이는 가족구성원 중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1인인 경우, 그리고 생활소득이 낮을 경우 모든 가족유형에서 위기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복지지원, 지원 대상자 등이 가족위기 관련 키워드에서 주로 검색되었다는 점은, 가족정책에서 직접 금전적 급여를 하기는 어려우나,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가족안정성을 가장 위협하는 상황이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제시하는 것임. 기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는 가정 불화나 갈등 등의 관계적 위기와 결합될 경우, 존속살해,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문제나 범죄로 확대될 수 있음.

[가정불화가 범죄로 확대된 경우]

<기사> ‘가정 불화로 범행’...광명 ‘세 모자’ 살해한 아버지 자백(기사 요약)

경기도 광명에서 어머니와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오늘(26일) 두 아들의 친부인 40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가족을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은폐하고, 인근 PC방을 다녀온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가까이 되는 김씨가 최근 가정 내에서 경제적 이유와 부부문제,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자주 다녔다는 김씨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뉴시스 2022.10.26.)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약 2년간 직업이 없었던 김씨는 생활고로 인해 아내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고 큰아들이 아버지와 동거를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자식 간 불화도 가중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2022. 10. 26)

■ **가족위기는 하나의 위기 사건이나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 장애인, 외벌이, 조손 가족 등에 보듯이, 가족위기는 금전적 문제에서 시작되거나, 금전적 문제와 함께 나타나기 쉬운데 이는 위기를 해결할 자원의 부족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자원부족이 폭력, 싸움, 가정불화 등 관계적 위기로 나타나기 쉬움
- 따라서 가족위기에 접근할 때에는 위기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분석을 명확히 하고, 각 위기간의 상호작용이나 연관성에 대한 고찰도 반드시 해야 함.
-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경우 직접적인 물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가족갈등이나 발달적 지연은 다소 심각하지 않게 여겨지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위기가족의 지원서비스는 관련된 정보나 직접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이 요구됨
 - 발달적 위기나 관계 위기의 극복을 위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등 생계책임자가 아닌 가족구성원 대상 서비스가 우선 연계되거나, 병원진료, 식사 등의 긴급한 생계유지나 안전등의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1. 분석 개요

1) 네트워크 분석 개요

■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등 어문에 대한 분석,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물리학, 의학,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과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발달로 인한 데이터의 증가 및 축적은 실무적으로도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기회를 증대시키고 있음
-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의사소통 집단 내 개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개체 간 연결 상태의 연결 구조의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 지식, 장소, 집단 및 정보 등과 같은 특정 노드(개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임.
-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노드들과 노드들을 연결하는 것을 링크(link)로 표현되고, 이를 통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개체나 조직들의 도출이 가능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기반으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낼 수 있음

■ 네트워크 분석 이론

- 네트워크 분석은 개인과 집단들 간의 관계를 노드(Node)와 링크(Link)로써 모형화하여, 그것의 구조나, 확산 및 진화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임. 개체 자체의 속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통계적인 연구방법과는 달리, 개체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춘 방법임
- 네트워크 분석은 화학, 생물, 물리, 정보공학, 사회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용어만 조금씩 다를 뿐 기본 원리는 그래프 이론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음.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역시 적용하는 대상과 용어만 다를 뿐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동일함

-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요소 및 방식

- 네트워크 분석은 노드(Node)와 링크(Link)라는 두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그래프(Network graph)로 표현함
- 분석 방법에 따라 이름만 다르게 쓸 뿐 내용은 동일하고, 이러한 기본적 요소를 각 분야에서 응용할 때 표현되는 노드와 링크의 이름과 형태, 속성을 추가 혹은 변형해서 사용하게 됨. 네트워크는 크게 링크의 방향 유무에 따라 무방향 그래프(Undirected Graph)/유방향 그래프(Directed Graph), 링크의 가중치 유무에 따라 이진 그래프, 계량 그래프라고 구분해서 사용함
- 네트워크 분석은 테이블(table), 인접행렬(Adjacent Matrix), 네트워크 그래프(Graph)로 표현 가능하고, 테이블은 Source와 Target 두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데이터 자체가 방향성을 표현하게 됨
- 행 하나가 링크 하나를 의미하게 되며, 그래프의 성격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네트워크 분석에 기본이 되는 관계 데이터 형식임
- 인접행렬은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가공한 것으로 행렬 자체로도 분석이 가능함
- 무방향 그래프는 인접행렬이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고, 유방향 그래프는 비대칭임
- 각 행렬의 첫번째 줄은 노드의 번호를 의미하며 행렬 안의 숫자는 연결되어 있을 경우 1,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0으로 표현되고, 계량 그래프의 경우 행렬 안의 숫자는 링크의 개수를 의미함
- 네트워크 그래프(Graph)는 모든 관계 데이터를 표현한 것으로 시각화를 위해 많이 사용됨
- 노드와 링크의 모양, 크기, 색 등을 다르게 함으로써 다양한 표현이 가능함
-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며 기존의 속성이나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관계를 정의해 줄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관계 데이터로의 가공이 가능함

2) 분석 방법

■ 분석과정

- 본 연구는 Lucy 2.0에서 파악한 “가족과 위기”에 대한 각종 빅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추가로 분석해 네트워크 그래프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함
- 분석 절차는 앞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했던 Lucy 솔루션을 통해 파악된 “가족 유형”과 “가족위기”에 대한 단어들을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 전문가에 의해 데이터 정제과정을 거친 후, 네트워크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합한 파이썬(Python) 네트워크 시각화분석 방법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함
- 시각화된 그림에서 단어의 크기는 단어가 언급된 양(빈도수)을 의미하며 서로 간에 이어진

선은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의미함

2. 분석 결과

1)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 4개의 노드와 12개의 키워드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빨간색(①)은 “지역”으로 차상위계층, 위기, 가사, 돌봄, 어려움, 유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COVID-19 팬데믹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분홍색(②)은 “사업”으로 완화, 후원, 가족센터, 행복, 주민, 저소득계층, 해소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보라색(③)은 “비대면”, “센터”, “생활” 등이 있고 각각 독립적임
 - “비대면”은 대상자, 지속적, 온라인, 운영, 혜택, 힘든, 관계자, 취약계층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센터”는 우선, 도움, 1인, 정보, 지역사회, 관심, 사회, 취약하다, 독거노인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생활”은 아동, 프로그램, 경기, 거주, 등록, 주민, 노인, 이민자, 코로나바이러스, 학교, 차상위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파란색(④)은 “자녀”, “활동”, “지원”, “방문”, “교육”, “기준”, “기관” 등이 있고, “교육, 기준, 기관”은 서로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으나, 그 외 단어는 독립적임
 - “교육, 기준, 기관”은 기회, 새로운, 상담, 정책, 통합, 강화, 경제적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지원 사업/프로그램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자녀”는 해결, 보장, 추진, 다문화가정, 참여, 어려움, 안전, 이용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활동”은 확진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부담, 주변, 확산, 우리, 희망, 실시, 우리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지원”은 문화, 코로나바이러스, 프로그램, 아동, 서비스, 이민자, 생활, 서류, 학교, 생계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방문”은 돕다, 유지, 가사, 차상위계층, 위기, 관리, 노력, 공간, 청소년, 지역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2) 가족 유형별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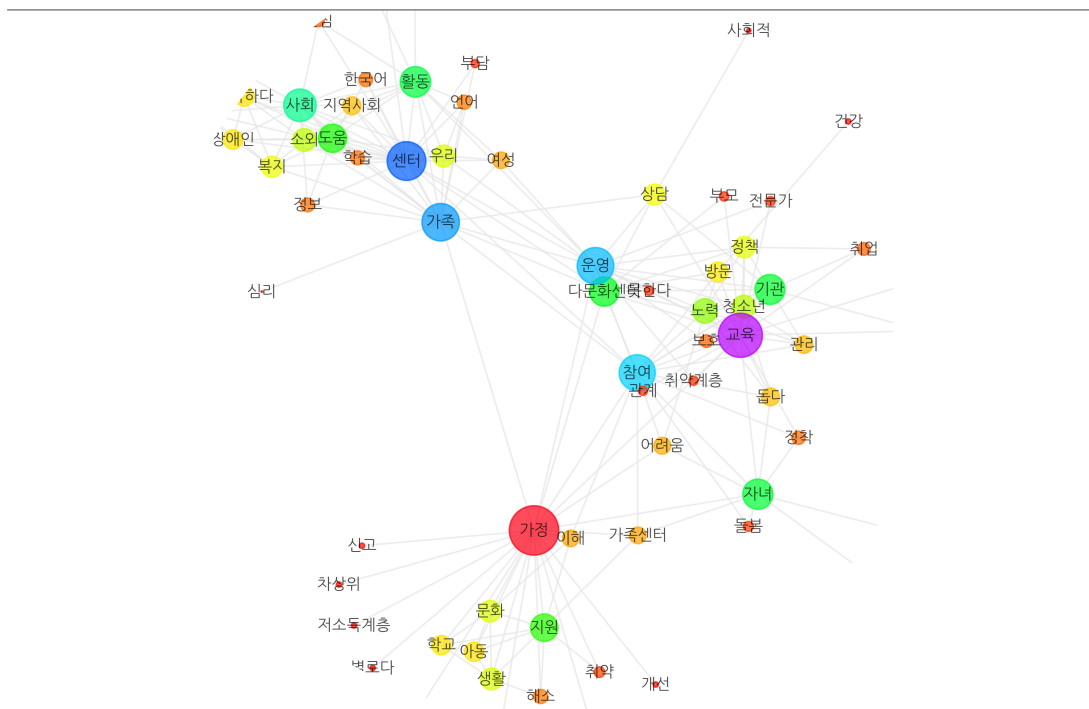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 빨간색(①)은 “가정”으로 이해, 가족센터, 지원, 문화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센터를 통한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보라색(②)은 “교육”으로 청소년, 노력, 보호, 관리, 기관, 취약계층, 돕다, 방문, 정책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파란색(③)은 “센터”로 우리, 학습, 정보, 언어, 여성, 가족, 활동, 지역사회, 도움, 복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하늘색(④)은 “가족”, “운영”, “참여” 등이 있고, 다문화가족위기 관련 주요 키워드인 “가정”, “교육”, “센터”를 연결해주는 키워드로 판단됨

<표 3-32> 가족유형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다문화가족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다문화 가족)
① ■	가정	이해, 가족센터, 지원, 문화, 신고, 어려움, 아동, 학교, 차상위
② ■	교육	청소년, 노력, 보호, 관리, 기관, 취약계층, 돕다, 방문, 참여, 관계
③ ■	센터	우리, 학습, 정보, 언어, 여성, 가족, 활동, 지역사회, 도움, 복지
④ ■	운영 가족 참여	다문화센터, 못한다, 상담, 참여, 방문, 정책, 가족, 보호 관계, 취약계층, 어려움, 보호, 노력, 다문화센터, 못한다, 교육

[그림 3-3]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다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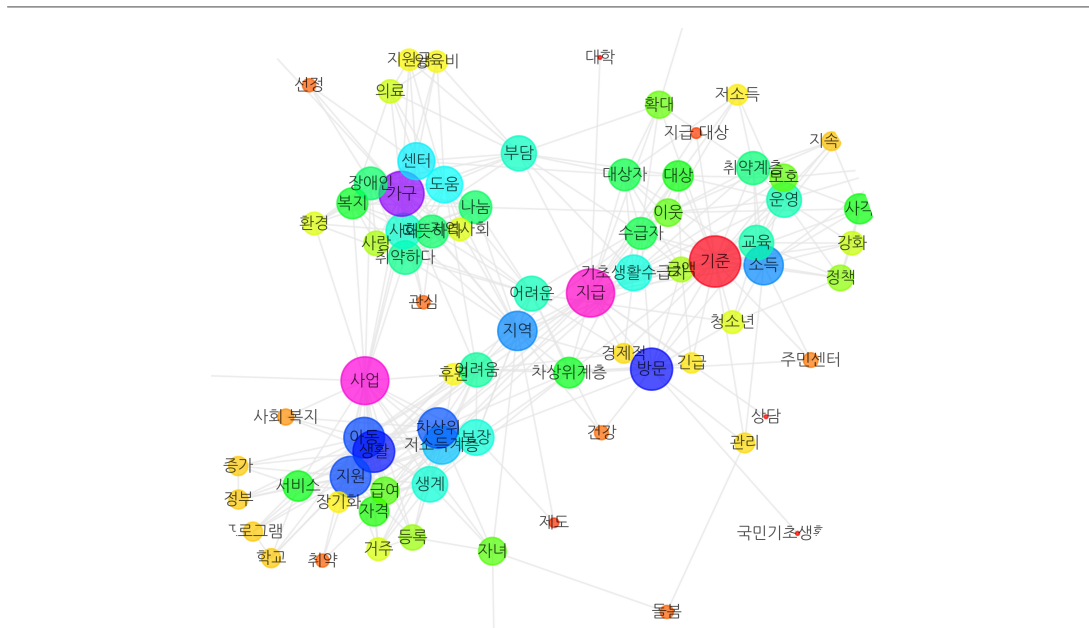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

- 빨간색(①)은 “기준”으로 교육, 소득, 청소년, 금액, 기초 생활수급자, 이웃, 수급자, 취약계층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한부모가족의 교육 관련 위기와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분홍색(②)은 “지급”, “사업” 등이 있고 각각 독립적임
 -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지역, 차상위계층, 경제적, 긴급, 방문, 금액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사업”은 아동, 사회 복지, 생활, 차상위, 저소득계층, 후원, 어려움, 보장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파란색(③)은 “방문”, “가구” 등이 있고 각각 독립적임
 - “방문”은 경제적, 긴급, 차상위계층, 건강, 지급, 관리, 지역, 청소년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가구”는 센터, 도움, 장애인, 복지, 사회, 따뜻하다, 나눔, 사랑, 지역사회, 취약하다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표 3-34> 가족유형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한부모가족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한부모 가족)
①	기준	교육, 소득, 청소년, 금액, 기초 생활수급자, 이웃, 수급자, 취약계층
②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지역, 차상위계층, 경제적, 긴급, 방문, 금액
	사업	아동, 사회 복지, 생활, 차상위, 저소득계층, 후원, 어려움, 보장
③	방문	경제적, 긴급, 차상위계층, 건강, 지급, 관리, 지역, 청소년
	가구	센터, 도움, 장애인, 복지, 사회, 따뜻하다, 나눔, 사랑, 지역사회, 취약하다
④	차상위	저소득계층, 보장, 후원, 어려움, 사업, 아동, 생활, 생계, 지원, 급여
	생활	생계, 저소득계층, 자상위, 사업, 아동, 지원, 급여, 자격, 장기화
	아동	생활, 사회 복지, 사업, 차상위, 지원, 급여, 서비스, 증가, 후원
	지원	장기화, 생활, 급여, 아동, 자격, 서비스, 증가, 생계, 거주

[그림 3-5]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한부모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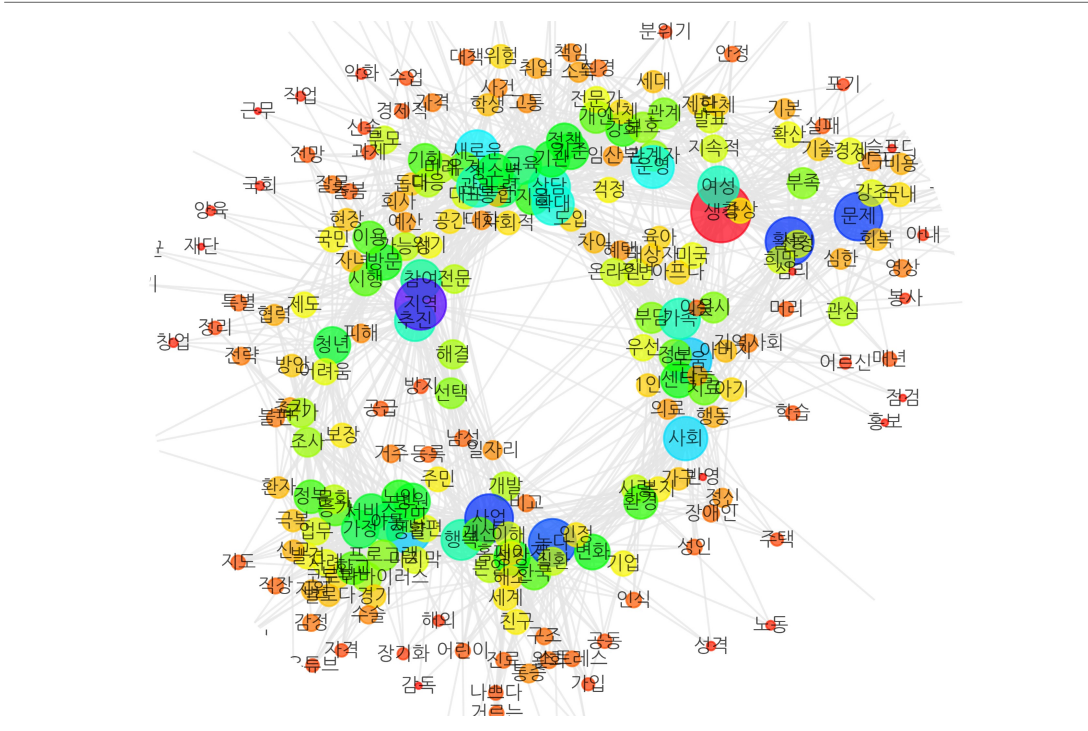
3)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 빨간색①은 “생각”으로 여성, 증상, 지속적, 활동, 선정, 희망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여성의 육아/사회활동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보라색②은 “지역”으로 참여, 추진, 전문, 해결, 시행, 기능성, 위기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지역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파란색③은 “문제”, “활동”, “높다”, “사업” 등이 있고 “문제”와 “활동”이, “사업”과 “높다”가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 “활동”은 심한, 선정, 희망, 심리, 회복, 부족, 강조, 국내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사업”, “높다”는 이해, 개선, 홈페이지, 성장, 본인, 해소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표 3-35>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전체)
①	생각	여성, 증상, 지속적, 활동, 선정, 희망, 육아, 대상자
②	지역	참여, 추진, 전문, 해결, 시행, 기능성, 위기
③	문제	강조, 국내, 회복, 심한, 부족, 아내, 인구, 경제, 비용, 활동
	활동	희망, 심리, 선정, 부족, 증상, 심한, 생각, 머리, 여성
	높다	인정, 변화, 질환, 한국, 홈페이지, 비교, 이해, 성장, 해소
	사업	개발, 비교, 이해, 개선, 행복, 홈페이지, 성장, 본인, 주민, 높다
④	운영	관계자, 임산부, 걱정, 지속적, 보호, 강화, 관계, 여성
	상담	확대, 기관, 교육, 도입, 걱정, 지급, 기준, 정책, 청소년
	확대	상담, 도입, 사회적, 지급, 걱정, 차이, 통합, 대표, 관리
	새로운	청소년, 교육, 미래, 기회, 돕다, 대응, 대표, 관리, 노력
	생활	아동, 고민, 가정, 서비스, 노인, 병원, 남편, 프로그램, 마지막
	사회	의료, 행동, 가구, 반영, 치료, 아기, 센터, 1인, 복지, 사랑
	도움	정보, 아버지, 나눔, 센터, 치료, 아기, 1인, 가족, 우선, 지역사회

[그림 3-6]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생애주기별



■ 아동기

- 빨간색(①)은 “생각”으로 여성, 확대, 부모, 상담, 운영, 기관, 관계자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가정 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보라색(②)은 “사업”, “높다”, “지역”, “운영”으로 “사업”과 “높다”가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높다”는 한국, 성장, 개선, 변화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지역”은 시행, 방문, 어려움, 참여, 추진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운영”은 상담, 부모, 관계자, 기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파란색(③)은 “사회”, “도움”, “활동”으로 “사회”와 “도움”이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도움”은 센터, 치료, 가족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활동”은 문제, 온라인, 선정, 부족, 대표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청소년기

- 빨간색(①)은 “생각”, “지역”, “사업”으로 각각의 키워드는 독립되어 있음
 - “생각”은 여성, 활동, 운영, 온라인, 실시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지역”은 선택, 추진, 참여, 해결, 방문, 대표, 시행, 확대, 어려움, 방안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사업”은 높다, 성장, 한국, 행복, 개선, 이해, 세계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보라색(②)은 “운영”, “높다”로 각각의 키워드는 독립되어 있음
 - “운영”은 생각, 여성, 활동, 관계자, 강화, 정책, 기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높다”는 한국, 세계, 변화, 성장, 사업, 인정, 이해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파란색(③)은 “사회”, “도움”, “활동”으로 “사회”와 “도움”이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는 사랑, 도움, 치료, 정보, 환경, 복지, 센터, 주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도움”은 센터, 정보, 치료, 주변, 실시, 가족, 복지, 희망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활동”은 문제, 희망, 실시, 생각, 여성, 선정, 가족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여성”은 활동, 생각, 운영, 관계자, 온라인, 가족, 상담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교육”은 노력, 관리, 기관, 기준, 유지, 미래, 확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행복”은 개선, 개발, 사업, 성장, 고민, 아동, 병원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아동”은 생활, 서비스, 가정, 고민, 행복, 병원, 사업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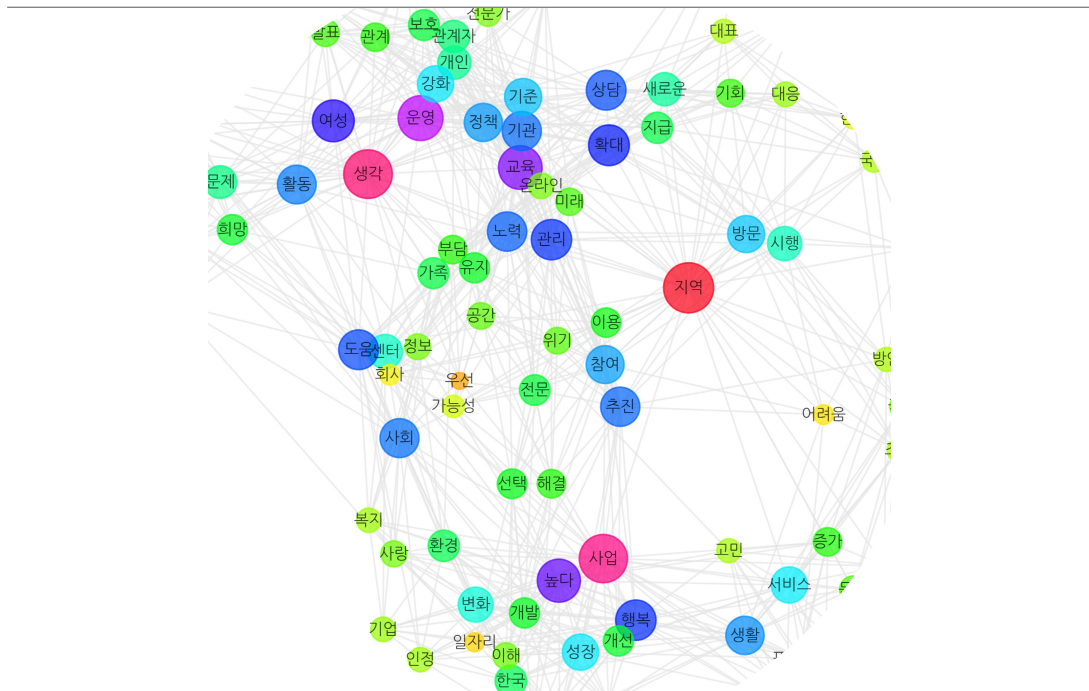
<표 3-37>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청소년기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청소년기)
① ■	생각	여성, 운영, 활동, 온라인, 실시, 주변, 가족, 문제, 관계자
	지역	선택, 추진, 참여, 해결, 방문, 대표, 시행, 확대, 어려움, 방안
	사업	높다, 성장, 한국, 행복, 개선, 이해, 세계, 개발, 고민
② ■	운영	생각, 여성, 활동, 관계자, 강화, 정책, 기관, 기준, 확대
	높다	한국, 세계, 변화, 성장, 사업, 인정, 이해, 개선, 개발
③ ■	사회	사랑, 도움, 치료, 정보, 환경, 복지, 센터, 주변, 가족
	도움	센터, 정보, 치료, 주변, 실시, 가족, 복지, 희망
	활동	문제, 희망, 실시, 생각, 여성, 선정, 가족
	여성	활동, 생각, 운영, 관계자, 온라인, 가족, 상담, 문제
	교육	노력, 관리, 기관, 기준, 유지, 미래, 확대, 새로운
	행복	개선, 개발, 사업, 성장, 고민, 아동, 병원, 서비스, 생활
	아동	생활, 서비스, 가정, 고민, 행복, 병원, 사업, 증가, 프로그램

<표 3-38>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청년기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청년기)
① ■	지역	방문, 시행, 이용, 참여, 추진, 위기, 지금, 확대, 미래, 관리, 노력
② ■	생각	운영, 여성, 활동, 정책, 교육, 온라인, 미래, 노력, 부담, 가족
	사업	해결, 행복, 높다, 성장, 개선, 고민, 변화, 선택, 개발
③ ■	교육	기관, 정책, 온라인, 미래, 노력, 관리, 기준, 상담
	운영	강화, 정책, 기관, 여성, 생각, 활동, 개인, 관계자, 관계
	여성	운영, 생각, 활동, 관계, 발표, 강화, 개인, 문제, 희망
	높다	사업, 개발, 변화, 성장, 개선, 행복, 선택, 해결, 이해, 일자리

[그림 3-9]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청년기



■ **신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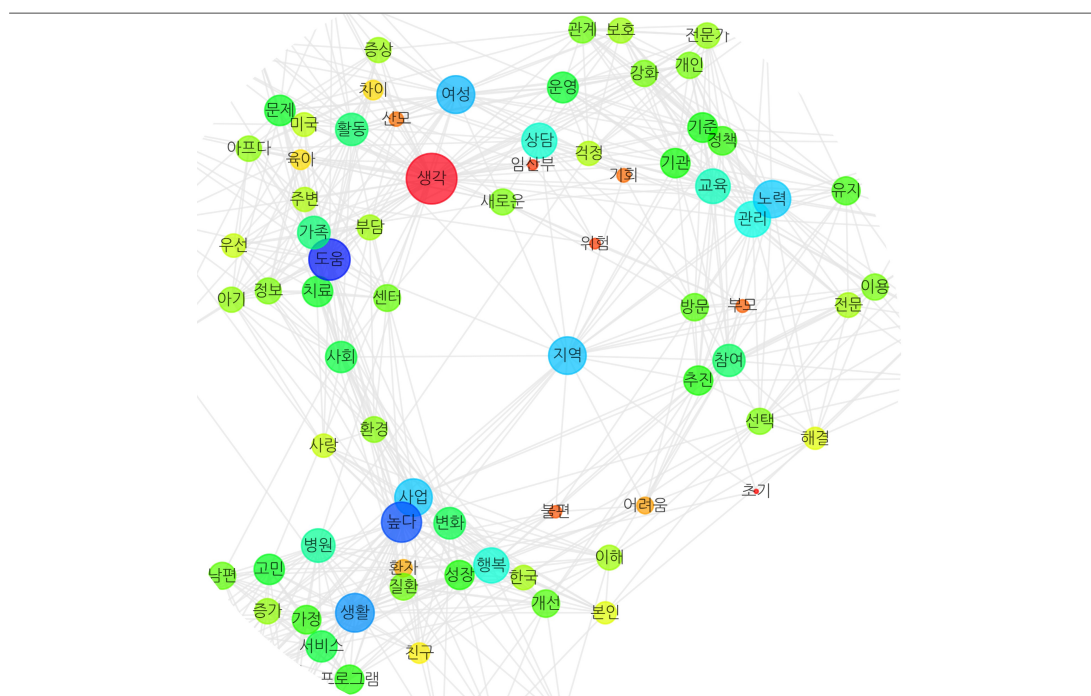
- 빨간색(①)은 “생각”으로 걱정, 상담, 혜택, 활동, 문제, 관심, 육아, 여성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여성의 자녀 양육 및 사회 활동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파란색(②)은 “도움”으로 정보, 야기, 가족, 부담, 사회, 혜택, 지역, 방문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하늘색(③)은 “생활”, “사업”, “높다”로 “사업”과 “높다”가 키워드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늘색(③)은 “생활”, “사업”, “지역”, “노력”, “여성”으로 “사업”과 “생활”은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외는 각각 독립적임
 - “생활”, “사업”은 환자자, 질환, 병원, 고민, 변화 등의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바, 임신/출산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론됨
 - “지역”은 방문, 추진, 참여, 불편, 위험, 새로운, 사업, 변화, 어려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노력”은 관리, 유지, 교육, 정책, 기관, 기준, 기회, 전문, 부모, 방문, 이용 임신/출산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고민과 관련된 것으로 추론됨
 - “여성”은 증상, 차이, 산모, 활동, 상담, 임신부, 운영, 관계, 강화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표 3-40>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임신/출산기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임신/출산기)
① ■	생각	여성, 상담, 새로운, 임신부, 산모, 활동, 부담, 주변, 가족, 센터
② ■	도움	가족, 부담, 치료, 정보, 우선, 센터, 아기, 주변, 육아
	높다	사업, 변화, 환자, 질환, 병원, 환경, 사랑, 고민, 성장
③ ■	생활	가정, 서비스, 증가, 병원, 질환, 환자, 친구, 높다, 성장
	사업	변화, 높다, 환경, 사랑, 지역, 성장, 행복, 환자, 질환
	지역	방문, 추진, 참여, 불편, 위험, 새로운, 사업, 변화, 어려움
	노력	관리, 유지, 교육, 정책, 기관, 기준, 기회, 전문, 부모, 방문, 이용
	여성	증상, 차이, 산모, 활동, 상담, 임신부, 운영, 관계, 강화

[그림 3-11]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임신/출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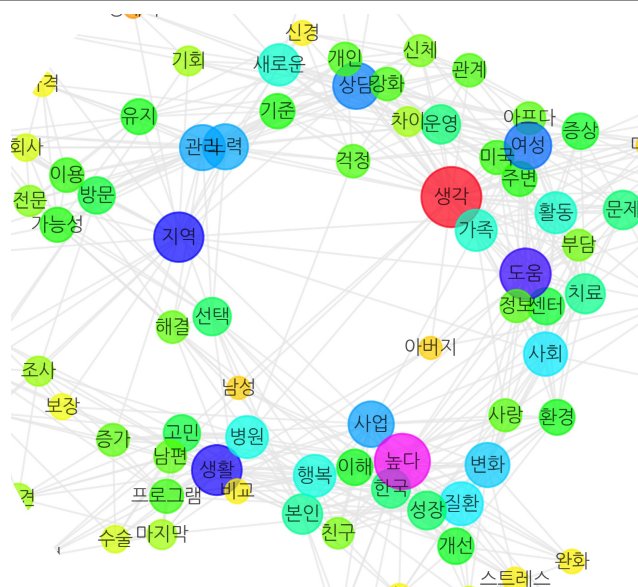
■ 중년/갱년기

- 빨간색(①)은 “생각”으로 주변, 가족, 도움, 부담, 운영, 차이, 걱정, 아프다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주위 사람과 삶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분홍색(②)은 “높다”로 사업, 이해, 한국, 성장, 질환, 변화, 개선, 사회, 사랑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라색(③)은 “도움”, “생활”, “지역”으로 각각 독립적임
 - “도움”은 정보, 센터, 치료, 부담, 활동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생활”은 병원, 고민, 남편, 비교, 마지막, 수술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남편의 죽음 또는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추론됨
 - “지역”은 관리, 노력, 방문, 가능성, 전문, 해결, 선택, 유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1>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중년/갱년기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중년/갱년기)
① ■	생각	미국, 주변, 가족, 활동, 도움, 부담, 운영, 차이, 걱정, 상담, 아프다
② ■	높다	사업, 이해, 한국, 성장, 질환, 변화, 개선, 사회, 사랑
③ ■	도움	정보, 센터, 치료, 부담, 활동, 가족, 주변, 미국, 문제
	생활	병원, 고민, 남편, 비교, 프로그램, 증가, 행복, 본인
	지역	관리, 노력, 방문, 가능성, 전문, 해결, 선택, 유지

[그림 3-12]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중년/갱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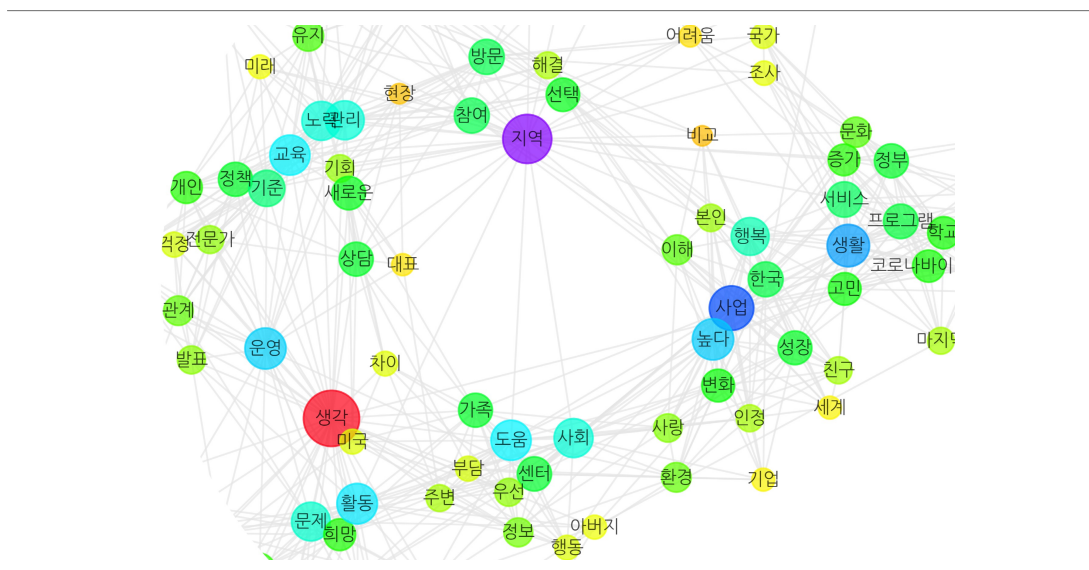
■ 은퇴기

- 빨간색(①)은 “생각”으로 차이, 운영, 상담, 문제, 가족, 부담, 주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보라색(②)은 “지역”으로 선택, 해결, 방문, 참여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파란색(③)은 “사업”으로 한국, 높다, 이해, 성장, 변화, 행복, 인정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은퇴기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은퇴기)
① ■	생각	차이, 운영, 상담, 발표, 문제, 희망, 가족, 부담, 주변
② ■	지역	선택, 참여, 방문, 해결, 비교, 이해, 보인, 관리, 기회, 새로운
③ ■	사업	한국, 높다, 이해, 성장, 친구, 변화, 행복, 인정

[그림 3-13]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은퇴기



■ 노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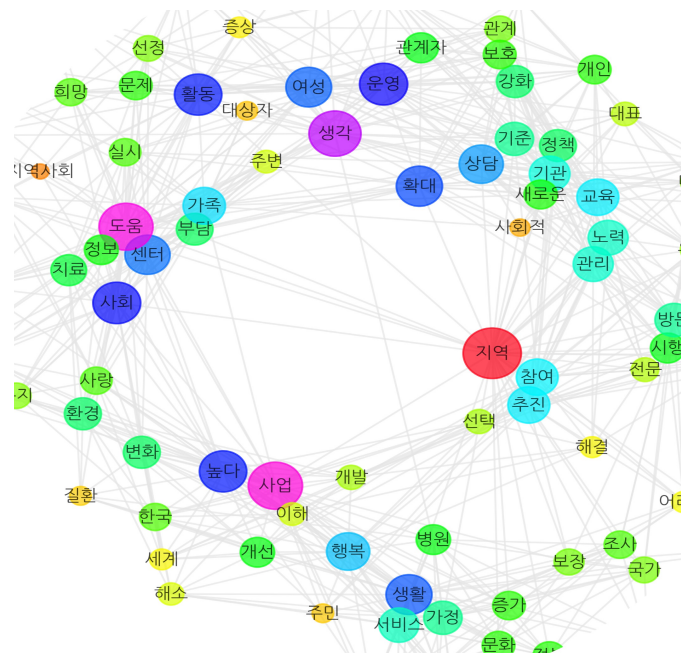
- 빨간색(①)은 “지역”으로 참여, 추진, 선택, 사회적, 관리, 전문, 시행, 방문, 유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지역사회에서의 노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보라색(②)은 “생각”, “사업”, “도움”으로 각각 독립적임

- “생각”은 운영, 여성, 대상자, 주변, 확대, 상담, 기준, 활동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도움”은 센터, 부담, 가족, 정보, 치료, 실시, 지역사회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사업”은 높다, 개발, 이해, 변화, 행복, 한국, 지역, 선택, 개선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파란색(③)은 “사회”, “높다”, “활동”, “운영”으로 “활동”과 “운영”은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외는 각각 독립적임
 - “활동”, “운영”은 여성, 생각, 대상자, 주변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 “사회”는 센터, 정보, 치료, 의료, 사랑, 복지, 가구, 환경, 변화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바,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의미로 추론됨
 - “높다”는 사업, 이해, 개발, 변화, 한국, 질환, 환경, 해소 등이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

<표 3-43> 생애주기별 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난 연관 키워드 - 노년기

색깔	키워드	연관 키워드(노년기)
① ■	지역	참여, 추진, 선택, 사회적, 관리, 전문, 시행, 방문, 유지
② ■	생각	운영, 여성, 대상자, 주변, 확대, 상담, 기준, 증상, 활동
	도움	센터, 부담, 가족, 정보, 치료, 실시, 지역사회, 나눔
③ ■	사업	높다, 개발, 이해, 변화, 행복, 한국, 지역, 선택, 개선
	사회	센터, 정보, 치료, 의료, 사랑, 복지, 가구, 환경, 변화
	높다	사업, 이해, 개발, 변화, 한국, 질환, 환경, 사랑, 세계, 해소
	활동	문제, 선정, 대상자, 주변, 실시, 증상, 희망, 여성, 운영
	운영	관계자, 여성, 확대, 생각, 상담, 강화, 보호, 관계

[그림 3-14] 가족과 위기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 노년기



3. 시사점

- 가족이 위기를 겪는 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는 저소득층, 돌봄, 유지 등과 같은 단어로 나타남
 - 즉,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한 가족위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문제, 그리고 코로나 19 등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생활 유지상의 어려움임
 - 이는 가족위기의 일차적인 지원이 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이며, 특히 현재 가족기능이 유지되지 못하는 특별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가족위기의 지원을 위한 기관은 가족센터가 대표적이며,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은 한부모 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으며,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아동기와 노인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위기와 관련하여 지역, 비대면, 센터, 기관, 교육, 활동, 방문 등이 연관성이 높게 나타는 것은 지역사회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가족위기 관련 비대면 사업, 교육 프로그램, 문화 활동 등이 제시된 것으로 보임
 - 대상과 관련해서는 아동이나 노인, 이민자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키워드가 가족위기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것으로 보아, 가족센터에서 제공되는 가족위기 서비스는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됨
 - 결국, 가족센터에서 제공되는 가족위기 정책서비스가 특정 가족유형이나 특정한 연령대에 집중되므로, 다양한 가족형태나 생활주기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가족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특정한 가족유형에 집중된 가족위기 지원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의 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사회외적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음.
 - 미혼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보호시설, 사회복지, 기부금 등,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기초 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과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위한 지원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득기준에 따라 가족 위기를 지원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다른 소득계층이 발달적 위기나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를 겪게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됨.

- 생애주기별로 아동기는 부모, 상담 등과 가까운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 아동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부모 중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그러나 그후 청년은 다양한 정책과 연결되어 다양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론되어, 동일 서비스라 할지라도 부모입장에서의 돌봄보다, 아동 또는 자녀 입장에서의 관찰과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신혼기의 경우 여성과 육아가 가장 고민과 부담과 연관된 단어로 나타나, 아직까지 일가정양립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임신과 출산은 걱정 및 부담과 관련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가족소멸과 축소가 진행되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임. 긍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
- 은퇴기의 경우 가족과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이 많아, 특히 가족과의 관계와 경제에 대한 안정화된 상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지금까지 경제적 위기를 중심으로 했던 위기 지원에서 더 나아가 가족위기 수준에 따라 위기가족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계적 위기는 발견되기 어려우므로 가족센터를 통한 이웃과의 교류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장치나 매개가 필요함

-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중위소득 이상은 가족위기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적 위기상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계적 위기 지원을 하여 사회적 위험과 개인의 발달적 위기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족위기 발굴을 위한 가족위기지원망 구축이 필요한 경우]

<기사> 하남시, 오피스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수원 세모녀' 예방

경기 하남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4일 밝혔다. 미사1동 지역은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가구 중 21.2%의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로 1인가구가 거주하며, 전·출입이 빈번하고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 구조적 특성상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 발견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지난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사1동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2022.10.04.)

■ 가족위기는 가족외부에 발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거나 신고가 된 가족위기 부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다양한 가족위기 상황과 관련된 실제 가족들을 발굴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

- 가족은 전통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공적인 지원체계와 분리하여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 돌봄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 사회화 되었다 해도 가족 갈등과 가족관계 위기 등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이웃에 의해 신고되기 전에는 발견되기 어려운 영역임.
- 발달적 위기 또한 외부에서 발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위기가 나타난 가정에 대한 발달적, 관계적, 개인적 위기를 점검하고, 가정폭력이 나타나거나 신고가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 긴급하게 우선 대처하며, 그리고 아동과 부모의 격리 등이 나타난 가정을 발견하였을 때 발달적, 관계적, 개인적 위기에 대해 모든 가족구성원을 지원하는 등의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가족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이나 특정 관련 요소들에 대해 미리 분석하여, 다양한 가족위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러한 가족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접근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위기가족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포상금 지급의 경우]

<기사> 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이달부터 1건당 5만원 지급

울산 중구는 2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 도입된 포상금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힘든 가구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한 뒤 사회보장급여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경향신문2022.10.02.)

제4장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현황 및 수요 조사

제1절 현황 및 수요 조사 방법

제2절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현황

제3절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요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가족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통한 가족위기 지원 실태와 지원시 어려운 점을 파악하기 위함
- 가족센터에서 향후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파악하기 위함

■ 조사 과정

- 조사는 가족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된 설문조사와, 팀장 이상의 대상자 20명을 섭외하여 4그룹으로 나누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된 포커스 그룹 조사(FGI)로 수행됨
- FGI 조사는 설문조사 내용의 근거나 원인을 밝히고자 질문되었으며, 특히 가족센터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나 가족위기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진단지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포함하였음

2.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표 4-1> 설문조사의 개요

	정량조사
조사 대상	가족센터 종사자
유효 표본수	총 152개 센터 (회수율 62.3%)
조사 방법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병행
조사 기간	2022년 10월 24일~27일

2) 조사지 구성

- 설문 문항은 크게 6개 항목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해당 항목 유무 조사, 자기기입식, 우선순위 기재, 리커트 척도 등으로 구성하였음

<표 4-2>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가족위기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하고 있는 가족위기 관련 사업 • 위기(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별 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가족위기 지원 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위기 지원 시 어려움 • 가족위기 지원 시 필요 사항
가족위기 지원 관련 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족 대상 우선 지원 서비스 종류 •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주요 연계(협력) 기관

■ 수행중인 가족위기 관련 사업 조사

- 가족역량강화사업,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위기상담(자살, 사건 등), 지역사회 재난 재해 지원, 미혼 청소년 등 취약가족지원, 지자체 요구에 따른 위기개입과 기타로 나누어 조사

■ 가족위기 유형별 지원 여부 조사

- 발달적 위기 8항목, 관계적 위기 4개 항목, 개인적 위기 7개 항목, 가족외적 위기 6개 항목 등 세부항목별 서비스 유무 조사
-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성 또는 상시 여부 조사

■ 가족위기지원을 하는데 갖고 있는 어려움 조사

- 위기가족 지원 자원 부족과 차별화된 서비스 부재
- 대상자 발굴과 연계의 어려움
- 위기가족 상황별 사례별 지원 매뉴얼 부재
- 가족위기관리 사업 수행 전문 인력의 부족
- 가족관계 및 위기 지원 상담과 사례관리 역량 미흡

- 대상자 발굴 및 위기 수준 진단과 파악의 어려움
-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위기가족지원협의체 참여의 어려움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기관으로서 낮은 인지도
- 가족위기관련 상담과 연계 콜센터 부재
- 긴급 위기 지원기관(쉼터, 경찰서, 병원)과의 핫라인 구성
- 위기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 등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모두 선택

■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필수 항목 조사

- 인력, 대상자 발굴과 연계, 위기개입 매뉴얼, 시설과 공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지역 후원기관 및 단체, 위가지원 통합 콜센터, 위가지원 상담가 등 8개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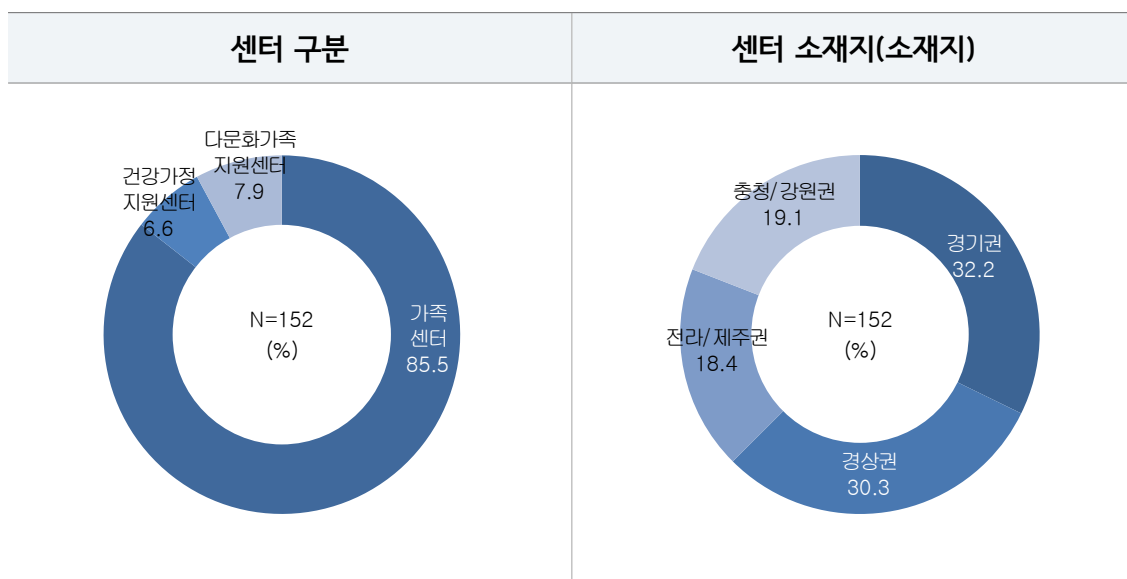
■ 위기가족 대상 가족센터 우선 제공 서비스 조사

- 돌봄, 물품, 의료, 식사, 심리정서, 일상생활, 취업이나 소득, 가족교육, 정보제공, 지역공동체 참여 등 10개 항목에 대한 순위 3개 선정

■ 가족위기 지원을 가족센터의 우선 협력 기관 조사 항목

3) 응답 센터의 특성

[그림 4-1] 설문조사의 응답센터 유형과 센터 소재지



3. 포커스그룹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표 4-3> 포커스그룹 조사의 개요

정성조사	
조사 대상	가족센터 종사자 중 팀장 이상급
유효 표본수	총 20명 (4 Group X 4~6명)
조사 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2022년 10월 21일~26일

2) 조사 내용

- 포커스 그룹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기타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개방된 질문으로 진행함
- 설문조사에서 확인확인하기 어려웠던 내용으로, 위기가족이 가족센터에 와서 보이는 공통적 특성이나 가족위기 지원에 대한 진단이나 성과지표 내용 추가

<표 4-4> 포커스그룹 조사의 질문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가족위기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하고 있는 가족위기 관련 사업 • 위기(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별 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가족위기 지원 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위기 지원 시 어려움 • 가족위기 지원 시 필요 사항
가족위기 지원 관련 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족 대상 우선 지원 서비스 종류 •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주요 연계(협력) 기관

3) 응답자 특성

〈표 4-5〉 포커스그룹 조사 참여자의 소속 센터와 담당 업무

구분	센터명	담당 업무
1G	서울권1 가족센터	사례관리, 가족 상담 총괄
	경남권1 가족센터	사무국장, 센터 총괄, 가족 상담
	서울권 2 가족센터	사업기획 및 총책임
	경남권2 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총괄
2G	인천권1 가족센터	사무국장, 전반 총괄업무,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관련 업무
	인천권2 가족센터	센터 운영, 센터 사업 총괄, 인사 및 조직관리
	강원권1 가족센터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사례관리, 긴급위기
	충남권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사례관리, 긴급위기 지원사업 등
	전북권1 가족센터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위기대응 매뉴얼 관련 업무
3G	대구권1 가족센터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가족 친화 마을 프로그램 및 행사, 실습지도, 자원 및 가족실태조사
	강원권2 가족센터	가족보듬지원팀 총괄, 가족 상담, 이혼 전후 가족지원
	충남권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총괄, 기관홍보 및 외부사업
	경기권1 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총괄 및 다문화가족캠프 (상담, 사례관리, 다문화)
	경기권2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운영 총괄
4G	전남권1가족센터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팀,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총괄, 외부기관 통합 사례회의
	충북권1 가족센터	센터 사업 총괄 (사무국에서 방문지도, 사회통합 등 공동체 사업)
	대구권2 가족센터	현재 센터장 공석으로 센터 운영 총괄
	충북권2 가족센터	가족관계지원과 총괄(사례관리, 상담, 1인가구 프로그램)
	경남권3 가족센터	센터 총괄(가족역량 강화사업, 사례관리 등 경력)
	제주권1 가족센터	센터 총괄

1.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 현황

1) 수행중인 가족위기 관련 사업

■ 가족센터에서 가장 많이 제공되는 가족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임

- 응답한 센터 4곳 중 3곳(75%)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60.5%는 “가족역량 강화사업”, 44.7%는 “위기상담” 사업을 수행함
 - 전라/제주권에 소재한 센터는 타 권역 대비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 가족위기 지원의 대표사업은 가족역량강화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로 나타남. 따라서 두 센터가 통합된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가 가장 최빈값으로 나타남.
 - 이는 전국에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지원이 가장 많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그 외 기타 제공되는 가족위지지원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 관련 연계기관 상담 지원, 고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방임 청소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이 확인됨.

<표 4-6> 가족위기 관련 사업 현황(설문조사 결과)

(base 전체, n=152, %)

구분	(사례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가족역량 강화사업	위기상담	취약가족 지원	지자체 요구 위기개입	재난/재해 지원	가족 상담 지원	기타*	
전체	(152)	75.0	60.5	44.7	35.5	32.2	13.2	5.3	7.2	
센터 종류	가족	(130)	80.8	63.8	45.4	34.6	33.1	12.3	3.1	8.5
	건강가정	(10)	0.0	70.0	60.0	40.0	50.0	20.0	30.0	0.0
	다문화가족	(12)	75.0	16.7	25.0	41.7	8.3	16.7	8.3	0.0
소재 지	서울/경기권	(49)	75.5	61.2	42.9	24.5	28.6	14.3	8.2	12.2
	경상권	(46)	69.6	52.2	39.1	39.1	28.3	10.9	4.3	2.2
	전라/제주권	(28)	85.7	64.3	60.7	50.0	42.9	10.7	3.6	10.7
	충청/강원권	(29)	72.4	69.0	41.4	34.5	34.5	17.2	3.4	3.4

*기타:한부모 지원, 가정폭력 등 연계기관 상담지원, 고위기청소년발굴 지원, 방임청소년 지원, 주거환경개선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은 사례관리와 위기상담 중심임

- 현재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상담을 통한 위기가족 지원에 강점이 있고 특화되어 있으며, 사례관리 사업이 제공될 때 위기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와 취약가족 중심의 위기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 내부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가족역량강화사업의 해당 프로그램 외에 위기상담과 가족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과의 서비스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재난/재해 지원과 지자체에서 위기개입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센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인되어, 결국 위기가족지원에 있어서 지자체로부터 가족상담연계에 대한 요구가 많고, 지역 단위의 위기가족 통합사례회의에서도(예:서울시위기가족통합지원센터) 본 센터의 가족 상담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부분의 가족센터에서 가족위기 관련 사업은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센터 소재 지역의 특성, 센터 규모 등에 따라 중점 사업 종류, 비중이 다소 상이함

- 가족센터의 소재 지역 특성, 센터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비중 및 담당 팀의 규모는 상이하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와 가족역량 강화사업, 위기상담 및 미혼 청소년 부모 가족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요구에 다른 위기개입, 지역사회 재난·재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 군 단위의 직영 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며, 상담을 거쳐 군, 면사무소 등의 사례관리로 연결하기도 하는 등 가족센터 중심 사업과 지자체 내의 협력 기관 등의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등 센터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2) 가족위기 유형별 서비스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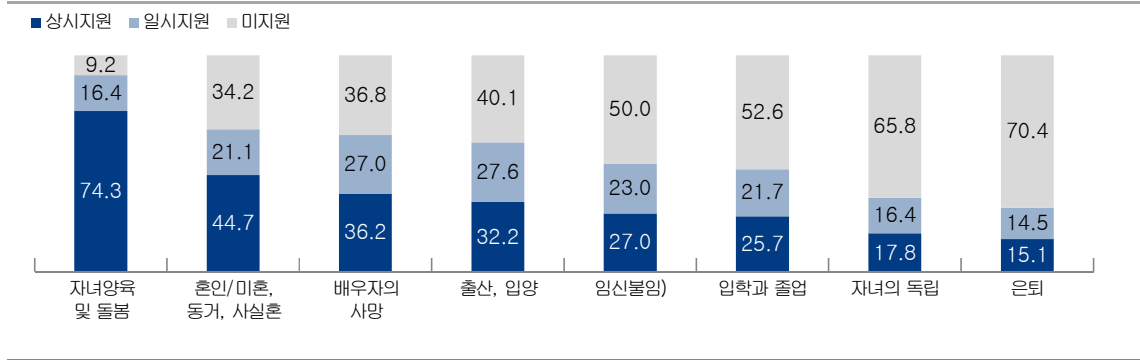
(1) 발달적 가족위기

■ 지원 현황

- 대부분의 센터에서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을, 과반수는 “혼인/미혼, 동거, 사실혼”, “배우자 사망”, “출산, 입양” 지원을 하고 있음
- 발달적 가족위기의 상시적 지원은 결혼 및 동거와 관련된 상시지원에 비해 1.6배가량 높은 지원을 보이고 있어 가족센터를 통한 위기 지원이 돌봄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은퇴”, “자녀의 독립”에 대한 지원율은 14~1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아, 가족 생애주기 별로 볼 때 결혼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까지의 성인에 대한 서비스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임

[그림 4-2] 발달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표 4-7> 발달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base 전체, n=152, %)

구분	사례수	자녀 양육 및 돌봄 (영유아, 초등, 청소년)		혼인(결혼)/미혼, 동거,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출산, 입양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전체	(152)	74.3	16.4	44.7	21.1	36.2	27.0	32.2	27.6	
센터 종류	가족	(130)	74.6	16.2	45.4	20.8	37.7	26.2	34.6	24.6
	건강가정	(10)	70.0	20.0	60.0	10.0	20.0	40.0	20.0	30.0
	다문화가족	(12)	75.0	16.7	25.0	33.3	33.3	25.0	16.7	58.3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73.5	12.2	49.0	24.5	36.7	24.5	30.6	34.7
	경상권	(46)	84.8	13.0	43.5	21.7	34.8	26.1	37.0	19.6
	전라/제주권	(28)	64.3	28.6	57.1	17.9	46.4	32.1	39.3	28.6
	충청/강원권	(29)	69.0	17.2	27.6	17.2	27.6	27.6	20.7	27.6
구분	사례수	임신(불임)		입학과 졸업		자녀의 독립 (출가, 군입대)		은퇴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전체	(152)	27.0	23.0	25.7	21.7	17.8	16.4	15.1	14.5	
센터 종류	가족	(130)	26.9	19.2	23.8	22.3	18.5	15.4	16.2	13.8
	건강가정	(10)	40.0	40.0	10.0	20.0	10.0	20.0	10.0	20.0
	다문화가족	(12)	16.7	50.0	58.3	16.7	16.7	25.0	8.3	16.7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28.6	26.5	26.5	18.4	18.4	20.4	12.2	20.4
	경상권	(46)	32.6	17.4	32.6	26.1	15.2	17.4	19.6	19.6
	전라/제주권	(28)	32.1	25.0	21.4	21.4	25.0	17.9	17.9	10.7
	충청/강원권	(29)	10.3	24.1	17.2	20.7	13.8	6.9	10.3	0.0

- 결국 개인 생애주기에 있어 결혼 전, 자녀 성인기 이후가 사각지대로 나타남. 이는 기존 가족서비스가 자녀가 있는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생애주기에 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1인가구와 혼전 성인기의 기간이 생애 주기적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가족위기 지원에 있어서도 생애주기에 맞추어 성인기의 혼전 미혼과 비혼 등 결혼준비기간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가족 상담에 있어 ‘임신·출산 전담 상담사’가 일부 가족상담팀에 전속 배치되어 있어 혼인, 미혼, 동거, 사실혼 등의 다양한 가족 유형의 상시적 지원과 은퇴 상황에 대한 위기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특화되어 있으며, 반면 배우자의 사망, 출산·입양, 임신, 자녀의 독립 등의 일시적 지원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센터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음.
- 발달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에서 지역별로는 돌봄에 대한 상시지원이 경상권, 서울/경기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순으로 나타났으나, 상시지원이 가장 높은 곳은 84.8%, 가장 낮은 곳은 64.3%로 약 20%가량의 차이를 보임.
- 반면, 전라/제주권은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상시지원을 제외한 결혼, 배우자의 사망, 출산과 입양, 자녀의 독립 등에 대한 지원에서는 타 지역들보다 가장 많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라/제주권이 자녀의 돌봄이나 양육과 관련된 요구가 적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 따라서 발달적 가족위기를 지원할 때는 지역별 인구구조, 가구 구조, 장애 비율 등의 특징을 고려한 지원 대상자나 지원서비스 설계가 필요함

■ 특성

- 발달적 위기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연관성 높아 예측 가능한 위기임. 취약계층이나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운영 가능한 위기임. 대상자의 능력, 위치 등에 따라 위기 여부가 달라짐.
-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생애주기 관련 이벤트이며 예측이 가능하므로 각 개인/가족의 경제력, 가족 구성상의 특성에 따라 위기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족센터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각 위기별로 가족센터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존재하므로, 4가지 위기 중 가족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위기를 선별해 집중해야 함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 사망했다면, 위기에 대한 대응은 남은 가족(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돌봄이나 심리적 케어 및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며, 남은 가족이 성인이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면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임. 위기를 중심으로 볼 경우, 각 위기별로 가족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효율성은 떨어질 것")

- 경제력,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은퇴, 사망 등이 위기로 발현되지 않는 경우와 위기로 나타나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발달적 위기별 대상자 특성별로 필요 서비스가 달라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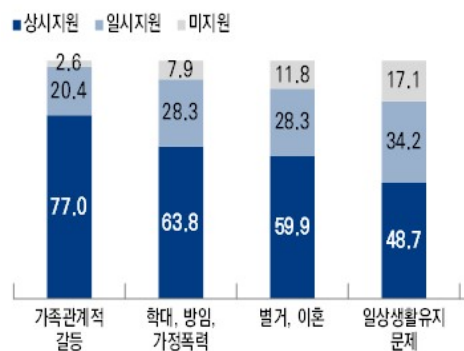
(“은퇴자의 경우 상담보다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은퇴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일 경우 직접적 지원이나 사례관리 등이 필요하거나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에 연계해야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대상자와 서비스 발생할 것”)

(2) 관계적 가족위기

■ 지원 현황

- “가족관계적 갈등”, “학대, 방임, 가정폭력”, “별거, 이혼”, “일상생활 유지 문제” 등 관계적 위기의 경우 상시지원 또는 일시지원 형태로 대부분의 기관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권 및 전라/제주권 소재 센터는 “가족관계적 갈등” 상시지원율이 85% 이상으로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가족상담 서비스가 가족센터의 주요서비스이기 때문이며, 지역에서도 가족위기에 있어 가족관계적 갈등을 지원할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임.
- 특히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 가족관계의 갈등이 신체적/심리적 폭력으로 나타날 때도 상시 개입하는 센터가 60%이상으로 나타나, 가족위기 지원시 가족갈등에 대한 지원이 가족센터의 주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됨

[그림 4-3] 관계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표 4-8> 관계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base 전체, n=152, %)

		(사례수)	가족관계적 갈등 (세대 간, 부부, 부모-자녀)		학대, 방임, 가정폭력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전체		(152)	77.0	20.4	63.8	28.3
센터 종류	가족	(130)	77.7	19.2	66.9	26.2
	건강가정	(10)	80.0	20.0	70.0	20.0
	다문화가족	(12)	66.7	33.3	25.0	58.3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65.3	28.6	57.1	28.6
	경상권	(46)	87.0	13.0	65.2	28.3
	전라/제주권	(28)	85.7	14.3	67.9	32.1
	충청/강원권	(29)	72.4	24.1	69.0	24.1
		(사례수)	별거, 이혼		일상생활 유지 문제 (의식주 생활 관리)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전체		(152)	59.9	28.3	48.7	34.2
센터 종류	가족	(130)	62.3	26.2	48.5	34.6
	건강가정	(10)	60.0	40.0	50.0	20.0
	다문화가족	(12)	33.3	41.7	50.0	41.7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57.1	26.5	44.9	38.8
	경상권	(46)	58.7	30.4	52.2	32.6
	전라/제주권	(28)	67.9	28.6	53.6	32.1
	충청/강원권	(29)	58.6	27.6	44.8	31.0

■ 특성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의 관계적 위기는 가족센터와 전문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필요한 위기에 해당해 가족센터보다 타 전문기관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함.
- 관계적 위기 대상자 발생 시, 전문기관에 연계와 협조를 요구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 가족센터의 적정 개입 수준이며, 경찰서, 병원, 전문 심리상담사 등의 개입이나 지원이 더 직접적임
-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가족에서 가정폭력이나 학대, 이혼, 가족갈등 등의 관계적 위기 발생 빈도 및 가족센터로의 지원요청이 많음. 센터에서 사례관리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에서 관계적 위기 발생 시,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지원은 가족센터의 영역이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치료 등은 경찰이나 병원 등이 주 담당 기관이 되며 사후 사례관리 및 지원은 가족센터의 사업 영역임

(“우리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가족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절차나 피해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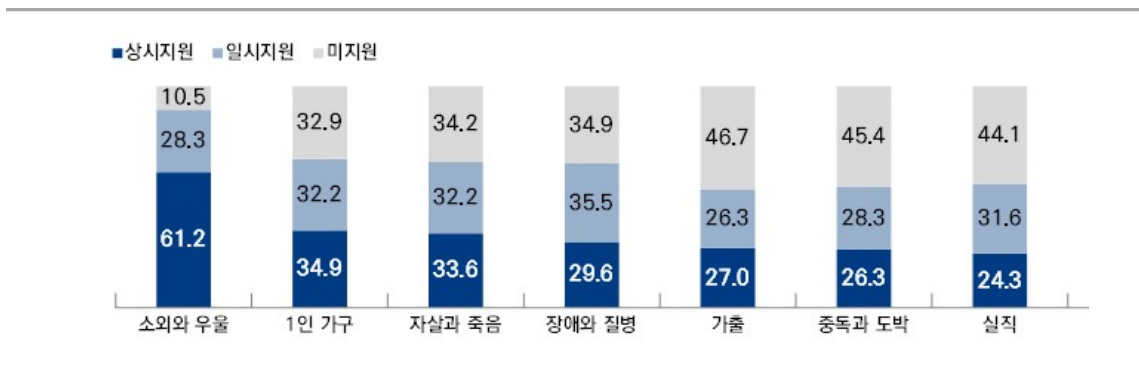
치료 등은 경찰서, 병원에서 담당하고, 우리 센터는 가족 돌봄,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3) 개인적 가족위기

■ 지원 현황

- 대부분의 센터에서 “소외와 우울” 지원을, 과반수는 “1인 가구”, “자살과 죽음”, “장애와 질병” 중독과 도박”, “실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림 4-4] 개인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표 4-9> 개인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base 전체, n=152, %)

	(사례수)	소외와 우울(고립감)		1인 가구 (일상생활 유지)		자살과 죽음(사망)		장애와 질병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전체	(152)	61.2	28.3	34.9	32.2	33.6	32.2	29.6	35.5	
센터 종류	가족	(130)	63.1	26.9	38.5	32.3	35.4	30.0	30.0	33.8
	건강가정	(10)	60.0	30.0	10.0	40.0	20.0	40.0	30.0	20.0
	다문화가족	(12)	41.7	41.7	16.7	25.0	25.0	50.0	25.0	66.7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63.3	28.6	38.8	30.6	38.8	32.7	34.7	30.6
	경상권	(46)	63.0	23.9	43.5	26.1	41.3	26.1	28.3	39.1
	전라/제주권	(28)	57.1	39.3	32.1	39.3	32.1	35.7	32.1	39.3
	충청/강원권	(29)	58.6	24.1	17.2	37.9	13.8	37.9	20.7	34.5
구분	(사례수)	가출		중독과 도박		실직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전체	(152)	27.0	26.3	26.3	28.3	24.3	31.6			
센터 종류	가족	(130)	29.2	24.6	29.2	24.6	25.4	29.2		
	건강가정	(10)	10.0	30.0	10.0	30.0	20.0	30.0		
	다문화가족	(12)	16.7	41.7	8.3	66.7	16.7	58.3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30.6	26.5	32.7	28.6	28.6	32.7		
	경상권	(46)	28.3	19.6	21.7	30.4	26.1	30.4		
	전라/제주권	(28)	32.1	32.1	28.6	25.0	25.0	25.0		
	충청/강원권	(29)	13.8	31.0	20.7	27.6	13.8	37.9		

- 대부분의 센터에서 “소외와 우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상담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보여지며, 이는 특히 “1인 가구” 증가 및 “자살과 죽음”, 증가에 대한 사회적 위험 지원에 있어 가족센터가 매우 강점을 갖고 있는 것임
- 다만, 가족센터,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센터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서비스가 상시 보다는 일시지원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가족위기와 관련된 상시지원이 가능하도록 고민할 부분은 특히 개인적 가족위기 유형 영역인 것으로 나타남
- 소외와 우울, 고립감, 자살과 죽음에 대한 지원은 상시지원이 일시 지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나,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일시지원 서비스가 상시지원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상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성

- 자살,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 가출 등을 개인적 위기로 분류했으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및 가족 관계, 개인의 연령/심리/정서적 특성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기도 하며, 개인적 위기로 인해 관계적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개인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 성격이 모두 존재함. 복합적인 위기이므로 접근 방식이나 지원도 사회적 요소, 발생 원인 및 가족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개인적 위기로 분류한 상황 발생 시, 당사자에 대해서는 병원, 경찰, 전문 심리상담 기관 등의 즉각적, 직접적 개입이 필요하며 당사자 이외의 남은 가족원에 대해 가족 상황에 따라 가족센터의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함
- 부모가 개인적 위기에 처할 경우, 부모 대상의 지원은 민간기관이나 정부 기관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위기의 경중이나 내용에 따라 가족센터에서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가족원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나, 이러한 지원은 소득 기준에 의해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됨
(“우리 센터에서 사례관리하는 위기가족 중, 부모가 자살 시도 한 위기가족의 경우 부모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전문 심리치료를 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우리 센터는 남아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해당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센터 개입 가부를 결정해요.”)
- 취약가족이나 사례관리 중인 가족에 개인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는 경제적·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자 입장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나 가족센터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현물지원이 불가하므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 없을 경우, 대상자가 상담 등의 지원을 거부하는 케이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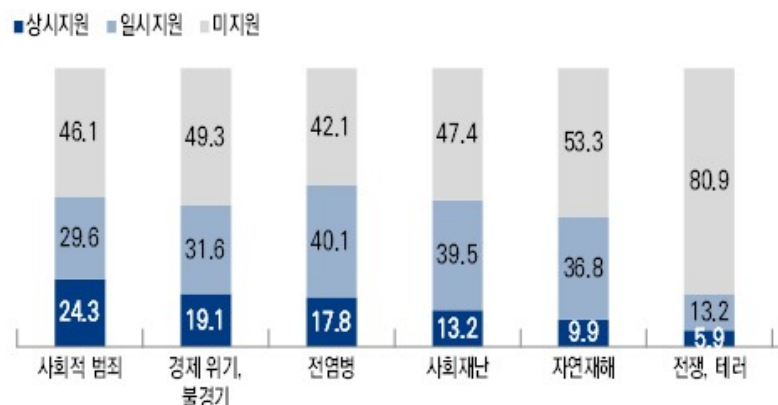
“취약가족의 부양자가 실직한 경우, 대상자는 즉각적인 지원을 원해요. 구직활동을 돕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원이나 당장 필요한 경제적, 현물적 지원을 원하는데 센터에서는 경제적, 현물 지원이 불가해서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실직이나 사고를 당해서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 등을 원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상담정도라서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4) 가족외적 가족위기

■ 지원 현황

- “사회적 범죄”,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 “사회 재난”은 과반수의 센터가 지원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시지원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센터 종류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적 범죄”,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 “사회 재난”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지역별로는 전라/제주권의 사회 재난(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고,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시지원이 많은 것과 연관됨
- 가족외적 사건은 다문화가족이라는 가족구조보다는 지역 내 동일 사회 재난에 대한 피해자나 희생자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확대된다면, 가족위기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문화가족들의 경우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사회 사건 사고 관련 피해 대상자나 그 가족이 센터에서 가족위기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연계되었던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림 4-5] 가족외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표 4-10> 가족외적 가족위기 지원 현황(설문조사 결과)

(base 전체, n=152, %)

구분	(사례수)	사회적 범죄 (유괴, 폭행, 성범죄 등)		경제 위기(파산, 부채), 불경기		전염병 (코로나, 메르스 등)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전체	(152)	24.3	29.6	19.1	31.6	17.8	40.1	
센터 종류	가족	(130)	24.6	29.2	17.7	32.3	16.9	38.5
	건강가정	(10)	30.0	20.0	20.0	20.0	20.0	40.0
	다문화가족	(12)	16.7	41.7	33.3	33.3	25.0	58.3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22.4	28.6	22.4	28.6	14.3	36.7
	경상권	(46)	30.4	28.3	23.9	32.6	19.6	45.7
	전라/제주권	(28)	21.4	39.3	10.7	42.9	25.0	35.7
충청/강원권	(29)	20.7	24.1	13.8	24.1	13.8	41.4	

구분	(사례수)	사회 재난(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 등)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전쟁, 테러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상시지원	일시지원	
전체	(152)	13.2	39.5	9.9	36.8	5.9	13.2	
센터 종류	가족	(130)	13.8	36.9	10.0	36.2	6.2	12.3
	건강가정	(10)	10.0	40.0	10.0	40.0	10.0	20.0
	다문화가족	(12)	8.3	66.7	8.3	41.7	0.0	16.7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16.3	32.7	8.2	32.7	8.2	16.3
	경상권	(46)	15.2	37.0	15.2	32.6	6.5	15.2
	전라/제주권	(28)	7.1	53.6	7.1	39.3	3.6	10.7
충청/강원권	(29)	10.3	41.4	6.9	48.3	3.4	6.9	

■ 특성

-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 사회 재난, 자연재해 등의 가족외적 위기가 긴급 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함. 코로나19 초기 지원 시, 생필품 등을 격리 가족에게 지원이 가능했으나, 초기 이후 현물 지원이 불가해 가족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지원서비스는 제한적임
- 세월호, 경남 김해 방화 셔터 오작동 인재 사고, 아파트 붕괴 사고, 초기 코로나 감염자 급증한 시기 등 지역 내 재난재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의 현장 파견을 주문하나 재난·재해 발생 시 가족센터 근무자가 지원 가능한 영역은 매우 제한적임
- 교통사고 가족에 대한 지원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경제·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가족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지원이 없으며 돌봄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제공 가능함.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제공 가능한데 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리적 장애에 대한 지원은 전문성이 부족해 제공 어려움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의 경우, 유가족이나 미성년 가족원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재난·재해상황에서는 가족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별로 없어요.”)

- 재해·재난 및 사고 등의 긴급 위기 상황에 가족센터가 즉각적인 현물 지원, 경제·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심리적 외상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이나 트레이닝 등이 필요함. 심리적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트레이닝 뿐 아니라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함

(“지역에서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해서 우리 센터도 지원 나갔는데, 가족센터 담당자들이 외상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전문 심리상담사도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가족센터라서 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 발생 시, 여가부에서도 현장 지원 요청하는데, 그런 현장은 전문가가 필요해서 우리 센터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현장에 나가서 의미있는 지원을 하려면, 전문 심리상담사가 상시 근무해야해요.”)

2.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

1) 지원 대상

■ 가족위기의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다고 인식함

- 현재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 및 프로그램의 대상인 가족위기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각 위기가 모든 개인과 모든 가족에게 위기인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
- (“위기의 내용을 보면, 현재 가족센터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른 차원으로 분류한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른 개념이니까,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위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함께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고나 재해는 모든 가족에게 위기지만, 발달 위기 같은 위기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족센터 개입 필요성은 다르니, 결국 개입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정의도 필요해요.”)
- 취약층, 위기가족에는 단일 위기보다 복합적인 위기 발생의 경우가 많으며, 가족외적 위기로 분류된 긴급위기를 제외한 다른 위기는 주로 복합적인 동시에 만성적인 케이스 많음

■ 가족위기의 유형별로 대상자 관리가 필요함

- 가족위기를 발달적/관계적/개인적/가족외적 위기로 구분한 내용은 개인이나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나 각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상황, 심리/정서적 특성에 따라 위기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위기별로 대상자 여부,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과 대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모든 상황이 문제가 되거나 가족센터에서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위기별로 대상자 여부, 개입이나 지원 필요성을 살펴봐야해요.”)

- 현재 가족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의 사례관리 대상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및 다양한 취약가족에서 각 위기들이 실제 위기로 발현되므로 4가지 유형의 위기 구분은 학문적, 개념적 분류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사례관리 및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는 대상을 특정한 현재의 사업 영역 분류는 실무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가족센터의 사례관리나 위기개입은 취약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인데, 위기를 구분하면, 각 위기별로 다시 취약가족인지 살펴봐야 하고 취약가족의 경우 한 개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서 실무 목적의 분류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위기를 구분한 것 같은데, 현재 가족센터 사업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 적용하려면 더 상세한 정의나 분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 지원 내용

■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 서비스 내용과 가족위기의 유형별 접근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음

-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가족역량 강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긴급 위기 대응, 상담 등의 대상자 상황을 다른 차원으로 분류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센터의 사업 측면에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류로 평가됨
- 가족위기와 관련하여 발달적/관계적/개인적/가족외적 위기유형을 현재 가족센터의 사업 영역을 다른 차원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인식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차원으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역량 강화사업이나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위기 내용을 재구성한 느낌이에요”)

- 다문화가족, 미혼 청소년 부모 가족, 1인 가구 등 가구 및 가족의 주요 특성별로 구분한데 반해, 4가지 위기 유형 분류는 생애주기의 주요 이벤트, 만성적 위기나 문제 상황, 사회적 재난 및 긴급 위기 상황 등을 임의의 기준으로 분류한 개념으로 현재 가족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영역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위기를 분류해 놓아서, 취약층이나 취약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서비스 성격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위기 상황별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과 지원 활동 내용 등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매뉴얼도 필요해요.”)

■ 가족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는 다른 기관과 다르다고 인식함

- 각 위기별로 가족센터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 존재하므로, 4가지 위기 중 가족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위기를 선별해야 함

(“지금도 위기 개입 관련해서는 만성적인 위기는 센터의 개입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외적 위기로 분류된 내용은 현재 긴급위기와 비슷한데, 긴급위기에 센터 인력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서 긴급 재난-재해 시 가족센터 임무는 불분명해요”, “가족센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문제가 가족 전반에 영향을 줄 때 관여하는 원칙이 있어요. 다양한 위기 중, 가족센터가 담당할 위기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필요해요.”)

- 현재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시에도 인력과 예산상 제약이 있으며, 각 센터별로 전문 담당 인력 충원이나 교육 등 원활하지 않아 팀원 및 팀장들의 업무량이 많으며 실무자 소진상태임

(“사례관리 후 경력이 2-3년 정도 되면 업무량이 많고, 감정 소진도 심해서 그만 두는 경우 많아요. 예산이 제한적이다보니 자격을 갖춘 복지사를 충원하기도 어려워서, 담당자들의 소진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요”, “담당자가 그만두면 경력자로 충원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나 인력난으로 신입을 충원해요. 신입 충원하면 신입 교육도 선배 팀원이나 팀장이 맡아야 하고, 업무도 늘어나니 중간관리자의 업무는 늘어나서, 중간관리자나 경력자 소진 심해요.”)

- 4가지 위기별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사업별 상세 매뉴얼, 사업별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현재 상태도 이미 인력과 예산은 부족하고 4가지 위기별로 다시 사업을 재편한다면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무엇보다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 매년 변경되는 매뉴얼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 위기별로 즉각적이고 직접적 개입은 전문기관에서 우선 해결 후, 가족센터는 가족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가족 기능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가족센터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위기는 교통사고 가족 지원 외에 다양하지 않아요. 각 위기별로 전문 기관에서 우선 해결하고, 가족센터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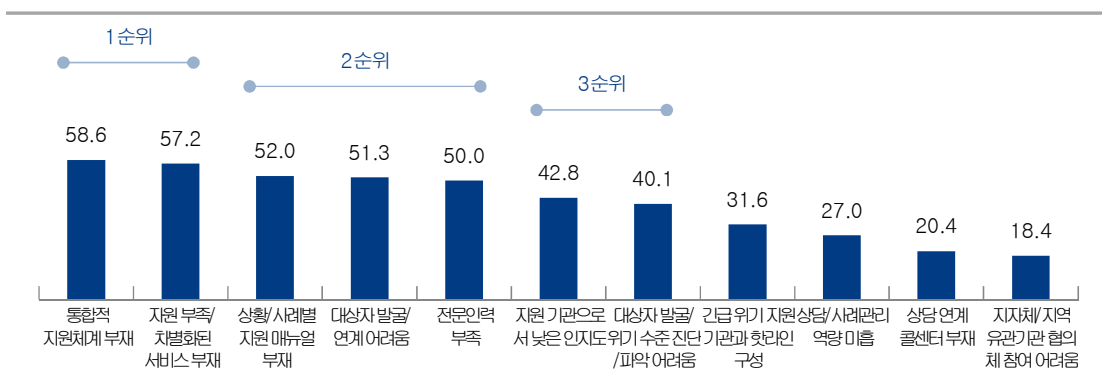
1.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수요

1) 서비스의 체계성과 차별화

■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가족센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가족위기 지원 시 주요 애로사항은 1순위는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58.6%), “위기가족지원 부족과 차별화된 서비스 부재”(57.2%), 2순위는 “위기가족 상황별/사례별 지원 매뉴얼 부재”(52.0%), “대상자 발굴과 연계의 어려움”(51.3%), “가족위 기관리 사업 수행 전문인력 부족”(50.0%), 3순위는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기관으로서 낮은 인지도”(42.8%), “대상자 발굴 및 위기 수준 진단과 파악의 어려움”(40.1%)으로 나타남

[그림 4-6] 가족위기 지원시 어려운 점(설문조사 결과) : 전체 분석



- 위기가족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지원에 대한 가족센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매뉴얼로 나타남
- 또한 지원준비가 된 이후에는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임

■ 서비스에 대한 지침과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가족위기지원을 위해서는 지원할 내용에 대한 지침과 서비스 표준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향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이나 자원을 고려하며 기준을 만들어 가야함
- 이미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사례관리 및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관리 사업을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대상의 변경 또는 확대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나 어려움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함.
- 이때 위기가족 발굴과 홍보에 대한 방법, 지원해줄 차별화된 서비스 연계 방법, 대상자 변경과 확대에 따른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새로 키워야 할 역량 등이 검토되어야 함

<표 4-11> 가족위기 지원시 어려운 점(설문조사 결과) : 센터종류와 소재지별 분석

(base 전체, n=1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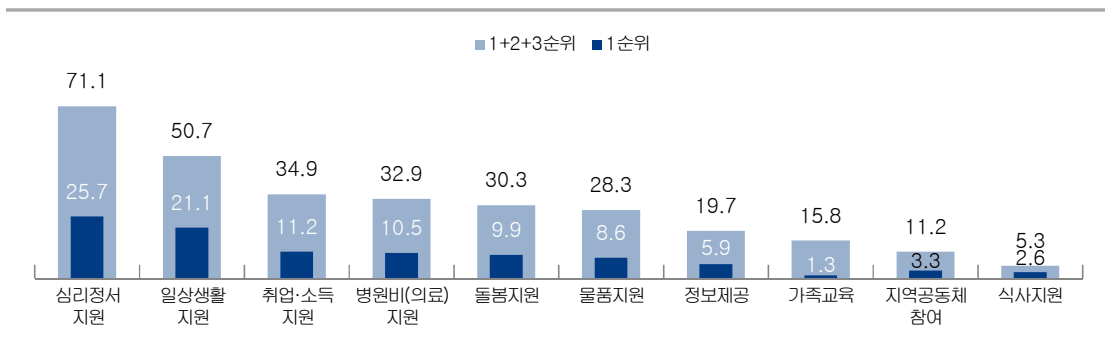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	위기가족 자원 부족과 차별화된 서비스 부재	위기가족 상황별 사례별 지원 매뉴얼 부재	대상자 발굴과 연계의 어려움	대상자 발굴 및 위기 수준 진단과 파악의 어려움		
전체	(152)	58.6	57.2	52.0	51.3	40.1		
센터 종류	가족	(130)	56.2	59.2	51.5	51.5	41.5	
	건강가정	(10)	50.0	30.0	40.0	70.0	10.0	
	다문화가족	(12)	91.7	58.3	66.7	33.3	50.0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73.5	55.1	53.1	42.9	42.9	
	경상권	(46)	56.5	63.0	52.2	43.5	39.1	
	전라/제주권	(28)	53.6	71.4	53.6	75.0	39.3	
	충청/강원권	(29)	41.4	37.9	48.3	55.2	37.9	
구분	(사례수)	긴급위기 지원기관과의 핫라인 구성	가족관계 및 위기 지원 상담과 사례관리 역량 미흡	가족위기 관련 상담과 연계 콜센터 부재	가족위기관리 사업 수행 전문 인력의 부족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기관으로서 낮은 인지도	지역 유관기관 위기가족지원협약체 참여의 어려움	
전체	(152)	31.6	27.0	20.4	50.0	42.8	18.4	
센터 종류	가족	(130)	32.3	28.5	20.0	53.8	45.4	16.9
	건강가정	(10)	20.0	0.0	20.0	30.0	30.0	20.0
	다문화가족	(12)	33.3	33.3	25.0	25.0	25.0	33.3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36.7	22.4	22.4	40.8	44.9	22.4
	경상권	(46)	30.4	26.1	13.0	45.7	39.1	17.4
	전라/제주권	(28)	28.6	35.7	25.0	64.3	39.3	17.9
	충청/강원권	(29)	27.6	27.6	24.1	58.6	48.3	13.8

2)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

■ 심리정서지원과 일상생활지원을 통해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위기가족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심리 정서 지원”의 비율이 7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상생활 지원” 50.7%, “취업·소득 지원” 34.9%, “병원비(의료) 지원” 32.9% 순으로 조사됨
- 가족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심리정서지원이 71.1%로 가장 높았으나 많은 사회적 재난에서 중점적으로 일부 가족센터들이 지원해왔던 돌봄 지원은 30.3%, 5위로 낮게 나타남.
- 가족센터의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키움 보듬이에 의해 지원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오히려 50.7% 2위로 높아 향후 가족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족서비스 지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할 부분으로 나타남.

[그림 4-7] 위기가족 대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설문조사 결과) : 전체 분석



■ 지역별로 위기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영역은 차이가 있다고 인식함

-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가장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영역은 1위 심리정서지원과 2위 일상생활지원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 외의 영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전라/제주권 센터에서는 “병원비(의료) 지원”과 ‘돌봄’의 비중이, 서울/경기권에서는 물품지원과 정보제공이, 경상권에서는 취업·소득지원

과 식사지원이, 충청/강원권 센터는 “가족 교육”과 “지역공동체 참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별로 위기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영역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4-12> 위기가족 대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설문조사 결과) : 센터종류와 소재지별 분석

(base 전체, n=152, %)

(1+2+3 순위)	(사례수)	심리 정서 지원	일상 생활 지원	취업· 소득지원	병원비 (의료) 지원	돌봄 지원	물품 지원	정보 제공	가족 교육	지역 공동체 참여	식사 지원
전체	(152)	71.1	50.7	34.9	32.9	30.3	28.3	19.7	15.8	11.2	5.3
센터 종류	가족	(130)	73.1	52.3	32.3	33.1	28.5	27.7	18.5	12.3	6.2
	건강가정	(10)	60.0	40.0	40.0	50.0	30.0	30.0	40.0	10.0	0.0
	다문화가족	(12)	58.3	41.7	58.3	16.7	50.0	33.3	16.7	16.7	8.3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67.3	53.1	30.6	34.7	30.6	32.7	22.4	14.3	8.2
	경상권	(46)	73.9	47.8	39.1	28.3	28.3	26.1	21.7	13.0	6.5
	전라/제주권	(28)	60.7	53.6	35.7	53.6	32.1	32.1	14.3	10.7	3.6
	충청/강원권	(29)	82.8	48.3	34.5	17.2	31.0	20.7	17.2	27.6	17.2

3) 지역단위 관련 기관과 연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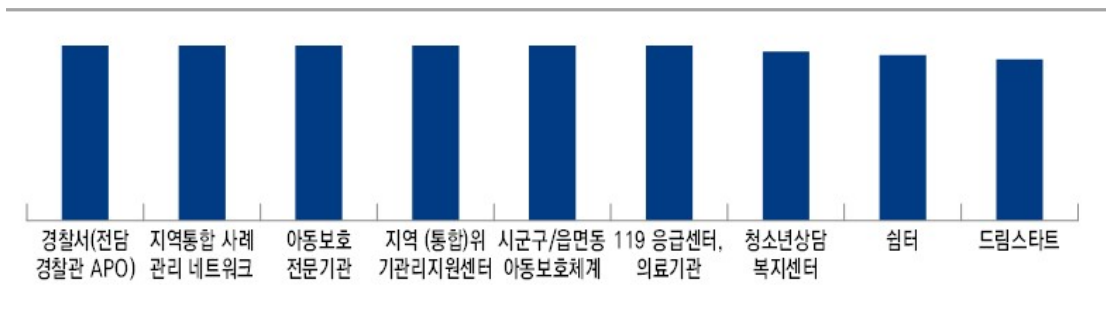
■ 가족센터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영역에 대해 지역의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 활동도 중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인식함

- 위기가족 대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의견에서 취업·소득 지원(34.9%)과 병원 의료비지원(32.9%) 등은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지역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평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상호협력 하에 자원을 확보하여야할 필요가 있음.
- 취업·소득 지원은 공공사례관리(시군구청, 읍면동)기관과 지역의 각종 후원단체(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상인회 등)를 통해 서비스연계를 받아야 하며, 병원의료비의 경우도 간단한 심리 검사비 외에는 지역사회의 병원 의료사회복지팀, 후원병원, 약국연합회, 지자체의 긴급지원비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를 위한 연계희망 기관으로는 경찰서, 지역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 아동보호 전문기관 순으로 조사됨

-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희망 기관으로서 “경찰서(전담 경찰관 APO)”의 비율이 8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 77.0%, “아동보호 전문기관” 70.4% 순으로 조사됨

[그림 4-8]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연계 희망 기관(설문조사 결과) : 전체 분석



-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연계 희망기관으로 ‘경찰서(APO : Anti-Abuse Police Officer)’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위기가족지원 사업 대상인 폭력 및 취약위기가정과 관련된 연계가 많았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정폭력 대상자 사례관리에 있어서 현장조사 및 출동 시에 항상 경찰관이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비상 신고체계이기 때문에 연계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그 다음으로 ‘지역 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가 77%로 높게 나타남.
 - 고위험의 위기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적으로 다량 요구되어 지므로 센터의 소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가족센터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자원의 교류 및 서비스 지원에 협력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임으로 판단됨
- 또한 건강가정진흥원의 3년 연속 특성화사업인 방임(보호) 아동· 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센터가 16개 센터로 증가하면서 아동보호 유관기관들-예를 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부터 공공보호체계인 시군구/읍면동 아동보호체계, 드림스타트, 성가정폭력센터, 119응급센터와 의료기관, 법원 및 검찰청, 장단기보호시설인

쉘터, 보육원, 그룹 홈, 입양기관과 교정시설(소년원/준법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 간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그 외에 청소년 위기지원망(Cys-net)의 유관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Wee센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형성되어 있음.

<표 4-13>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연계 희망기관(설문조사 결과) : 센터종류와 소재지별 분석

(base 전체, n=152, %)

		(사례수)	경찰서 (전담 경찰관 APO)	지역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	아동보호전문 기관	지역(통합)위 기관리지원센 터(단)	시군구/읍면 동 아동보호 체계	119 응급센터, 의료기관
전체		(152)	80.9	77.0	70.4	67.8	63.8	59.2
센터 종류	가족	(130)	84.6	78.5	72.3	70.8	66.2	60.8
	건강가정	(10)	50.0	70.0	50.0	60.0	40.0	40.0
	다문화가족	(12)	66.7	66.7	66.7	41.7	58.3	58.3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83.7	77.6	73.5	83.7	67.3	53.1
	경상권	(46)	71.7	73.9	71.7	60.9	58.7	58.7
	전라/제주권	(28)	78.6	82.1	67.9	64.3	75.0	64.3
	충청/강원권	(29)	93.1	75.9	65.5	55.2	55.2	65.5
		(사례수)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쉘터	드림스타트	그룹 홈	입양기관	교정시설, 소년원, 준법지원센터
전체		(152)	57.2	55.9	54.6	20.4	14.5	14.5
센터 종류	가족	(130)	56.9	59.2	56.9	22.3	13.8	15.4
	건강가정	(10)	50.0	20.0	30.0	10.0	20.0	20.0
	다문화가족	(12)	66.7	50.0	50.0	8.3	16.7	0.0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55.1	59.2	51.0	24.5	18.4	18.4
	경상권	(46)	60.9	50.0	54.3	21.7	10.9	15.2
	전라/제주권	(28)	57.1	64.3	57.1	17.9	10.7	10.7
	충청/강원권	(29)	55.2	51.7	58.6	13.8	17.2	10.3
		(사례수)	교육청 (Wee센터, Cy s-Net)	성가정 폭력 센터	법원, 검찰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가정위탁 지원센터	보육원(아동 양육시설)
전체		(152)	53.3	48.7	45.4	34.2	29.6	21.7
센터 종류	가족	(130)	60.0	52.3	46.9	36.2	33.8	23.8
	건강가정	(10)	20.0	30.0	40.0	10.0	10.0	10.0
	다문화가족	(12)	8.3	25.0	33.3	33.3	0.0	8.3
소재지	서울/경기권	(49)	49.0	49.0	44.9	42.9	26.5	20.4
	경상권	(46)	43.5	43.5	41.3	34.8	30.4	19.6
	전라/제주권	(28)	71.4	57.1	46.4	25.0	35.7	25.0
	충청/강원권	(29)	58.6	48.3	51.7	27.6	27.6	24.1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연계 희망기관은 센터 유형별 차이가 나타남.

-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네트워크는 추후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연계가 필요한 기관의 선정, 그리고 연계 방법, 대상자별 지원 방안과 모니터링, 사후관리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미 지역내에 다양한 가족위기 관련 연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하고 있으며, 가족센터 또한 이미 기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나 지역별로 참여 형태나 연계 정도가 다양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후 시범사업등을 통해 효율적인 네트워크 참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해 보임

2. 가족센터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제안

1) 신규 서비스 추가가 아닌 위기대응에 맞는 개편 필요

■ 가족센터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현재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편이 필요함

- 좌담회 참석자 절반 이상은 현재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 수행에도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며, 실무 담당자의 소모도가 심하므로,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의 제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실무 담당자의 소모도 악화 및 기존 제공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임
- 센터가 담당하는 지역 거주민 수나 위기가족 비중 등에 따라 센터 실무 담당자의 업무 강도는 상이함. 현재 상황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센터의 경우 신규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경력 담당자의 퇴사, 경력 담당자 대신 신입 인력 채용으로 서비스 공백 및 품질 저하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 높음

(“경력이 많은 사례관리 담당자나 상담사 필요한데, 경력 늘어나면서 업무량이나 감정 소진 심해 퇴사자 발생하고, 그 자리에 동일 수준의 경력자로 충원하기 어려워서 신입으로 충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경력 대비 신입의 서비스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업무 숙련도가 높아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서비스 품질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경력자가 많으면 좋는데, 저희 예산이 인건비와 사업비가 통합되어 있어서 경력자 근속도 어려워요.”)

- 신규 서비스보다는 현재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 정비,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트레이닝이 더 필요한 상황임

("경력자들 이탈률 많아지는데, 매뉴얼이 상세하지 않아서 서비스 품질 유지나 서비스 지속성 등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매뉴얼도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고, 여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필요해요", "현재, 경력자들이나 팀장이 신입 복지사 교육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미 업무량이 많은 경력자나 팀장에게 더 부담으로 작용해요.")

■ 가족위기 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적 혜택도 고려되어야 함

- 현재 각 센터 예산을 사업비와 인건비로 분리, 기본 인건비 상승, 각 센터별 운영비를 자체 집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임. 심리상담사 및 사례관리 사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숙련도를 반영한 인건비를 책정하고 센터내 자격요건/숙련도 별 재직자 현황을 고려한 인건비 책정 등의 개선될 필요있음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되지 않아서 어려워요. 인건비는 경력자들 늘어나면 증가하는데, 사업비도 확보해야 하니 필요한 요건의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요", "예산 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모두 해결해야해서, 경력자들이 많은 팀이나 센터는 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요", "인건비는 경력 상승으로 인한 호봉 증가분 반영할 수 있고, 사업도 목표나 지역 상황에 따라 부여하는 방식이면 좋겠어요", "인건비와 사업비는 분리해야 해요.")

- 상시사업과 임시 특화사업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담당자 고용 안정성 개선 필요

("특성화 사업, 임시 특화 사업 증가할 경우 고용불안정, 담당자 이탈 등 업무 환경 악화되므로 임시 특성화 사업을 늘릴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 면밀히 검토 필요해요", "필수적인 특성화 사업 추가 시, 담당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급여체계나 고용형태 고려 필요")

- 낮은 급여·처우, 높은 노동 강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감정 전이 및 소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필요

("급여나 처우도 낮은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사례관리나 위기 개입 시 감정 전이되는 케이스 많아요. 이러한 감정이나 심리 케어는 전무한 상황이에요. 제도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업무 강도 높아서 에너지 소모 많고, 감정 전이도 피하기 어려워서 담당자들의 소진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정책 있다면 좋겠어요")

-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자격 기준이나 해당 규정 부재로 지원 받지 못하는 위기가족이 존재하므로, 신규 서비스 개발보다 매뉴얼 정비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상위 법률 등으로 매뉴얼 규정이 불가하다면, 각 가족센터에서 탄력적으로 의사결정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나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예산 등을 제공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함

("현물이나 현금 지원 등을 필요로하는 위기가족에게 가족센터가 긴급하게 현물 지원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면 좋겠어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있다면 협의를 통해 지원하고 향후 상담 등 다른 서비스 지원하면 효과도 좋은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다른 기관 연계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 신규 서비스에 대한 니즈보다는 기존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매뉴얼 정비, 담당자 자격 요건 변경 등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하며, 소수 참석자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함.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제안 외, 관할 지역 특성상 대상자의 내방 편의성 도모를 위한 아이디어 등이 언급됨.

- (신규 서비스/프로그램 제안: 문화분야 서비스 개발 및 제공) 프로그램 욕구 조사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모임 만들기’나 ‘취미활동 관련 교육이나 모임 만들기’ 등 신설한다면, 센터의 인지도 제고 및 내방 유도 등이 원활할 것

(“사례관리나 상담은 아니지만, 최근 반려동물 가구도 많으니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만들면 내방객도 늘고, 센터 인지도도 좋아질 것 같아요.”)

- (내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료 순환 버스 등 교통수단 제공) 센터 소재지 특성상, 센터 내방을 위한 이동거리가 긴 경우 무료 순환 버스 등을 제공 필요

(“용인은 지리적으로 넓어서 처인구 등에서 수지에 있는 센터를 방문하기에는 이동이 쉽지 않아요. 복지관은 무료 순환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데, 센터는 없어요. 센터도 복지관처럼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대상자 많아요. 1일 3회 정도라도 무료 순환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저희 업무용 차량으로 픽업 서비스 제공해요.”)

2) 기존 서비스 개선시 검토 요소

■ 기존 서비스 내용 변화 및 개선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및 지원 서비스 내용 등에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함.
- 초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는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지원, 국내 정착, 출산(출생) 지원, 유아동 지원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최근 신규 다문화가족보다는 기존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성인이 되는 등 생애주기 변화 발생해 다문화가족의 위기 내용에 변화 발생.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내용 개선이 필요함

(“초기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여전히 다문화가족의 출생, 미성년 자녀의 언어지원 위주인데, 최근에는 미성년자녀기의 다문화가족은 많지 않아요. 다문화가족 초기에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지원 서비스가 변화해야 할 것 같아요.”)

- 현재 신규 다문화가족 증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족원 연령 및 생애단계는 기존의 정책과 불일치하는 사례 많아 신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내용의 변화 필요함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및 지원 내용은 대부분 신규 발생 가족을 대상으로 함. 외국인 배우자 대상 언어 지원 및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자녀 출생(출산) 관련한 지원 등 신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나, 현재 다문화가족의 상당 수는 다문화가족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등 대상자의 생애 단계가 변화함. 대상자의 생애 단계 변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내용이나 양상이 변화하므로 정책 변화가 필요함
(“최근에 다문화가족 신규는 별로 없어요. 다문화가족이 한창 증가할 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군대가는데 사업은 여전히 20년 전 상황이라서, 방임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규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문제예요.”)

■ 가족역량사업 중 현물 지원 가능한 예산 필요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나 취약 가족의 위기 내용 특성별로 대상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한 현물 지원 예산 필요
- 청소년 한부모 가족 대상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진행 중이나, 법률 상 현금 및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 존재함.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등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법률과 실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지원 공백이 발생함. 이러한 사례에 대해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 정비 필요함.
- 청소년부모사업은 일부 현물 지원 가능한데 반해 청소년부모와 유사한 위기상황이나 연령 차이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하는 위기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예산 및 제도 정비 필요
-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지원 신청 후 결과 대기 기간에 긴급 지원 가능한 예산 및 제도 정비 필요
(“청소년한부모 가족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나 규정 외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 센터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 현재 긴급위기가족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심리지원을 가족역량사업 대상가족에 확대 적용 필요

- 대부분의 취약가족, 위기가족의 위기는 만성적 경향, 단일 위기가 아닌 복합적 위기, 1회성이 아닌 다발성 등의 특성을 보이므로 심리적 지지체계가 보완될 경우 지원의 효과 및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가족역량강화 사업은 긴급 위기가족만 심리지원이 가능함. 위기가족은 긴급위기이외에 다양한 위기가 중복된 사례 많으므로, 긴급위기가 아닌 대상자도 필요에 따라 심리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현재 규정상 긴급위기 이외에도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에 놓인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외국인 노동자 가족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이동 수단 제공 필요함

-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자녀는 학교에서 학습하나, 언어 소통의 문제 있는 사례 많음.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으로 언어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중이나, 자녀들이 센터 내방에 어려운 사례 많아 무료 순환 차량 등의 이동수단 지원이 필요함. 현재 가족센터는 내방객을 위한 교통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므로 제도 정비 및 보완 필요함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경우, 언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만, 미성년이 센터로 찾아와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자녀들이 센터에 쉽게 올 수 있게 차량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다양한 위기가족의 문화 및 레저활동 등에 대한 높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경제적 취약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은 캠핑 등 야외 활동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니즈가 높은 반면, 생계활동과 경제적 문제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취약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시 캠핑 등을 동반해 제공할 경우 참여도 높고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함. 전반적인 가족센터 사업의 매뉴얼 정비 및 가족센터 자체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부여 필요

(“취약가족의 경우, 부양자는 경제활동을 해야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캠핑이나 야외 나들이 등을 못해요 이런 가족 대상으로 캠핑 등 제공하면 참여율이 높아요 매뉴얼 정비하고 예산을 늘려서 취약가족에 놀이와 교육 등을 함께 제공한다면 효과도 좋을 거예요.”)

■ 대상자 및 위기 특성별로 현물 지원이 가능한 예산 필요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나 취약 가족의 위기 내용, 대상자 특성별로 긴급한 지원 필요할 경우 현물지원이나 직접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예산 필요: 전체 센터 적용 어려울 경우, 각 센터별로 긴급 지원용 예산 부여 시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탐색 기간이나 적합 기간 신청 후 대기 시간 등 필요 시 지원 가능함

(“청소년한부모 가족이나 위기가족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신청,

대기하는 기간이라도 먼저 가족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해요.”)

■ 가족센터 내방 대상자의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통 수단 제공 필요

- 다문화가족, 가족센터의 타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 지역 내 내방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센터 방문을 위한 무료 셔틀 차량 등 제공 필요
- 각 가족센터별로 내방 대상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 운영비 등의 예산 필요

(“교통취약자를 대상으로 센터 내방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어서 차량 필요하고, 미성년 가족원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방해야 하니 차량 필요해요.”, “현재는 센터 실무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데에도 제약이 있어 본인 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무료 셔틀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이동이 어려워 프로그램 이용 못하는 대상자도 줄여서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3) 구체적인 실천전략 제안

■ 지역사회 내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실천 매뉴얼 작성

-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 영역이나 팀별로 다양한 연계를 하고 협력기관과 협의체 구성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례 논의, 통합 사례 회의 등이 필요함
- 경찰서, 성가정폭력센터, 교육청, 학교, 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쉼터, 응급센터,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대부분의 센터와 각 기관 협조는 원활함

(“저희가 발굴한 사례 중, 전문기관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인계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나, 경찰서, 쉼터 등에서 가족센터로 연결해주기도 해요.”, “가족센터와 지역의 각 기관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정기적으로 협의도 잘 돼요.”)

- 일부 가족센터는 필요 인력 충원이 부족하거나, 경력 담당자의 이직률 높고 신입 담당자 비중 높아 중간 관리자, 팀장 급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의 다양한 협의체에서 가족센터가 주관이 되는 상황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함

(“가족 관련해서 거의 모든 협의체를 주관하게 되는데, 센터에 인력이 부족해 경력 팀원이나 팀장이 담당해야하는 업무도 많은데다 협의체 주관까지 하려면 힘에 부쳐요. 협의체 중에

가족센터보다 더 주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어요. 협의체에 포함되는 것은 필요한데, 꼭 가족센터가 주관기관이 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어요.”)

■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 모든 가족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 발굴함. 연계·협력기관과의 협의체 및 다양한 기관에서의 연결을 통한 대상자 발굴 비중이 가장 높음
- 대부분의 가족센터는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분포가 높은 지역은 올해 신청하거나 발굴한 대상자를 내년 사업 대상자로 연기함. 단, 일부 센터나 일부 특성화 사업은 할당을 채우기 위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느낌
- 네트워크 연계 이외에 학교, 교육청, 경찰서, 돌봄센터 등 기관을 방문해 센터의 사업 소개 과정에서 발굴하며, 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 등 이용 과정에서 사업 인지 후 신청하기도 함
- 학기 초 학교 방문해 소개하거나, 정기적으로 학교내 상담실 등에서 소개·연결, 담임 교사 소개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빈도가 높음

(“학기 초에 학교 찾아가서 기관 소개하고, 교육청에도 사업소개하는 팸플릿 배포해요. 정기적으로 사업 소개하면 각 기관 담당자들이 사례 발생 시 센터로 연락해요.”, “센터 내에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다가 가족센터의 사업 내용을 알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 지역 내 네트워크 이외에 상담 경험자의 소개로 지인이 대상자로 발굴, 지역신문에 사건·사고 기사를 통해 경찰, 언론사 등과의 협력을 통한 발굴이 필요함

(“센터의 상담이나 교육을 먼저 받아 본 분들이 주변에 소개해서 오시기도 해요.”, “지역 신문에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보도된 경우를 발굴하기도 해요.”)

- 대상자나 상담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일 경우, 인근 타지역 센터를 이용하는 사례도 존재함

(“지방 소도시 경우, 가족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주변에서 알게 되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인근 지역 센터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 센터의 캠페인 홍보, 지역 내 공원 및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서의 거점 홍보나 지역 내 현수막 등을 통해 가족센터의 사업을 홍보하기도 함

(“지역 내에 가족센터 사업 내용만 적어서 현수막 걸었는데, 그 때 효과가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다가 현수막 보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센터는 정기적으로 지역내 유동인구 많은 공원이나 큰 건물 앞 등에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기도 해요.”)*

■ 가족위기 지원서비스 대상자 니즈 반영

- 가족특성이나 위기 특성에 따라 대상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상이함.
- 당면한 위기에 대한 해결을 원하며 가족 특성 및 위기 특성에 따라 표면적인 위기 해결보다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 많음. 가족센터의 사례 관리나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지원이나 현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역 내 기관에 연계하는 등 모색함.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됨
- 현물 지원이나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가 가족센터의 상담 등 비물질적 지원은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함
- 4가지 위기 유형 중, 단일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낮은 경제력을 수반하거나 다양한 위기가 중첩된 케이스가 많아 가족센터에서 현물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상자가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함

(“위기가족의 경우, 한 개의 위기만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위기가 중첩되는 경우 많아요. 이럴 경우, 즉각적인 현물이나 현금 지원을 바라는데 가족센터는 현물 지원은 할 수 없어서 더 이상의 관리가 안되는 경우 많아요. 가족센터에서도 현물 지원을 직접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위기가 있는 위기가족인데 가족센터에서 현물 지원 못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기관 찾아서 연결하고, 거기 지원이 끝나면 다시 다른 기관 연계 알아보다보면 일관성이나 지속성 유지가 어려워요.”, “현물 지원 안되면 가족센터의 필요한 다른 관리나 상담도 거부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 가족위기 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상황 및 원인 제거

-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보다 직접적인 현물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원할 경우,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을 대상자 및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지원이 불가함
- (대상자 및 대상자 보호자의 거부·거절에 의해 서비스 제공하지 못한 케이스) 장애모자 가구에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려 연락하고,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계해 추가로 지원 가능한 지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직접적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는 경우, 이혼과 가정폭력, 방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대상으로 현물 지원했으나 부친 거부로 서비스 받지 못한 청소년의 사례 등

(“장애모자 가구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가족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현물이나 현금 지원 안 되니 지속적으로 연락 거절해 종결한 경우도 있어요.”,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했는데, 보호자가 거부하고 문제 해결은 하지 않아서 결국 방임 상태에 놓인 청소년도 있는데, 센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부모 및 보호자에 위기 발생 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등 제공 필요했으나 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의 규정에 의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존재하며 유사한 경우에 가족센터의 인력이 부재하거나 부족해 가족센터에서 지원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함

- (대상자의 소득수준 기준으로 지원 불가능한 사례) 부모가 자살 시도한 아동 가구의 경우, 부모의 치료 등으로 보호자 부재한 상황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했으나 대상자 소득수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족센터에서는 지원 불가함. 당 사례의 경우, 부모·돌봄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 및 지역 내 타 기관에서도 지원할 방안이 부재했음. 이러한 사례는 타 기관에서도 지원이 불가하므로 긴급 지원 등으로 분류해 배움지도사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 정비나, 해당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 등이 필요함

(“부모가 자살 시도한 가족의 아동 자녀에 대해 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했는데,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서 방문지도사를 투입할 수 없었어요. 배움지도사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는 방문지도사와 달리 배움지도사는 시급으로 운영되어,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충원할 수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 (대상자의 자격 기준으로 지원 불가능한 사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경우 불법 체류를 비롯해 비자 종류 등이 다양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경우 위기 발생 시에도 개입 가능한 영역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 및 거주 지원은 불가함

(“저희 지역에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구 많아요. 이런 경우, 자녀의 언어나 학습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하지만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 매뉴얼 정비 및 교육·트레이닝 프로세스 운영으로 서비스 편차 해소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다양한 서비스와 사례관리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매뉴얼 정교화를 통한 담당자간, 센터간 서비스 편차 해소 필요

(“경력직 이탈, 신규 인력 채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상세한 매뉴얼이 있다면 업무 공백이나 담당자 경력차로 인한 서비스 품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촘촘하지 않아서 사례관리 시, 지원 가능 범위나 대상 등을 알아보고 유관 기관에 문의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량이 많아져요.”, “신입 담당자가 매뉴얼 숙지하고 업무하면

실수나 착오가 없을 정도의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해요.”)

- 매뉴얼과 함께 신규 인력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와 한국가정건강진흥원의 교육·트레이닝 프로그램 강화

(“신입이나 사업 담당자가 곧바로 대상 가족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트레이닝 필요해요. 지금은 선임자, 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량도 많아서, 여가부나 한가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면 좋겠어요.”)

3. 가족위기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

1) 진단지표 및 성과지표

- 현재 가족센터에서 사용하는 가족위기와 관련된 진단지표와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함

- 특히 가족센터의 사업은 정성적으로 수행, 평가되어야 하는 성격인데 반해,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강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강한데 반해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지 않음. 성과지표는 여성가족부, 한국가정건강진흥원과 가족센터 실무자 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함

-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사업 수행하는 상황에서 1인당 25건, 20건으로 일괄 책정·평가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사례관리 및 가족역량강화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탐색하거나 대상자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최종 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성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의 투입 시간 및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발생

(“질적인 서비스를 양적으로 목표를 주고 측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양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는데, 각 센터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사례 수를 조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해요.”, “사례관리나 서비스 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 많은데, 요건이 안되어 사례관리 할 수 없는 케이스는 담당자가 시간과 노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런 노력이나 시간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 사례관리 후, 퇴사하는 실무자 많아 인력 채용과 교육 등 필요하며 신규 인력 투입

시 서비스 연속성 및 품질 유지 어려움. 사례관리의 업무 피로도 높아 사례관리와 위기관리 할당 건수 조정 등이 필요함

- 사례관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 강도 높아 퇴사 등 이탈률 높음. 특히 2-3년 이상 숙련도의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신입 인력 충원, 교육, 트레이닝 등이 필요하므로 가족센터 지원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품질 관리 어려움

(“사례관리 끝나면 퇴사자가 급증해요 사례관리만 하는게 아니라 긴급위기관리도 별도로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탈률 높아요”, “2-3년 등 숙련된 복지사가 퇴사할 경우, 신규 채용이 필요한데 유사한 숙련도를 갖춘 인력 채용은 어렵고 신입으로 채용하는데 업무 강도는 높고, 급여는 높지 않아서 채용 자체가 어렵기도해요”, “신규 인력 채용하면 교육과 트레이닝 등이 필요한데, 매뉴얼이 상세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지원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거나 품질이 낮아지는 경향 있어요.”)

■ 가족센터에서 지원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측정 방법 및 내용 개선 필요

- 10년 이상 이전에 구축된 만족도 평가 척도와 내용을 현재에도 사용함. 변화된 환경, 프로그램 내용 등을 반영한 척도나 측정 항목 등에 개선이 필요함
- 사례관리의 경우, 사전과 사후 측정이 필요함. 사후 만족도로만 평가하는데 한계 있으며 완료한 사례관리에 대한 평가 시, 사전 위기 상황이나 문제점, 대상자 니즈 등을 측정하고, 사후 상황 및 문제점 해결 체감 등 사후 평가 필요함

- 사례관리 시, 사후 평가만 진행하며 척도와 평가 방법등의 개선과 함께 사전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사례관리 후, 대상자 만족도만을 단순히 평가하므로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평가가 될 우려가 있음. 사례관리 이전이나 사례관리 중에도 대상자의 니즈 및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대상자와 복지사의 라포형성, 지원 서비스 품질 및 내용 개선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질적인 서비스를 측정하려면, 사례관리나 위기개입 이전의 상황과 이후를 비교하는 질적인 성과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상자에게 묻는 만족도 문항도 10년 이상 된 문항이라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 사후 평가와 각 단계별로 라포형성 등을 평가하면 현장에서 개선 포인트도 찾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 가족센터의 제반 사업이 질적인 개선을 지향하는데 반해 평가 및 목표 수립은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센터의 지역 특성, 대상자 특성 분포, 위기의 종류별 분포, 센터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설정 시, 센터의 특성 고려 과정 필요) 현재 사례관리와 위기관리 목표 건수를 일괄적으로 할당할 경우, 복지사의 업무 강도 확대, 복지사 이탈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센터

존재함. 센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거나, 특정 센터의 경우 긴급위기관리 건수를 통합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센터별로 청소년부모가족을 발굴하기가 용이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목표를 잡으면 좋겠어요.”, “위기관리 건수와 일반 사례관리를 구분해서 정하고 있는데 분리하든가, 긴급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위기 규모나 대상자 규모 등을 반영해서 사례관리를 줄이거나 하는 운영이 필요해요.”)

- (연인원 산출 방식 개선) 사회복지사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역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연인원 산출 방법의 변경 필요함

(“통상적으로 연인원이나 인건비 등 계산 시, 필요/재직 인력 인원 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탈률 등을 고려해 1명이 아닌 0.9명이나 0.95명 등으로 산출하는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1명으로 산출해요. 그러다보니, 이탈하는 인력이 상시 발생하고 총원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총원 후에도 교육 등의 시간이 필요해서 기존 인력의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복지사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중간 관리자 및 경력 복지사의 업무 강도 높아져 연속적으로 이탈이 발생하기도 해요.”)

- 질적 서비스를 정량적으로만 목표 수립, 성과 측정하는 과정에서 업무 강도 강화, 실무 담당자의 업무 만족도 저하, 센터의 핵심가치나 비전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탈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 구성에 개선 필요함

- 여성가족부에서 일괄로 목표 및 성과지표를 구성해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센터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필요함. 모든 개별 센터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광역 지역별 협의 및 조정 후 여성 가족부와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목표 주어지는데, 센터 상황이나 의견을 반영해 지역센터별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목표로 조정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2) 사례관리 담당자의 업무 강도 개선 및 표준화

- 지원서비스별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력과 예산 부족 및 강한 업무 강도, 담당자의 짧은 근속 기간, 매뉴얼이 정교하지 않아 담당자간 편차 발생,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과정에서 담당자의 감정 전이 및 감정 소진에 대한 케어 부재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됨

- 인력, 예산 부족 및 강한 업무 강도

-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는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자 등의 급여 및 처우와 연결되어 있음.

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높는데 반해 급여와 처우는 낮아 인력 이탈률 높으며 신규 총원이 어려워 인력이 부족하며, 자격 요건 및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함.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재직자의 업무 강도는 높아져 담당자 소진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임

(“인력이 부족한데다, 급여나 처우도 좋지 않아 이탈 많아요. 급여나 처우가 낮으니 원하는 경력이나 자격요건 충원은 어려워 신입으로 충원하게 되고, 경력직이 필요한 자리에 신입으로 충원하면 중간관리자 업무가 많아져 악순환이죠”, “전문 상담사와 경력 많은 분으로 충원 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 모시기 쉽지 않아, 결국 이탈하지 않는 담당자들 업무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 (운영비 별도 책정 어려워 업무 수행 시 교통비 등의 비용을 사비로 지출) 예산이 부족해 대상 가족 방문 및 네트워크 기관 방문 시 관용 업무용 차량 이용 불가할 경우의 교통비 등은 사비로 충당하거나 개인용 차량을 이용함. 대상자 방문과 사례관리 등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비용(예: 정리 수납 필요한 경우 필요 물품, 가구 구입 비용 등)을 예산에서 집행하기 어려워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는 사례도 있음

(“업무용 차량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요. 업무용 차량 없으면 개인 차로 이동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게 돼요”, “사례관리 중에 대상 가구에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경우도 별도 예산이 없어서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기도해요.”)

■ 담당자의 짧은 근속 기간 및 자격 요건 갖춘 인력 충원 어려움

- 자격요건 및 숙련도 대비 낮은 급여와 처우, 강한 업무 강도 등 원인으로 담당자 근속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자격 요건 갖춘 인력 충원 어려움: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문 상담사로 석박사 학위자나 상담 경력 많은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 해당 조건으로 충원 시, 2-3일 근무 후 그만두는 경우 많아요. 센터에서 원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은 급여조건이 맞아야 하고, 행정 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충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은 객원상담사로 운영하고 있어요”, “높은 자격요건에 비해 급여가 낮아 충원이 어려워요, 중간관리자는 실무와 신규 인력 교육 등 업무 강도가 강해지죠.”)

- 호봉체계를 적용하지 않은 급여로 숙련 사례관리사 등 담당자 이탈 심화

(“사례관리사가 특성화 인력으로 분류되어 상시사업 담당자와 급여에서 차이 발생하고, 특성화 사업 중단 시 고용 중단해야 해 이탈 인력 많아요”, “상시사업 담당자는 호봉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한데, 특성화 사업은 사업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고용이 불안정해요. 급여도 높지 않는데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니 인력 충원 어려워요.”)

■ 정교하지 않은 매뉴얼, 교육 및 트레이닝 부족으로 인한 담당자간 서비스 편차 발생

- 매뉴얼 정교화 부족

(“경력자 이탈, 신규 인력 채용이 빈번해서 매뉴얼이 상세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례관리 대상자나

상황 특성별로 매뉴얼이 정교하지 않아서 누락, 실수 등이 있어요.”,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등을 탐색하는데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아서 담당자간 서비스 편차도 발생해요.”)

- 교육 및 트레이닝 부족

(“매뉴얼이 정교하지 않아, 경력직이나 선임, 중간 관리자의 교육이나 트레이닝 필요한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필요를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트레이닝하기 쉽지 않아요.”)

■ 담당자의 소모 및 소진 심화

- 담당자의 높은 업무 강도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체력 소진 심해요. 위기 개입 과정에서 자살 현장이나 사고 현장 등을 목격한 담당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있는데 센터내에서 담당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지역 내의 재난재해 등 큰 사고 후 퇴사율도 높아져요”, “긴급 위기와 관련된 스트레스 이외에 사례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황 및 감정 전이도 있어요.”)

- 사례관리 및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담당자의 심리·정서적 케어 및 지지

4. 시사점

■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반 연계를 위한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에서 가족센터는 학교, 교육청, 경찰서, 돌봄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기가족의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역 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가족위기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지역기반의 가족센터의 대상자 발굴이나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 즉 가족센터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가족위기 대응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있음

■ 가족위기 상시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가족센터의 사업과 조직을 개편할 필요있음

- 다양한 위기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기 보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운영 방식 개선이 더 효율적으로 평가됨
- 현재 가족센터에서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등 가족유형의 일부에게 집중된 위기

지원을 가족위기 유형과 위험수준별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특히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가족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을 위기발굴과 개입, 사후관리 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매뉴얼 체계가 요구됨
- 이를 위해 위기지원 상담과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이 제안됨
- 또한 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해 사회 변화 및 가족 변화에 맞추어 기존 서비스 내용 및 방식 개선, 가족역량사업 중 현물 지원 가능 예산 확보 등 지원서비스 개선, 대상자 및 센터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예산 확보를 통한 대상자 니즈 및 편의성 제고 등이 요구됨

■ 가족위기 지원을 가족유형 중심에서 가족 내 모든 구성원의 위기 지원으로 확대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가정내 폭력이나 가족원 중 누군가의 실직 등 가족위기는 그 피해자나 당사자 이외에 모든 가족원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가족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위기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가족위기의 유형별 심각성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가족원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함

■ 가족위기의 유형별 심각성의 정도를 진단하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위기관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있음

- 우선, 가족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진단지 개발이 시급함
- 더불어 위기지원 상담과 사례관리 효과성을 측정할 도구도 필요함
- 특히, 정서적 위기와 돌봄 위기에 즉각 투입가능한 지지 인력과 돌봄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담을 갖추어야 함
- 위기가족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위기 수준을 점검하고 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
- 가족위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기에측지표 등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중요함

■ 가족센터는 위기가족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를 개발해야 함

- 가족센터의 위기관리 특화서비스는 고독·고립·외로움 지원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우울증 등의 사전 검사와 병원 연계 지원, 가족일상의 중단이나 마비 상황에서 일시적 일상생활관리 지원,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가족원 대상의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함
- 이러한 가족센터의 위기지원 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들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제5장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정책지원을 위한 가족위기의 개념과 범위

제2절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제3절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제4절 가족위기 지원체계의 실행과제

1. 가족위기 개념

■ 가족위기의 개념

- 본 연구는 가족위기를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념화하고, 법에서 정의된 위기가족의 개념에서 부터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으로 정의함
 - 가족기능의 약화란, 가족고유의 기능인 경제적 협동(생산과 소비)의 기능, 자녀 양육과 사회화(교육과 사회화)의 기능, 애정과 정서(돌봄과 가족관계)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으로 파악.
-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위기가 사회문제의 기본이며 원인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함
 - 가족이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이나 가족발달상의 위기, 또는 가족 내 스트레스나 가족원 개인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① 가족의 고유한 기능(예를 들어 출산, 양육,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함. 이러한 상황은 가족이 사회의 일차적인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의 커다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또한 가족위기는 ② 가족 내 구성원간의 관계나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말함. 이러한 상황은 가족 내 개인 또는 가족원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불안정성이 사회 구성원의 고립과 우울, 외로움 등의 지지 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함

2. 가족위기의 유형과 특성

■ 가족위기의 유형

- 본 연구는 가족위기의 범위와 관련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함
 - 발달적 위기 :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
 - 관계적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
 - 개인적 위기 :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

- 가족외적 위기 :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국가 간 전쟁이나 테러, 사회적 범위(유괴) 등

■ 가족위기의 특성

- 가족위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함
 - 예측가능성 :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업이나 역할변화에 따른 위기는 예측가능 하지만, 최근에는 그 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도 존재함
 - 지속성 : 동일한 사건이나 스트레스도 지속여부에 따라 만성위기와 응급위기로 구분될 수 있음.
 - 중복성 : 가족이 지각하는 위기는 하나의 원인보다는 복합적이거나 하나의 위기와 다른 위기가 중복해서 경험되는 경우가 많음
 - 의존성 : 동일한 가족위기라도 가족이 이전에 경험한 위기가거나 가능한 자원이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 인식 정도가 낮은 경우 위기의 강도가 낮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경험, 자원, 인식정도 등에 의존성이 높음

3. 가족위기의 정책적 지원 범위

■ 1단계 : 가족위기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범위 설정

- 가족위기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통해, 가족위기 유형과 가족위기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가족위기 개념을 부정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함
 -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정책 지원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그동안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집중해 온 '위기가족긴급지원'은 포괄적 범위 내 일부로 포함됨
 -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한 포괄적 가족위기 개념은 위기가족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가족위기 유형에 따른 정책적 지원은 다음을 의미함
 - 발달적 위기 : 개인 생애주기에 따른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발달과업에 따른 적응 지원, 또는 개인 생애주기에 준비된 과업이나 완수되지 못하는 과업에 대한 불안감과 적응 지원

- 관계적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 사회적으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위기 점검과 가족의 취약 기능에 따른 가족위기 점검 및 지원
- 개인적 위기 : 가족원의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기능 중단 및 지원 서비스로 확대 지원.
- 가족외적 위기 : 사회적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개입하여 가족의 취약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개입 필요

● 구체적으로, 가족위기 특성에 따른 정책적 지원은 다음을 의미함

- 예측가능성 :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한 예방적·보편적 서비스 지원 적합
- 지속성 : 사건이 일으킨 스트레스 응급 크기와 지속여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신고가 되는 폭력사건에 관련된 가족 대상 가족위기 측정 필요
- 중복성 : 가족이 지각하는 위기중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가족의 균형성과 항상성을 무너지게 하므로, 가족위기 진단시 가족원의 경제적 상황과 또다른 가족구성원의 만성적 어려움 판단에 따른 가족위기 측정과 지원 필요
- 의존성 : 가족의 강점기반 가족위기 지원 필요

■ 2단계 : 가족위기의 조건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적 지원 범위 설정

- 가족위기의 정책적 지원 범위는 일차적으로 포괄적 접근으로 정하지만, 가족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나 취약한 자원의 성격, 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우선적 지원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즉 위기가족이나 취약가족의 경우 스스로 회복할 수 없거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취약하여 다른 위기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선적이고 선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가족위기 : 가족위기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 위기가족 : 가족위기 중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가족원이 가진 자원과 강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된 가족
 - 취약가족 : 가족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 등 자원의 취약, 가족 기능의 취약성을 가져 위기 대처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나 상황에 놓인 가족,

■ 결국, 정책적 가족위기 지원 범위는 가족위기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지원과

사후적 지원이 가능함

- 사회적으로 현재 가족과 사회 유지를 위해 요구하는 돌봄 기능의 취약성을 지원하며, 사회적 문제 발생이 가능한 가족원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예방차원에서 위기를 지원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가족위기에 대한 가족 정책적 지원 범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5-1] 가족위기에 대한 가족 정책적 지원 범위

유형 특성	발달적 위기	외적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예측가능성	위험요인 사전 발굴 등 예방적 서비스 영역			
지속성	가족위기 진단을 통해 우선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족 선정			
중복성				
의존성	가족 교육 및 공동체를 통한 자원 지원 영역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한 영역으로 예방적 서비스 영역			

- 향후 가족위기를 측정하여 위기가족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위기 유형 요인(발달적 위기, 외적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 위기 특성 요소(지속성, 중복성, 의존성) 관련요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요인의 가중치와, 가족구조에 따른 가중치를 두고, 가족의 돌봄과 정서적 기능의 취약성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1. 지원의 방향과 체계

1) 기본 방향

(1) 가족위기의 유형과 특성에 근거

■ 가족위기의 개념과 유형

- (개념) 가족위기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함
- 법에서 정의된 위기가족의 개념에서 부터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으로 접근됨
- (유형) 가족 기능 중단을 가져올 수 있는 가족위기 유형은 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로 구분됨

〈표 5-1〉 가족위기의 유형과 주요 내용

구분	가족위기 유형			
	발달적 위기	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족외적 위기
내용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 갈등 등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 가족위기의 유형에 따라 가족위기의 정도가 다르며,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방법도 달라야 함

- 예측 가능한 위기는 예방적 사전 지원이 가능하나, 위기의 지속성, 중복성, 해결 가능한 자원의 보유 여부에 따라 가족위기의 정도는 달라지며 개입 시기의 적절성에 따라 위기의 지속성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가족위기의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위기라도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가족위기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함

- 예측가능성 :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업이나 역할변화에 따른 위기는 예측가능하지만, 최근에는 그 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도 존재함
- 지속성 : 동일한 사건이나 스트레스도 지속여부에 따라 만성위기와 응급위기로 구분될 수 있음.
- 중복성 : 가족이 지각하는 위기는 하나의 원인보다는 복합적이거나, 하나의 위기와 다른 위기가 중복해서 경험되는 경우가 많음
- 의존성 : 동일한 가족위기라도 가족이 이전에 경험한 위기이거나 가능한 자원이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 인식 정도가 낮은 경우 위기의 강도가 낮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경험, 자원, 인식정도 등에 의존성이 높음

■ 가족위기 지원은 약화된 가족기능을 파악하고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가족위기는 복합적이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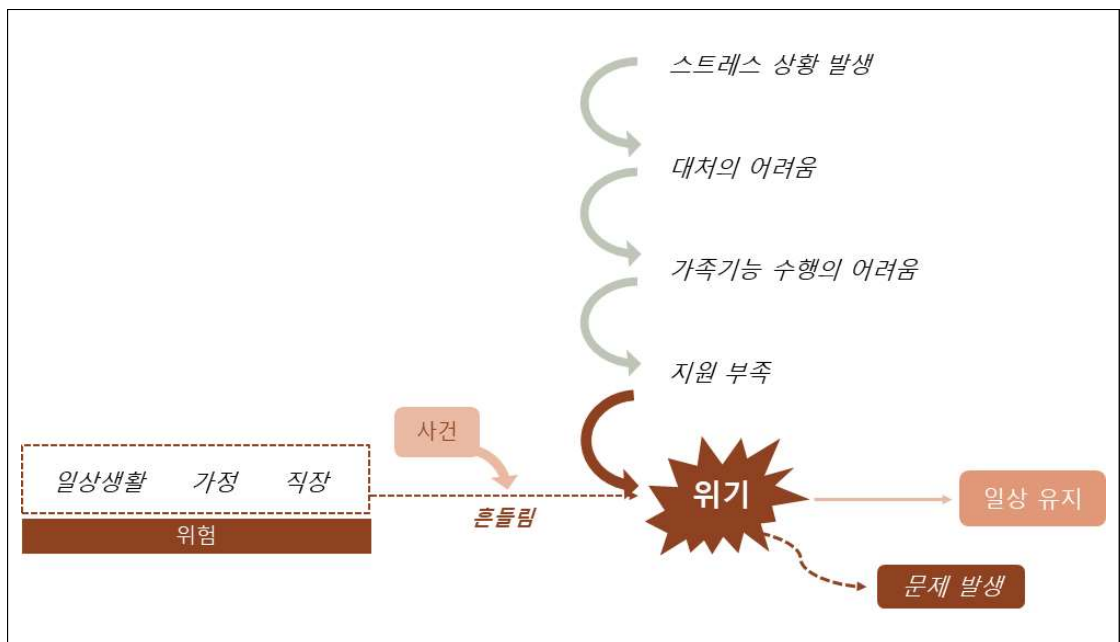
- 가족위기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가족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의 출산지원, 관계지원,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가족위기는 복합적이고 하나의 위기와 다른 위기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된 가족구성원 모두의 개별적 가족위기를 관찰하고 대응해야 함
- 관계적 위기는 이웃 등 가족이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관계적 위기를 가족위기 접근 시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가족위기는 가족의 근본적인 경제적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이후 가족위기 파악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위기가족 발굴은 폭력, 방임, 학대 등의 유관기관의 지원대상자나 보호 대상들의 가족구성원들의 발달적위기, 관계적위기, 개인적위기, 외적위기가 함께 점검되고 필요한 자원이 연계되어야 함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파악

■ 가족위기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가족위기가 사회문제의 기본이고 원인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함

- 가족위기는 가족이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이나 가족발달상의 위기, 또는 가족내 스트레스나 가족원 개인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가족의 고유한 기능(예를들어 출산, 양육,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함. 이러한 상황은 가족이 사회의 일차적인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위기의 커다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또한 가족위기는 가족내 구성원간의 관계나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말함. 이러한 상황은 가족 내 개인 또는 가족원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불안정성이 사회 구성원의 고립과 우울감, 외로움 등의 지지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함

[그림 5-2]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가정의 위기 파악



■ 가족위기 지원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속에서 파악하고 연계해야 함

- 가족위기에 대한 접근은 사례 발굴, 지원과 연계, 관리와 모니터링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기 이전 사전 위험 요인 제거나 완화의 효과를 기대함.
- 사회적 문제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가족 소멸을 포함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역사회협의체의 위험 진단에 가족위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연계해 기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위기에 대한 가족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때의 가족서비스는 가족고유기능 회복이나 유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이나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가족원전체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의미함

- 그러나 가족정책에서는 돌봄공백 지원과 불안정한 정서지원과 지지로 직접적으로 위기에 개입하여 가족대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법, 금전, 의료, 주거 등의 자원은 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내에서 통합 지원해야 함

■ 결국, 가족위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의 유지와 안녕에 기여하게 되는 것임

2) 기본 원칙

(1) 체계화

■ 지역단위 서비스의 연계와 중앙-지역 서비스의 체계화

- 가족위기에 대해 지역단위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위기를 직접 지원하며, 관련 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지향함
- 가족정책 범위내에서 지역의 가족센터에서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함

■ 이러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지향하는 가족위기 지원의 대상과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대상) 가족구성원과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원
- (목표) 위기가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① 위기로 인해 마비된 가족 유지 기능, 생활기반 기능 지원을 통해 가족의 일상 및 대외적 기능(사회적 안정성) 회복 ②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등의 목표를 지향함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가족 고유 기능 중단에 따른 지원으로 가족의 안정성 및 일상 회복
 - 개인의 불안정성 완화로 일상 회복
 - 이를 통한 위기 상황 지속의 단축 및 사회적 위험 요소 제거

(2)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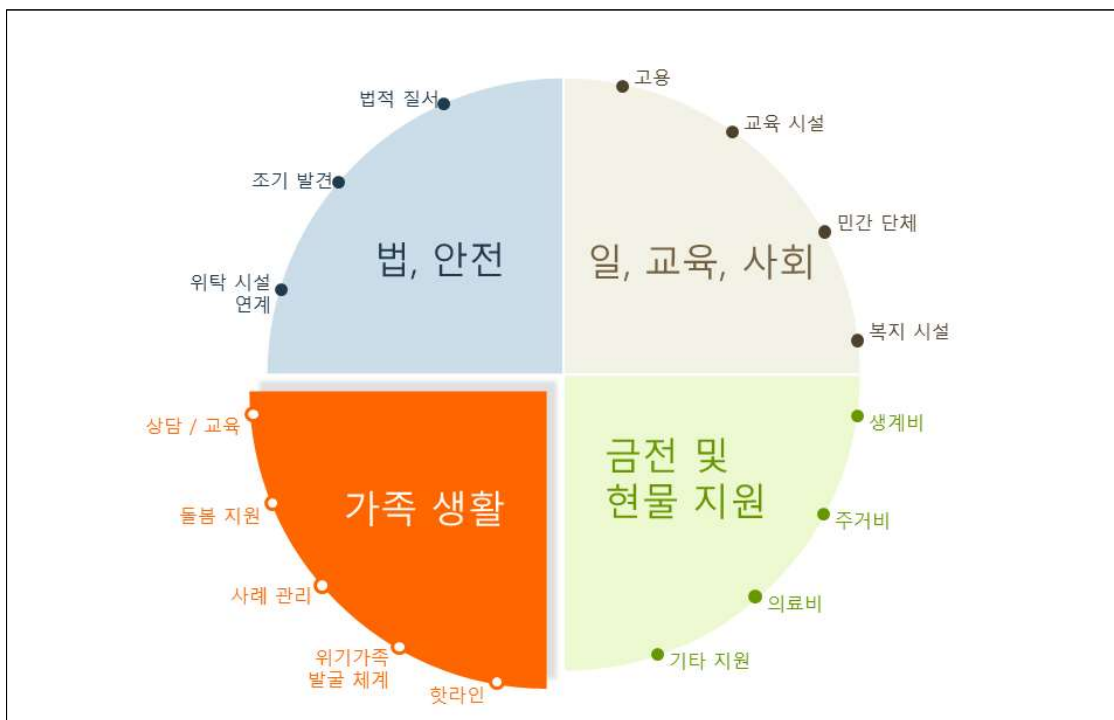
■ 중단된 가족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 특화된 서비스

- 가족위기 대상자 발굴 이후 직접적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위기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함
- 가족위기 서비스 지원은 가족의 고유한 기능(예를들어 출산, 양육,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나 가족 내 구성원간의 관계 및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서적 지원과 돌봄지원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족의 정서적 역기능 문제 해결 지원과 돌봄 공백 위기 지원이 필요하며, 가족센터에서는 정서적 지원은 상담서비스로, 돌봄 공백 지원은 돌보미 파견 등의 전문적인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법, 금전, 의료, 주거 지원 등 전체적인 가족위기 지원을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타 기관과 협력, 연계해야 하지만, 가족정책에서는 돌봄공백 지원과 불안정한 정서지원 및 지지에 집중하여 직접적으로 위기에 개입함

[그림 5-3]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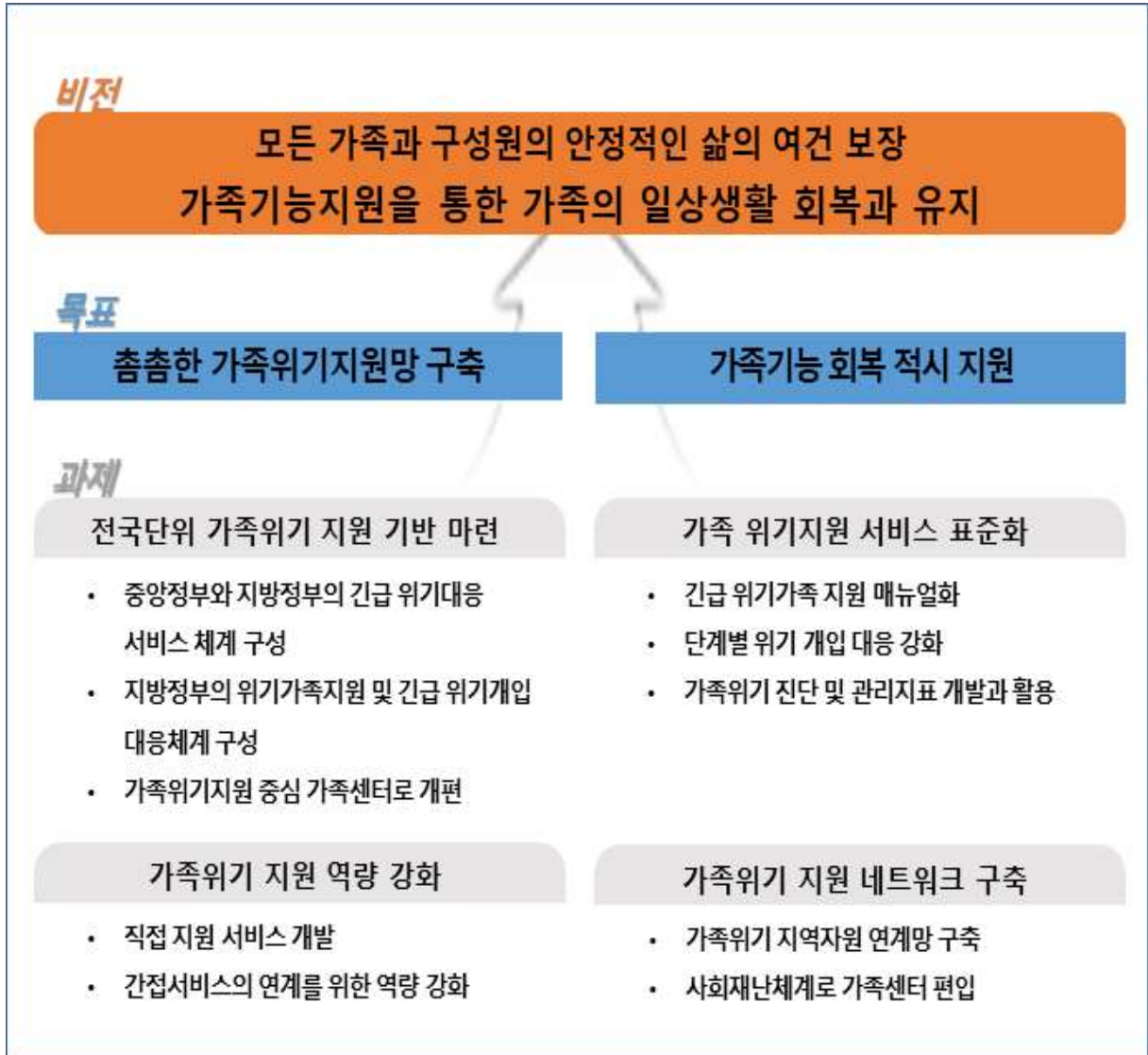
■ 위기의 위험수준에 따른 지원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특화서비스

- 기존에는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가족위기 지원도 종결되었으나, 향후에는 발달적 위기나 관계적 위기의 위험수준 진단에 따라 가족위기의 유형을 발굴하고 진단하도록 하며 사후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추적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가족센터의 서비스로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금전 및 현물 지원, 일, 교육, 복지시설, 법률지원 등은 관련된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협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강조됨

2.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체계

[그림 5-4]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체계



■ **비전 : 가족기능지원을 통한 가족의 일상생활 회복과 유지**

-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은 “가족기능지원을 통한 가족의 일상생활 회복과 유지”로 설정하고자 하며, 구성 의미는 다음과 같음
- 가족위기 지원은 모든 가족과 가족구성원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함
- 가족은 가족내에서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아야 하며, 따라서 가족기능이 중단된 가족에게 그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함

2) 정책 목표

■ **목표 1 : 촘촘한 가족위기지원망 구축**

- 가족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은 모든 가족으로 확대되며, 소외된 가족이 없도록 함
-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은 가족내 생활을 함께 하는 모든 구성원의 가족위기까지 포함함

■ **목표 2 : 가족기능 회복 적시 지원**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가족기능의 변화에 적응하고 약화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직접지원-연계-사후관리 등 지원체계를 갖추
- 가족위기의 유형별 위기 상황을 미리 분석하여 예측 진단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에 처한 가족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도록 함

3. 중점과제 및 추진과제

1) 전국 가족위기 지원 기반 마련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급 위기대응 서비스 체계 구성

- 중앙정부의 위기가족 지원 및 긴급위기 대응체계는 주로 국가 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선포된 경우에 국가(중앙정부)주도의 위기대응체계가 작동됨
 - 과거 세월호침몰사건이나 천안함포격사건, 연평도피격사건, 이태원참사 등의 국가 재난과 2022년 울진산불피해, 포항아파트홍수피해 등의 사회적 재난 시에 위기대응체계가 중앙정부 주도로 관리되어짐

- 중앙정부(주무부처: 행정안전부)의 국가 재난관리 체계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재난관리실에서 주도함
 - 가족생활에서 안전 및 재난과 관련된 사건의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지면서 이에 따른 가족위기도 다양하게 발생됨
 -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활문제와 직결되어 재난안전과 관련된 행정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 재난관리실에서 안전정책실, 재난협력실, 비상대비정책국 등과 협업하여 전반적인 재난위기 관련 대국민지원을 수행함
 - 재난 대비훈련에서부터 재해의 일일상황과 재해연보 게시, 실시간 안전정보제공(안전디딤돌) 및 비상시 재난안전통신망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시스템 운영과 함께 재난배상 책임보험 관리에 이르기까지 재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표 5-?표)
 - 재난과 관련된 대비훈련 및 대응체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청), 공공기관, 긴급구조기관(119응급구조대, 의료기관 등)등의 주관기관 외에, 소방·경찰·군부대, 긴급구조지원기관, 민간기업과 단체, 일반 국민 등의 재해 시 참여기관으로 구성됨.

[그림 5-5] 재난 대비 (훈련)체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업무안내/재난관리실/주요업무>

-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하여 재난 시 주된 대국민서비스로서 국민행동요령과 민방위 대피소 정보와 관리, 풍수해 보험과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며, 그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재난예방대비 : 국민행동요령, 자율안전점검, 재난훈련, 비상연락망, 비상대처요령 등
 - 재난심리상담 : 심리회복 소개, 사진 및 영상자료, 심리회복지원센터, 자가진단 등
 - 재난 현황 : 풍수해, 적조, 산불, 재난문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진옥외대피소, 임시주거시설,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의료기관 정보, 피해현황, 복구현황 등
 - 민방위 : 민방위 교육일정, 민방위 경보, 비상시설, 민방위 장비, 화생방 등

- 풍수해보험 : 풍수해 보험안내, 가입절차, 지급사례, 산출방법, 풍수해이야기 등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복구진도 등록, 설문조사 등
 - 기 타 : 찾아가기 링크, 안내도우미, 배너모음, 공지사항, 자료실 등
- 특히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에서 재난 발생 시,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어 재난 시에 지역사회 기반에서 각종 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자원(인적, 물적)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어느 기관에 있는 알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2014년부터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지역사회 기반의 가족위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이후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 하여, 2016년 중앙부처와 공사공단 등 189개 기관으로 확대되고 2017년 민간단체 19개 팀이 추가 됨

[그림 5-6] 재난관리 시, 정부의 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업무안내/재난관리실>

(2) 지방정부의 위기가족지원 및 긴급 위기개입 대응체계 구성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단위의 위기가족지원 대응체계는 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할함
- 가족센터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산하의 가족복지전달체계이므로, 공공행정조직과의 상호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하에서 다양한 위기 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음

- 지역사회(시군구, 읍면동) 단위에서 개인과 가족(발달 및 관계)적 위기 사건만이 아니라 가족외적 위기(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기 사건에 대한 고유의 기능과 영역에 집중하여, 주로 가족기능의 향상과 회복을 위한 가족 상담과 치료, 심리·정서적 지원(지지리더 파견) 외에 위기사건 당사자의 가족을 위한 돌봄(어린 자녀, 고령의 조부모)과 일상생활 지원(배움지도사와 키움보듬이 파견) 등의 서비스를 요청 받음
- 현재 모든 가족센터가 지역사회의 위기대응 기관으로서 협조요청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사건에 대비하여 각 지역센터 마다 위기대응을 위한 센터 자체의 지원 체계구축 및 지자체의 행정전달 체계 내 긴급 지원체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 및 긴급 위기 대응체계 안에서 가족센터는 13개 전체 안전 및 긴급위기 대응 영역 중 ‘긴급생활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지자체 단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과별 주요 임무에 있어서 ‘긴급 생활안정’과 관련된 부서들의 주요 업무 중 피해주민의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과 재난심리회복지원의 피해주민 심리상담지원 부분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5-2> 지방정부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대응 업무와 역할 중 가족센터와 협력 가능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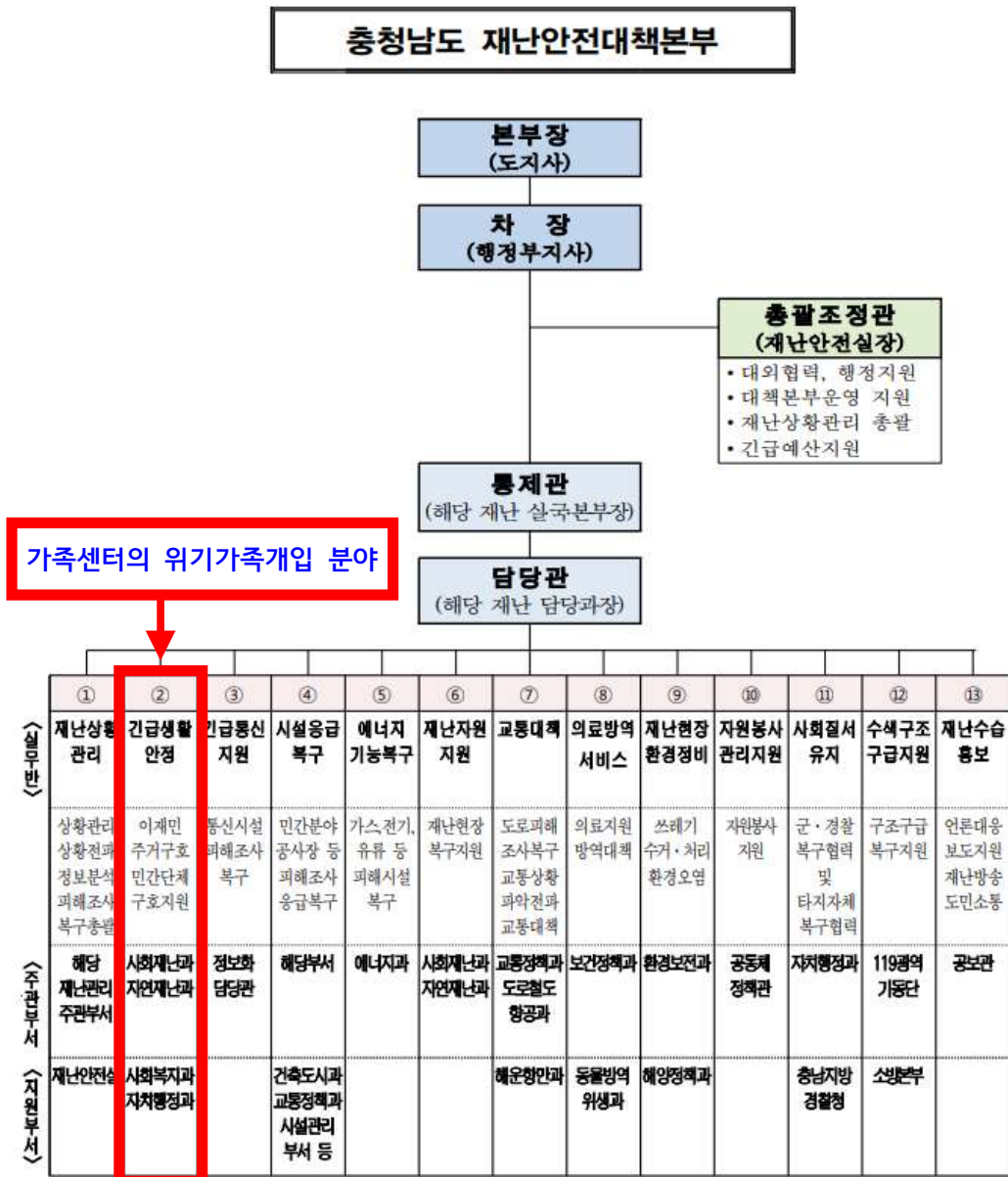
위기 대응 유형	담당 부서	주요 업무와 역할
긴급생활 안정지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 임시주거시설 지정 ·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 대책 검토 - 재난 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주: 가족센터와 협력 가능 분야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함
 자료 :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safetysub01_02.do

- 예를들어 충청남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기대응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가족센터의 위기가족지원 업무는 긴급생활안정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위기사정 긴급지원, 심리사

회적 지지 및 재난 심리회복 지원, 재난 심리상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 및 물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그림 5-7]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 및 긴급 위기 대응체계와 가족센터의 개입 분야(충청남도 사례)



자료 : 충남연구원·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2019). 재난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초기행동매뉴얼 작성(p.21) 자료를 근거로 연구자가 제한함

〈표 5-3〉 지역사회 내 위기 대응 지원 기관의 세부 서비스 내용과 가족센터의 연계 가능 업무

행정안전부	적십자사 재난구호	
재난관리실	재난구호사업(긴급구호)	복지사업(평시 구호)
1) 재난대비훈련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SKX: Safe Korea Exercise) - 어린이재난안전훈련 - 상시훈련	1) 재난구호 - 구호품 지원 및 이재민대피소 설치 - 심리사회적지지 및 재난 심리회복지원 - 구호요원 양성 - 재난취약계층지원 - 레드 알람 - 흑서·흑한기물품지원	1) 위기가정 긴급지원 -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의료지원 - 교육지원 - 기타지원
2)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재난예방 대비 - 민방위 - 풍수해보험 - 재난 심리상담 - 재난현황 - 참여와 신고 - 기타	2) 재난안전교육 (재난 예방,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구호 전문 인력 양성교육 -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 재난안전센터운영	2) 저소득가정 사회적 이슈 및 생애주기 별 맞춤형 지원 - 이혼등이 지원(산모, 미숙아) - 출산용품 지원(산모) - 위생용품 지원(여성청소년) - 모국방문 지원(다문화가정) - 가족여행 지원(저소득 가구) - 명절(설, 추석)물품 지원 (“) - 겨울철 김장김치 지원 (“)
3)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3) 교육 및 연구 - 재난복원력센터 - 안전지식교육 - 응급처치/수상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 인도주의/국제인도법 보급	3) 결연지원(정서, 물품 지원) - 독거노인, 노부부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 아동청소년 - 범죄 피해자, 장애인 등 위기가정 - 다문화가정, 북한이주민, 난민 등 이주취약계층
<기타 사업> - 재난배상 책임보험 - 재해연보 - 안전디딤돌(안전정보) - 안전관리 일일상황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 (www.safenet.go.kr)	<기타> - 공공의료사업 - 혈액사업 - 국제사업(국제교류, 해외재난구호/개발협력) - 인도주의활동가 양성	4) 특수복지 - 원폭피해자지원 - 사할린동포지원

주: 가족센터와 협력 가능 분야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함

(3) 가족위기 지원 중심 가족센터로 개편

■ 기존 가족유형이 아닌 가족위기 유형별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개편

- 가족생애주기별 위기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 가족관계 위기 단계별 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 방식

- 외적 위기시 돌봄과 정서 지원, 사후관리 지원 내용과 방식
- 개인특성(우발적 사건 등) 별 지원 내용과 방식

[그림 5-8]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중심으로 제안한 기본사업 재편(안)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영역	기본사업	사업영역	기본사업	비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 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조부모 역할 지원	가족발달	가족내 역할(부모, 부부, 등) 교육과 상담, 혼인·부양등 가족가치 가족다양성 인식 교육	ㄱ위기 진단시 가족위기사례관리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관계	가족내 역할갈등 상담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인가구 지원, 다문화 가족자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개인	자기돌봄: 개인별 자기돌봄 역량 교육, 상담, 일상생활: 개별 일상생활관리역량 일가정양립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다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기타(사업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업)	지역공동체 참여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외톨이, 소외문제 지원	
		사회재난 위기 등		사회재난 발생시 돌봄 위기 지원 및 지역자원연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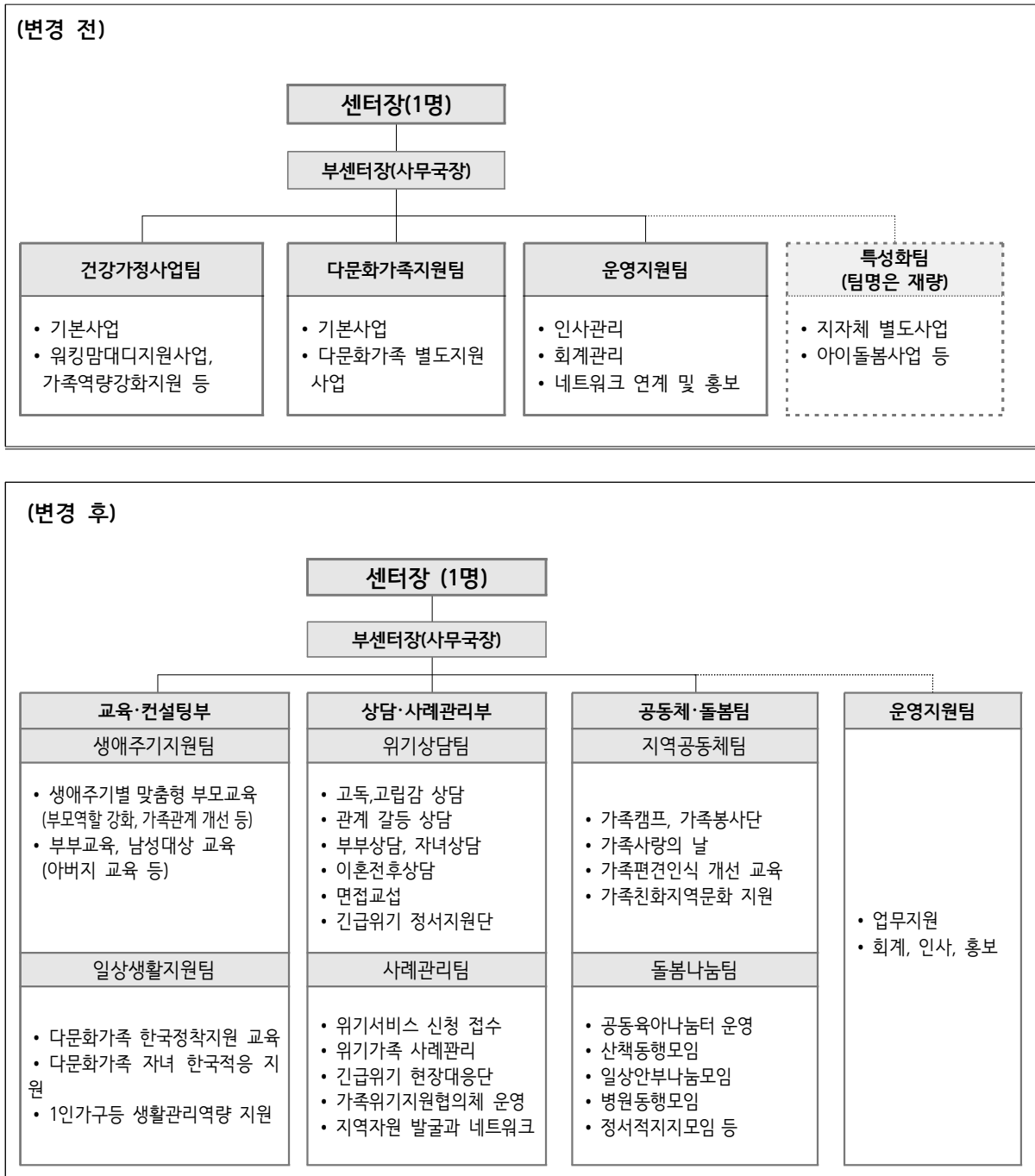
■ 가족 센터 유형 축소 및 위기지원 강화를 위한 센터 개편 검토

[그림 5-9]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강화 방향 검토 과제

현행	제안	검토과제		기대효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제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돌봄지원	가족센터로 일원화	가족단위지원	→	개별/개인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한국정착과 돌봄 지원		센터별 팀 구성 다양	→	가족위기상담팀(상담) 위기사례관리팀(사례관리) 돌봄지원팀(돌보미연계) 가족역량강화팀(교육) 지역공동체 등
		가족유형별 서비스 구별	→	가족위기 단계별 서비스 구별
가족센터 두 개 센터의 물리적 통합과 지침 별도 운영		가족위기에방부터 위기해결 중심지침 개편 가족소멸과 축소 지원 추가	→	가족정책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위기 기여부분 가시화 가족지지체계 대안으로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 가족 유형별 부서나 팀 분류는 지양하고, 가족위기 지원 중심으로 조직운영 변경

[그림 5-10]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중심으로 제안한 조직운영 재편(안)



2)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 표준화

(1) 긴급 위기가족 지원 매뉴얼화

■ 긴급 위기 개입을 위해서는 대상 가족의 욕구사정으로 들어가 빠르고 민첩하게 서비스 제공을 시행하여야 함

- 긴급 위기 개입 모델에서 사례관리 과정은 일반적인 사례관리 과정과 차이가 있음.
- 사례관리의 초기 과정인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의 과정이 제외되고, 긴급하게 바로 대상 가족의 욕구사정으로 들어가 빠르고 민첩하게 서비스 제공을 시행하여야 함

■ 긴급위기개입에서는 ‘사정 - 계획- 개입(서비스 제공)- 위기 대비 계획’으로 단계가 축소되면서 집중적 서비스 제공을 강조함

- 사정 단계
 - 위기 개입에서는 반드시 자살, 타살, 학대 등 위험에 따른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질문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가 왜 도움을 받으러 왔고 의뢰되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을 만한지, 자원이 있는지,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 계획 단계
 - 위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기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지, 주변 자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서비스 이용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그 다음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무엇을 수행할 것인지 행동 계획을 세운다.
- 개입(서비스 제공) 단계
 -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처한 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 자원과의 연계 협조나 대처기제를 탐색한다.
- 위기 대비 계획 단계

- 클라이언트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기개입 마지막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한다.

■ **재난 대응 매뉴얼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심으로 모의 훈련을 통해 가족위기사례관리 팀이 운영되는 모든 센터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함**

-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무부처 및 지자체와 신속한 보고 지시체계 확립으로 위기 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매뉴얼 보급과 교육 확대가 필요함

(2) 단계별 위기 개입 대응 강화

■ **현재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단계별 위기 개입 대응과정이 강화되어야 함**

- 현재 위기가족 지원서비스의 대상은 지원 가능한 가족유형(한부모, 조손, 취약위기, 다문화, 북한이탈 가족 등)에 해당되는 취약위기가족을 한정하여 선별적,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옴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위기도가 낮으나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기능이 저하된 저소득가족(매년의 중위소득 기준 100%이하)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방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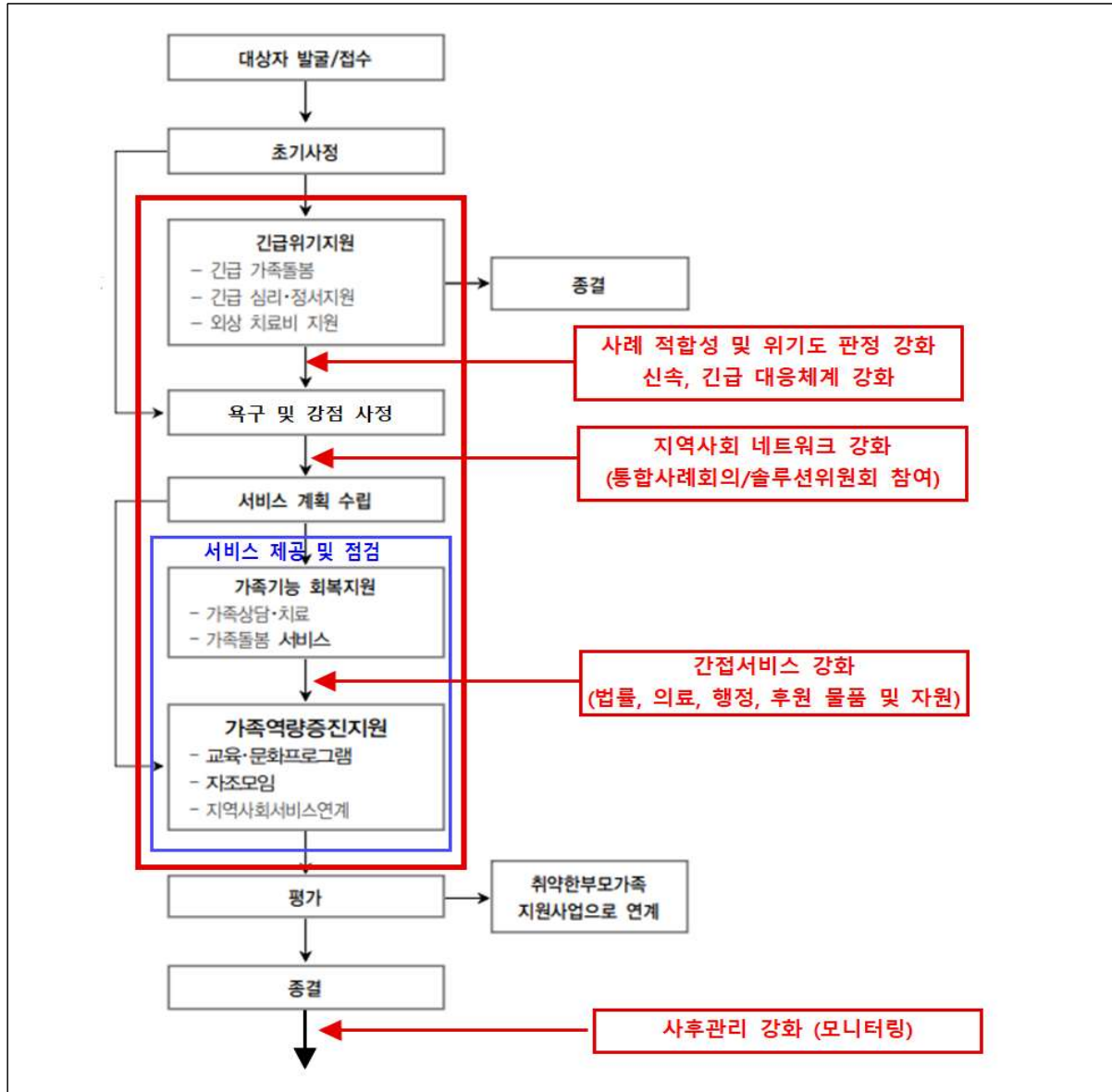
[그림 5-11] 가족센터의 단계별 위기 개입 대응 강화안

(변경 전)	(변경 후)
① 대상자 발굴 → ② 초기상담 → ③ 사례관리 등록 → ④ 욕구 및 강점사정 → ⑤ 서비스 계획 → ⑥ 서비스 제공 → ⑦ 서비스 점검 → ⑧ 서비스 평가 → ⑨ 서비스 종결 → ⑩ 사후관리	① 대상자 발굴 → ② 초기상담 → ③ 사례 적합성 및 위기도 판정 → ④ 사례관리 등록 → ⑤ (신속, 긴급) 욕구 및 강점사정 → ⑥ 서비스 계획 → ⑦ 통합사례회의(지역 네트워크 강화)/솔루션위원회 참여 → ⑧ 서비스 제공(직접 서비스 외, 간접 서비스 강화) → ⑨ 서비스 점검 → ⑩ 서비스 평가 → ⑪ 서비스 종결 → ⑫ 사후관리(모니터링 강화)

- 가족역량강화의 일반적 사례관리에 비해 긴급위기사례(긴급한 자살 등의 개인적 위기와 사회적 재난 등 가족외적 위기)들이 포함될 것이므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과정의 내용들이 강화되어야 함
 - 사례의 적합성 및 위기도 판정 체계
 -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신속, 긴급 프로세스 강화
 -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회의/솔루션위원회 참여

- 직접 서비스 외, 간접 서비스의 연계와 강화(의료 및 보건, 법률, 후원단체 및 기관 등)

[그림 5-12] 가족역량강화사업의 긴급위기가족 지원 과정과 강화 분야



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4)의 [긴급위기가족지원사례]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자가 재작성함

■ 현재의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단기적,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기개입을 상시적이고 전체 위기개입 과정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긴급위기개입을 위해 단계별로 서비스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사정 단계에서 실직, 자살, 타살, 학대 등과 같이 개인적 위기와 고위험 가족관계적 위기(폭력과 학대), 가족 외적 위기(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함.

- 현재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는 발달적 위기와 개인적 위기 개입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위기 시 대응능력이 없음(사회적 재난에 대한 긴급위기 현장지원 실무가이드는 있으나 최근 증가하는 자연재해-태풍, 폭우, 산불, 화재 등에 대응하는 실무가이드가 없음)
- 위기관리 사업담당자에 대한 위기 대응 기술과 대응 체계의 구축 및 교육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위험 사례에 대한 위기개입에 한계가 나타남
- 서비스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가족센터가 지니고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자원과 후원 금품이 부족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위기 대응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또한 솔루션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 특히 개인적 위기와 가족 외적 위기 지원에 있어서, 지역사회 공공사례관리 위기대응팀(예: 시·군·구 및 읍·면·동 아동보호팀 및 통합사례관리팀-희망복지지원단, 무한돌봄지원센터 등) 및 긴급솔루션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고위험 위기가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또한 긴급위기개입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팀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확대하고 업무협약(MOU)을 통해 정기적, 상시적 사례회의와 물적, 인적 자원 교류 체계가 이루어져야 후발 기관으로서 협조와 정보 공유가 원활해질 수 있음
- 서비스제공 단계에서는, 앞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위기 상황 대비 물적 자원 및 후원 금품의 확보와 함께 위기가족을 위한 간접서비스(보건, 의료, 법률, 생계, 취업, 주거 등)의 제공이 강화되어야 함
 - 위기가족, 특히 긴급위기가족은 위기상황으로 벗어나기 위한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에 매우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함(가족 외적 위기로 화재나 태풍으로 인한 재산 손실, 피난 등)
 - 최근 금융위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파산이나 실직 등이 많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족들의 수가 증가하여 생계와 취업 및 주거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가족갈등, 가족해체로까지 발전되는 위기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간접적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언어나 법률 및 의료 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의 권익이나 인권, 생명 등을 스스로 항변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함(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이혼 후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청구, 질병 시의 수술비 부족 등)
- 종결이후의 단계에서, 위기상황의 감소 및 해소 상태가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함.
 -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위기가족의 경우에, 주로 일반사례관리자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기도가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사례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주로 개인적 위기(자살, 실직 등)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발달적 위기 역시 가족 기능이 취약했던 가족들은 반복적으로 대응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례관리 담당자 당 월평균 20~25가구를 담당하도록 지침에 명기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개인을 사례관리 하는 공공사례관리기관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본 실적인. 가족 단위 다수를 한 사례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기본 사례 수이며, 가족 수에 비례하도록 변경하거나 대상 가족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 가족위기 진단 및 관리지표 개발과 활용

■ 사례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

- 현재까지 가족역량강화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사례의 대상, 즉 사례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이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족이 생활 속의 다양한 형태의 위기 시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가족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유형에 제한이 두는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짐
- 다양한 유형의 가족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의 소득조건 및 가족 선정의 제약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다양하고 모든 가족이 위기 시에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족위기의 위기도 진단과 판정

- 현재까지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위기가족의 위기도 판정 시, 가족기능척도와 개인 및 가족위기성 진단척도를 통해 가족유형별 로 가족관계적 위기를,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PTSD 사전/사후)와 우울 척도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 위기를, 그리고 사건충격 척도(사전/사후) 등을 사용하여 가족 외적 위기에 한정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도를 판정해옴
- 개인적 위기와 관계적 위기 및 가족 외적 위기에도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현재 상시적이고 발달적 위기를 판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지니고 있지 못함.

<표 5-4> 가족위기를 판정하는 기존의 위기 척도

가족위기 유형	위기 판정 척도
발달적 위기	없음
관계적 위기	- 가족기능척도 - 개인 및 가족위기성 진단척도
개인적 위기	-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PTDS 사전/사후) - 우울 척도
가족 외적 위기	- 사건충격 척도(사전/사후)

■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편입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의 위기도 판정양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아동·청소년 학대(방임), 가족폭력(아동, 노인, 부부 폭력 등)과 성폭력 및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긴급위기에 대응하는 폭 넓은 위기개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개입 기관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공공 사례관리(시군구, 읍면동 등) 및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에서 민관 협력을 위해 사용하는 위기도 판정 양식으로 보다 세분화, 공통화 하여 판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범사업(2020~2022)으로 시행중인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회복지원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신고 된 고위험 가족의 사례가 많아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개입 후발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며 중요함. 따라서 통합사례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가칭 지역사회 원가정 협의체)를 기반으로 사업이 수행되어 통합사례관리 위기판정 척도를 사용하고 있음.
- 지역사회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의 위기도 판정은 욕구사정의 모든 영역에 기반 하여 고위험 긴급 가족의 위기도를 평가하고, 위기도 점수가 기준 점수를 넘을 시 위기가정으로 판정함
- 통합사례관리 위기도 조사지 활용 방법
 - 위기도 사정도구 문항에 따라 욕구영역별 위기도 점수에 체크
 - 사례관리기준표에 근거해 욕구영역별 위기점수가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인지 판단
 - 욕구영역별 단일 혹은 복수의 위기에 대해 해당에 체크하면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 사례회의(내부 또는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가구, 서비스 연계가구, 미 선정가구 판정

- 사례관리 대상가구는 욕구영역별 위기도 점수를 기준으로 장단기 목표 설정 및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 초기 위기도와 현재 시점의 점수 변화 및 위기 해당 여부의 변경에 따라 대상자 변화 상황 모니터링 가능

<위기도 조사지 작성 원칙>	
-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현재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위기도를 작성	
- 위기도 사정도구는 욕구 사정 이후 욕구사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관리자가 최종 판단하여 기입	
- 각 욕구영역의 위기도 점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기입	
- 각 보기 항목에서 중복체크 될 경우보다 심각한 점수를 선택	
- 정보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에 기입	

<표 5-5> 통합사례관리에서 사용되는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기준표

번호	욕구영역	총점	사례관리 여부 기준표	해당여부
1	안전		- 어느 한 문항이라도 3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2	건강		- 어느 한 문항이라도 3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6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3	일상생활유지		- 1번 문항이 3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4	가족관계		- 3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5	사회적 관계		- 어느 한 문항이라도 3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6	경제		- 1번 문항이 3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3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7	교육		- 2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3번 문항이 3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8	고용		- 2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9	생활환경		- 1~3번 문항의 총점이 4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4번 문항이 3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10	법률 및 권익보장		- 2번 문항이 2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총점				
(잠재적)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여부			각 욕구 영역별로 어느 하나라도 '해당'에 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된 경우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함.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미선정

* 대상자선정 단계에서 욕구영역별 위기도 정도에 따라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변화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단계에서도 위기도 총점을 활용함. 단, 위기도 총점의 높낮이로 사례종결의 근거로 삼지는 않음.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단계에는 수시로 위기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반영함.

〈표 5-6〉 통합사례관리의 욕구영역별 위기도 평가기준

1. 안 전 :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 상의 위기정도 (12점)

1. 안전	위기도 문항	0	1	2	3
가족 내 안전유지	1.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2. 본인이 가족(비동거 가족포함)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가족 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	3. 비동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학교, 직장 등) 등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 신체적 폭력 ② 정서적 폭력 ③ 성적 폭력 ④ 방임과 방치 ⑤ 경제적 폭력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4.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도움을 요청할 지원체계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는 있으나,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3)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 /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 한다.				

2. 건강 :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생활상의 위기정도(18점)

2. 건강	위기도 문항	0	1	2	3
신체적 건강유지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일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3)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2)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정신적 건강유지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은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4.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관				

	<p>리가 어렵다.</p> <p>①질병인식(병식)이 없다 ②증상관리를 도와 줄 자원이 없다 ③증상관리가 안 되고 있다 ④자해나 타해의 시도나 위험이 있다</p> <p>0) 해당사항 없음.</p> <p>3)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3점.</p>				
	<p>5.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약물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p> <p>0)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약물을 처방대로 복용하고 있다 / 해당사항 없음.</p> <p>1) 약물 복용을 도와주는 지원 체계가 있지만,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어렵다.</p> <p>2) 약물 복용을 도와줄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규칙적인 약물복용이 어렵다.</p> <p>3) 약물 복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약물 치료를 거부한다.</p>				
	<p>6.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p> <p>0) 해당사항 없음.</p> <p>1)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p> <p>2) 자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p> <p>3)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p>				

3. 일상생활 유지 : 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유지상의 위기정도(9점)

3. 일상 생활 유지	위기도 문항	0	1	2	3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p>1.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p> <p>①식사 ②대소변 등 용변처리 ③옷 입기(세탁포함) ④세수, 목욕 등 몸씻기 ⑤청소 ⑥정리정돈 ⑦수면 ⑧그 외 가사활동</p> <p>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p> <p>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p> <p>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p> <p>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영유아인 경우 1, 2, 7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3점</p>				
	<p>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p> <p>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p> <p>1) 불편하지만 외출이 가능하다.</p> <p>2) 외부(자원)의 도움이 있으면 외출이 가능하다.</p> <p>3) 이용할 만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할 수 없다 / 도움이 있어도 외출이 어렵다.</p>				
여가생활 활용	<p>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여가생활에 어려움이 있다.</p> <p>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p> <p>1) 자원은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p> <p>2) 자원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p> <p>3) 즐겨하는 일이 전혀 없다.</p>				

4. 가족 관계 : 가족구성원의 갈등 및 보육, 간병 등의 돌봄 보호 상의 위기정도(9점)

4. 가족 관계	위기도 문항	0	1	2	3
관계형성	1.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전혀 없다. (연락하고 사는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2.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가족갈등이 있으나 가구원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가족 돌봄	3.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0) 돌봄 가구원이 없다 /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돌봄 능력이 부족하나 의지가 있다. 2) 돌봄 능력이 부족하며,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돌봄 능력이 부족하며,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 돌봄 의지가 없다.				

5. 사회관계 : 친지, 이웃 및 소속집단 내에서의 관계형성 및 유지상의 위기정도(12점)

5. 사회적 관계	위기도 문항	0	1	2	3
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1.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다(연락하고 사는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2.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이 전혀 없다.				
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3.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자기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0)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소수의 타인(가족 포함)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만,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접촉이 없다. 3)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접촉이 없다.				
	4.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으로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0) 유발하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유발하고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3) 유발하고 있다.				

6. 경제 :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위기정도(9점)

6. 경제	위기도 문항	0	1	2	3
기초 생활해결	1.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돈이 없어 식사를 못하고 있거나 식료품 구입이 어렵다. ② 공교육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③ 계절에 맞는 의복과 신발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치료비가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을 못 가고 있다. ⑤ 집세가 3개월 이상 밀려있다. 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퇴거위험, 노숙,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쉼터 등). ⑦ 난방장치가 없거나,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⑧ 공과금(사회보험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중 하나 이상)이 밀려있다. ⑨ 공과금 연체로 사회보험급여 자격정지, 전화중단, 가스차단, 단수, 단전 중 하나 이상의 상태에 있다.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3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1, 4, 5, 6, 9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자산관리	2.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도움이 있을 경우 금전관리가 가능하다. 2)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3) 금전관리 자체가 어렵다(개인 역량부족, 건강, 장애, 기타 사유). 3. 빚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빚은 있으나 갚아 나가고 있다. 2)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빚을 내고 있다. 3)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받고 있다.				

7. 교육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상의 위기정도(6점)

7. 교육	위기도 문항	0	1	2	3
기초학습 습득 및 향상	1. 본인이나 자녀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본능력이 부족하다. ①듣기 ②읽기 ③쓰기 ④말하기 ⑤다른 사람의 말 이해하기 ⑥신문, 글 등을 이해하기 ⑦간단한 계산하기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 현재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환경 개선	2.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등교는 하지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2) 등교는 하지만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위반(무단이탈, 무단지각, 무단조퇴)하거나 징계(정학, 사회봉사 등)를 받고 있다. 3) 등교는 하지만 다른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거나, 다른 학생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 / 무단으로 결석하고 있다.				
	3. 본인(고등학생이하)이나 자녀(고등학생이하)의 학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거리, 비용 등의 이유). 2)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검정고시포함) 특기를 개발하거나 학업을 유지하려는 데 자원이 부족하다. 3) 학업을 유지하려는 의지나 대안이 없다 / 현재 의무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8. 고용 : 취업·창업상 문제 및 직업기능 수행상의 위기정도(6점)

8. 고용	위기도 문항	0	1	2	3
취(창)업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근로능력은 부족하나 일할 의지가 있다. 2)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족돌봄, 자녀양육, 일자리 발굴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 3) 근로능력도 부족하고 가족돌봄, 자녀양육, 일자리 발굴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 / 일할 의지가 없다.				
고용 유지	2.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개인적인 방해요소로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언제든지 정리 해고될 수 있다.				

9. 생활 환경 :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보장상의 위기정도(12점)

9. 생활 환경	위기도 문항	0	1	2	3
주거내부 환경개선과 안전	1.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거주하는 집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①화장실 ②주방시설 ③도배장판 ④전기시설 ⑤가스시설 ⑥상하수도시설 ⑦냉난방시설 ⑧위생상태(곰팡이, 찌든 때, 방역불량, 배설물처리 불량, 쓰레기 등) ⑨창호/문짝 ⑩주변 환경 ⑪채광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2. 거주하는 집에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히터나 전기장판 과열 ②전기선 누출 ③누수 ④가스누출 ⑤베란다 안전장치 미비 ⑥방범장치 미비 ⑦침수 ⑧붕괴위험 ⑨그 외 기타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이 있으나 임시방편을 마련하였다. 2) 어려움이 있으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3) 어려움이 있으나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				
	3. 거주하는 집에서 신체활동상에 어려움이 있다. ①공간부족(휠체어 이동공간부족) ②문턱 ③안전바 미설치 ④싱크, 찬장, 가구 등 높낮이 미조정 ⑤욕실 미개조 ⑥램프미설치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주거 내·외부 환경과 지역사회	4. 주거 내·외부 환경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0) 유발하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유발하고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3) 유발하고 있다.				

10. 법률 및 권익 보장 : 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상의 위기정도(6점)

10. 법률 및 권익보장	위기도 문항	0	1	2	3
권익 보장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0)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옹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있다. 2)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옹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옹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				
법률적 지원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법적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이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법적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법적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 본 양식은 보건복지부(2021) 통합사례관리 실천가이드에 제시된 위기도 조사지 양식임

3) 가족위기 지원 역량 강화

(1) 직접 지원 서비스 개발

■ 위기가족 개입을 위한 직접서비스는 위기의 대상자 개인과 그 가족과의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임

- 직접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도전적 이슈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하거나 욕구 충족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삶에서 주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있음
- 위기가족 개입의 목적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위기 상황에서 가족기능지원을 통하여 위기 이전의 가족의 일상생활 회복과 유지 임

■ 위기개입 직접서비스에 있어 사업담당자 역할과 역량이 중요함

- 위기 개입의 직접서비스 시 개입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빠른 시간 안에,
 - 객관적 정보를 파악해
 - 가장 최선의 개입방법을 찾아야 하고,
 - 개입 원칙을 따라야 함
- 직접 서비스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객관적 정보 수집과 신속한 사정이 사업 담당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
- 클라이언트 개인에 따라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오고,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대안 속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위기극복을 도와야 함
-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도움 주는 정보를 미리 파악해 시급한 위기에서 해결 방안의 정보를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
- 위기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객관적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과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도 필요함
 - 가족위기 상황에서 대상자와 그 가족은 우울이나 불안, 사회적 고립감 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위기개입 담당자의 심리적 지지와 감정적 분출을 돕는 직접적 서비스는 대상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옴.

- 또한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대상 가족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관점에 대한 인지적 회복을 도울 수 있음

■ 센터의 직접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청소년(한)부모 멘토) 파견)
- 생활도움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 긴급 위기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 이혼위기가족 특화지원 사업(선택사업)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으로 사업수행 기관 인근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

■ 가족위기 유형별 현재 가족센터에서 제공되는 직접 서비스 개발

<표 5-7> 가족위기 유형별 가족센터에서 제공되는 직접서비스 개발(안)

위기 유형	기능	관련 사업/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가족발달적 위기	심리·정서적 자립 가족발달 적응 및 기능강화 관계 개선 및 향상	가족교육 자조모임 집단 프로그램 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지원서비스 법원연계이혼 위기가족지원	부모/자녀, 가족관계 교육, 돌봄 지원, 건강과 신변(위생)관리교육 가계재무 상담 및 컨설팅 생활적응훈련(결혼이민/중도입국자) 배움지도사/키움보듬이 파견 (이혼전후) 가족상담
가족관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	경제·심리적 위기 감소	긴급위기지원	심리정서 지원(지지리더 파견) 전문상담치료기관연계 (긴급)가족돌봄서비스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기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정보, 물품)
사회적 위기	사회적 위기 대응		

■ 직접서비스의 제공 방법

- 가족교육(부모교육, 부모-자녀 가족관계향상 등)
- 개인 또는 가족의 상담이나 치료 및 전문가 연계
- 자조집단 운영
- 기타 프로그램(한국어교육, 한국생활적응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 정보 제공 및 생활물품 제공 등

■ 가족센터의 직접 서비스 개발의 핵심 과업

- 직접 이용자 가족과의 대면 접촉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와 그 가족(클라이언트 체계 및 자원체계와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 기초상담 능력을 키워야 함. 이를 기반으로 고위험 사례(자살, 와상후 스트레스, 폭력 등)를 다루기 위한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달시키기 위한 지속적 훈련이 필요함
- 센터의 위기가족 중에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족, 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클라이언트가 처해있는 삶의 상황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문화적 민감성을 지녀야 함
- 위기에 직면한 클라이언트일수록 위기 발생 초기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고 당황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며 자기주도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동기 강화와 일상회복을 위해 정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직접 서비스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수준의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지역사회 자원체계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위기개입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경험과 경력, 업무부담의 수준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 수준이 영향을 받게 됨
 - 위기개입 사례의 위험도가 높고, 담당 사례 수가 많거나 위기개입 사례에의 투입 시간이 많을수록 직접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아지게 되므로 위기개입 사례의 적정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지 않은 경우 사례담당자의 심리적 소진이 유발 됨
- 센터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소득과 취업, 안전, 법률지원 등)는 외부 유관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연계를 한다하더라도 이용자 가족과의 밀도 있는 접촉과 동기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담당자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긴급 위기 개입의 사례관리 개입의 6가지 원칙

- 클라이언트가 최소한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 직접적 위기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며, 현재 지향적이어야 한다.
- 시간 제한적인 본질 때문에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긴급 위기 개입 기간은 4~6주 정도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가 위기 개입의 주요 표적이다. 과거 문제의 탐색과 집중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재 위기와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하여 과거를 관찰해야 한다.
-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최선의 개입방법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차선책으로 접근하기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적절한 개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다.
- 위기 개입을 해야 하는 담당자는 다른 어떤 실천 접근에서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 간접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자원 개발과 확대

■ 위기가족 개입을 위해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간접서비스는 위기의 대상자 개인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개발이나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한 방법임

■ 위기개입 담당자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조직화 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 가족들은 이미 있는 자원이나 서비스의 전달방식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혹은 자연 재해나 사회적 재난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러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위기개입 담당자는 옹호적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맞춤형 자원 확충과 위기개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개입기술이 요구됨
- 위기개입 담당자의 간접 서비스에 필요한 역량은 자원개발 및 관리 역량, 옹호 역량, 평가 역량 등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간접 서비스에서의 핵심 과업

● 자원개발 및 관리

- 위기개입의 경우 긴급한 상황 하에서 담당자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양한 자원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 서비스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평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개발하여, 상호 교류에 의한 업무협약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자원개발 및 관리 활동이 대개 임상적 실천기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자원공유에 소홀하게 되면 정작 위기개입 시에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상시 상호교류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된 자원에 대한 정보관리를 통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향후

<표 5-8> 위기가족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간접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원 개발을 해야 할 유관 기관

요구 및 문제영역	지역사회 간접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가족관계	모자보호시설, 한부모 및 미혼모부자 관련 단체, 입양시설
가족 돌봄	센터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아동/노인/장애인),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녀교육	센터, 학교, 교육청,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학교, 지역학원연합회, 청소년수련관, 지역 장학재단
일상생활	자원봉사단체(센터), 이·통반장, 의용소방대(여성), 새마을부녀회, 각종 복지(생활)시설
사회적관계	아파트부녀회, 주민(마을)자치센터, 각종(사회/종합)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취미동아리 단체(동호회), 자조모임,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정신건강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병원, 신경정신과, 각종 심리(발달)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자살예방센터,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아동(정서지원)바우처, 각종 치료센터,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의료기관(병원), 보건소/방문보건-간호, 요양원/재가복지센터, 치과 및 의사협회, 약사협회, 체육관(시설)
안전	경찰서, 소방서(119), 대한적십자사, 가정-성폭력상담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여성)쉼터, 대한법률관리공단
기초생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희망복지지원단), 학교 담임(결식-서무과), 후원단체(연탄), 각종 연합회
경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후원단체(로터리/라이온스클럽), 상(공)인협회
주거환경	LH공사, 모자시설, 자원봉사센터, 민간봉사단체
고용(취업)	고용안정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센터, 자활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 현재 가족센터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욕구와 문제 영역-즉 소득(생활비), 주거, 고용(취업), 의료, 법률 등 직접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자원과 정보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옹호 역량

- 위기 상황에서 특히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전의 실패나 좌절 경험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장애로 인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옹호는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수행되는 것과 서비스 제공 체계 수준에서 수행되는 두 가지로 분류됨
- 클라이언트 수준에서는 보통 서비스 제공에서 불합리한 자격기준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가 해당됨.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실행자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설득하는 전략을 실행하게 됨.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이나 이민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합리한 조건이나 부당한 처우(예; 심각한 근로환경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예: 시장, 시의원, 경찰서장 등)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설득하기 위해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임

● 서비스 조정과 점검

- 서비스 조정 기능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능임
- 위기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유관 기관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위기개입에 대한 합의된 이해와 의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즉 위기개입을 위한 센터의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성공적인 실천을 통한 센터 인지도 향상, 대상 가족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의 당위성 등이 포함됨
- 위기개입 상황에서 담당자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가족에게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점검, 위기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점검, 지역사회 내의 자원망 확인 및 연계, 조직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함.

■ 현재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강화되어야 할 간접서비스

- 외부기관 연계서비스(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들로서 센터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며,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 생계비, 의료비 등의 물적 자원 연계,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연계, 취업, 주거, 법률, 건강, 문화생활 등 정보안내 및 제공, 고용센터, 주민 센터 등을 기관과 연계할 수 있음
 - 인적 자원 :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멘토, 학습교사 등
 - 물적 자원 :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 의료비 등
 - 정보 제공 : 건강문제,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법률문제 등
 - 기관 연계 : 고용지원센터, 후원단체, 법률상담소, 학교 등

4) 가족위기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위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본 센터와 협력할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임

- 발굴과정에서부터 서비스 지원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족의 손상된 가족기능과 관계를 회복해나가야 함
 - 모든 위기개입은 일반 사례관리의 경우보다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원의 집중적 투입과 사례관리 수행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 동안 위기개입 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매우 희박함.
 - 일부 가족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요구되어진 위기사업(청소년미혼모부자사업, 미혼모 부자, 혹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을 위탁운영하거나 사회적 재난 대응팀에 합류하여 가족서비스지원(돌봄과 정서적지지,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에 협력해 온 경험이 대부분임.
 - 또한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위기가족 등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거나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제한적 자원을 지닌 취약가족 대상(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가족 대상, 위기도 판정 가족)의 위기개입에 주로 집중하여 옴. 특히 가족역량강화사업의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도 전반적으로 이혼전후의 위기도 개선과 지역사회 위기개입 유관으로부터 서비스 연계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일반적 사업 수행 방식이었고, 주 사례관리 기관으로서 위기 사례의 발굴에서부터 직·간접적인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위기개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부족함
- 현재까지 가족센터의 위기서비스 지원의 특성은 지역사회 위기개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부 사례관리기관 또는 서비스 연계의 협력기관으로서 부모 중심의 서비스 지원(예 : 부모교육과 부모, 부부 중심의 상담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의 운영, 아이돌봄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음. 부분적이고, 선별적이며, 제한적 위기 지원 서비스의 특성을 지님

- 이는 가족센터의 사업 운영조직과 범위가 그 동안 주로 가족 기능의 향상에 있어서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사업 위주로 업무와 조직구성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타 다양한 욕구영역들(경제, 안전, 보건과 의료, 취업 등)에서의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광범위하고 다양한 가족위기 유형에 모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임
- 그동안 가족센터의 위기개입이 개별 가족 맞춤형 가족기능 회복지원에 있어서 보편적, 일반적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특정 가족유형-한 부모와 조손가족, 취약위기가족, 다문화가족 등 선별적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기 때문임. 이로 인해 명실상부한 지역의 가족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
- 이로 인해 개별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전 생활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사례관리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전반적인 가족위기개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센터 내에 사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자원의 확보와 보충이 시급함. 또한 위기가족의 욕구에 부응하고 적극적인 위기개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위기개입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

(1) 가족위기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

■ 현재 사례를 통해 가족위기지원망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이 요구됨

- 위기가정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역시 경찰과의 협업이 중심이 되어왔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고 시군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주도하고 공적지원체계와 민간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민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로 변화되고 있음

① 미국의 지역사회 기반 위기가정지원체계-둘루스모델(the Dulut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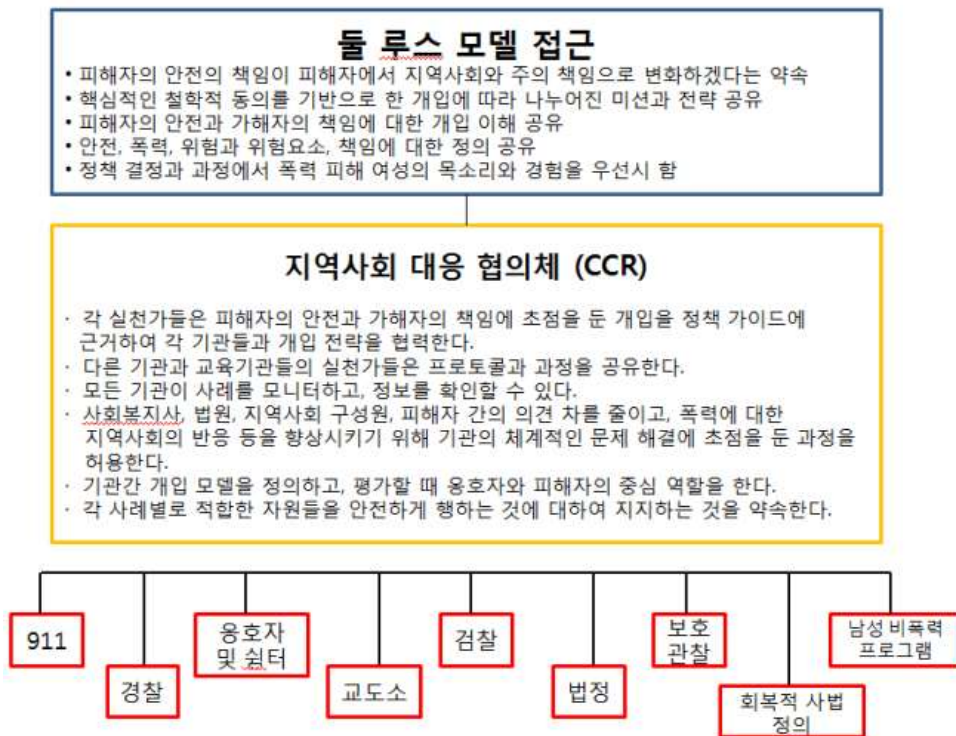
■ 미국 미네소타 주의 위기가족지원체계- 지역사회 대응 협의체 중심

- 1970년대 후반부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경찰 내 가정폭력전담반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보호 중심의 체포와 영장발부 등 사법적 대응을 철저히 운영함

- 지역사회 대응협의체(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 CCR)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 법원, 지역 구성원 등이 폭력 피해자를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제안함
- 응급의료체계(911), 경찰, 옹호자 및 쉼터, 교도소,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회복적 사법정의, 남성비폭력프로그램 등 주로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이며, 경찰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공, 민간 기관이 함께 협력함.

[그림 5-13] 미국의 위기가족지원체계 - 덜루스 모델 접근



②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 위기가정지원체계-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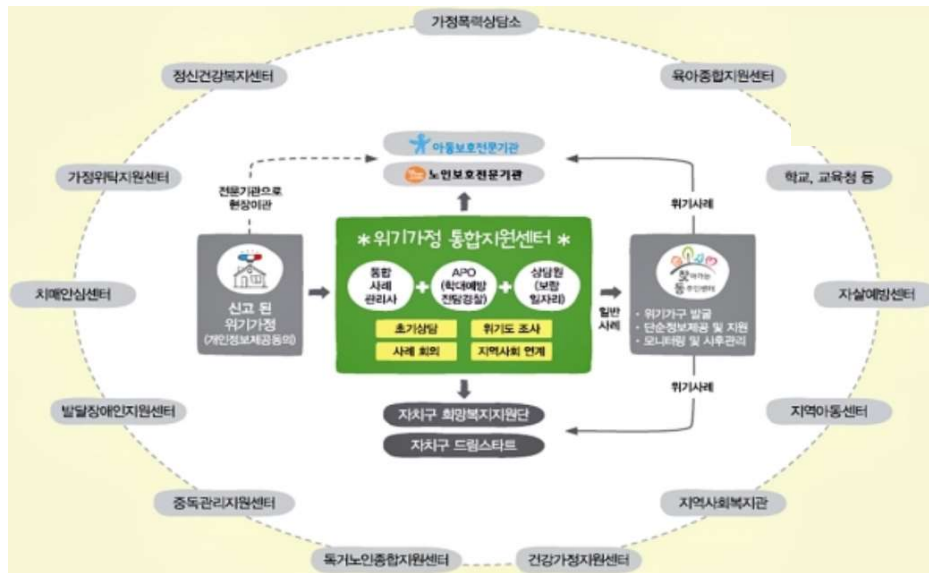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지역사회 대응 협의체 중심의 둘루스모델에서처럼 지역사회 위기가정통합지원체계가 2018년 서울시에서 처음 10개 센터로 시작됨.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20년 25개 자치구(區) 모두에 확대됨.

■ 서울시위기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하여 폭력과 학대 관련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나가는 기관임.

- 기존의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지원체계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초기상담개입의 효율적 지원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의 어려움, 예방·사후관리·가정복귀서비스 강화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區) 별로 복지, 의료, 교육, 상담, 법률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위기가정 지원 안전망을 구축, 운영함
- 특히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사법처리 되지 않은 가족원의 가정 복귀 이후 대책, 즉 재발 방지에 대한 역할을 경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장운정·박정운, 2010) 지역사회 단위에서 유관기관들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위기에 대응할 뿐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본 가족센터의 경우를 이러한 가정폭력 관련 위기통합체계를 도입하여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위기 유형에 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그림 5- 14]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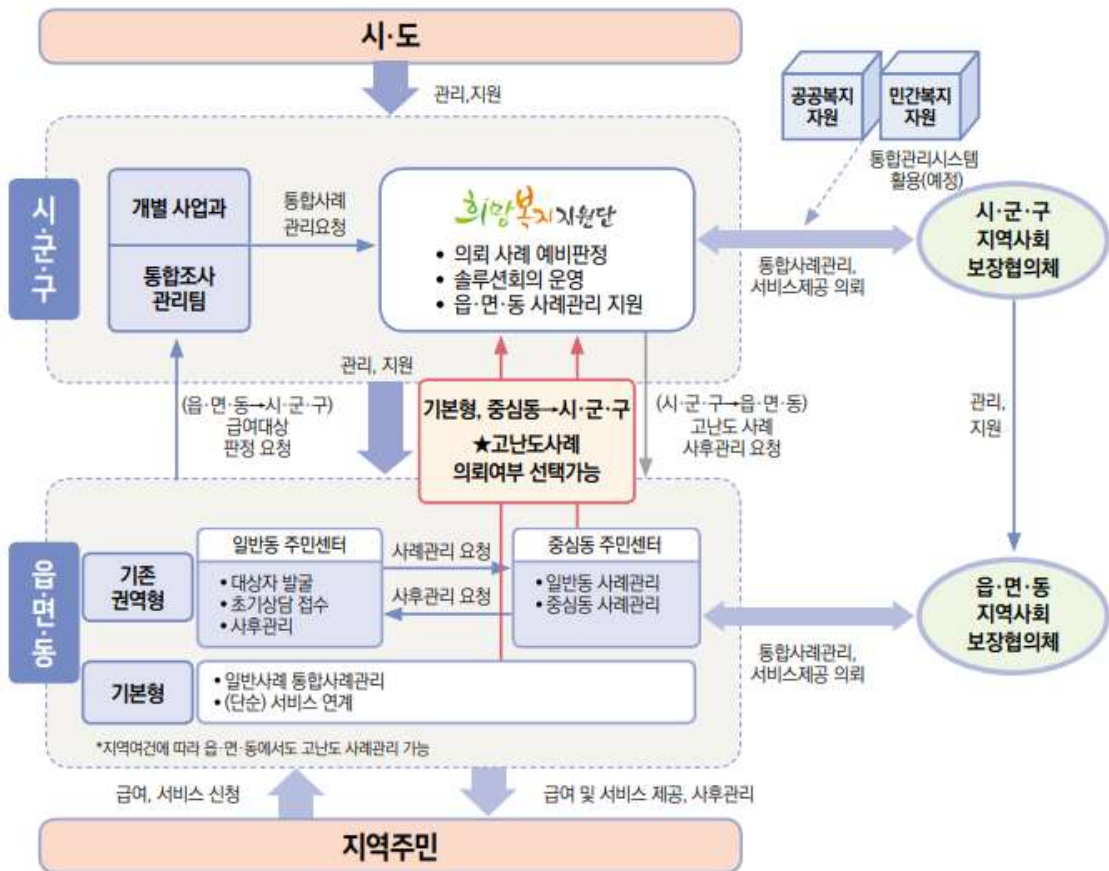


자료 : 김주미·허미화(2019).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운영매뉴얼 개발연구 p.109

③ 공공·민간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보건복지부)

- 통합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고용-복지 연계에 중점)
- 통합사례관리의 주요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의 규모에 따라 읍면동과 시군구의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있음

[그림 5-15]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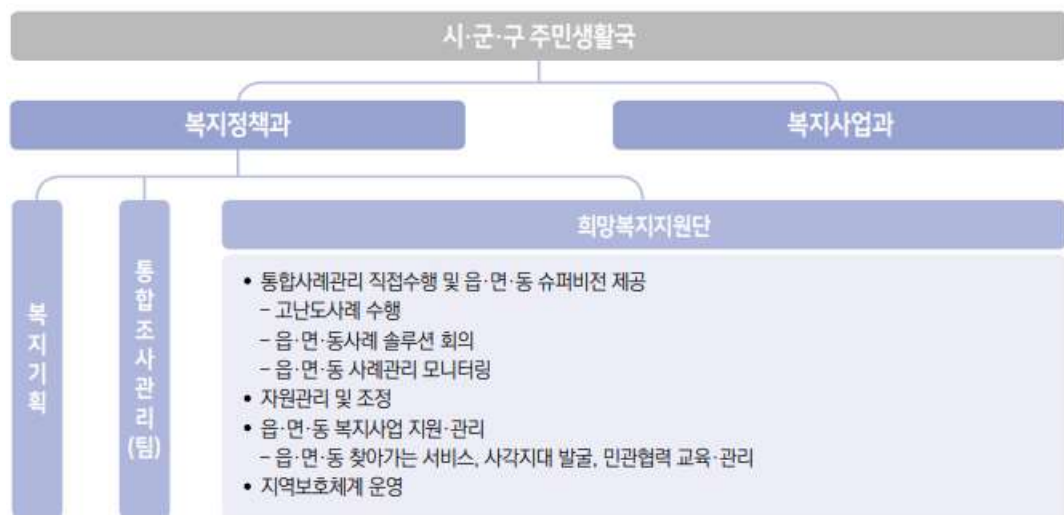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2021년 통합사례관리실천가이드, p. 3

- 찾아가는 읍면동 사례관리팀의 주요기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및 자원관리이며 각 팀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음
-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부서의 주요 기능은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자원관리, 읍면동 복지사업의 지원관리 및 지역보호체계 운영의 이며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업과와 협업하며 통합조사관리 및 복지기획업무와 함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함

[그림 5-16] 시군구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주요 조직과 업무

▶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팀의 조직과 업무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팀의 조직과 업무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2021년 통합사례관리실천가이드. p. 3

■ **지역사회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에서는 통합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지역사회 내에서 민관이 함께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위기가족 대상의 사례관리를 위한 협력이 밀착되어 이루어짐. 따라서 사례발굴과 함께 자원공**

유, 의뢰, 협력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유관기관들이 함께 하므로 위기가 높은 사례일 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사례회의에 참가하여 함께 활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접근하거나 사례 연계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고위험 사례에 대한 솔루션회의에도 참여가 가능해짐

[그림 5-17] 시군구와 읍면동 규모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유형별 수행업무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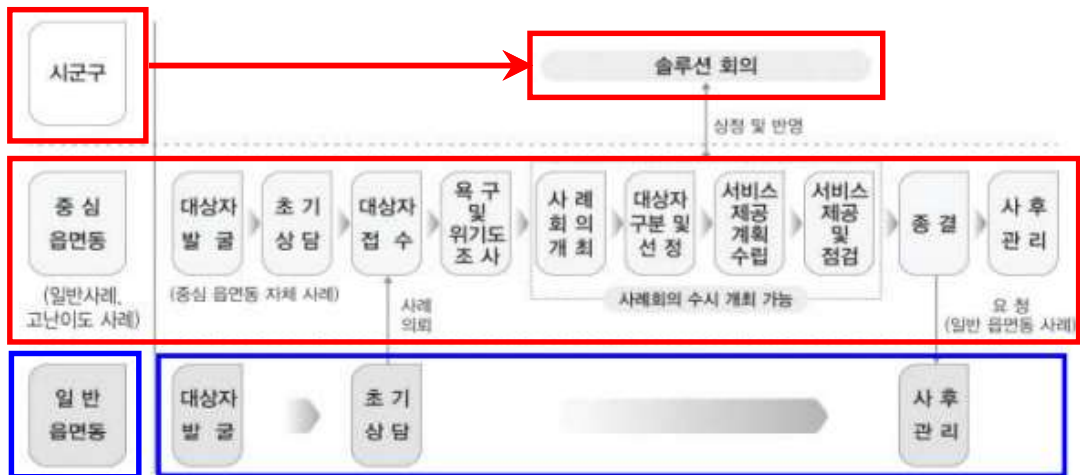
▶ 통합사례관리 기본형의 수행업무 :

- ① 읍면동-일반사례 진행, ② 시군구- 고난이도 사례관리 및 솔루션 회의 진행



▶ 통합사례관리 권역형의 수행업무

- ① 일반읍면동- 대상자발굴과 초기 상담만, 중심읍면동-일반사례관리와 고위험사례
- ③ 시군구에서 솔루션회의만 진행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2021년 통합사례관리실천가이드, p. 3

■ **향후 다양한 가족위기 유형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사례관리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함.** 특히 가족센터가 위치한 지자체의 시군구,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체계가 기본형 또는 권역형에 따라 그 업무와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의 위기가족 지원 지원체계 구축 시 협력관계를 다원화하여야 하며, 특히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부서와는 고위험 가족사례를 함께 서비스지원하기 위해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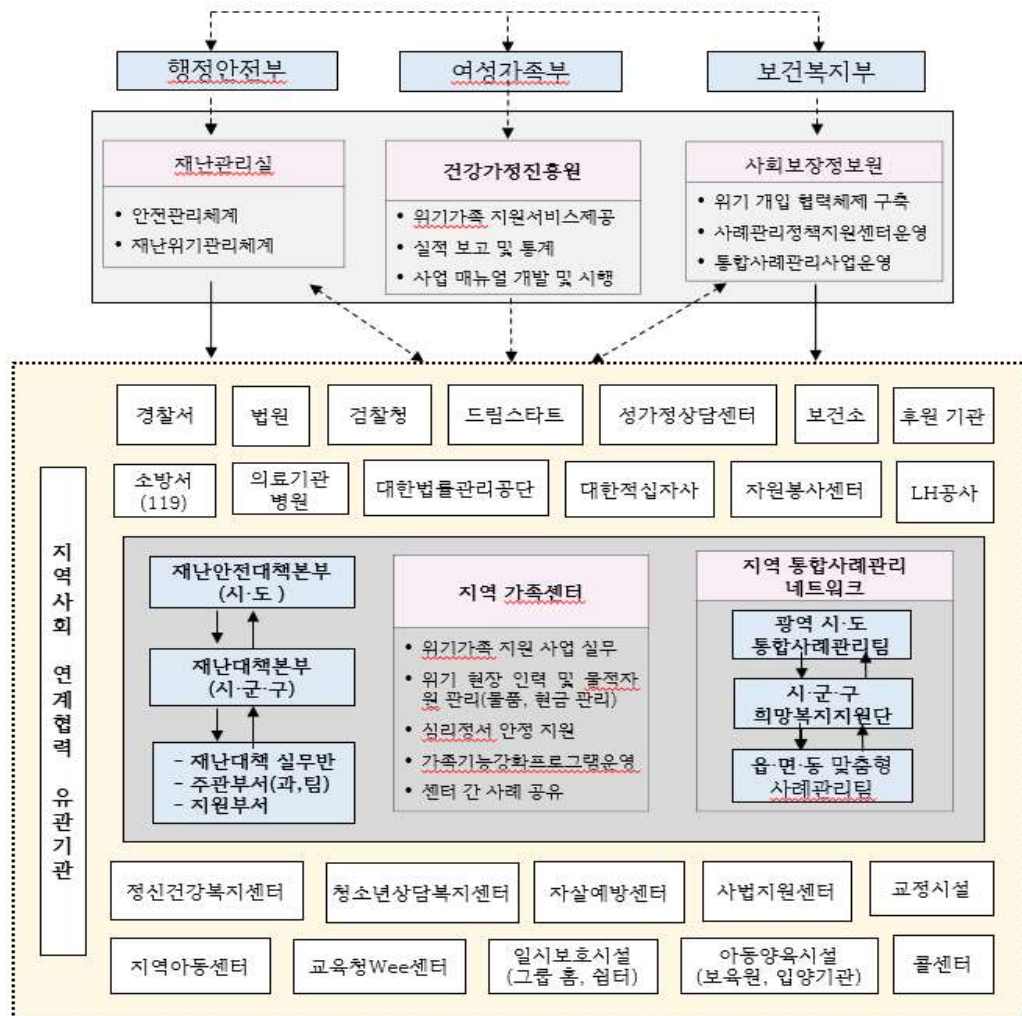
■ **현재 가족센터의 위기가족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확대 필요**

- 현재 가족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가족역량강화사업이나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등의 위기가족지원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례의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하는데 치중되어 있음
 - 취약위기가족 대상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정보공유, 서비스 지원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위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관리 : 지역사회 및 기타 공식·비공식 자원 현황을 조사하여 대상자 특성과 수요 파악 및 관리
 - 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 (예) 생계비, 의료비 등의 물적 자원 연계,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연계, 취업, 주거, 법률, 건강, 문화생활 등 정보안내 및 제공,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기관 연계
 - 지역사회 내 구축된 자원연계체계(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
 - 가족센터 및 사업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상대 기관의 특성과 자원에 대한 파악, 공동사업 참여를 통해 자원 공유 및 확보 등 진행
 - 외부기관의 자원 활용 및 연계 뿐 아니라 기관 내부의 자원 활용 및 연계를 위한 협력도 중요
 -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등 공적인 회의체 뿐 아니라 실무자 간담회나 교육 등도 참여하여 잠재적인 자원 발굴 및 동원가능성 타진
- 현재 가족센터에서 위기가족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 관공서
 - 경찰서, 소방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자살예방센터, 재난심리지원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기관 및 병원 등의 의료기관
 - 각 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장학재단, 청소년 지원 관련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취업 관련기관
- 이혼소송 관련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등
- 노무사, 변호사 등

■ 향후 가족센터의 위기가족 개입을 강화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위기에 개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민간기관 뿐 아니라 공공 행정체계와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확대해나가야 함

[그림 5-18] 위기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가족센터의 공공-민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방안



(2) 사회적 재난 체계로 가족센터 편입

■ 사회적 재난 체계로의 가족센터 편입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의 업무 협력관계 도모

-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호 전문단체로서, 행정안전부와 긴급 재난 구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가 긴급 재난구호 외에도 평소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저소득가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해외재난구호까지 참여하고 있음.
- 현재 가족역량강화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가족(한부모, 조손, 다문화, 북한이탈 가족 및 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영역(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기타 서비스 등)에서 가족센터가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가족관계 및 돌봄 등의 욕구영역 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기반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할 기관임

<표 5-9> 지역사회 내 재난 대응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가족센터와의 협력가능분야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	
재난구호사업(긴급구호)	복지사업(평시 구호)
1) 재난구호 - 구호품 지원 및 이재민대피소 설치 - 심리사회적지지 및 재난 심리회복지원 - 구호요원 양성 - 재난취약계층지원 - 레드 알람 - 혹서·혹한기물품지원	1) 위기가정 긴급지원 -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의료지원 - 교육지원 - 기타지원
2) 재난안전교육 (재난 예방,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재난구호 전문 인력 양성교육 -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 재난안전센터운영	2) 저소득가정 사회적 이슈 및 생애주기 별 맞춤형 지원 - 이혼등이 지원(산모, 미숙아) - 출산용품 지원(산모) - 위생용품 지원(여성청소년) - 모국방문 지원(다문화가정) - 가족여행 지원(저소득 가구) - 명절(설, 추석)물품 지원(“) - 겨울철 김장김치 지원 (“)
3) 교육 및 연구 - 재난복원력센터 - 안전지식교육 응급처치/수상안전 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 인도주의/국제인도법 보급	3) 결연지원(정서, 물품 지원) - 독거노인, 노부부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 아동청소년 - 범죄 피해자, 장애인 등 위기가정 - 다문화가정, 북한이주민, 난민 등 이주취약계층
<기타> - 공공의료사업 - 혈액사업 - 국제사업(국제교류, 해외재난구호/개발협력) - 인도주의활동가 양성	4) 특수복지 - 원폭피해자지원 - 사할린동포지원

- 가족센터는 생계, 주거, 의료 등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를 위한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못함
- 또한 가족센터의 서비스 제공 대상 가족은 한부모와 조손, 다문화, 북한이탈 및 위기가족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지부가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취약위기 대상 가족 외에 독거노인 가구와 노부부가구, 난민, 산모와 여성, 청소년 등 보다 다양한 대상가족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함
- 특히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기 힘든 현금(모국방문여행비지원, 가족여행지원)과 현물(김치, 명절 물품과 출산용품, 위생용품 등 지원) 지원까지 가능하여 서비스지원이 더 폭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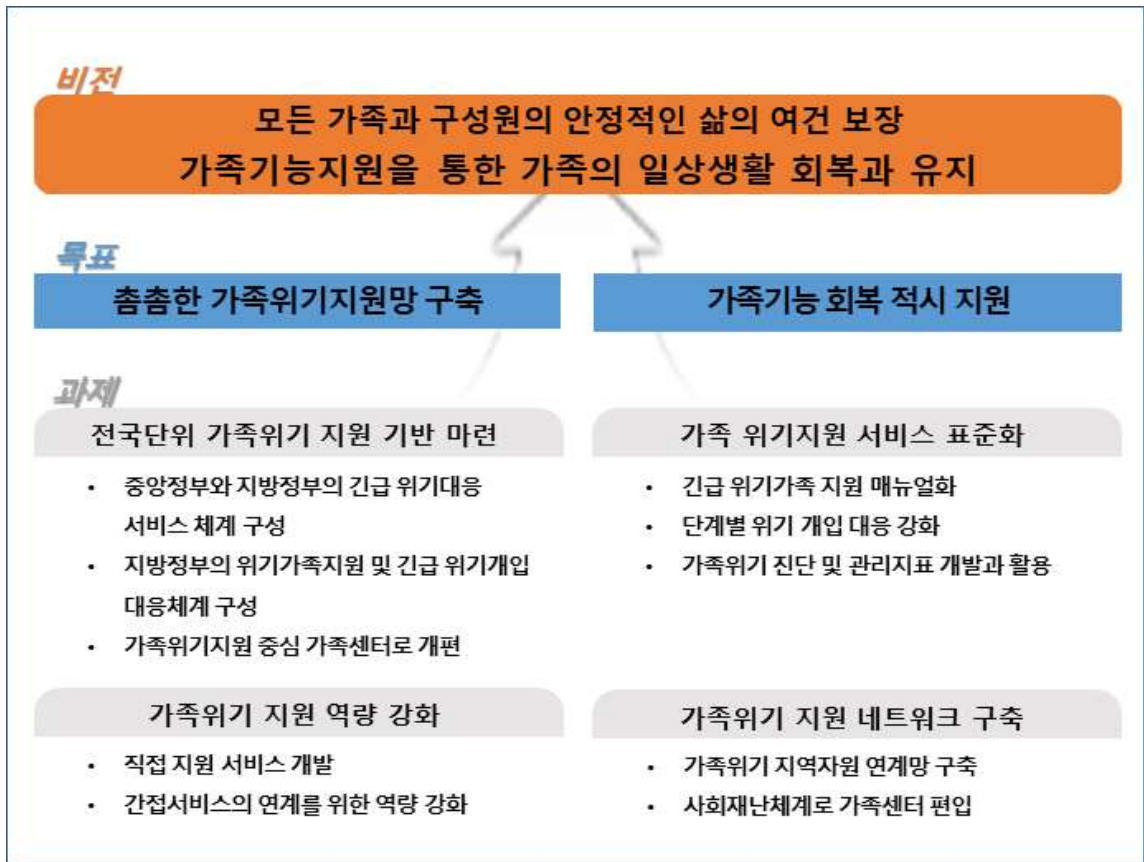
■ 지역 가족센터의 지원을 위한 중앙 위기가족 지원 대응단의 구성

- 지역사회 내 위기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의 '위기가족지원대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구조) 단장 및 사무국 조직 운영, 위기유형별 긴급정도에 따라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현장대응팀 구성 및 운영
 - (역할) 각 지역 가족센터의 위기가족 지표관리, 지역센터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가족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수행, 긴급 재난위기시 즉각적 대응을 위한 준비(인적·물적 자원 확보, 위기자원 컨설턴트 파견 등), 위기상담 콜센터 정보 축적 및 분석

1. 가족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 본 연구는 가족위기를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법에서 정의된 위기가족의 개념에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가족 구성원의 내외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족위기로 인한 가족의 고유한 기능(예를 들어 출산, 양육,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새로운 가족위기 개념과 지원 범위의 설정은, 기존의 지원 대상을 법에 정의된 위기가족에서 가족발달상의 위기, 또는 가족 내 스트레스나 가족원 개인의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또는 가족 내 구성원간의 관계나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 이로 인해 가족 내 개인 또는 가족원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불안정성이 사회 구성원의 고립과 우울, 외로움 등의 지지 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까지 확장시켰음
- 이렇게 새롭게 설정된 가족위기 개념과 지원 범위는 기존 가족위기에 대한 대응과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위기 지원체계의 구축을 요함
- 새롭게 정립된 가족위기 개념과 범위에 맞춘 정책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절차도 필요하며, 안정적 개선과 지역적 확대, 지원인력의 전문성 등 다각도의 검토와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순서에 따른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서비스전달체계인 가족센터의 위기지원에 위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전국 지역센터 간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응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그 이후 외부 지원망과의 단계적 확대와 협업 안정화가 가능함
- 새롭게 정립된 가족위기 지원은 아래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상 위기가족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형태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한 모든 가족과 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되도록 가족기능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기능 중단이나 마비에 대한 촘촘한 가족위기지원망을 갖고, 적시에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해야 함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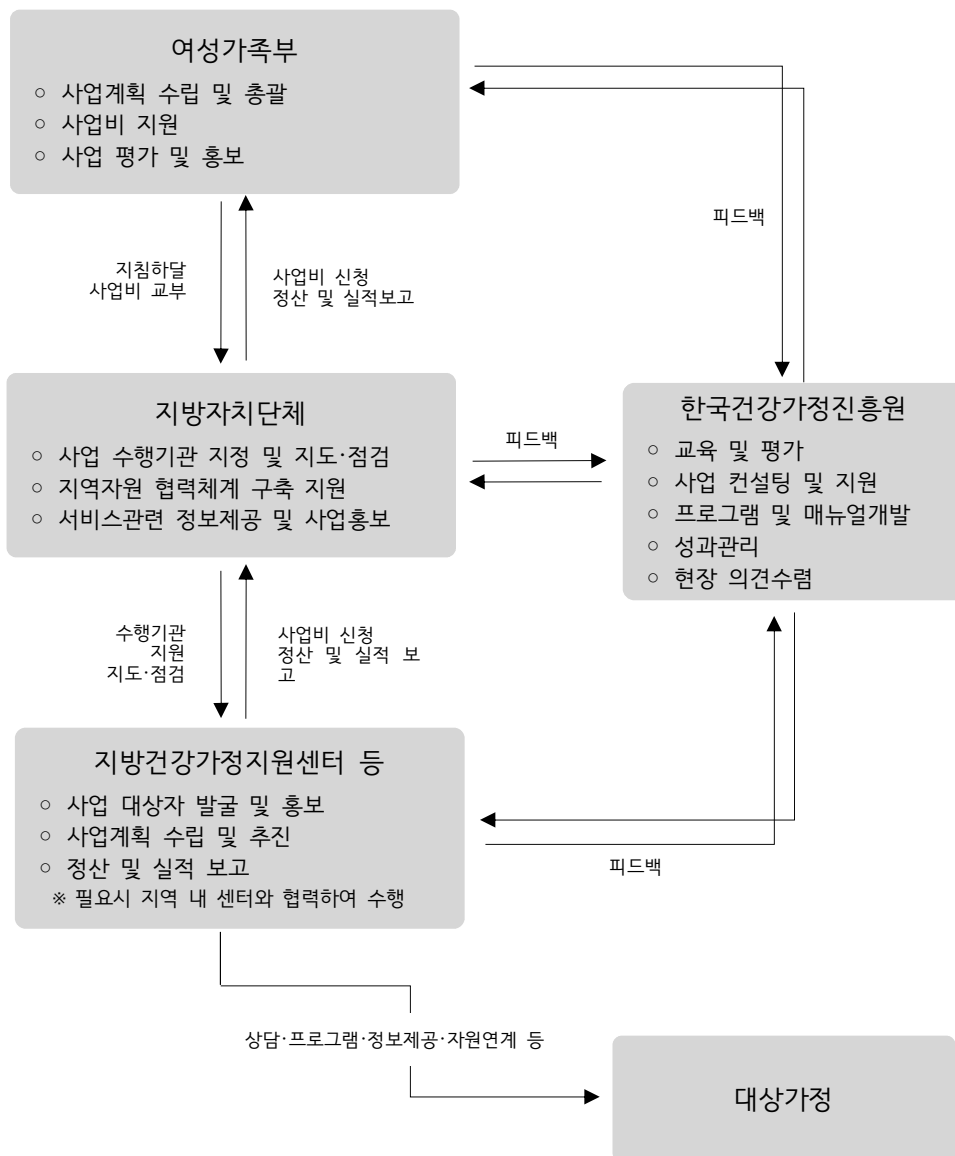


- 이러한 촉촉한 가족위기지원망을 구축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적시 지원하여 모든 가족과 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비전을 수행하는 미션을 가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해 설치된 가족서비스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기존 위기가족 지원의 대표사업인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을 취약가족(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사회적 위기사건 직면 위기가족, 이혼 신청 중인 가족 지원에 대한 매뉴얼과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사회재난발생시 지역센터와 주무부처, 지자체와 협의하여 긴급지원단을 구성하여 위기가족 지원을 해왔던 기관으로서, 가족위기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이 실행되기 위한 기본 원칙인 체계화와 차별화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가족위기 대응을 위해 가족서비스지원체계 활용과 위기가족지원 맞춤형서비스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제안함

1) 가족서비스지원체계를 활용한 가족위기 대응

- 가족위기지원 체계는 가족위기에 대해 지역단위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위기를 직접 지원하며, 사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지향함. 이를 추진함에 있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미 법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역 가족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교육 및 평가, 매뉴얼 개발 등의 기능을 이미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통한 가족위기지원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음

[그림 5-19] 가족사업 추진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 그리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서비스지원체계에 주무부처와 전국 지역센터간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어, 전국의 위기가족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이나 대상 지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또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일부 대상자에게 한해 제공되던 서비스를 대상자 확대하여 제공하게 함에 있어, 서비스 실적 및 성과관리를 해왔던 기관에서 국민체감 위기지원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있어 용이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고유 기능을 활용하여, 전국 가족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한 위기가족지원체계 추진 방향을 설정함

2) 위기가족지원 맞춤형서비스 개발을 통한 가족위기 대응

- 기존 사회적 재난,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 경제적 취약가족 외에 부처별로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으나, 가족위기는 기존에 사건 피해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공적 부조의 위기지원에서 벗어나 있던 가족기능의 중단이나 마비, 그리고 함께 영향을 받는 가족구성원의 위기까지 새로운 가족위기 지원 범위로 설정하고, 특히 기존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족위기를 겪는 위기가족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때, 기존 가족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지원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위기가족의 생활 유지와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이것은 실제, 위기가족이 체감하는 가족위기지원 정책서비스가 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취약가족에게 있어 새로운 정책지원 방안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

2. 가족위기 지원체계의 구축 전략

1) 경영전략 목표로 선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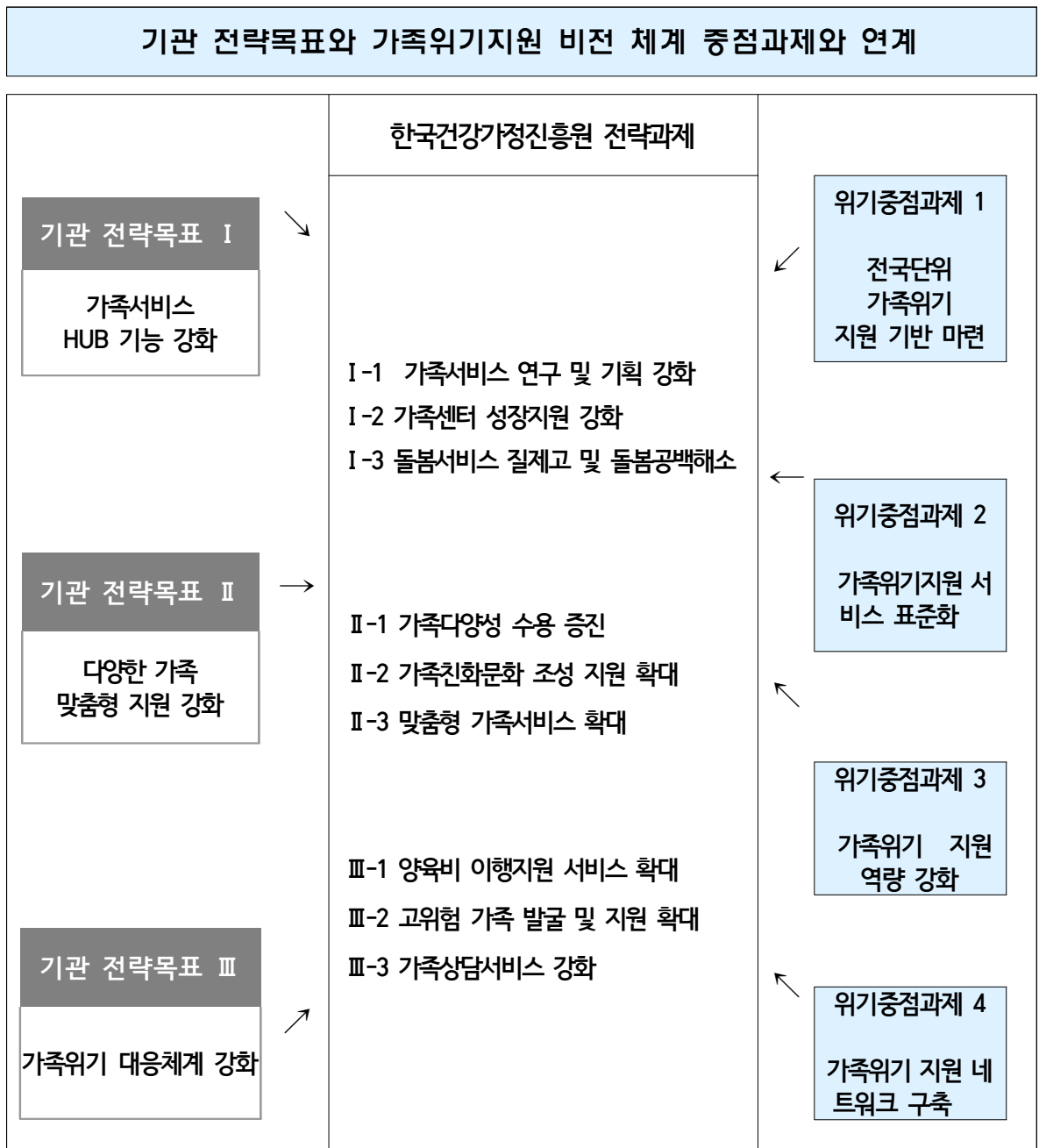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션과 경영전략목표와 일치시킬 때 실행력이 제고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3~2027년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 미션 수행을 위한 전략목표 4개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여 공표하며, 가족위기대응체계 강화가 경영전략 목표로 이미 전략적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됨

[그림 5-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영전략체계(2023~2027)

Mission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질 제고			
Vision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파트너			
핵심가치			
소통	포용	책임	지속가능
경영목표			
가족서비스 이용자수	가족다양성 수용성지수	양육비이행률	ESG경영 지수
전략 목표 I	전략 목표 II	전략 목표 III	전략 목표 IV
가족서비스 Hub 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가족위기 대응체계 강화	ESG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선도
전략과제	전략과제	전략과제	전략과제
I-1 가족서비스 연구 및 기획 강화	II-1 가족다양성 수용 증진	III-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확대	IV-1 국민 체감 경영성과 창출
I-2 가족센터 성장지원 강화	II-2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확대	III-2 고위험 가족 발굴 및 지원 확대	IV-2 국민신뢰 조직문화 강화
I-3 돌봄서비스 질제고 및 돌봄공백 해소	II-3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III-3 가족상담서비스 강화	IV-3 안전·친환경 및 상생협력 강화

자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자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략목표 4개중 1개에 가족위기 대응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가족서비스 Hub 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강화라는 목표 또한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위기가족을 채택하고, 가족서비스 Hub기능을 통해 전국 가족서비스전달체계 위기지원 개편을 한다고 할 때 전략목표 3개를 가족위기 지원체계 추진 전략과제와 연계할 수 있음



2) 실행력 높은 서비스 우선 추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갖고 있는 전국 가족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지원기능을 활용하여 가족위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법에 제시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고유기능과 사업을 통해 기관의 미션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법적 고유 기능은 아래와 같음

법에 명시된 역할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직접 수행 기능	지역센터 지원 기능
가족상담 사업	교육 상담 개발, 조사, 연구 양육비 이행	가족센터 운영지원 가족센터 종사자지원 가족센터 사업지원 가족센터 기관연계 가족센터 물품연계
가족교육 사업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아이 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양육비이행 전담기관 운영		
취약가족 역량강화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업		
가족센터 등 사업관리		
가족센터 종사자 교육 훈련		
가족서비스관련 대외협력 사업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 조사, 연구		

실행력 높은 직접 수행 사업 우선 진행, 지역센터 지원 사업 단계적 진행

- 법적 근거(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기반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중심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 중점과제 우선 추진

3) 가족센터와의 협업 추진

- 가족위기지원 중심 가족센터로 개편 추진

- 가족생애주기별 위기발생 시부터 종결 까지 지원 가능한 센터 운영안 개발
- 가족위기팀 구성을 위한 지역별 적절 인력과 예산 산정
- 인력과 예산 배정시 소득, 1인가구, 한부모가구 및 다문화가족, 인구수 등을 통한 지원 대상자 산정

■ 가족위기관리전담팀 전국 확대 배치 노력

- 가족위기관리전담팀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 가족역량강화사업팀을 가족위기관리전담팀으로 구성하는 방안
- 다문화가족사례관리팀을 가족위기관리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방안
- 가족역량강화사업과 다문화가족사례관리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검토

■ 상시와 긴급 위기 지원 체계 정비

- 가족위기관리전담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상시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 모형 마련
- 사회 재난시 가족센터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괄 역할 강화 노력

1. 실행과제 도출 과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가족위기 지원 체계 구축 전략 추진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진흥원의 SWOT분석을 통해 실행과제를 도출함

내부역량		S 강점		W 약점	
		외부환경		①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기가족지원 현장 노하우 보유	②24시간 365일 대응 가족상담 전화 시스템 및 인력 보유
SO	역량확대			WO	기회포착
O 기 회	㉔새정부 '모든가족' 대상 정책서비스 강화 ㉕가족 특성을 반영한 양육돌봄 서비스 확대 ㉖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S01) 위기가족사례관리 (S02) 가족위기상담 (S03) 가족갈등 조정		(W01) 가족위기수준 진단 (W02) 위기가족 패턴조사	
	T 위 협	㉗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 및 서비스 다양화 필요 ㉘가족의 소규모화, 생애주기 다변화에 의한 가족지지체계 약화 ㉙저출산, 고령화 인구 위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증대	ST 선택집중 (ST1) 위기가족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방안 (ST2)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WT 약점보완 (WT1) 가족외적 위기관련 외부 데이터 연계 (WT2) 고립감 및 우울감 진단과 지원

2.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체계와 실행과제 연계

■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가족기능지원을 통한 가족의 일상생활 회복과 유지
- 목표 1 : 촘촘한 가족위기지원망 구축
- 목표 2 : 가족기능 회복 적시 지원

■ 진흥원 가족위기대응체계 강화 전략과제와 SWOT 분석에서 도출된 실행과제

- 가족위기대응체계 강화 전략과제와 SWOT 분석에서 도출된 실행과제 연계 확인

가족위기대응체계강화 전략과제		SWOT에서 도출된 실행과제
Ⅲ-1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확대	↔	(ST2) 사이버가족센터를 통한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Ⅲ-2 고위험 가족 발굴 및 지원 확대	↔	(S01) 가족위기 유형별, 촘촘한 위기가족사례 관리 시범운영 (S03) 가족갈등 조정 면접교섭서비스 시범운영
Ⅲ-3 가족상담서비스 강화	↔	(ST1) 위기가족 대상 돌봄서비스 운영안 개발 (S02) 가족위기상담콜센터 운영 (WT2) 가족원의 고립감 및 우울감 진단과 지원

- 진흥원 직접 수행 실행력 높은 전략과제와 SWOT 분석에서 도출된 실행과제 연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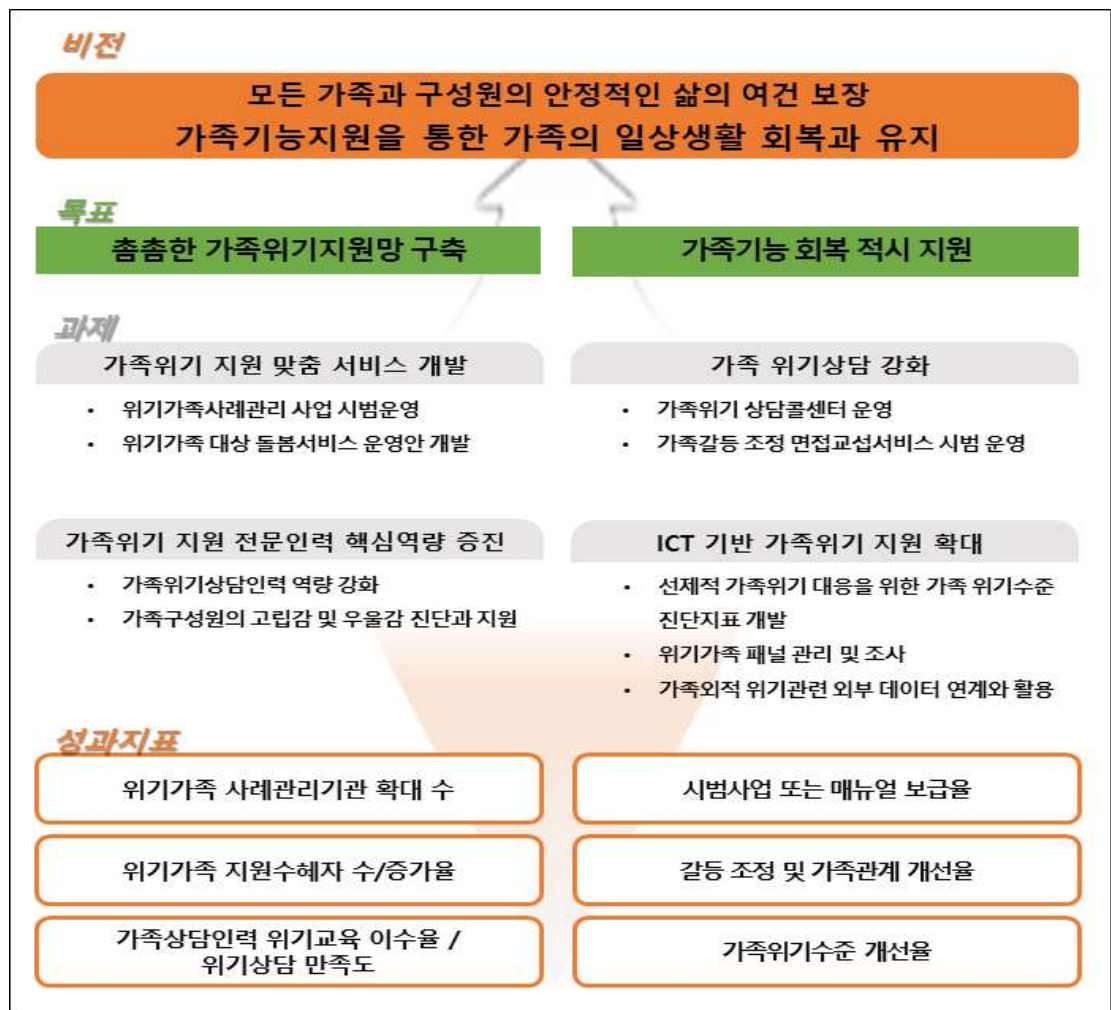
가족서비스Hub 기능 강화 전략과제		SWOT에서 도출된 실행과제
I-1 가족서비스 연구 및 기획 강화	↔	(W01) 선제적 가족위기 대응을 위한 가족 위기수준 진단지표 개발 (W02) 위기가족 패널 관리 및 조사 (WT1) 가족외적 위기관련 외부 데이터 연계와 활용
I-2 가족센터 성장지원 강화	↔	(S01) 가족위기 유형별, 촘촘한 위기가족사례관리 시범운영 (S03) 가족갈등 조정 면접교섭서비스 시범운영
I-3 돌봄서비스 질제고 및 돌봄공백해소	↔	(ST1) 위기가족 대상 돌봄서비스 운영안 개발

- 가족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센터 기반 가족위기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SWOT 분석에서 도출된 실행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
 - 가족위기 유형별, 촘촘한 위기가족사례관리 시범운영
 - 가족갈등 조정 면접교섭서비스 시범운영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위기지원체계 추진과제

- 가족위기지원 정책 비전체계의 중심과제 중 진흥원의 고유 센터지원 기능인 종사자 위기지원 역량강화과제와 앞에서 도출된 실행과제로 아래와 같이 추진체계 제안

[그림 5-21]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체계에 근거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



1) 가족위기 지원 맞춤 서비스 개발

■ 가족위기중심 가족센터 개편에 앞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개편 지원

(1) 위기가족사례관리 사업 시범 운영

■ 목표 : 전국 모든 가족센터 내 위기사례관리팀 배치

- 주요 내용
 - 가족역량강화사업 운영 가족센터에서 위기가족사례관리로 대상 시범 운영
 -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운영 가족센터에서 위기가족사례관리 지원 시범 운영
 - 가족역량강화사업과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두 개 운영 가족센터에서 위기가족사례관리로 통합 시범운영
 -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에서 위기가족사례관리 시범 운영
- 시범 운영 방법
 - 기존 사례관리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인력과 사업비 기준 예산 차등 지원
 - 사례관리 사업 신규 운영기관에는 인력과 사업비 지원
 - 지자체와 센터, 한가원간 사업 운영 협의회 구성
 - 한가원에서는 지속으로서 시범사업 운영기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 통합 및 신규 설치시 필요 예산과 인력 산정
- 시범사업 결과 활용
 - 위기가족사례관리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
 - 위기가족사례관리사업 필요예산 산출
 - 위기가족 지역 네트워크와 협업 성과 관리
 - 위기가족 패널 확보를 통해 추적 조사

(2) 위기가족 대상 돌봄서비스 운영안 개발

■ 목표 : 위기가족 돌봄공백시 돌봄서비스 이용 및 지원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가족센터 보유 아이돌보미 활용 한시적 돌봄 서비스 연계

- 가족센터 보유 배움지도사 등의 인력 활용 한시적 돌봄 서비스 연계
- 가족 센터 지역 내 유관기관 돌보미 연계
- 돌봄서비스 유료/무료 기준 마련
- 돌보미 신청과 연계를 위한 방법 마련 등

● 기대 성과

- 위기가족사례관리 시 가족센터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로 활용
- 운영안 개발 후 돌봄 및 동행 시범사업 운영 이후 가족센터로 확산

2) 가족위기상담 강화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기 상담 수행을 통해 전국 가족위기 지원시 위기상담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 상담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1) 가족위기상담콜센터 운영

- 목표 : 위기가족 상담 서비스 즉각적 대응 및 연계로 위기가족지원 핫라인

● 주요 내용

- 가족원 누구나 가족 문제 발생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 개설
- 가족위기(관계, 발달, 개인외적, 외부 위기) 관련 1차적상담 창구 핫라인 운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 가족상담전화를 가족위기 지원 전화로 통합 운영
- 위기상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위기 상담 슈퍼바이저로서 상시 지역센터 상담 지원
- 위기상담 접수 및 상담기록지 데이터 관리를 통해 추후 위기상담 통계 관리
- 전국 위기상담 관련 모니터링과 돌봄서비스 연계

현행		제안	검토과제	기대효과
진 흥 원	임신전후 콜상담	가족위기 상담센터로 통합	위기상담 역량 강화(결혼 이민자 포함) 가족위기별 지원서비스 연계와 정보제공	가족위기 24시간 대응 체계 마련
	다누리콜센터			
	한부모상담전화			
	양육비이행전화			

- 기대 성과

- 위기가족상담 편의성 제고로 대상자 발굴에 기여
- 위기가족상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추후 위기가족 통계 관리 및 선제적 위기사 활용
- 전화상담을 통해 전국 위기가족 사각지대 해소
- 지역센터의 위기가족 상시 슈퍼바이저로서 지역센터 상담 질 제고에 기여

(2) 가족갈등 조정 및 면접교섭서비스 시범 운영

■ 목표 : 관계적 위기 지원을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

- 주요 내용

- 이혼전후 부부갈등 이외 심각한 가족갈등 조정 프로그램 개발
- 이혼후 면접교섭 서비스로 한부모에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가족절연 가족까지 확대
- 위기가족지원 사례관리팀의 상시 정기적 개설 프로그램으로 이용
- 가족갈등적 관계 가족원들간의 집단 상담, 또는 면접교섭 지원
- 가족갈등적 관계를 가진 지역내 구성원들의 자조모임 집단상담 운영

- 기대 성과

- 고립, 고독에 대한 문제 증가 시기에 친밀한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 특히 가족원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위기 감소에 기대
- 가족위기 지원시 가족센터의 특화서비스로 활용
- 비대면, 기술발달에 따른 세대 격차와 소통방식 차이로 인해 관계갈등 증가 예상되므로 선제적 서비스 준비에 따른 미래 성과 기대

3) 가족위기 지원 전문인력 핵심역량 증진

- 상시 위기가족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인력 확대와 함께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1) 가족위기상담인력 역량 강화

■ 목표 : 가족센터에서 가장 강점 높은 상담 중심으로 가족위기 특화서비스 개발

- 주요 내용

- 가족위기상담인력의 위기대상자 관련 진단 및 검사 도구 교육 강화

- 가족위기 상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관리 교육 과정 개발 및 추후 자격관리 방안 연구
- 가족위기상담가로서 위기 현장에서 대처하고 내담자를 지지하며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 확대 실행

- 기대 효과

- 고립/우울등의 증가에 따른 한가원의 가족서비스 사전 대응 준비 효과 기대
- 위기상담 자격관리와 보수교육을 통한 가족위기 축적 경험 확산에 기여
- 추후 위기가족사례관리팀 확대시 가족사례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시에도 활용
- 가족위기사례관리사 전문가과정 운영과 자격관리시 선행 자료로 활용

(2) 가족구성원의 고립감 및 우울감 진단과 지원

■ 목표 : 가족관계 중심 상담에서 개인 위기 상담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홈페이지나 포털 등을 통해 검사를 하고 지역센터 서비스와 연계, 또는 위기상담 전화와 연결할 수 있도록 운영
- 가족구성원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오는 내담자 호소와 상담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고립감 및 우울감 진단에 따른 추후 가족서비스 상담 성과로 활용가능하도록 측정

- 기대효과

- 1인 특히 노인 1인 가구 증가시 고립과 우울에 따른 사회적 문제 예방에 기여
- 고독사 등의 문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역할로 가족 및 사회적 위기 감소 지원
- 가족관계의 친밀성, 가족위기 사건등과 고립감이나 우울감 점수 연관성 파악으로 사전 위기에측에 활용 기대
- 개인의 상태를 파악하여 사전에 스스로 문제 인식을 하는데 도움을 줌

■ 가족위기유형별 자가 점검표(간략)

- 아래 문항과 관련하여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지속성과 강도를 판단하여 해당사항이 없다면 0, 일상생활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라면 10으로 보고 해당하는 수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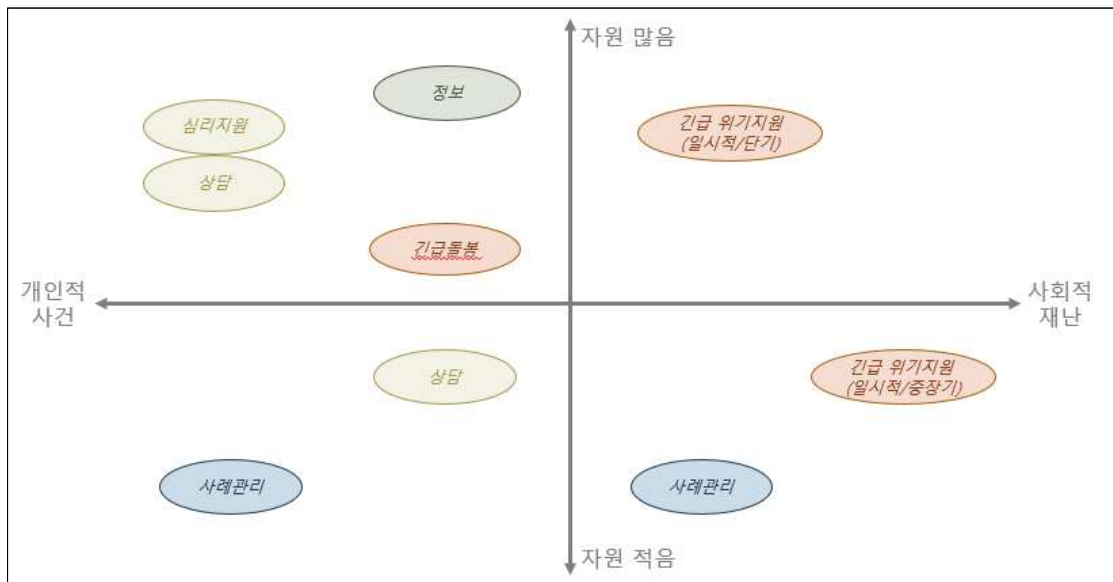
유형	문항	해당 문항으로 현재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해당번호위에 V표 하여 주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가족 위기	발달적 사건	출산(출생)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자녀의 입학/졸업	0	1	2	3	4	5	6	7	8	9	10
		자녀/본인 혼인	0	1	2	3	4	5	6	7	8	9	10
		은퇴	0	1	2	3	4	5	6	7	8	9	10
		임신	0	1	2	3	4	5	6	7	8	9	10
		노화에 의한 사망	0	1	2	3	4	5	6	7	8	9	10
	관계적 사건	가정폭력	0	1	2	3	4	5	6	7	8	9	10
		학대	0	1	2	3	4	5	6	7	8	9	10
		성폭력	0	1	2	3	4	5	6	7	8	9	10
		이혼	0	1	2	3	4	5	6	7	8	9	10
		가족 갈등/싸움	0	1	2	3	4	5	6	7	8	9	10
	개인적 문제	자살과 죽음	0	1	2	3	4	5	6	7	8	9	10
		자녀/본인/부모실 직	0	1	2	3	4	5	6	7	8	9	10
		중독	0	1	2	3	4	5	6	7	8	9	10
		질병과 장애	0	1	2	3	4	5	6	7	8	9	10
		학교폭력 등	0	1	2	3	4	5	6	7	8	9	10
		소외나 우울	0	1	2	3	4	5	6	7	8	9	10
		가출	0	1	2	3	4	5	6	7	8	9	10
		돌발적 사건	경제적 어려움	0	1	2	3	4	5	6	7	8	9
	전염병(코로나19)		0	1	2	3	4	5	6	7	8	9	10
사회재난	0		1	2	3	4	5	6	7	8	9	10	
자연재해	0		1	2	3	4	5	6	7	8	9	10	

- 위 항목과 관련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나는 스스로 해결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우리가족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 위 문제와 관련하여 가족이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 가족센터로부터 관련된 정보나 도움을 더 받고 싶으십니까?
① 예 ⇨ 주소지 근처 가족센터 소개 ② 아니오 ⇨ 관련 정보 포털 소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도 조사지와 함께 사용

■ 자원의 유무와 점수를 종합하여 서비스 연계, 가족보유 자원정도에 따라 긴급위기지원 서비스 지원

[그림 5-22] 가족 보유 자원정도에 따른 긴급위기지원 서비스



4) ICT 기반 가족위기 지원 확대

■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스템 기반 서비스 운영

(1) 선제적 가족위기 대응을 위한 가족위기수준 진단지표 개발

■ 목표 : 가족위기 수준 판별 및 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 가족위기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 가족위기 판정 지표 개발
 -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족위기 관련 영향 요인 파악
 - 가족 기능 마비를 가져오는 관계적 위기 수준 진단 지표
 - 가족 기능 마비를 가져오는 가족구조적 문제 진단 지표
 - 개발된 가족위기진단 지표를 활용한 추후 가족위기지표 공개 및 활용 방안
 - 가족위기 영향 요인들의 가중치 확인
 - 추후, 사회 변화에 따른 요인의 가중치 점검, 문항조정 필요
- 기대 효과
 - 지역별, 가구유형별, 문제 유형별 위기 수준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 근거로 활용
 - 개발된 지표는 시스템 포털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관련된 정보를 찾고 스스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활용
 - 위기가족 사례관리 서비스 개입과 종결 기준 으로 활용

(2) 위기가족 패널 관리 및 조사운영

■ 목표 : 위기가족 추적조사를 통한 위기변화 및 모니터링으로 선제적 위기 관리를 위한 변화 요인 파악

- 주요 내용
 - 패널 조사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종단 연구로 가족위기 변화 및 가족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질문지 개발
 - 패널 조사는 일반 통계 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가구를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리방법이 먼저 되어야 하므로 위기가족 패널 관리와 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 실행 필요
 - 패널조사도구 개발시 위기가족 예측 지표 등을 포함하여 추후 활용 범위까지 함께 검토 할 것

- 기대 효과
 - 위기가족 패널에서 나아가 가족패널로 확대
 - 위기 및 변화 예측을 위한 데이터 축적
 - 축적된 데이터로 매해 기관의 위기가족패널 조사 통계 발표

(3) 가족외적 위기관련 외부 데이터 연계와 활용

■ 목표 : 가족 행복과 위기 빅데이터 구축으로 가족생애관점 유의미한 지표 공개

- 주요 내용
 - 기관 내부 보유 위기 데이터(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실적, 가족위기진단 지표의 점수, 가족위기상담 실적, 위기가족 패널 조사등)에 확대에 데이터 공개와 활용 필요
 - 내부 데이터 관리와 외부 개인사건 및 사회적 재난 사건 관련 데이터 연계
 - 내부 데이터와 함께 통계청 인구,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민간기업의 혼인, 출산관련 데이터 등과 함께 유의미한 가족동태와 위기 변화 파악 가능하도록 데이터 연계
 - 특히 생애주기적 발달관점에서의 연계 데이터 확보 필요
 -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위한 사전 개인정보 보호관련 제한문제 점검
- 기대 효과
 - 가족 행복, 위기관련 통계를 한가원을 통해 쉽게 파악
 - 한가원이 가족지원 총괄기구임을 가시화 하는데 기여
 - 정부의 데이터 구축 정책 부합 및 서비스 예측 기획에 도움
 - 가족통계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 기반 마련

5) 가족위지지원 기관으로 가족센터 개편

■ 위기가족 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가족센터 개편 주도

	현행	제안	검토과제	기대효과
지역 센터	부부/부모자녀 문제 중심 상담	발달/관계/ 개인/외적 가족위기 상담확대	정서적 불안감 및 가족문제 상담 역량 강화	가족 관련 위기상담과 연계 중심

■ 위기가족 신청부터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기관

- 위기관련 검사 및 진단도구 개발
- 위기진단 및 서비스 신청 포털 운영
- 위기상담 핫라인 운영
- 포털내에서 즉각적 상담 신청 가능
- 면접교섭, 갈등조정을 위한 비대면 상담서비스 제공(가상 가족센터 운영)
- 대면 서비스를 원할 경우 지역센터로 연계 등

■ 위기가족지원대응단 구성

- 위기가족 지표 관리
- 위기가족 서비스 컨설팅
- 긴급 재난시 즉각적 대응 준비
- 기관내 위기가족지원 전담조직 구성으로 가족위기지원 총괄기구 가시화

■ 위기와 가족관련 지표 총괄 관리

- 가족관련 변화와 예측 지표 통합하여 제공
- 자체 위기 관련 지표 산출 등

제6장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가족위기를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념화 하고, 법에서 정의된 위기가족의 개념에서 부터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가족 구성원의 내외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으로 정의함
- 그러나 가족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나 취약한 자원의 성격, 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우선적 지원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즉 위기가족이나 취약가족의 경우 스스로 회복할 수 없거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취약하여 다른 위기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의 위기상황에 대해 우선적이고 선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가족위기 지원 범위는 가족위기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지원과 사후적 지원이 가능함
- 가족위기의 유형과 특성을 근거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 가족위기 지원 정책의 비전은 모든 가족과 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하고 가족기능 지원을 통해 가족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것임. 이에 촘촘한 가족위기 지원망 구축과 가족기능 회복 적시 지원이 정책목표로 제시됨
- 특히 가족위기 지원체계 추진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함
 - 가족위기 지원 맞춤 서비스 개발
 - 위기가족 사례관리 사업 시범운영으로 전국 위기가족 지원 기반 마련에 기여
 - 위기가족 대상 돌봄서비스 운영안 개발로 위기가족대상 특화된 가족서비스 제공
 - 가족위기지원 전문인력 핵심역량 증진
 - 가족위기상담인력, 사례관리 인력의 가족위기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개인 및 가족의 위기 진단 및 적절한 개입 역량 강화
 - 가족구성원의 고립감 및 우울감 진단과 지원을 통해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내 정서적 지지체계 약화에 따른 대응책 강화에 기여
 - 가족위기상담 강화
 - 가족위기상담콜 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연계 지원과 가족 위기 상담 핫라인 운영
 - 가족관계 위기에 대한 가족센터만의 특화된 서비스로 가족갈등 조정 및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개인 및 사회적 위기 예방 기능 강화

- ICT 기반 가족위기 지원 확대

- 선제적 가족위기 대응을 위한 가족 위기수준 진단지표 개발로 위기가족 지원 대상 확대에 기여
- 위기가족 패널 관리 및 조사를 통한 위기가족 변화 추적 관찰로 선제적 가족위기 대응
- 가족외적 위기관련 외부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통한 위기가족 발굴에 기여

■ 결국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음

- 첫째, 국민 체감 위기 지원을 위한 위기가족 선별 기준과 서비스가 필요함

- 기존 가족구조에 따른 위기 지원이 갖는 한계를 넘어, 이를 포함한 가족위지지원의 확대와 국민 체감을 위해서는 가족구조의 특징을 포함한, 가족기능의 취약성, 가족위기의 유형, 가족위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가족위기진단이 필요함
- 특히, 가족위기 유형별 심각성의 정도를 진단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되던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이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에게 무료 돌봄서비스가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특히 돌봄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기능 취약성 점검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선별 기준이 지역센터에서는 위기가족을 발굴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적합해야 하지만, 이 기준이나 지표로 인해, 양적으로 진단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위기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둘째, 가족센터는 가족위기에 대한 예방부터 사후관리 지원으로 특화하여 가족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함

- 가족센터는 이미 개별 가족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점에서,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전달체계와는 차별화되어 왔음.
- 따라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위기 유형과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족센터의 정체성과 특수성 반영을 위해 특히 위기가족 지원에 있어 가족상담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가족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 가족센터에서 지역별로 대상별로 제한적이었던 위기가족 대상의 확대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족위기 개념과 정책적 지원 범위를 살펴본 보고서이므로, 이 연구의 취지를 살려, 기존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가족위기의 예방 서비스로 보고, 여타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과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족센터만의 특화된 위기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램.

- 셋째, 정책환경 및 가족변화에 맞추어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실행과제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 추진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족위기 지원체계 실행과제는 향후, 보다 많은 전문가와 현장가, 이용자 및 정책입안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더욱 실행력 높은 과제가 발굴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가족의 변화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발굴된 가족위기 지원을 위한 실행과제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과제실행력 등을 매해 검토하여 본 연구결과가 계속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함

| 참고문헌 |

■ 도서,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가정관리학연구회 역, Deacon, R. E. & Firebaugh, F. M.(1991). *가족자원관리*, 한올아카데미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2020). *사회복지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매뉴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구예진(2017). 자연재해 경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이 자연 재해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은, 김리진, 김옥녀, 정수정(2021). 지역센터 중심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 김경은, 임정하, 김리진(2020).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례관리전담인력을 활용한 모니터링 효과성 중대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사업 결과보고서
- 김대구, 전희준(2021).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에서 나타난 위기관리 연구 분석. *관리회계연구*. 한국 관리회계학회. 21권 3호, 229-248
- 김성경(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론*. 도서출판 공동체
- 김승권(2010). 한국의 사회위기지표와 위기수준. *보건·복지 Issue & Focus*
- 김승권, 장경섭, 김호기(2009).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승권, 황승철, 김연우(201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영란, 배호중, 선보영, 성경, 류연규(2021). 코로나19 이후 돌봄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유경(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경제위기 이후 가족 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유경, 김미숙, 민소영, 홍선미, 강은나, 박신아(2015). 위기사례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통합상담체계 구축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유경, 김양희, 임성은(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경제위기 이후 가족 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은자, 황종석, 유승현, 박명숙(2019). 장애자녀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71집, 99-129
- 김익환, 이은경, 이응택, 김하나, 최준규(20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의 생활실태 및 심리상태에

- 따른 공동체 욕구조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주미·허미화(2019).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혜경, 도미향, 문혜숙, 박충선, 손홍숙, 오정옥, 홍달아기(2014). *가족복지론-제5판*. 도서출판 공동체
- 김혜영(2014).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 김희성, 김충식, 나용선, 박경아, 이경자(2013). *가족생활교육*. 도서출판 공동체
- 남석인(2019). 위기 이후, 가족의 존엄한 삶과 가족복지의 역할. 201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현장발표 토론
- 도미향, 주 정, 최순옥, 이무영, 송혜자, 장미나 공저(2019). *건강가정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 문숙재, 김정훙(1995) 공역. A. S. Rice & S. M. Tucker. *가족자원관리-제4판*. 서울: 동명사
- 박세경, 강혜규, 류정희, 이주연, 노충래, 이상균, 정선영, 황옥경(2014).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박정윤(2011). 위기가족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1.5). 23-34
- 박정윤(2012). 위기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4). 35-62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2021). 통합사례관리실천가이드
- 서정아, 성운숙, 송태민(2020).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서정아, 이상희(2017).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 손병덕, 황혜원, 전미애(2014). *가족복지론-2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보고서.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1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1). 위기가족 지원활동 및 프로그램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보고서 2011-가족지원-11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4). 긴급 위기가족 지원사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보고서 2014-한부모가족지원-14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4). 긴급위기 현장지원실무가이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사업보고서 2014-한부모가족지원-13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가족사례관리 매뉴얼-2015-가족사업기획-027.
- 유근춘, 홍석표, 윤문구, 김선희, 최요한(2014).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이용우, 이연실, 이준엽(2021). 위기가정의 재기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 임희규, 임혜경, 이민표, 정지영, 조미환, 고보선(1998). *변화하는 사회의 가정경영*. 도서출판 양서원

- 장경섭(2010). 가족자유주의, 위험가족, 인구 위기: 21세기 한국 사회의 딜레마. 지식의 지평 24: 기획특집.
- 장진경, 전종미, 신유경(2009). ABCX모델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7권 4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행계획(예산안 기준)
- 정순자(2005). 가족스트레스의 효과적 관리모델에 관한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훈, 박성원, 민보경, 허종호(2019). 노동이민정책, 가족정책, 외교안보정책을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 정지영(2015). 가족사례관리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보고서
- 정지영(2016).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종결가정 추후 성과관리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보고서
- 정지영, 박정윤, 고선강, 이희운(2015). 위기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101-119
- 정지영, 송정애, 임혜경, 조성은, 황희숙(2012). *건강가정론*. 서울 : 도서출판 양서원
- 정현숙, 유계숙(2008). *가족관계*.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2013). *건강가정론-제3판*.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조희금, 송혜림, 공인숙, 이승미, 이완정, 박혜인, 조재순, 김선미, 최연실 (2007). *가정생활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주경희, 맹두열, 임중철(2015). *사례관리 이해와 적용*. 서울 : 도서출판 공동체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연, 이재림, 장영은(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 진미정, 조은숙(2013). 가족관계 위기진단 척도개발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연구보고서
- 차성란, 정영금, 정지영, 윤소영, 조성은(2015). *가족정책론*. 서울 : 양서원
- 최영자(2005). 한국의 신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건강가족정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 통계청(2021). 출생통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6). 가족관계위기 실태조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아동대상사업·사례관리사업·상담이용자를 중심으로- 2020-KIHF-163.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1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한국사례관리학회 편(2016). *사례관리론*. 서울 : 도서출판 학지사
- 한국사례관리학회 편(2020). *사례관리론-개념, 기술, 실천역량 이해*. 서울 : 도서출판 학지사

황미진, 정혜정(2014).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ouble ABCX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기초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권 4호 1-22

■ 논문 및 연구보고서(해외 자료)

Pearlin, L. & C. Schooler.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pp.2-21.

Sophie Riding, Olivier Thévenon, Willem Adema, Gráinne Dirwan(2021). Looking beyond COVID-19: Strengthening family support services across the OEC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60.

■ 국내 자료(보도 자료)

아시아경제. 2022.09.21. 코로나가 남긴 생활고. 급증한 '무연고 사망' 복지 사각지대 드러났다

뉴시스. 2022. 10. 24. 오피스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수원 세모녀' 예방

경향신문 2022. 10. 02. 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이달부터 1건당 5만원 지급

■ 국내 자료(웹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LSW/main.html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ihf.or.kr

아이돌봄지원서비스 idolbom.go.kr

KOSIS국가통계포털 kosis.kr

■ 국외 자료(웹페이지, 법령)

<https://dsahelpline.org/>

<https://dx.doi.org/10.1787/86738ab2-en>

<https://www.acf.hhs.gov/ofa/map/about/help-families>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5422681>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00451869>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https://www.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

ersonnelle/l-allocation-de-soutien-familial-asf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https://solidarites-sante.gouv.fr/archives/archives-famille-enfance/dispositifs-d-aides-aux-familles/>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https://www.cnape.fr/dessine-moi-un-parent-strategie-de-soutien-a-la-parentalite/>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https://solidarites-sante.gouv.fr/archives/archives-famille-enfance/dispositifs-d-aides-aux-familles/article/les-reseaux-d-ecoute-d-appui-et-d-accompagnement>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https://www.parent-solo.fr/dossier-120-parents-solos-compagnie.html>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https://www.familles-de-france.org/fr/domaine-dexpertises/education/charte-nationale-du-soutien-la-parentalite>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forfait-100-psy-enfants-10-seances-sans-avance-de-frais>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https://www.acf.hhs.gov/ofa/map/about/help-families>

<https://www.fatherhood.gov>

<https://ec.europa.eu/social/main.jsp?langId=en&catId=1246&newsId=9277&furtherNews=yes#navItem-8> 검색일: 2022년 8월 20일.

<https://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p=1&idx=127727> 검색일: 2022년 8월 28일.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upporting-families>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246&langId=en> 검색일: 2022년 8월 28일.

<https://sosvecameroun.org/fr/programme-de-renforcement-de-la-famille> 검색일: 2022년 8월 19일.

[부록] 설문지

1.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2.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FGI 조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미래가족연구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족위기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 전문기관 (주)글로벌리서치입니다.

본 조사는 현재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편 사업 외에, 향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위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족위기란, 가족기능의 약화로 가족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위기가족, 즉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서부터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위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한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족위기는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발달적 위기 :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
- 관계적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
- 개인적 위기 :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
- 가족외적 위기 :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국가 간 전쟁이나 테러, 사회적 범위(유괴) 등

이때 가족센터는 이러한 가족위기에 처해있는 가족들에게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래가족연구소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jhm@globalri.co.kr)

센터 및 업무 관련 정보

1. 소속기관명	_____도/시 _____센터	
2. 소속팀	_____팀	
3. 센터 근무경력	_____년 _____개월	
4. 센터 외 근무경력	_____년 _____개월	
5. 직위(직급)	① 센터장 ② 사무국장 ③ 총괄팀장 ④ 팀원	
6. 성별	① 남 ② 여	
7. 연령	만 _____세	
8. 담당업무		
9. 사례관리경력	① 무 ② 유(_____년 _____개월)	
10. 보유 공인자격	① 건강가정사 ② 상담사 ③ 사회복지사 ④ 기타()	

1. 현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족위기 관련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사업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가족역량강화사업(가족사례관리)
- ② 다문화가족사례관리
- ③ 위기상담(자살, 사건 등)
- ④ 지역사회 재난, 피해 지원
- ⑤ 미혼 청소년 등 취약가족 지원
- ⑥ 지자체 요구에 따른 위기개입
- ⑦ 기타 위기가족 지원사업(구체적으로: -----)

2. 다음의 가족위기에 대해 귀하가 속한 센터에서 현재 제공하는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구분	세부 내용	서비스 종류
발달적 위기	혼인(결혼)/미혼, 동거, 사실혼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임신(불임)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출산, 입양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자녀양육 및 돌봄(영유아, 초등, 청소년)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입학과 졸업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자녀의 독립(출가, 군입대)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은퇴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배우자의 사망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관계적 위기	학대, 방임, 가정폭력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별거, 이혼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가족관계적 갈등(세대 간, 부부, 부모-자녀)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일상생활유지 문제(의식주생활 관리)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개인적 위기	실직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자살과 죽음(사망)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중독과 도박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가출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장애와 질병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소외와 우울(고립감)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1인 가구(일상생활 유지)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가족외적 위기	경제 위기(파산, 부채), 불경기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사회재난(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 등)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전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등)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전쟁, 테러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사회적 범죄(유괴, 폭행, 성범죄 등)	① 일시지원 ② 상시지원 ③ 지원 서비스 없음

3. 귀 센터는‘가족위기지원’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위기가족 지원 자원 부족과 차별화된 서비스 부재
- ② 대상자 발굴과 연계의 어려움
- ③ 위기가족 상황별 사례별 지원 매뉴얼 부재
- ④ 가족위기관리 사업수행 전문 인력의 부족
- ⑤ 가족관계 및 위기 지원 상담과 사례관리 역량 미흡
- ⑥ 대상자 발굴 및 위기 수준 진단과 파악의 어려움
- ⑦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위기가족지원협의체 참여의 어려움
- ⑧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기관으로서 낮은 인지도
- ⑨ 가족위기관련 상담과 연계 콜센터 부재
- ⑩ 긴급 위기 지원기관(쉼터, 경찰서, 병원)과의 핫라인 구성
- ⑪ 위기가족 지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

4. 향후 센터에서 가족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의 각 항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인력(사례관리자, 사업담당자등)	①	②	③	④	⑤
2 대상자 발굴과 연계	①	②	③	④	⑤
3. 위기 개입 매뉴얼	①	②	③	④	⑤
4. 시설과 공간(인프라)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후원기관 및 단체	①	②	③	④	⑤
7 위기지원 통합 콜센터	①	②	③	④	⑤
8. 위기지원 상담가	①	②	③	④	⑤

5. 위기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돌봄지원 ② 물품지원 ③ 병원비(의료) 지원 ④ 식사지원
- ⑤ 심리정서지원 ⑥ 일상생활지원 ⑦ 취업·소득지원 ⑧ 가족교육
- ⑨ 정보제공 ⑩ 지역공동체참여

6. 귀하가 속한 가족센터가 위기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지역사회에서 연계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경찰서(전담 경찰관 APO) ② 시군구, 읍면동 아동보호체계 ③ 119 응급센터, 의료기관
- ④ 쉼터 ⑤ 성가정폭력센터 ⑥ 그룹 홈
- ⑦ 드림스타트 ⑧ 지역통합 사례관리 네트워크 ⑨ 지역 (통합)위기관리지원센터(단)
- ⑩ 아동보호전문기관 ⑪ 가정위탁지원센터 ⑫ 지역아동센터(연합회)
- 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⑭ 보육원(아동양육시설) ⑮ 법원, 검찰청
- ⑯ 교육청(Wee센터, Cys-Net) ⑰ 입양기관 ⑱ 교정시설, 소년원, 준법지원센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인터뷰는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를 수행 중에, 가족센터의 센터장이나 팀장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의견을 듣고자 수행됩니다.

가족위기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가족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말하는 위기가족, 즉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서부터 생애주기상의 변화와 관련된 위기, 가족구성원의 내외적인 어려움, 갑작스러운 긴장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움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위기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족위기의 유형을 세분화해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적 위기 : 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
- 관계적 위기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
- 개인적 위기 : 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
- 가족외적 위기 : 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국가간 전쟁이나 테러, 사회적 범위(유괴) 등

이때 가족센터는 이러한 가족위기에 처해있는 가족들에게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하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가족센터의 가족위기 지원 운영 현황]

- 1) 현재 귀하가 속한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사례관리 등 위기가족지원 사업명)
- 2) 위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인원은 어떻습니까?(위기지원 인력과 예산)
- 3) 위 사업은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수행되었습니까?
- 4) 위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가족센터가 지역에서 같이 협조하거나 도움을 받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관과 교류합니까?(경찰서, 쉼터, 그룹홈, 보육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지역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 지역위기관리지원센터(단), 등)
- 5) 가족위기 대상자 발굴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6) 위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아래 1-1번부터 1-4번까지는 질문할 때 참고하십시오

1-1. [가족센터의 발달적 위기 지원 현황]

- 1) 가족의 발달적 위기(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와 관련해 귀 센터에서 제공중인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 2) 가족의 발달적 위기(출산(출생), 입학, 졸업, 혼인(결혼), 은퇴, 임신, 사망 등)와 관련해

서 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원인은 무엇입니까?

1-2. [가족센터의 가족의 관계적 위기 지원 현황]

- 1) 가족의 관계적 위기(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와 관련해서 귀 센터에서 제공중인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 2) 가족의 관계적 위기(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이혼, 가족갈등 등)와 관련해서 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원인은 무엇입니까?

1-3. [가족센터의 가족원의 개인적 위기 지원 현황]

- 1) 가족의 개인적 위기(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과 관련해서 귀 센터에서 제공중인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 2) 가족의 개인적 위기(자살과 죽음, 실직, 중독, 질병과 장애, 폭력, 소외나 우울(고립감), 가출 등)과 관련해서 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원인은 무엇입니까?

1-4. [가족센터의 가족의 외적 위기 지원 현황]

- 1) 가족의 외부적 위기(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국가간 전쟁이나 테러, 사회적 범위(유괴) 등)과 관련해서 귀 센터에서 제공중인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 2) 가족의 외부적 위기(경제위기, 불경기, 전염병(코로나19), 사회재난(화재, 환경오염, 사고), 자연재해(태풍, 홍수, 산사태, 지진), 국가간 전쟁이나 테러, 사회적 범위(유괴) 등)과 관련해서 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위에서 구분해서 제시된 4가지 가족위기 이외에]

- 1) 귀하가 속한 가족센터에서 가족위기에 대응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거나 가족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 내용을 말해주시십시오
- 2) 위의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가족위기 대응 서비스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가족센터가 위에서 말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관과 협력할 때 가족센터만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 4) 이러한 서비스를 가족센터에서 왜 아직까지 제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 5) 가족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려고 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가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예산이나 인력 추가가 필요한가요?

3. [센터에서 지원하면서 본 위기가족의 공통적 특성관련]

- 1) 가족센터에서 위기가족들을 지원하면서 가족원이나 개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나 요

인을 발견한 것이 있으신가요? (예를들어, 가족갈등이 심하다거나, 소통이 안된다, 장기 환자나 부양자가 있다, 경제적 압박이 심하다 등)

- 2) 이 요인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센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취업교육이나 지자체 연계 서비스 제공, 사전 가족이나 개별구성원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4.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의 진단지표 및 성과지표 관련]

- 1) 가족센터에서 가족위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한다고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이나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 2) 성과지표로 포함되어야 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 3) 가족센터에서 위기가족을 진단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5.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귀하가 속한 가족센터는 어디인가요?
- 2) 현재의 직급이나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 3) 현재 가족센터내 일하는 직원수(센터장 포함)는 얼마나 되나요?
- 4) 귀하는 가족센터에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다른 가족센터에서 일한 년수를 포함해서 말하셔도 됩니다.
- 5) 마지막으로, 한가원에 바라는 점이나 제안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부록 : 진단척도용 자료

1. 자기효능감 척도(한국어)
2. 가족기능 척도(한국어)
3. (위기) 위기성 진단 척도(한국어)
4. (위기)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척도
5. (위기) 우울 척도
6. (위기) 사건충격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자기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나 자신의 능력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총점으로 계산

**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 혹은 성취감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가족기능 척도(□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가족기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있어서 가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상당히 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에서는 자녀들도 가족규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진심을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 같이 화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족보다는 제3자와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역점수).	⑤	④	③	②	①
9	우리 가족은 각자의 제안을 들어주고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의견차이가 있어도 서로간의 사랑이 줄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기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2	우리 가족은 가족 규칙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힘든 편이다 (역점수).	⑤	④	③	②	①
13	우리 가족은 개개인이 무엇을 하든지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의도는 좋겠지만 서로간의 간섭이 심한 편이다 (역점수).	⑤	④	③	②	①
15	우리 가족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은 한번 결정한 사안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힘든 편이다(역점수).	⑤	④	③	②	①
1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은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역점수).	⑤	④	③	②	①
19	우리 가족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역점수).	⑤	④	③	②	①
20	우리 가족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음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역점수).	⑤	④	③	②	①
21	우리 가족은 일에 있어서 계획과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역점수)	⑤	④	③	②	①

* 총점으로 계산

**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이 기능적인 것을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 가족위기성 진단 : 가족 유형에 따라 척도를 선택함
 -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부모만 진단) → 척도 (1)
 -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부모만 진단) → 척도 (2)
 - 부부가족(자녀가 없음) → 척도 (3)
- 개인 위기성 진단 : 개인 위기성 진단 척도(부모, 자녀 진단)
- 가족위기성과 개인 위기성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가족위기성 진단척도(1) (□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 가족위기성 진단 척도 (1)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다음은 앞의 생활사건을 경험한 이후 귀하 가족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부 간 대화가 없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2	별거를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와의 갈등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와의 대화가 없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학교(일터)에 가기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족끼리 서로에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 간에 폭력을 써서 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0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 보다 더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1	친척들과의 갈등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생활비,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13	제 때 하지 못하는 집안 일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4	빛이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15	생업(직장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6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만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9	전에는 잘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가족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 척도 적용 : 총점이 75점 이상이면 우선 지원 대상의 위기가족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가족위기성 진단척도(2) (□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가족위기성 진단 척도 (2) (한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다음은 앞의 생활사건을 경험한 이후 귀하 가족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의 갈등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와의 대화가 없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학교(일터)에 가기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끼리 서로에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간에 폭력을 써서 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 보다 더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8	친척들과의 갈등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생활비,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제 때 하지 못하는 집안 일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빛이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12	생업(직장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만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6	전에는 잘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 척도 적용 : 총점이 64점 이상이면 우선 지원 대상의 위기가족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가족위기성 진단척도(3) (□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가족위기성 진단 척도(3) (부부가족)

다음은 앞의 생활사건을 경험한 이후 귀하 가족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부 간 대화가 없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2	별거를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끼리 서로에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 간에 폭력을 써서 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 보다 더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친척들과의 갈등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8	생활비,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제 때 하지 못하는 집안 일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빛이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11	생업(직장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만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5	전에는 잘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 척도 적용 :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우선 지원 대상의 위기가족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개인 위기성 진단척도(□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다음은 지난 한 달(1개월) 동안 귀하가 생활하면서 겪고 느꼈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상당히 자주 있었다
1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혼란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2	생활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신경질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개인적인 일들을 잘 처리했다.	⑤	④	③	②	①
5*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간다고 느꼈다.	⑤	④	③	②	①
6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7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간다고 느꼈다.	⑤	④	③	②	①
9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⑤
10	스스로 극복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들로 어려움을 겪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방법으로 죽을가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5	나 자신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 역코딩 문항

※ 척도 적용 : 위 개인 위기 척도 중 60점 이상이면 가족위기성 진단 척도 점수가 기준 미만이라도 우선 지원 대상 위기가족으로 고려해야 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위기)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

PDS(Posttraumatic Stress Diagnosis Scale)

외상후스트레스 진단 척도(□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아래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나타난 것에 ✓ 표시하십시오.

	내 용	전혀 없음	1주일 1번	1주일 2~4번	1주일 5번 이상
1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불쑥 생각나거나 머릿속에 그려진다.	0	1	2	3
2	그 일과 관련된 악몽을 꾸다.	0	1	2	3
3	그 일이 마치 재현되듯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때 당시 처럼 행동하게 된다.	0	1	2	3
4	그 일을 떠올리면 괴로운 감정이 든다(예: 두렵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슬프다, 죄책감이 느껴진다 등).	0	1	2	3
5	그 일을 떠올리면 신체적 반응이 느껴진다 (진땀이 난다, 심장이 뛰다 등).	0	1	2	3
6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시의 느낌조차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0	1	2	3
7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활동이나 사람들, 장소들을 가급적 피하려 한다.	0	1	2	3
8	그 일과 관련된 중요한 기억의 한 부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0	1	2	3
9	지금 내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거나 의욕이 낮아졌다.	0	1	2	3

내 용		전혀 없음	1주일 1번	1주일 2~4번	1주일 5번 이상
10	주위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단절된 느낌이다.	0	1	2	3
11	정서가 메마른 것처럼 무감각하다 (예 : 눈물이 나지 않는다, 애정어린 기분을 느낄 수 없다 등).	0	1	2	3
12	내 미래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희망이 없이 느껴진다 (예 : 제대로 된 직장이나 가족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등).	0	1	2	3
13	잠이 잘 오지 않고 자더라도 자주 깬다.	0	1	2	3
14	짜증이 잘 나고 신경질을 종종 부린다.	0	1	2	3
15	집중하기 어렵다 (예 : 대화중에 다른 생각을 한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줄거리를 놓친다,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등).	0	1	2	3
16	지나친 긴장 상태에 있다(예 :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자꾸 확인한다. 문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으면 불안하다 등).	0	1	2	3
17	작은 일에도 쉽게 놀란다 (예 : 누가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느낄 때 등).	0	1	2	3

17문항에 대한 총점으로 계산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51점

* 10점 이하 : 외상후 증상 약함

11점~20점 : 외상후 증상 보통

21점 이상 : 외상후 증상 심각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위기) 우울 척도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우울 척도(□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다음의 각 문항은 모두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당신의 기분과 상태를 떠올려 보시고 가장 비슷한 상태 하나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1. ()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써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 (0) 나는 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어쩌면 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별을 받을 것 같다.
(3) 나는 지금 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8. ()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 (1)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3)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스럽다.
(4)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 (0)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 (1)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이 보일까 봐 걱정한다.
(3) 나는 내 모습이 매력없게 변해 버렸다고 느낀다.
(4)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는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 (1)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2)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3)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4)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 (0)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1) 전보다 몸무게가 2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2) 전보다 몸무게가 5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7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20. ()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2)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 (0)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Beck에 의해 개발된 우울 척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척도 총점으로 계산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

- 0점 ~ 9점 : 우울하지 않은 상태
- 10점~15점 : 가벼운 우울 상태
- 16점~23점 : 중한 우울 상태
- 24점~63점 : 심한 우울 상태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위기) 사건 충격 척도

IES-R(Impact of Event Scale-Revised)

사건충격 척도(□사전, □사후)

성 명		등록번호	
-----	--	------	--

아래의 문항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경험한 후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일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각각 문항에 표시하십시오.

내 용		전혀 없다 0	약간 있다 1	상당히 있다 2	많이 있다 3	매우 많이 있다 4
1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그 사건에 대한 감정 (느낌)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					
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5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다.					
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7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8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멀리하며 지냈다.					
9	그 사건의 영상이 나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내 용		전혀 없다 0	약간 있다 1	상당히 있다 2	많이 있다 3	매우 많이 있다 4
10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11	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12	나는 그 사건에 관하여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13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14	나는 마치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15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16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 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17	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18	나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9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땀, 호흡곤란, 오심,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20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꾸 적이 있었다.					
21	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느꼈다.					
22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외상 사건의 노출에 따른 주관적인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 총점으로 계산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88점

* 22점 이상일 경우, 외상 치료 전문가에게 연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가족위기 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 김금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21, 24층

전화 | 02-3479-7600

팩스 | 02-3479-7798

홈페이지 | www.kihf.or.kr

기획·편집 | 사업기획부

수행기관 | 미래가족연구소

인쇄처 | 아람인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